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박사학위 논문

白坡 申獻求의 茶生活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윤 해 숙

白坡 申獻求의 茶生活 研究

A Study on the Tea Life of Baekpa Shin Heon Goo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윤 해 숙

白坡 申獻求의 茶生活 研究

지도교수 김 하 립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윤 해 숙

윤해숙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황 병 하(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성 한(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한 종 완(인)</u>
위 원	목포대학교	교수	<u>조 기 정(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 하 립(인)</u>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선행연구와 연구내용	3
II. 백파의 생애와 저술활동	7
1. 시대적 배경과 생애	7
1) 시대적 배경	7
2) 생애	10
2. 백파의 저술활동	29
1) 『추당잡고』: 해남생활(1875-1880)의 활동과 기록	29
2) 기행 시집: 『백파만고』	46
III. 백파 차생활의 특징	58
1. 『추당잡고』에 나타난 차와 문학의 결합 양상	59
2. 『양파집』에 나타난 음다와 차도구의 전문지식	69
IV. 백파의 차생활이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	84

1. 사대부 계층과의 교유 확대	85
2. 승려와의 상호교유 확대	105
3. 대문사 차문화의 새로운 정립과 발전	134
4. 초의차의 새로운 위상 정립	144
V. 결론	156
참고문헌	160

표·그림 목차

<표1> 진강과목(進講科目, 『효경』·『통감』·『소학』·『맹자』·『강목』) 일람	14
<표2> 백파의 고회 시에 차운한 후손들의 시	22
<표3> 『秋堂襍稿』 卷一 「南征錄」 上의 시제	32
<표4> 『秋堂襍稿』 卷二 「南征錄」 下의 시제	34
<표5> 「西征錄」 시제	49
<표6> 「東征錄」 시제	50
<표7> 「成都錄」 시제	52
<표8> 「龍灣錄」 시제	54
<표9> 「金華錄」 시제	55
<표10> 『백파만고』와 『추당잡고』의 특징을 비교	57
<표11> 『추당잡고』에 나타난 백파의 茶詩	59
<표12> 『兩坡集』 시제	70
<표13> 『兩坡集』에 나타난 茶詩	74
<표14> 차시 속에 나타난 차 관련시어	78
<표15> 『추당잡고』에서 본 사대부와의 교유시	86
<표16> 『양파집』에서 본 사대부와의 교유시	100
<표17> 백파와 승려와의 교유	107
<표18> 『추당잡고』와 『栢悅錄』의 十絶	142
<표19> 초의차의 이칭(異稱)	146
<표20> 『추당잡고』의 「화훼잡시(花卉雜詩)」 20수	149
<표21> 『동다송』 판본에 따른 ‘백파의 체시유무’ 비교	154
<그림1> 신선생 백파소요대(申先生白坡消遙臺)	19
<그림2> 백파공묘 이장 시 출토된 지석(誌石)	19

ABSTRACT

A Study on the Tea Life of Baekpa Shin Heon Goo

Yun Hea Soog

Advisor : Prof. Kim Ha Lim,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ea Cul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hile the tea culture of the mid-Joseon dynasty diminished due to its policy of “Promote Confucianism and Reject Buddhism(崇儒抑佛)”, the tea cul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revitalized mainly by scholar-officials in the 18-19th century. This means that the scholar-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revitalization of tea culture. The tea culture of scholar-officials gradually entered into everyday life and spread to the general public. They developed the tea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into various forms by combining the tea culture of Buddhism with Confucianism and spread the dailiness and popularity-centered tea life, which led to tea culture revitalization of the late-Joseon dynasty. Through a variety of social, cultural, and human activities and exchanges, they developed a new lifestyle, drinking tea(飲茶) culture, with which they expanded social communication, formed cultural consensus and built a human network. It means that not only scholar-officials strengthened the social, cultural and human role and func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tea culture of the late-Joseon Dynasty, but also tea was the main vehicle for cultural activities and social exchanges.

Baekpa SHIN Heon-gu(白坡 申獻求, 1823~1902) was a scholar-official with

a profound knowledge of three teachings (三教)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fact is often found in his collection of works, 『Chudangjapgo(秋堂禱稿)』. When he learned Buddhism by interacting with Buddhist monks of Daedunsa Temple, he encountered teas and left his 13 works for the monks. In addition, he wrote several works wandering around Buddhist hermitages. Among his tea poems in 『Chudangjapgo』, 「Chaseol(茶說)」 and 「Hyangcha(香茶)」 are considered important materials for the history of tea culture, which means that he was a tea person and left remarkable achievements for the history of tea culture. Nevertheless, it seems true that his accomplishments and status in the tea culture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have not been properly appreciated so far. For this reason, many academic studies on 『Chudangjapgo』 have not been conducted.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objectively evaluate his academic achieveme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his social and cultural achievements and status accomplished through teas. Therefore, this paper is to study his academic achievements as well as his tea life and cultural perspective on teas, based on which his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tea cul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ill be examined.

Chapter II will review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and his life through his memorial stone and 「Goheesichuk(古稀詩軸)」. By analyzing 『Chudangjapgo』 and 『Backpamango(白坡漫稿)』, his journey to Haenam and his life in Haenam, as well as landscapes he travelled through as a secret royal inspector and the overall point of view in his works will be explored.

In chapter III, 『Chudangjapgo』 and 『Yangpajip(兩坡集)』 will be introduced in detail to understand his tea life and the tea culture of the time. By exploring his tea life in his two books and his life as a tea person, the tea culture of the time will be examined.

Since the influence of his tea life on the late Joseon Dynasty is the core part of this paper, it will be mainly dealt with in chapter IV. For this, his literary background, ability and tea life as well as his personal network will be examined by reviewing his poems, through which he interacted with scholar-officials and monks.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his tea life and poems on the establishment,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Daedunsa Temple's tea culture will be reviewed. Finally, the influences on the tea culture of Daedunsa Temple, the status of Choeui(艸衣) tea and the tea cul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ill be examined by reviewing Baekpa's 「Hyangcha」 and his view on Choeui's 『Dongdasong(東茶頌)』.

In order to review the Baekpa's tea life,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interaction between Baekpa and Choeui. Baekpa described Choeui as a discerning monk who make good tea. He highly appreciated Choeui's tea life and regretted that Choeui's books were not systematically compiled as Lu Yu's 『The Classic of Tea(茶經)』. In 『Dongdasong』, he tried to introduce the excellence of Daedunsa Temple's tea cul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raise the reputation. It means that Baekpa and Choeui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overcoming the religious and ideological differences between Buddhism and Confucianism.

This paper is to attempt the concrete and systematic analysis on 『Chudangjapgo』 while reviewing the influence of Baekpa's tea life on the development of tea lif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might be the first attempt in the history of Korean tea culture. The reason why this paper is to analyze 『Chudangjapgo』 concretely and systematically despite these difficulties is to present a new direction in the academic study of Korean tea culture with distinctiveness from previous papers.

Keywords: Baekpa SHIN Heon-gu, 『Chudangjapgo』, 『Backpamango』, 『Yangpajip』, Choeui, Daedunsa Temple, 「Hyangcha」, scholar-officials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불교의 전파와 함께 시작되어 유교의 확산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신라 시대에 시작하여 고려 시대에 꽃을 피웠으며 조선 시대에 대중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 시대에는 왕실과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차문화가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런 분위기는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 송유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시대의 음다 풍속이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사신 맞이 접견다례나 주다례가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¹⁾

조선 중기의 차(茶)²⁾문화는 송유억불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위축되었지만, 조선 후기의 차문화는 18~19세기에 이르러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는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이 차문화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이다. 사대부들의 차문화는 점차 일상생활 속으로 유입되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되었다.³⁾ 이들은 불교의 차문화를 유교와 융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조선의 차문화로 발전시켰으며, 일상성과 대중성에 기초한 차생활을 확산시키며 조선 후기 차문화 중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활동과 교류를 통해 음다(飲茶)라는 새로운 대중적 생활양식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소통 확대와 문화적 공감대 형성과 인간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이는 조선 후기 차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사대부들이 사회적·문화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차가 문화적 활동과 사회적 교류에서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세기 후반 조선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중심에는 사대부들이 있었고, 그 이념적 기반에는 청조의 고증학을 수용한 북학(北學)이 있었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를 비롯한 당대 사대부 신지식인들은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수용했으며, 노쇠하고 나태한 조선의 사회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⁴⁾ 이들은 실사구시

1) 신미경, 「조선시대 차문화」,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10호, 2012, p. 7.

2) 자전(字典)에서는 茶를 다로 독음하나, 오늘날에는 차 또는 다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본고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한다.

3) 韓基貞, 「18, 19 조선지식인의 차문화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p. 1.

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사상 운동을 구현하였고, 학문과 종교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조선 후기의 경제·정치·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에는 실용주의 사상의 확산과 함께 지역적·계급적 차별이 완화되었고, 개방과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정통 주자학 위주의 폐쇄적 풍토에서 탈피하여 북학과 서학 등 다양한 이념과 전통도 수용하는 자유로운 학문 풍토가 형성되었다.⁵⁾

한편 조선 건국 이후 승유억불 정책의 영향으로 차문화가 쇠퇴하면서 제다법도 쇠퇴하였다. 하지만 차문화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제다법은 사찰을 중심으로 여전히 그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대둔사로 전파된 선차(禪茶) 제다법은 초의의순(草衣意恂, 1786~1866)의 떡차와 산차 만드는 법으로 전승되었다. 조선 시대의 역사적·종교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19세기 대둔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불교 부흥운동과 차문화 중흥운동은 조선 후기 차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불교와 차문화는 공동운명체였으며, 흥망성쇠를 같이 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대둔사의 불교문화와 차문화도 이런 상관관계에서 예외가 아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대둔사가 새로운 불교적 위상을 갖게 된 계기는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의발(衣鉢)이 대둔사에 전래된 것을 매개로 한 ‘서산유의(西山遺意)’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18세기 말 정조로부터 표충사 편액을 받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또한 대둔사는 13대 종사 및 13대 강사를 배출함으로써 불교 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서산 이래 제시된 사교입선(捨敎入禪)적 조사선의 풍조는 많은 선승들로 하여금 다양한 음다 문화를 낳게 하였다.

초의의 활약과 그 뒤를 이은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의 차생활은 대둔사 차문화 및 조선 후기 차문화 중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등장과 그와 추사 등 조선의 대표적인 사대부 엘리트들의 교유는 조선 후기 차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유불도(儒·佛·道) 사상의 교유 속에 긴밀한 지기(知己)가 되었으며, 불교의 선승들이 만든 차는 이들의 교유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차는 경화사족들의 애호품이 되었다.

백파 신헌구(白坡 申獻求, 1823~1902)⁶⁾는 유불도 삼교(三敎)에 조예가 깊은 사대부 출신이었다. 이런 사실은 백파의 문집인 『추당잡고(秋堂襟稿)』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4) 이세영, 「19세기 전기 사회경제의 변동」,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pp. 61-63.

5) 이희재, 조윤희, 「19세기 대둔사 학승들의 유교경전 이해」, 『범한철학』 28집, 2003, pp. 369-370.

6) 본고에서 원문을 제외 하고는 백파로 통일하여 약칭한다.

있다. 그는 대둔사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불교를 터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를 다양하게 접하게 되었고, 대둔사 승려들을 위해 13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대둔사의 여러 암자를 돌아다니며 여러 편의 글을 썼고, 대둔사 내의 사당인 표충사에 「제서산대사영각 표충사금철(題西山大師影閣表忠祠今撤)」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백과가 『추당잡고』에 남긴 차시(茶詩) 중 「차설(茶說)」과 「향차(香茶)」는 차문화사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그가 차인이었으며, 차문화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선 후기 차문화사에서 그의 업적과 지위는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 그의 『추당잡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백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려는 본 논문의 목적은 그가 조선 후기에 이룩한 학문적 성과와 차를 통해 이룩한 사회적·문화적 업적과 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의 학문적 성과와 차생활과 차문화관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차문화 형성에 끼친 사회적·문화적·종교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백과의 차생활과 차문화관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생애, 저술 활동, 차생활, 차문화에 끼친 영향 등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백과의 문집인 『추당잡고』와 『백과만고』를 통해 그의 생애와 저술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백과의 『추당잡고』와 『양과집』을 통해 그의 차생활과 차문화관, 차와 문학의 결합 양상, 그리고 그의 음다와 차도구의 전문지식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백과의 차생활이 승려와 사대부와의 교유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백과의 차생활이 대둔사 차문화 발전과 승려들과의 교유 확대, 그리고 초의차 위상 정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내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백과에 관한 학문 연구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논문들 중 일부는 그의 저술들 중 일부 및 그 저술에 담겨 있는 시문학적 특징을 고찰하거나 그가 승려와 사대부와 맺었던 교유 관계에 대해 기술했지만, 그의

생애, 저술활동, 차생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백파가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차문화를 이끈 중요한 차인이었던 백파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한 편이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백파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단행본과 학술논문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백파와 관련된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발간한 「고서해제(古書解題)」는 『추당잡고』의 구성과 내용 등을 다루었고, 『추당잡고』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석해 놓았다.⁷⁾

정민(2011)의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는 『추당잡고』를 통해 백파의 「차설」과 초의차를 소개했다.⁸⁾

고령 신씨 귀래정 안협공 도사공과 종중회(이후 종중회로 약칭한다)에서 발간한 『영천세승(靈川世乘)』은 백파가 말년(末年)에 친필로 편저한 자료를 세대별로 원문, 한글 번역문, 비석 탁본문 순으로 편집하였다. 시조묘 묘표음기문(墓表陰記文)과 5세 순은(휘 德隣)공 부인정씨(夫人鄭氏) 묘표문(墓表文) 그리고 12세(世) 여옥(汝沃)·여관(汝灌)공 묘갈명(墓碣銘), 15세 운(漚)공과 16세 선연(善淵)공 행장, 20세 이록(灑祿)공과 23세 병휴(炳休)공의 행력을 추록하였고, 후미에 부록으로 백파공 연보와 한·중·일 연대 비교표를 수록하였다.⁹⁾

종중회에서 발간한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백파 신현구 선생의 행적』에는 백파 연보와 482건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¹⁰⁾ 또 『백파만고(白坡漫稿)』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파가 쓴 1868년부터 1872년까지의 시문을 모아 총 297수를 수록하고 있다.¹¹⁾ 『유묵집(遺墨集)』에는 제문을 비롯하여 교유인물들과 주고받은 시문과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다.¹²⁾

단행본에 백파의 차생활이나 차문화에 끼친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 현상은 학술 논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학술 논문 중에는 백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대부들의 연구를 선행연구의 대상으로

7) 김영봉, 『古書解題』, II. 「秋堂稊稿」, 평민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2004.

8) 정민(a),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9) 고령신씨 귀래정 안협공과 도사공과종중회, 『靈川世乘』, 2013.

10) 고령신씨 안협공과 종중회,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백파 신현구 선생의 행적』, 2013.

11) 신현구, 『백파만고』, (주)인쇄향, 2014.

12) 신현구, 『유묵집』, (주)인쇄향, 2016.

삼았다.

김상일(2002)의 「조선 중기 사대부의 승려와의 교유사 연구」는 조선 시대 사대부 문학을 연구하고 사대부 문학의 다양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선 중기 사대부와 승려 간의 교유 문화 현상과 그 교유의 중심적 수단이었던 한시 문학을 검증하였다.¹³⁾

김효정(2011)의 「조선 후기의 차문화 연구-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는 조선 후기 차인들의 유불선을 아우르는 차생활과 교유 관계를 언급한 조선의 차문화가 제다와 음다를 종합적으로 완성하여 정신 수양 체계로 손색이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정립한 과정을 설명했다.¹⁴⁾

박해당(2012)의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승려문집의 서문을 중심으로」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정치·경제·사회적 관점에서만 불교를 폄하하고 배척했던 것이 아니라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교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상이나 전통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모든 인간을 유교적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적인 유교 절대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¹⁵⁾

한기정(2013)의 「18~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차문화관 연구」는 18~19세기 조선의 차문화가 중흥할 수 있었던 기반과 차문화 향유의 중심 세력인 지식인층의 다시를 통해 조선 후기 차문화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다.¹⁶⁾

이정옥(2013)의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서 본 차문화」는 조선 시대 차문화를 유학자의 문집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유학자들이 접한 차의 종류와 다구의 쓰임, 그리고 행다(行茶)와 음다를 통해 실제의 차생활을 분석해 놓았으며,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의 정신과 차를 통한 교유의 내용과 대상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 차문화를 고찰하였다.¹⁷⁾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장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하며, 백파의 문집인 『추당잡고』와 『백파만고』의 분석을 통해 그가 해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건과 그가 해남에서 생활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암행어사로 활동했던 기간 동안 기행 했던 곳의 자연풍광 내용, 그리고 그의 저술에 담겨 있는 사상 전반 등을 조명하

13) 김상일, 「조선 중기 사대부와 승려와의 교유사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39집, 2002.

14) 김효정, 「조선후기의 차문화연구-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차문화·산업학』 제18집, 2011.

15) 박해당,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승려문집의 서문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28집, 2012.

16) 韓基貞, 「18-19세기 조선지식인의 차문화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 이정옥,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서 본 차문화」,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고자 한다.

Ⅲ장은 그의 차생활 뿐만 아니라 당시 차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문집인 『추당잡고』와 『양파집』을 자세히 소개하고, 두 저술에 담겨 있는 그의 차생활을 살펴보며, 차인으로서 그의 삶과 차생활, 『추당잡고』에 나타난 차와 문학의 결합 양상, 『양파집』에 나타난 음다와 차도구의 전문지식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Ⅳ장은 그가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가 사대부 및 승려들과 교유한 시를 통해 그의 문학적 배경, 차생활 등을 고찰하고자 하며, 그가 교유한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둔사의 차문화 발전에 그의 차생활 및 사대부들과의 교유시가 끼친 영향과 대둔사의 차문화 정립 및 계승에 끼친 영향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백파가 『동다송(東茶頌)』에 기술한 「향차(香茶)」의 내용을 통해 대둔사의 차문화, 초의차의 위상, 그리고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백파의 생애와 저술활동

1. 시대적 배경과 생애

1) 시대적 배경

조선 후기는 임·병 양란 후 지배층의 무능력이 드러났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던 시기였다. 이런 이유로 양란 이후 실학적 사고를 지닌 선비들이 주축이 되어 민중 자존의식이 표출되었던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 사회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지식층들은 조선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에 대해 각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으며, 농업기술과 상공업 등 실용 분야의 발전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시민 계층은 폐쇄적인 조선 사회의 구조에 대한 개혁과 변혁의 목소리를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고 있었다.¹⁸⁾

조선의 봉건사회는 17~18세에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세기에는 세도정권의 정치적 부패와 봉건착취가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삼정(三政)의 문란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모순은 더욱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민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어 봉건왕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는 조선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급증하였다. 조선 시대 양반에게는 군포를 면제시켜 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양반의 수가 약 4%에 지나지 않아 세금을 면제를 시켜주어도 조선 사회가 별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후기에는 양반의 수가 급증하여 세금을 면제받는 숫자가 늘어나자 농민이나 천민 계층이 국가의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과 하층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국가의 재정도 양반수의 증가로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호포제는 호(戶)를 단위로 면포(綿布)나 저포(苧布)를 징수하던 세제(稅制)로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았고, 농민이나 천민층만 군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반들도 군포를 내어 국가 재정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양반들은 대원군의 이런 조치에

18) 박인호, 『한국사학사대요』, 이희문화사, 1996, p. 99.

크게 반발하였으나, 백성들의 호포제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아 양반들의 반발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백과가 활동하던 시기는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인 고종(재위 1863~1907) 시기였다. 이 시기는 대내적으로 왕의 명령으로 신분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 가던 시기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집중되던 서구 열강의 관심이 점점 주변국으로 바뀌어 가게 되면서 한반도에서도 이들 간의 대립이나 경쟁이 첨예하게 나타났던 시기였다.

고종이 등극했던 시대는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이 증대되었던 시기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던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는 대내적으로 19세기 초부터 권력을 독점해오던 세도정권의 폐해를 해결하고 왕권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사에 깊숙이 개입했던 흥선대원군은 양반 관료집단의 권력집중과 전횡, 특히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도의 폐해를 없애고 왕권을 회복하여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¹⁹⁾

대원군은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유교 중심 정책 대신 불교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불교에 호감을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대원군의 불교 후원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창할 경우 직접 개명(改名)하고 사액(賜額)하여 해당 사찰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주었다. 둘째, 사찰을 중창할 경우 반드시 복을 비는 염불을 위한 대방(大房)을 만들어서 불교 신자들의 결집을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성된 대방을 중심으로 대왕대비 조씨(大王大妃 趙氏)와 왕대비 홍씨(王大妃 洪氏) 및 다수의 상궁(尙宮)과 같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여성 불자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빈약한 정치적 입지를 극복하고 아들 고종의 즉위라는 필생의 염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²⁰⁾

대원군은 집권 이전부터 용궁사를 중창하여 원찰로 삼았고, 고종이 즉위하자 그 보답으로 보덕사를 크게 세우기도 했다. 또한 쇠퇴했던 흥천사, 화계사, 보광사를 중창하였고, 종(鐘)이나 불화를 시주하거나 편액과 주련을 써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를 후원하였다.

19) 吳洪國, 「大院君 國防力 強化 政策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20) 이정주, 「흥선대원군 李昰應(1820-1898)의 불교 후원과 그 정치적 의미」, 『역사와 담론』, 호서사학회, 2015, p. 285.

대원군은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불교를 이용하였지만, 불교에 대한 적극적 후원은 조선 후기 사원차의 명맥을 근대까지 계속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시대에 차는 차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감기나 배 아플 때 끓여먹던 약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고려 시대에 성행했던 차문화가 조선 시대에 일반인의 너리에서 점점 사라져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 시대 다점이 있을 정도로 성행했던 차문화는 새로운 유교 중심의 조선 왕조에 의해 직격탄을 맞아 영원히 회복불능 상태가 되어 버렸다.

조선 시대의 차문화는 대내외적인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성리학이 유입되어 자리를 잡으면서 문벌 중심의 권력구조에서 관료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었고, 송유역불 정책에 의해 사찰이 개혁되면서 선비들은 사찰보다는 관계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차문화도 사찰 중심에서 사대부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8~19세기의 새로운 학문 유입과 실용 학문의 확산은 조선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으며, 차의 존재감이 거의 상실되어 가던 19세기 사대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문화 중흥운동이 실용학문과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관료중심 사회의 등장, 사찰의 개혁과 변화, 사대부의 주류 형성으로 인해 차문화는 사대부인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조선 후기의 차문화는 선비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원차가 줄어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로 인해 고려의 사원차가 차지했던 비중보다 조선 후기의 사원차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조선 후기의 차문화는 당시 활발했던 도시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청나라 및 일본 문물의 수입 및 출판문화의 보급은 새로운 문예 중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실학사상이 내재되어 있었다. 실학사상의 등장은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신분을 초월한 지식의 교류가 조선 시대에 쇠약해졌던 차문화를 대중의 문화운동으로 중흥시키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신분을 초월한 지식층의 형성과 교류는 차와 관련된 시문의 발달과 차문화의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지식인들 간 교류활동과 마음 수양의 수단으로 차에 철학적·예술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차생활을 다양하게 즐겼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결론적으로 대원군 이후 등장한 사찰문화의 개혁과 조선 후기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과 승려들 간의 교류 확대는 사찰문화의 융성이나 사대부와 승려 간 학문적 교류와 차를 매개로 한 만남의 활성화를 창출하였고, 이는 서로의 차생활이나 당시

21) 조인숙, 「조선 전기 사대부의 다시로 고찰해 본 차문화와 성격」, 『차문화·산업학』 제19집, 국제차문화학회, 2011. 참조.

의 차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당대의 정치·사상·문화를 주도했던 유학자들은 학문과 예술 그리고 차생활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토론문화를 형성하였고 이를 새로운 학문세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조선 후기에 차시문(茶詩文)이 풍부하게 저작되었고 다화(茶畵)가 다양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은 사대부 사이 또는 사대부와 승려 간 인적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형성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높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생애

백과의 생애는 그의 비문에 자세하다.²²⁾ 그러나 비문의 찬자(撰者)가 밝혀져 있지 않고 또 너무 장황하다. 「규장각제학이조판서백과신헌구선생공덕비(奎章閣提學吏曹判書白坡申獻求先生功德碑)」²³⁾에는 백과의 공덕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백과공(白坡公)은 1823년 5월 동지중추부사 신응모(申應模)공의 셋째 아들로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선대 이래의 세거지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귀래정공의 14세손이며, 안협공에게는 12세손이 된다.

37세 때인 철종1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 정언(正言), 지평(持平), 수찬(修撰), 응교(應敎) 등 사간원과 예문관 등의 청화직(淸華職)을 거쳐 성천부사(成川府使)와 의주부윤(義州府尹)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암행어사로 활약 하였다. 이후 내직으로 들어와 병(兵)·리(吏)·예조참의(禮曹參議)와 승지(承旨), 공(工)·형조판서(刑曹參判) 규장각의 제학(提學) 등 요직을 거친 뒤 예조와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관환(官宦)으로 보아도 조선 중기 이후 고령신문(高靈申門)에서 유일하게 판서 등 정경(正卿)에 오른 영예를 누렸다.

우리가 백과공(白坡公)의 공덕(功德)을 칭송하는 것은 비단 관력(官歷)이 화려해서 뿐만이 아니다.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종중사(宗中事)에도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오래 기억될 업적을 남겼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령신씨 대동보(大同譜)-세칭 유동보(鎭洞譜)이다. 전 28권으로 제4회보인 대동보로서 족보의 품격과 기록의 정밀성에서 우리 보사(譜史) 큰 획을 그을 보첩(譜牒)으로 평가 받는다. 뿐만 아니라 백과공은 직접 각 지방을 심방하면서 기문(記文)과 행장(行狀), 비문(碑文) 등을 지었으며 많은 문집도 남겨 우리 문헌통고(文獻通考) 뿐 아니라 국가의 문화 담당기관에서 번역, 출판하고 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선생의 공덕을 흠모하는 소이연(所以然)이다.”

22) 『靈川世乘』, (주)인쇄향, 2013, pp. 694-698.

23) 서기(西紀) 2006년 4월 귀래정공후(歸來亭公後) 안협공파(安峽公派) 제십칠대손(第十七代孫)·고려인삼연구(주)(高麗人蔘研究(株)) 대표이사(代表理事) 왕수(王秀) 근수(謹堅)·고령신씨(高靈申氏) 귀래정공파(歸來亭公派) 종회(宗會) 협찬(協贊)백과 서거 104주년을 추도하면서 남산대(南山台) 승모비원에 세운 공덕비로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산 164-1에 위치하고 있다.

위 비문에는 백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그의 생애를 서술함에 있어 ‘공덕비’를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그의 생애가 비교적 간명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백파의 상계(上系)

백파는 1823년(순조 23년) 5월7일 아버지 응모(應模), 어머니 여흥 민씨(驪興閔氏)의 3남으로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선대 이래의 세거지에서 태어났다. 자는 계문(季文)이고 족보에는 백파라는 호만 있지만, 영천(靈川)·추당(秋堂)·옥침도인(玉枕道人)·백파거사(白坡居士)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²⁴⁾ 본관은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高靈)으로 옛 대가야국의 중심지였다. 종중회 사이트에는 백파의 상계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시조는 고려의 고종이나 원종 시대에 군기감검교(軍器監檢校)를 지낸 신성용(申成用)인데, 지금의 고령군 쌍림면 산주동 산 38번지 만대산에 시조묘가 있다. 그 후손들은 고려와 조선의 조정에서 800여 년간 세계(世系)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선비와 학자와 장상(將相)을 배출한 명문거족(名門巨族)이다.

2세 강승(姜昇) → 3세 인재(仁材) → 4세 사경(思敬) → 5세 덕린(德隣) → 6세 호촌공 포시(壺村公 包翹)로 이어지는데²⁵⁾ 6세 호촌공의 세 아들 신장(申樞, 1382~1433)·신평(申桴)·신제(申梯)가 모두 현달(顯達)하여²⁶⁾ 이들 7세의 자손들이 번창하여 씨족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이 세 아들은 각기 암헌공파(巖軒公 申樞), 정언공파(靜隱公 申桴), 감찰공파(監察公 申梯)로 갈리게 된다.

백파는 귀래정 신말주(歸來亭 申末舟, 1439~?)의 14세손인데²⁷⁾ 그 사이에 9세 흥

24) 김영봉, 『古書解題』 II, 「秋堂稊稿」, 평민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2004, p. 285.

25) 고령신씨대중회 www.goshin.or.kr ‘연원탐방’ 중 ‘씨족의 발전’에 의하면 3세 인재, 4세 사경, 5세 덕린 등은 6세 호촌공이 과거시험 때 제출한 ‘행권가상(行卷家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26) 맏아들 신장은 직제학(直提學)과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대제학(大提學)에 있으면서 세종(世宗)의 총애를 받았다. 둘째 신평은 사간원(司諫院) 정言을 역임했고, 셋째 신제는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냈다.

27) 1455년에 수양 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조선의 제7대 왕에 오르자 신말주는 이에 불만을 품고 벼슬에서 물러나 순창(淳昌) 남산대(南山台)로 낙향하여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면서 은둔하였다. 이듬해 정자를 짓고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따온 자신의 호 귀래정(歸來亭)으로 정자 이름을 삼았다. 1974년에 고쳐 세운 이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내부에는 1479년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歸來亭記」와 강희맹(姜希孟)의 시문 등의 액판이 걸려 보존되

(洪) → 10세 공섭(公涉) → 11세 숙(淑) → 12세 언식(彦湜) → 13세 심(滄) → 14세 기한(起漢) → 15세 유(濡) → 16세 선연(善淵) → 17세 회(澮) → 18세 경순(景洵) → 19세 택권(宅權) → 20세 현록(顯祿) → 21세 응모(應模)로 이어지므로 백파는 시조 성용(成用)의 21세손이 된다.²⁸⁾

백파는 이런 선조에 대한 깊은 숭모(崇慕)에서 시를 읊기도 하였다. 그 한 예로 1875년 가을 해남으로 가던 길에 순창을 들러 일가의 집에서 자면서 지은 시가 여러 편 있다.²⁹⁾ 그 중 「경차귀래정십노설첩시운(敬次歸來亭十老楔帖詩韻)」의 서(序)에는 파조 신말주가 순창에 은거하여 귀래정(歸來亭)을 짓고, 마을의 아홉 노인들과 계모임을 만들었을 때 남긴 「설첩시(楔帖詩)」 10수를 소개하고 있다.³⁰⁾ 「설첩시」는 당시 이윤철(李允哲)·김박(金博)·한승유(韓承愈)·안정(安正)·오유경(吳惟敬)·신말주(申末舟)·설산옥(薛山玉)·설존의(薛存義)·장조평(張肇平)·조윤옥(趙潤屋)이 지은 7언 절구의 시첩이다. 백파의 「敬次歸來亭十老楔帖詩韻」는 위 10인의 시를 각각 차운한 것인데, 그 중 선조인 귀래정 신말주의 시와 이를 차운한 백파의 시만 소개하고 있다. 먼저 귀래정의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歸來亭上白頭翁
 敝帚當捐不患窮
 賴有鄉人憐不棄
 開樽無日不吟風

귀래정 위의 머리 하얀 늙은이
 몽당 빗자루 버린대도 근심할 것 없으라.
 다행히도 고향 사람 날 버리지 않으니
 술 단지 열어 놓고 날마다 풍월 읊네.

위 시의 2구에서 귀래정은 자신을 몽당비[敝帚]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내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술 마시며 풍월을 즐긴다는 내용으로 단종이 폐위되자 벼슬을 사임하고 물러나 은둔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시로 표현하였다. 그는 위 시에서 웅(翁)·궁(窮)·풍(風) 자를 차운(次韻)하여 아래와 같은 시를 지었다.

名門繼世有泥翁
 傍溯伊溪浩不窮

명문의 대를 이은 니옹(泥翁)이 계시니
 방계(傍系)를 소급해보면 이계(伊溪)로 이어졌네.

고 있다. 1975년 2월 5일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67호로 지정되었다.

28) 1899년 백파가 편집한 『靈川世乘』에 의거함.

29) 『秋堂禱稿』 권1. 「行到淳昌南山臺宿族侄泰休家」, 「敬次歸來亭十老楔帖詩韻」, 「宿妙法里族叔帽隱敬模宅」, 「宿廣巖族侄鍾休家」.

30) 『秋堂禱稿』 권1, “我先祖當光廟改玉後 嘉遯于淳昌 作亭號歸來 與里中九老作會 有楔帖詩十首.”

一派淳南流更遠 한 파는 순창의 남산대(南山台)로 이어왔으니
旅菴家裏見遺風 여암공(旅菴公) 집안의 유풍(遺風)임을 알 수 있네.³¹⁾

위 시에서 니옹(泥翁)은 죽당 신유(竹堂 申濡, 1610~1665)를 의미한다. 그는 귀래정 신말주의 7세손이요, 백파에게는 7대조가 된다. 2구의 협주에는 “죽당공우호니옹(竹堂公于號泥翁) 방조정민공역복축우산남이계상이자호(傍祖貞敏公亦卜築于山南伊溪上以自號)”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를 통해 신유(申濡)의 또 다른 호가 죽당(竹堂)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귀래정의 손자 신공제(申公濟, 1469~1536)도 산 남쪽 이계(伊溪) 위에 집을 짓고 이계라고 자호(自號)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방조라고 한 것은 신공제의 아버지 신흥(申洪, ?~31세에 卒)이 3남(公濟·公渡·公涉) 1녀를 두었는데 백파는 3남 공섭(1481~1521)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4구의 여암가(旅菴家)는 귀래정의 10세로 백파의 고조부에 해당하는 여암 신경준(旅菴 申景濬, 1712~1781)이었다.

백파의 「십노계축후서(十老契軸後敘)」에는 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선조 귀래공(歸來公)은 단종(端宗) 갑술년(1454)에 친림문과(親臨文科)에 합격하였는데 당시 나이 26세였다. 뜻이 벼슬자리를 즐거워하지 않아 물러나 순창에서 남산 꼭대기에 정자를 짓고 귀래라 하였다. 71세가 되어서 향산구로회(白香山九老會)를 모방하여 같은 마을에서 나이 70살을 넘은 이윤철(李允哲)·김박(金博)·한승유(韓承愈)·안정(安正)·오유경(吳惟敬)·설산옥(薛山玉)·설존의(薛存義)·장조평(張肇平)·조윤옥(趙潤屋) 등 9인과 계(契)를 결성하여 때때로 정자 위에 모여 술잔을 나누며 서로 즐거워하였다.³²⁾

위 글에는 신말주가 순창으로 내려가 남산에 당나라 때 향산 백거이(香山 白居易, 772~846)의 향산구로회를 본떠서 ‘십노회(十老會)’를 만든 내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백파의 「금화록(金華錄)」에는 「당후경차 죽당선조은대주련운(堂后敬次 竹堂先祖銀臺柱聯韻)」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듯 그는 명문세가(名門世家)의 후손답게 선조의 위업(偉業)을 현창하고 있었다.

(2) 백파의 행장(行狀)

31) 『秋堂襍稿』 권1.

32) 고령신씨대종회 www.goshin.or.kr 중회자료실, 귀래정 신말주 선생과 정부인 순창설씨 생애와 업적, “我祖歸來公 端宗甲戌 擢親臨文科時 年二十六 志不喜宦榮 退去淳昌 築亭于南山之巔 扁以歸來 年至七十一 傲香山九老會 與同鄉年踰七十者 李允哲·金博·韓承愈·安正·吳惟敬·薛山玉·薛存義·張肇平·趙潤屋 九人結契 以時會亭上 盃酒相歡”

백과는 17세 때(헌종 5년 1839년) 통덕랑(通德郎) 이기발(李基發)의 딸 광주이씨(廣州李氏)를 맞아 관례를 올렸다. 이후 20년간의 행적을 추정할 만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시집인 『동정록(東征錄)』에 그의 20대 중반 행적이 하나 발견된다. 「백화암(白華庵)에서 완성(玩愒)법사에게 제하여 주다(白華庵題贈玩愒法師)」라는 시에서 그 무렵 백과는 서울 백련사(白蓮寺)에서 독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³³⁾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37세 때인 1859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응시하여 회시책문(會試策問)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민(閔)씨의 상(喪)을 당하여 전시(殿試)에는 나가지 못하였다.³⁴⁾ 1862년 모친상을 마친 40세에 드디어 문과 정시(庭試)에서 병과 5위로 급제하는데, 이토록 늦게 관계에 진출한 이유를 자세히 밝힌 자료는 없는 것 같다. 그는 성균관 전적(典籍)·사간원 정언(正言)·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다가 42세에 홍문관 수찬(修撰)에 제수되면서 곧 바로 경연청(經筵廳) 검토관이 되어 고종(高宗)에게 『효경』을 진강(進講)하게 되었다. 이후 45세까지 『통감』·『소학』을 계속 진강하다가 46세에 관동어사(關東御史)에 제수되었고(3월-10월), 이어서 12월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되었다가 47세부터 48세까지 다시 『통감』·『맹자』를 진강하게 된다.

<표1> 진강과목(進講科目, 『효경』·『통감』·『소학』·『맹자』·『강목』) 일람

나이	년도	진강과목(進講科目)
42세	고종1년 1864년	검토관(檢討官)으로 고종에게 『효경』 2회 진강.
		전 옥당 관원으로 고종에게 『효경』 1회 진강.
44세	고종3년 1866년	고종에게 시강관(侍講官)으로 『통감』 제2권 3회 진강.
		고종에게 검토관(檢討官)으로 『소학』 제4권 6회 진강.
		고종에게 옥당(玉堂)으로 『소학』 제4권 1회 진강.
		고종에게 검토관(檢討官)으로 『소학』 제4권 1회 진강.
45세	고종4년 1867	고종에게 검토관(檢討官)으로 『소학』 제4권 4회 진강.
		고종에게 검토관(檢討官)으로 『소학』 제4권 5회 진강.
		고종에게 시독관(試讀官)으로 『소학』 제5권 2회 진강.
		고종에게 시강관(試講官)으로 『소학』 제5권 7회 진강.

33) 『白坡漫稿』, p. 56, (주)인쇄향, 2014. “玩師嘗住京城西白蓮寺 余於少時 借其禪房讀書 別後廿餘年 至此相逢(玩師는 일찍이 서울 서쪽 백련사에서 살았다. 내가 어렸을 적에 그 선방을 빌어서 공부하였다. 헤어 진지 20여년인데 여기에서 상봉했다).”

34) 신현구, 『백파만고』, (주)인쇄향, p. 224.

47세	고종6년 1869년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통감』 제4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2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1권 9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통감』 제4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1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통감』 제4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1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통감』 제□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2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통감』 제□권 1회 진강.
48세	고종7년 1870년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4권 3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5권 1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5권 2회 진강.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맹자』 제6권 5회 진강.
61세	고종20년 1883년	고종에게 참찬관(參贊官)으로 『강목』 제3권 1회 진강.

백과는 49세에 성천부사(成川府使), 50세에는 의주부윤(義州府尹), 52세에는 좌부승지(左副承旨)의 직임을 수행하기까지 모두 61회나 진강하였으며, 이런 사실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³⁵⁾

백과의 벼슬길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견제로 급제동이 걸렸다. 1874년 초 대원군은 여섯 사람에게 비봉(秘封)을 내려 성 밖에서 펼쳐보도록 하였다. 비봉에는 먼 변방에서 한가롭게 지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여섯 사람은 창졸간에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사실 유배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3~4년 후에 다시 원직으로 복귀되었다. 위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내용이 황현(黃玗,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³⁶⁾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재상의 자제로서 나이가 젊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가 대원군의 사인이 된 자들

35) <http://www.itkc.or.kr/>, 『승정원일기』, 고령신씨 안협공과 종중회,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백과 신현구 선생의 행적』, 2013.

36) 午人宰相子弟, 年少名宦, 爲雲峴私人者, 不可僂數, 而韓者東·崔鳳九·蔡東述·權鼎鎬, 鄭顯德, 其尤也. 甲戌初, 內賜秘封, 使城外開見, 及開則命邊遠閑佳. 並北人申獻求, 亦列其中. 六人者, 倉黃上道, 其實寃配也. 三四年後, 稍稍召還, 皆改頭換面, 風附諸閑, 遴致通顯. 惟鼎鎬參安驥泳逆謀, 辛巳冬誅死, 東述以知情不告, 坐斬. 지은이: 황현, 옮긴이: 임형택 외, 펴낸이: 채호기, 『매천야록·원문 교주본』, 『대원군 때 출세한 남인들』, (주)문학과 지성사, 2005, p. 26.

이다. 그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한기동·최봉구·채동술·권정호·정현덕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갑술년 초에 비봉을 내사(임금이 물건을 신하에게 내려 주는 것)하고 성 밖에 가서 열어보도록 하였다. 그 비봉의 내용은 변방 근처에 멀리 가서 한가로이 살라는 것이었다. 이들 중 복인 신현구도 들어 있었다. 이 여섯 사람은 창황히 길에 올랐는데 그것은 귀양살이였다.

이들은 3,4년 뒤부터 모두 개두환면하고 민씨들에게 붙어서 지위가 높아져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오직 권정호만은 안기영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신사년(1881년, 고종 18년)겨울에 처형당했고 채동술은 그것을 사전에 알았지만 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형을 받았다.”

『매천야록』의 기록에 의하면 백파는 귀양살이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동작나루를 건너다가 비를 만나 입으로 읊조리다(渡銅雀津遇雨口拈)」³⁷⁾라는 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추당잡고』는 그의 해남생활 5년 동안의 시를 모은 것이라서 이 시가 맨 앞에 실려 있다.

銅雀津頭振挖迎
滿江風雨努濤生
內裏緘書言不敢
靑衫猶帶繡衣行

동작 나루에서 키를 틀고 맞이하니,
강 가득한 비바람에 성난 파도 일어나네.
궁궐에서 받은 밀봉 서찰 감히 말하지 못하니,
푸른 적삼에 암행어사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일세.

위 내용에 의하면 죄를 짓고 유배 길에 오른 백파는 서찰내용을 말로 할 수 없어 시로 표현했다. 왜냐하면 위 시가 말하는 밀봉은 비밀리에 지방수령과 악정과 부정부채를 다스린 암행어사의 임무가 써진 서찰이었기 때문이다.

백파의 또 다른 시 「점사술회이수(店舍述懷二首)」에도 그가 어사 임무를 얻었다고 언급되어 있다.³⁸⁾

單車羸馬趁炎程
十載重叨御史名
天意微深臣不識
一身無罪是爲榮

수레 한 대에 파리한 말로 더운 길을 따라가니,
십 년에 다시금 외람 되게 어사 이름 얻었다네.
임금 뜻 은미하고 깊은 줄 나는 알지 못하고서,
이 한 몸 죄 없음만 영예로 여기네.<其一>

위 시에서 백파는 파리한 말이 끄는 수레에 짐을 싣고 해남으로 귀양 가는 중 어사 임무를 준 임금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위 두 시의 내용에 의하면, 백파는 어사의 임무를 띠고 해남으로 내려와 5년 정도 이곳에 머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7) 김영봉, 앞의 책, pp. 287-288.

38) 김영봉, 위의 책, p. 288.

위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파가 이하응에게서 받은 밀지 속에는 그가 이하응으로부터 어사 임무를 받았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또 다른 문건인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백파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행정적으로 유배를 당해 해남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백파의 죄목이 19건이나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요 4건의 기록만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종 11년 갑술(1874, 동치13³⁹) 12월 22일(신묘) 맑음
 사진하지 않은 우승지 김규홍 등을 패초할 것을 청하는 정원의 계
 ○ 정원이 아뢰기를,
 “우승지 김규홍, 좌부승지 신현구가 오늘 사진(仕進)⁴⁰하지 않았으니, 모두 즉시 패초(牌招)⁴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⁴²

(2) 고종 11년 갑술(1874, 동치13) 12월 27일(병신) 맑음
 좌부승지 신현구의 파직 전지에 대해, 추고만 하라고 전교하였다
 좌부승지 신현구가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한 파직 전지와 관련하여, 추고만 하라고 전교하였다.⁴³

(3) 고종 12년 을해(1875, 광서1) 1월 12일(계유) 맑음
 우승지 김규홍 등의 파직 전지에 대해, 추고만 하라고 전교하였다
 우승지 김규홍과 좌부승지 신현구와 동부승지 이응하가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한 파직 전지와 관련하여, 추고만 하라고 전교하였다.⁴⁴

(4) 고종 12년 을해(1875, 광서1) 1월 12일(계유) 맑음
 사진하지 않은 우승지 김규홍 등을 패초할 것을 청하는 정원의 계
 또 아뢰기를,
 “우승지 김규홍과 좌부승지 신현구와 동부승지 이응하가 오늘 사진하지 않았으니, 모두 즉시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⁴⁵

백파는 고종 11년 1874년 겨울부터 1875년 1월까지 사진하지 않아 패초하라는 전교

39) 동치(同治): 중국 청나라 목종 때의 연호(1862-1874).

40) 사진(仕進): 벼슬아치가 정해진 시각에 근무지로 출근함.

41) 패초(牌招): 조선 시대,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던 일.

42) 政院啓曰, 右承旨金奎弘, 右副承旨申獻求, 今日不爲仕進, 竝卽牌招, 何如? 傳曰, 允.

43) 以左副承旨申獻求牌不進罷職傳旨, 傳曰, 只推.

44) 以右承旨金奎弘, 左副承旨申獻求, 同副承旨李應夏牌不進罷職傳旨, 傳曰, 只推.

45) 又啓曰, 右承旨金奎弘, 左副承旨申獻求, 同副承旨李應夏, 今日不爲仕進, 竝卽牌招, 何如? 傳曰, 允.

를 받았지만 또 사진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사진과 패초가 반복되다가 파직까지 거론이 되었지만 이하응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파직은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죄목이 확실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배를 보내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다음 문건은 백과가 해남생활 때 교유했던 대둔사 승려 범해의 편지이다. 범해는 백과가 해남생활을 마치고 떠난 한참 후에 그에게 「신 승지계 올리는 편지(上申承旨書)」를 썼다.⁴⁶⁾

“접때 남창적소(南倉謫所)에 사람의 견제(牽制)⁴⁷⁾가 되셨다가 분주하게 바로 돌아갈 즈음, 저 물녘에 왔다가 새벽녘에 나서느라 미처 하직 인사도 못한 채 산문을 떠나시니, 황공한 마음 가슴에 가득하여 밖으로 넘칩니다.

머무신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날로 마음 편치 않으면서도 어여뻐 여기셨던 은혜 갈수록 더욱 사무칩니다. 때로 북풍 따라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줄입니다.”

위 편지에 적혀 있는 ‘접때 남창적소(南倉謫所)에 사람의 견제(牽制)가 되셨다가’라는 구절에 의하면, 백과는 해남 해창 소요원 시절에 견제를 받았다는 것과 암행어사가 아닌 유배를 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매천야록』과 『주당잡고』에 수록된 시 「도동작진우우구념(渡銅雀津遇雨口拈)」, 「점사술회이수(店舍述懷二首)」와 『승정원일기』, 그리고 「신 승지계 올리는 편지(上申承旨書)」의 문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부 문건에서 백과가 암행어사 임무를 띠고 해남에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는 그가 죄를 지어 해남으로 유배생활을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해남으로 내려온 이유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띠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유배 생활을 왔음을 알 수 있다.

백과가 해남으로 유배 생활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남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는 어성촌(漁城村) 어귀 부서만(扶胥灣) 동쪽 기슭에 자리한 해창촌사(海倉村舍)⁴⁸⁾에 소요원(逍遙園)을 열고 꽃과 대나무를 가꾸며 은거하였다. 백과가 1875년과 1880년 사이에 처음 만들어 살던 소요원은 현재 해창 주조장의 정원으로 남아 있다.

46) 向於爲人牽制 南倉謫所奔走即回 乘昏而歸來 乘曉而發行 未能奉謝而出山 惶恐之心 彌中溢外 棲止以來 至於今日 日無安心 而見愛之恩 愈久愈深 時因北風 以惠德音焉 謹不備. 각안, 『범해선사문집』, 第二.

47)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것이다.

48) 현재의 주소는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1이 되었다. 해창(海倉)으로 불리게 된 것은 朝鮮後期이다. 조선 후기의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화산면 연곡리에 있던 조운창(조세를 한양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물길이나 바닷길 연안의 요충지에 설치한 창고, 바닷길을 이용하는 곳은 해운창 또는 해창이라고 불림)이다. 고산 윤선도가 수원에 있던 녹우당을 해체해 제물포에서 배에 싣고 해남으로 들어온 곳도 해창만이었다. 조선시대 조세창고가 있을 만큼 해창만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주조장 앞 도로변에는 신현 구선생의 碑가 ‘신선생백과소요대(申先生白坡逍遙臺)’라고 새겨져 있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주조장 앞마당에 있는 ‘신선생백파소요대(申先生白坡消遙臺)’는 처음에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앞을 지나는 도로변에 있었는데, 그 주변은 방풍림으로 심은 노송들이 즐비했다. 1988년 고천암이 간척되면서 이곳도 육지로 변했지만 주조장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풍수 비보(裨補)의 차원에서 심은 노송은 이제 해창만의 옛날을 증언하며 서있다.



<그림1> 신선생백파소요대(申先生白坡消遙臺)



<그림2> 백파공묘 이장 시 출토된 지석

<그림1>의 공덕비에 적혀 있는 백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행어사 백파 신현구 선생은 1862년 3월 10일 40세 의 늦은 나이에 문과 정시에서 병과 5위로 급제하였다.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제물포에서 조미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대표수석이 백파 신현구 선생이다. 한미수교 대표였다.

다산선생이 인용한 詩는 『시경』의 「정풍」, 「청인」에서 나온 것인데 춘추시대 정 문공이 신하인 고극을 미워한 나머지 그를 장수로 임명하여 군사를 주어 하수 위에 가서 적을 방어하라고 내친 뒤 중시 그를 불러들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군사들이 오랜 세월이 지쳐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것을 읊은 詩이다.

금석학에도 관심이 많은 그였기에 울진의 왕피천 등 그가 가는 곳 여러 곳에 소요대라는 글자를 새겨 놓은 것으로 다산의 심정과 곳곳에 숨어 있는 인재들을 보는 그의 심정이 통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해남에서 숨어 일하라 명받은 당시 상황은 왕실 창고와 국고가 바닥나 어려운 시기이고 곡창

지대인 전라도의 조세와 관련된 해운 해창의 관리 문제점과 관계된 사람들의 불법행위 등이 심화되어 이것을 단속하고 해결하기 위한 암행이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왕에게서 밀명을 받은 후 소요원을 가꾸며 5년간 이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얼마 후에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시 수석대표를 맡았고 성균관 대사성 형조판서, 한성부 관윤, 의관에 제수되었습니다.

여기 서있는 비석은 암행어사로 5년을 마치고 한양으로 떠나면서 전답을 마을에 주고 간 것에 대한 해창 주민들이 백과선생이 살던 집터에 세운 공덕비입니다.”

<그림2>는 백과공의 묘소에서 이장 시 출토한 지식인데, 여기에는 “정헌대부예조판서겸지경연춘추관의금부사동지성균관사영천신공휘헌구지묘 간좌(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義禁府事同知成均館事靈川申公諱獻求之墓 良坐)”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과는 1902년 3월 28일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제수되었다. 또한 그는 예조판서,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에 제수된 사실이 이 지식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백과는 해남 생활을 마치고 1880년 봄 상경하여 벼슬길에 복귀하여 다시 중용되고 있다. 1882년 6월 9일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났을 때 우승지(右承旨)에 제수됨을 필두로 1883년 예조참의(禮曹參議),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제수되고 이틀 후에 참찬관으로 고종에게 강목 3권을 진강하였다. 이 후로도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가선대부(嘉善大夫),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 1884년 12월에는 성균관 대사성, 1885년에는 우승지가 되면서 의례, 교육, 과거, 외교 및 왕명(王命) 출납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1898년 그의 나이 76세, 중추원 일등의관을 체차해 주기를 바라는 사직상소를 올리 기 까지 10여년을 더 벼슬살이 하면서 이조참판, 한성부 좌윤, 우윤, 공조참판, 형조참판,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1894년 경기감사에 제수되었을 때 강원도 일대에 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진두지휘한 일도 있었고, 1897년 9월 4일에 고종 임금 을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황제(皇帝)에 오르도록 다른 조정대신들과 함께 상소하였으며, 1902년 3월에는 궁내부 특진관(3월 16일)과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제수되었다가(3월 28일) 불과 한 달이 못되는 4월 12일 8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문집에는 『백과만고』, 『고령신씨세보(高靈申氏世譜)』, 제4회 족보인 『유동보』 28권 발간, 『영천유사(靈川遺事)』 2권, 『영천세승』 상, 하권 등이 있다. 신씨 족보인 『고령신씨세보』에 따르면 공사간(公私間)의 글을 묶은 백과의 기문이 50여권에 이른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대계유고(大溪遺稿)』, 『송죽당문집(松竹堂文集)』, 『도촌유고(道村遺稿)』, 『명곡선생문집(明谷先生文集)』, 『예곡선생문집(禮谷先生文集)』 등의 권두

에도 서문(序文)을 써기도 하였다. 『영천세승』 후미에 부록으로 실린 「백파의 연보」·『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에는 백파의 행적과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고⁴⁹⁾ 백파의 『유묵집』에는 해남의 사대부들과 조카들의 간찰이 수록되어 있으며 백파 자신이 고회를 맞아 그 감회를 쓴 시와 친척들이 그 원시에 차운(次韻)하여 쓴 시를 모은 「백파 신헌구 선생 고희시축(古稀詩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축은 1893년 5월 7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있을 때 지은 고희(古稀) 축하 시 모음집인데 그의 육필집(肉筆集) 『유묵집』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문(祭文) 1편, 간찰(簡札) 68편, 서(敍) 1편, 「고희시축」 25편,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문은 1854년 8월 22일 신병(申秉)의 대상(大祥) 때 지은 것이고, 간찰은 순창 김씨 김광우(金匡祐, 1834~1894)⁵⁰⁾에게 보낸 것과 조카인 신관휴(申觀休), 신승휴(申勝休) 등에게 보낸 것이 대부분이다. 김광우에게 보낸 간찰들은 대부분 안부를 묻는 내용과 김광우의 자제이며 백파의 제자였던 김세필(金世弼, 1854~?)의 과거(科擧)에 관련된 일들이 적혀있다. 조카들에게 보낸 간찰들은 삼촌으로서 조카들의 관직생활에 대한 조언과 바람을 적었으며, 서(敍)는 그가 해남 시절 가까이 지내던 송과 이희풍(松坡 李喜豐)의 시문집에 쓴 것이다. 부록은 이일찬(李日贊)이 셋째 외숙인 백파의 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글(「敬壽 三母舅白坡申公回喬序」), 백파의 연보, 그리고 혼인(婚姻)과 글[文]로 맺어진 고령신씨와 능성구씨의 인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희시축」의 첫 머리에는 고회를 맞은 백파의 7언 율시가 수록되어 있었고, 이어서 작은형 먼구(冕求)의 아들로 삼척부사를 지냈던 신승휴(申勝休)를 비롯하여 종외손(從外孫) 윤복용(尹復容)에 이르기까지 모두 24명의 후손들이 백파의 원시를 차운(次韻)하여 축하하는 7언 율시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 시축은 70세의 고령인 백파가 당시의 최고급 중국 수입지인 냉금지(冷金紙)에 직접 필사한 것이다. 흔치 않은 일이라 잠시 소개한다.

백파가 자신의 고회를 맞아 감회를 쓴 시는 다음과 같다.

庸疎驚劣不材人
靈老昇此七十春
尙賴馨香先世德
偏承雨露聖君仁

무능하고 용렬한 재목이 되지 못한 사람
영천 노인이 이제 70의 봄을 맞았네.
아직도 선대 덕의 향기에 힘입어
과분하게 성군의 어진 은혜를 받는구나.

49) 신헌구, 『白坡漫稿』, (주)인쇄향, 2014, pp. 4-5.

50)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507번지 禮洞부락에 거주했던 順天人 金匡祐(1834.7.9-1894.7.9)는 자 正日, 호 禮亭이다. 1883년 11월 政筮繕工監役을 지냈으며 遺稿가 있다. 배위는 長興任氏(1832-1883)이다.

專成供役耆英會 오로지 임금님 잘 모시어 기영회⁵¹⁾에 들었고
 華誥⁵²⁾恩推侍從臣⁵³⁾ 화려한 고명의 은혜를 입어 시종신이 되었구려.
 寶帖叨題名姓字 보배로운 첩에 외람되이 이름을 쓰나니
 西樓日月耿生新 서쪽 누각에 해와 달은 밝고도 새롭구나.⁵⁴⁾

위 시에서 백파는 자신을 영천노인이라 불렀는데, 이는 자신의 본관인 고령(高靈)의 읍호(邑號)를 따온 것이다. 위 시의 주요 내용은 그가 기영회(耆英會)에 들고 시종신(侍從臣)이 된 것은 선대의 덕과 임금의 과분한 은혜라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사한 것이다.

위 시에서 백파는 인(人), 춘(春), 인(仁), 신(臣), 신(新)이라는 운자(韻字)를 사용하였다. 후손들도 이 운에 맞춰 고회를 축하하는 시를 지었다. 그리고 각 시의 끝에는 작은 글씨로 시를 보낸 사람의 임소(任所)나 자기와의 관계를 적었고, 그 아래에 시를 지어 준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백파의 고회 시에서 차운한 후손들의 詩

번호	후손	백파와의관계	중요내용
1	申勝休 ⁵⁵⁾ (1840-1925)	조카 仲兄인 冕求의 아들	喬木留陰不老春 큰 나무가 그늘 드리워 늙지 않은 청춘이시네. 今日尊榮三達備 오늘도 고귀하고 영화로운 삼달덕을 갖추셨고
2	申炳休 ⁵⁶⁾ (1854-1909)	長子 長兄 萬求의 後嗣	西樓結社三朝盛 서쪽 누각에서 모임 만드니 삼대 조정이 성하고 親志好謙居顯爵 부모님 뜻이 겸양하기 좋아하여 높은 관작에 오르셨고
3	申永休 ⁵⁷⁾ (1859-1904)	次子 堂兄 定求의 後嗣	一門雨露兩朝臣 한 가문에 은혜 내려 두 조정에 신하되셨네. 南衙還奉慈顏悅 남쪽 관아에서 돌아오니 자애로운 얼굴 기쁘고
4	申光休 ⁵⁸⁾ (1879-1952)	三男 側室 曹氏의 長子	文章著世又居仁 문장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 인에 거쳐하셨구나. 身遇明時作藎臣 몸은 밝은 때를 만나 충성스런 신하가 되셨네.
5	申商雨 ⁵⁹⁾ (1874-?)	冕求의 손자 勝休의 長子	德星小照集賢人 덕성(德星)이 비춤이 어진 사람에게 모이니 門闌回憶慶會新 가문을 돌이켜 생각하니 경사스런 모임이 새롭구나.
6	申範雨 ⁶⁰⁾ (1879-1950)	冕求의 손자 勝休의 次子	七耋康寧由好德 70에도 강녕하심은 덕을 좋아함으로 비롯되었고 聖朝同社尊耆老 임금님이 같은 모임에서 원로들을 높이시어
7	申綱休 ⁶¹⁾ (?-?)	再從姪	需用文章知有脉 문장을 쓰심은 전해오는 맥이 있음을 알고 一枝花發向陽新 한 가지 꽃이 피어 양지 향해 새롭다 하셨지.
8	申容雨 ⁶²⁾	三從孫	寶樹聯芳知種德 자손들 연이어 과거에 급제해 덕을 심은 줄 알겠고

51) 기영회는 조선 시대에 일흔 살 이상 되는 임금의 친척과 재상, 이품 이상, 정일품 이하의 벼슬아치와 경연당상(經筵堂上)이 참석하는 경로회(敬老會)를 이르던 말로 음력 3월3일과 9월9일에 열렸다.

52) 화고(華誥)는 임금이 내리는 교지를 말했다.

53) 홍문관의 옥당(玉堂), 사헌부·사간원의 대간, 예문관의 검열, 승정원의 주서(注書) 등을 일컬었으며,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때의 시종원에는 경 1인, 시종장·시종·시어(侍御)·봉시(奉侍) 등의 관직이 있었다.

54) 신현구, 『유목집』, (주)인쇄향, 2016. p. 240.

	(1871-1952)		蘭芝階庭淑氣新 난초와 지초 같은 가정에 맑은 기운 새롭구나.
9	柳沂秀 ⁶³ (?-?)	甥姪 柳南珪의 자	永年知是在吾仁 자신의 어짐에 있음을 영원히 알리라. 當世清譽文學士 당세의 홍문관 학사라는 맑은 기림 있고
10	李日善 ⁶⁴ (?-?)	甥姪 李觀春의 자	文章雅麗知華國 문장이 우아하고 좋음은 중국에서도 아니 家有孝恭諸佛士 집안은 효도하고 공경하여 여러 부처와 같은 선비요
11	李秉獻 ⁶⁵ (?-?)	姻姪 妻男 李基發의 자	天將五福總歸仁 하늘이 오복을 내림은 모두 인으로 돌리시네. 華筵待客東南郡 동남의 고을에서 화려한 연회에 온 손님을 모시고
12	尹祖榮 ⁶⁶ (1841-?)	姻下生 萬求의 사위	文章福祿是完人 뛰어난 문장에 영화로운 삶의 완벽한 어른 邇班金帶趨賢宰 측근들 금대 두르고 어진 재상을 따르니
13	尹滢秀 ⁶⁷ (?-?)	甥姪	地位由尊推以孝 땅의 지위에서 높이기를 효로써 하였고 天施從見壽於仁 하늘이 베풀어 어질어 장수함을 보네.
14	柳汶秀 ⁶⁸ (1851-?)	甥姪	儘是讀書爲世用 독서를 열심히 함은 세상에 쓰기 위함이요 古來延壽在家仁 고래로 장수는 집안이 인을 펼침에 있었네.
15	尹英秀 ⁶⁹ (1853-?)	甥姪 尹龜永의 아들	清修晚節同寒士 맑게 닦은 만년의 절개 가난한 서생과 같고 考造明廷重獻身 늦게 나아간 맑은 조정 헌신하는 신하를 중시하네.
16	李日贊 ⁷⁰ (1856-1902)	甥姪 李觀春의 아들	松鶴清姿畫裏春 소나무에 학의 맑은 모습으로 그림 속의 봄 같구나. 謙門兩世推恩秩 겸손한 가문은 두 대에 걸쳐 관직에 올랐고
17	嚴柱萬 ⁷¹ (1859-?)	막내 사위	喬岳精神儼丈人 우뚝한 산 같은 정신의 의젓한 어른신 榮業緣承積累仁 영광된 업적은 누대에 인 쌓음을 계승해서라네.
18	閔泰郁 ⁷² (?-?)	從外孫	惟公生老太平人 오직 공은 태평성대의 사람으로 나고 늙으셨는데 恩秩榮親近密臣 시종신으로 관직에 올라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셨네.
19	尹教性 ⁷³ (?-?)	外從孫	文宿躡中暎老人 문성이 궤도 속에서 비추는 어른신 得明兼祿作者臣 이름 얻고 녹을 받아 기영회의 신하가 되셨네.
20	柳鎮珪 ⁷⁴ (?-?)	姻下生	承家詩禮知成德 가문을 이은 시와 예는 덕을 이룸을 알겠고 移恩朝退衣紉臣 은혜를 미루어 조정에서 물러나 관복 입은 신하라오.
21	任建鎬 ⁷⁵ (?-?)	姻下生	喬木垂陰見趾仁 교목이 그늘 드리움은 인을 계승함을 알겠네. 殊恩推孝出群臣 특별한 은혜에 효를 실천함은 여러 신하들 중 으뜸이네
22	尹教興 ⁷⁶ (?-?)	外從孫	知公不富是爲仁 공이 부유함 따지지 않고 인을 행하셨음을 알겠네. 祥呈陰鶴縻恩爵 ⁷⁷ 상서로움은 관복을 주어 은혜로운 관직을 받게 하고
23	尹泰容 ⁷⁸ (?-?)	從外孫	位祿元歸有謙人 작위와 복록은 원래 겸양한 사람에게 돌아가니 恬雅家風識世仁 욕심 없이 학문하는 가풍은 세상에 알려진 인이라.
24	尹復容 ⁷⁹ (?-?)	從外孫	默揣天心壽上仁 묵묵히 천심을 알아 높은 인에 장수하시네. 恩遇偏蒙今聖主 지금의 성상으로부터 은혜를 특별히 받고

- 55) 신승휴는 고종(高宗) 7년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에 진사가 되었다. 현령을 지낸 신면구(申冕求)의 아들이다.
- 56) 신병휴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사엽(史葉)이고,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조부는 신응모(申應模)이며, 부친은 신만구(申萬求)이다. 생부는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재직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1898년(광무 2)에는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낸 신헌구(申獻求)이다. 1887년(고종 24) 정시에 병과 2위로 급제하였고, 이후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임명되어 신기선(申箕善)·지석영(池錫永)·지운영(池運永)이 개화당과 관련이 있다 하여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1888년(고종 25)에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제수되었고, 1889년에는 사헌부정언(司憲府正言)으로서 송시열을 비난한 한용석(韓容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였으며, 병사(病死)한 홍국영(洪國榮)의 가족에 대해서 연좌처벌을 청하기도 하였다. 1890(고종 27)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병조참의를 역임하였고, 1891년(고종 28)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거쳐, 1892년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제수되었다. 1893년(고종 30)에 사산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 갑오개혁으로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들어서자 내무아문참의(內務衙門參議)로 재직하였다.
- 57) 신영휴는 전주 판관(判官)을 지냈다. 생부는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을 지낸 정구(定求, 1820~1904)공이

백과의 「고희시축」에 실린 간찰과 시들은 거의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지어진 것들이다.

- 58) 신광휴는 백과 현구공과 배위 창녕조씨(昌寧曹氏) 사이에 낳은 형제 중 큰 아들이다.
- 59) 신상우는 1888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 60) 신범우는 경릉 참봉에 임용되었으나 다음날 의원면직하였고, 기병(騎兵)으로 참위(參尉)를 지냈다.
- 61) 신경휴는 생부는 태구(泰求), 양부는 서구(瑞求)이다.
- 62) 신용우는 1892년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3위(5/7)로 급제하여 가주서, 부사정, 1899년 비서원 낭, 홍문관 시독, 6품 비서원 낭, 1903년 홍문관 시독, 1903년 통신사 전화과 주사, 1903년 산릉도감 도청, 1904년 아미1필 사급, 1904년 봉상시 주사, 1905년 정3품 비서감 승에 임명되었다.
- 63) 유기수는 1870년 원릉참봉, 가가역관, 감역관 1873년 한성부 주부, 1874년 현릉 영, 1875년 진보현감(眞寶顯監), 1880년 부사과, 1881년 상의원 주부, 동년 9월 26일 상의원 첨정, 1882년 상의원첨정, 동년 2월 광흥창 수(廣興倉守), 1884년 장악원 첨정, 1885년 선공감 부정, 1895년 예산 군수(禮山郡守), 1897년 하양 군수에 제수되었다.
- 64) 이일선은 백과 현구공의 작은 누이 아들이다. 작은 매형은 연안인 이관춘(李觀春)이다. 이일선은 『승정원일기』를 보면 1894년 1월 28일 위곡 첨사(委曲僉使), 1895년 3품직 영종 첨사(永宗僉使), 참위(參尉)를 수행한 내용이 보인다.
- 65) 이병헌은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894년 동몽교관에 제수되었다.
- 66) 윤조영은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1871년(고종 8) 문과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72년 승정원주서, 사간원정언을 지냈으며, 이어 홍문관수찬, 병조좌랑, 종부시정(宗簿寺正), 부응교, 예조참의, 북청부사, 안변부사, 동부승지를 지냈다. 1891년 병조참의, 1894년 형조참의, 우부승지, 1895년 상원군수(祥原郡守), 1899년 비서원승(秘書院丞),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다. 1904년에는 장례원소경(掌禮院少卿), 1907년 궁내부 특진관 칙임관 3등에 서임되었고, 1910년 8월 정2품의 품계를 받았다.
- 67) 윤형수는 윤구영(尹龜永)의 아들로 백과 신현구공의 조카이다
- 68) 유문수는 본관 전주(全州), 거주지 한성, 생부 통정대부 돈령부도정을 지낸 유남규(柳南珪), 양부가 통덕랑 유용규(柳容珪)이다. 초명이 유정훈(柳正勳)이고 백과의 큰 누이 둘째 아들이다. 1891년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159위(189/559) 입격, 1894년 휘릉 참봉(徽陵參奉), 1896년 효창원 참봉(孝昌園參奉), 1896년 영희원 봉사, 1896년 의녕원 참봉(懿寧園參奉), 1898년 중추원 의관에 제수되었다.
- 69) 윤영수는 1879년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1(壯元)위(1/49)로 급제, 1879년 전직, 1880년 지평, 1881년 정언, 1886년 수찬, 1886년 문신겸선전관, 1887년 교리, 1887년 시독관, 1887년 부수찬, 1890년 수찬, 1890 동학 교수(東學教授), 동년 장령, 1891년 성균관 사성, 1892년 돈녕부 도정, 1893 승정원 승지에 제수되었다.
- 70) 이일찬은 조선 말기 문신으로 자는 경양(景襄)이고, 호는 소화(素花)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부친 감역(監役) 이관춘(李觀春)과 모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신응모(申應模)의 딸 고령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서 주위의 촉망을 받았다. 1891년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61위(91/559)로 입격하고 1894년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4위(14/57)로 급제하여 교리(校理)·수찬(修撰)·내무참의(內務參議)등을 역임하였으며, 품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외직으로는 신창·영양의 군수 등으로 파견되었다. 지방관으로 재직 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송덕비가 세워졌다. 저서로 『소화집(素華集) 2권이 있다.
- 71) 엄주만은 본관 영월(寧越), 자는 봉거(鵬舉), 양부 성균생원(成均生員) 엄조영(嚴肇永), 생부 통덕랑(通德郎) 엄필영(嚴弼永), 동생 엄주하(嚴柱夏)이다. 1885년 식년시(式年試) 생원 2등(二等) 21위(26/240) 입격하다. 1893년 제릉 참봉(齊陵參奉), 영희전 참봉(永禧殿參奉), 1897년 태복사 주사, 1897년 목릉 참봉(穆陵參奉), 1897년 사제서 참봉, 1897년 원구단 참봉, 1898년 종묘서 영조서령(宗廟署令), 1899년 후릉 영, 1906년 가례도감 낭청(嘉禮都監郎廳)에 제수되었다.
- 72) 민태옥은 어머니 여흥민씨(驪興閔氏)의 친정 친척이라 관독된다.
- 73) 윤교성은 1893년 인차외 만호(仁遮外萬戶), 1902년 탁지부 주사(度支部主事), 1903년 경릉 참봉(敬陵參奉), 1903년 효릉 참봉, 1904년 영릉 영, 1904년 효릉 영, 1906년 제릉 영에 임용되었다.

었다. 국가와 백성들을 걱정하는 내용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인 간의 사적이고 소소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승휴(申勝休, 1840~1925)⁸⁰⁾

名門種德我先人	명문가에 덕을 심은 우리 선조
喬木留陰不老春	큰 나무가 그늘 드리워 늙지 않은 청춘이시네.
今日尊榮三達備	오늘도 고귀하고 영화로운 삼달덕을 갖추셨고
當年湛樂一家仁	그 해에 화락하고 즐겁게 한 집안을 어질게 하셨네.
恩推法徒陞遷秩	은혜를 입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 올라서 승차였고
禮重清朝惠養臣	예를 중시하는 맑은 조정 은혜로 신하를 길렀구나.
遙憶高堂諸弟侍	아득히 높은 집을 생각함에 여러 아우들이 모시니
竹西羈夢夜來新	죽서(竹書)의 나그네 꿈꾸니 밤이 옴도 새롭다오.

時在三陟府任所 古云 勝休이때에 신승휴(申勝休)가 삼척도호부의 임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위 시는 둘째형[仲兄] 면구의 아들 신승휴⁸¹⁾가 쓴 축하시다. 그는 백부(伯父)인 백파를 덕망 높은 선조로 간주하였으며, 후손들의 그늘을 만들어준 큰 나무로 간주하였고, 삼달덕(三達德)을 갖춘 인물로 묘사하였다. 아울러 그는 백파가 예를 중시하여 조정에 중용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신병휴(申炳休, 1854~1909)⁸²⁾

七耄高堂奉大人	칠순을 맞이한 높은 집에서 어른을 뵈오니
誠澡寸草報暉春	진실로 한 마디 풀을 씻어 봄별 같은 은혜를 갚을까?
西樓結社三朝盛	서쪽 누각에서 모임 만드니 삼대 조정이 성하고
南極呈祥一世仁	남극성에 정성 드려 한 평생이 어지셨구나.
親志好謙居顯爵	부모님 뜻이 겸양하기 좋아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셨고

74) 유진규는 큰 매형 유남규(柳南珪)의 인척으로 판단된다.

75) 임건호는 1890년 부장, 1891년 선전관, 1892년 훈련원 판관, 동년 4월 7일 훈련원 첨정에 임명되었다.

76) 윤교홍은 1901년 9월 6일 내부주사에 임용되었다.

77) 음학은 구름에 학이 그려진 문관의 관복을 나타내는 말이다.

78) 윤태용은 1882년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있을 때 증광 진사시 3등 49위(78/ 100)에 입격하였다. 1901 함경북도관찰부 주사에 임명되었다.

79) 윤복용은 백파의 매형 윤구영(尹龜永)의 손자라 판독된다.

80) 신현구, 『유목집』, (주)인쇄향, 2016, p. 241.

81) 신승휴는 고종(高宗) 7년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에 진사가 되었다. 현령을 지낸 백파의 둘째형 신면구(申冕求)의 아들이었다.

82) 신현구, 『유목집』, (주)인쇄향, 2016, p. 246.

聖恩推孝及微臣
 專城⁸³致養由賢弟
 迎客樽筵賀語新
 炳休

성은은 효를 미루어 보잘 것 없는 신하에까지 미치겠네.
 고을 현감으로 부모를 잘 공양함은 어진 아우 때문이니
 손님 맞은 술자리 축하의 말이 새롭네요.
 병휴

이 시에서는 어질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백과의 성품을 엿볼 수 있다. 백과에게서 입은 은혜를 어찌 갚을까 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후손들의 일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대 조정이 성하고’에서는 백과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련의 ‘풀을 씻어 봄별 같은 은혜를 갚을까?’라는 시구는 자식의 조그만 정성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이란 시(詩)에 “뉘라서 촌초의 마음(아들의 마음)이 삼촌의 날빛(부모의 은덕)을 갚았다 하리(誰言寸草心)”라는 시구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구에 대한 주석에 ‘봄 빛[春暉]은 따뜻한 봄의 온화한 기운으로서 초목(草木)을 길러내는 것이므로 자모(慈母)에 비한 것이다.’라고 풀이하었다.

이일선(李日善, ?~?)⁸⁴

南極星辰捧老人
 西樓冠冕入青春
 文章雅麗知華國
 神彩端凝見體仁
 家有孝恭諸佛士
 身爲耆舊兩朝臣
 渭陽遠矣長瞻仰⁸⁵
 祇奉詩篇頌禱新
 甥姪 李日善

남극의 별들이 받드는 어르신
 서쪽 누각에서 관면하니 청춘인 듯하다.
 문장이 우아하고 좋음은 중국에서도 아니
 정신과 풍채는 장중하여 인(仁)을 채득함을 알겠네.
 집안은 효도하고 공경하여 여러 부처와 같은 선비요.
 몸은 원로가 되어 두 임금의 신하가 되셨네.
 외가가 멀어 길게 우러러 보나니
 공손히 받들어 시로 장수를 기원함이 새롭습니다.
 생질 이일선

이일선은 백과의 작은 누이 아들이다. 그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남극성진(南極星辰)으로 백과의 고희를 축하하면서, 백과의 문장이 중국에까지 알려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위 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백과는 가정에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조정에서는

83) 전성(專城)은 전성백(專城伯)의 약칭으로 한 고을의 원님이란 칭호이다.

84) 신현구, 『유목집』, (주)인쇄향, 2016, p. 270.

85) 위양(渭陽)은 춘추 시대 진강공(秦康公)이 태자로 있을 적에 장차 본국인 진나라로 돌아가는 외삼촌 중이(重耳), 즉 진 문공을 전송하였던 곳으로, 그 당시 강공이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읊은 노래가 『시경』 「위양」이다. 여기서는 외가를 뜻한다.

예와 법을 지키며 직무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안으로 삼달덕을 갖춘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덕망 높은 선조로 간주되었고, 자손들에게 큰 그늘을 만들어준 나무로 여겨지며 그들의 과거급제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백파의 덕이었다고 말하며 이런 집안의 은택을 난초와 지초에 비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일선은 백파가 철종과 고종 두 임금의 신하로 조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원로대신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또한 그는 백파의 문장이 중국에까지 알려졌음을 칭송했고, 기영회에 올라 충성스런 신하가 되었다고도 했다.

백파의 후손들 중 이일찬은 그의 회혼식을 축하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의 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백파의 인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숙 백파 신공의 결혼 60주년에 장수하심을 경하 드리는 서문(敬壽三母舅白坡申公回絜序)」⁸⁶⁾

.....

우리 외숙 신헌구(申獻求, 1823~1902)는 선조의 찬란한 영기(靈氣)를 잘 이어 중엽에는 문장과 덕행이 당대의 존중을 받으셨고,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며 나라에 빛이 되셨습니다. 늦게 돌아와서 편안히 거처하고 식사할 때에도 항상 고요함을 지키고 참됨을 길렀으니 소나무에 앉은 학과 같고 신선과 같은 자태는 한 점의 티끌 같은 기운도 없으셨습니다. 기로소에 들어가신 것이 지금 이미 8년이 되었으나 근력은 오히려 강건하십니다.

위 서문에서 이일찬은 백파의 문장과 덕행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모습은 학이었고, 그의 자태는 깨끗한 기운을 지녔다고 칭송하였다. 한편 백파는 『추당잡고』에서 학문에 대해 질의(質疑)를 해온 자신의 생질 이일찬에게 「답이생일찬서(答李甥日贊書)」를 보내 자상한 면모를 살필 수 있다.

한편 친인척이 아닌 제3자들이 본 백파의 생애 모습도 위에 언급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02년 4월 12일 백파가 사망했을 때 구연호(具然鎬)⁸⁷⁾공이 지은 만장(挽

86) 신헌구, 위의 책, (주)인쇄향, 2016, p. 315. 我舅氏擢魁榜 衆賓賀者 日以至 小子時在 人肯上觀玩 其後年漸長 每侍坐先孺人 語當時事 歷歷無遺壽考福祿之盛 庶幾形容其彷彿 先孺人語小子曰 外王考修德謹行 膺受多福 後來廷縣之祿 有不可量 詩云 永言配命 自求多福 汝曹 其勉之哉 至今追 惟言猶在耳 而我舅氏 克紹先徽炳靈 中葉以文章德行 有當世重望 敷歷內外 光于邦家 晚來安居暇食 常守靜養真 松鶴仙姿 無一點塵埃氣 入者社今已八年 而筋力尙康健

87) 구연호(具然鎬, 1861~1940)는 본관이 능성(綾城), 자는 봉규(奉圭), 호는 만회(晩悔), 거주지 진주(晉州), 문과에 급제한 구음(具崑, 1614~1683)공의 8대손이요, 구문유(具文遊, 1644~1718)공의 7대손이었다. 1861년 아버지 구덕조(具德祖, 1828~1885)공과 의령남씨(宜寧南氏) 사이에 3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875년 진양강씨(晉陽姜氏)와 결혼하여 1녀를 두시고 1880년 청주한씨(淸州韓氏)와 재혼하여 1

章)을 통해 백파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신 판서 헌구에게 만장함(挽申判書獻求)」⁸⁸⁾

奎星近夜笏無光	규성이 요즈음 밤에 광채 문득 없더니,
天喪吾公肅氣涼	하늘이 우리 공을 불러, 숙기 싸늘하구나.
宰相儒林俱歎息	재상과 유림이 함께 탄식하는데,
頽波柱析厦摧樑	큰 물결에 기둥과 대들보가 꺾여 버렸네.

위 만장은 백파의 죽음에 대해 태평성대를 뜻하는 규성(奎星)이 광채를 잃었다고 묘사했으며, 백파를 기둥과 대들보에 비유하면서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신 판서 헌구에게 올림(上申判書獻求)」⁸⁹⁾

지난 가을 뵈고 돌아온 뒤로 앙모(仰慕)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옵니다. 새해 들어 생각하옵건대, 태체후(台體侯)께서 날로 산처럼 든든하시겠지요. 연호(然鎬)는 사사로운 간청(懇請)이 있어 감히 하집사(下執事)에게 번거롭게 하는 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비선조(鄙先祖)⁹⁰⁾ 명곡(明谷)⁹¹⁾ · 예곡(禮谷)의 문집(文集) 이 상자에 담겨진 채 아직 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손이 불초(不肖)하다는 꾸지람을 면하기 어려운 바, 오랏수록 더욱 묻혀져 없어질까 두렵사와 시방 판각하기를 경영 중입니다. 그러나 만드시 당세(當世) 군자의 글을 청해 얻은 다음이라야 후세에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일 태감(合監)에게 서문(序文)을 지어 주시기를 양청(仰請)하였습니다. 선의(先誼)로서 헤아려 보더라도 생각 밖으로 던져두시지는 않으실 줄로 상상(想像)됩니다. 비선조의 행적은 이미 하람(下覽)하셨사 온 즉 특히 추켜올려서 선덕(先德)을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에 뵈러 갈 참이 온바 문자 (청탁한 서문)를 그때에 받아서 돌아 올 생각입니다.

위 간찰은 1901년 초에 구연호(具然鎬, 1861~1940)가 본인의 8대조 구음(具崐, 1614~

남1녀를 낳으시니 아들이 구재서(具再書)이다. 1883년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20위(30/41)에 급제하여 동년 가주서, 1886년 성균관 전직, 1890년 사간원 정언, 1890년 부사관, 동년 성균관 전직, 1891년 장령, 홍문관 사독관, 1907년 탁지부 세무관에서 면직되었다.

88) 신헌구, 『유목집』, (주)인쇄향, 2016, p. 423.

89) 昨秋拜退後慕仰轉深屬茲 正元伏推合體候日以歸陰 否然鎬竊有私懇敢憤於 下執事伏推垂察否鄭 鄙先祖明谷禮谷兩代文集尚在巾衍而未 東壽傳難免 子孫不肖之責而懼夫愈久 而就泯沒力營鋟梓然 必得 當世君子之筆然後可以傳後故前以弁文仰請 於台監則揆以先誼伏想不置於度外矣 鄙先祖行錄 會已下覺則特加俞楊俾光先德無任區區之望 春間當作晉候行文字 當其時奉還計耳. 신헌구, 위의 책, 2016. pp. 384-385.

90) 비선조(鄙先祖)는 자신의 선조를 남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91) 명곡문집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학자 구음의 시문집, 3권 2책, 목판본, 1901년 후손 연학(然學), 연제(然濟)가 편지하였고, 연승(然升)이 이를 간행하였다. 권두에 신헌구(申獻求)의 서문과 권말에 김도하(金道和), 이종원(李種元) 후손 연호(然鎬)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 2에 시 246수, 권3에 기(記) 1편, 상량문 2편, 전(箋) 1편, 표(表)3편, 부록으로 행장, 가장, 묘갈명, 묘지명, 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1682)의 『명곡문집(明谷文集)』 서문과 7대조인 구문유(具文游, 1644~1718)의 『예곡문집(禮谷文集)』 서문을 백파에게 청탁하는 편지이다.

혼인(婚姻)과 글(文)로 맺어진 고령신씨와 능성구씨(綾城具氏)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557년 전인 1459년 1월 29일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함길도 도체찰사에 제수되자 구치관(具致寬)으로부터 온 서찰에 대하여 신숙주가 답장한 편지와 1470년 2월 18일 신숙주가 구치명(具致明)에게 지어 준 글, 그리고 359년 전인 1657년 4월 18일 죽당 신유(竹堂 申濡, 1610~1665)가 대사간으로 ‘국왕을 능멸하였다’ 하여 강계로 유배되자, 죽당이 황주(黃州)를 지날 때에 황주판관(黃州判官)으로 근무하던 명곡 구음이 작별하며 지어 준 시(詩), 초암 신훈(申混)이 지은 시에 대하여 명곡 구음이 차운한 시, 1676년 12월 3일 신선온(申善溫, 1647~1676)이 30세에 돌아가시자 명곡 구음이 지은 만사, 1901년 초 겨울 구연호가 백파에게 『명곡문집』·『예곡문집』 서문 짓기를 청탁하자 지어 준 일, 1902년 4월 7일 백파가 80세에 돌아가시자 구연호가 만장을 지어 줄 때까지 444년 간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 왔다.⁹²⁾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파는 청렴결백한 관료였으며, 올바를 기개를 지니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으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알려주는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백파는 오랜 관직생활 동안 청렴한 관리로 명성을 얻었으며, 시작(詩作)을 게을리 하지 않아 문학에서도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문과시[大科]에 시관(試官)으로 15회나 참석하였고, 사마시[小科]에 시관(試官)으로 14회나 참석했다는 사실은 그의 학문적 능력과 청렴성,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이런 그의 성품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적·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2. 백파의 저술활동

1) 『추당잡고』: 해남생활(1875~1880)의 활동과 기록

백파는 1875년부터 1880년 봄에 상경할 때까지 해남 시절의 생활상과 활동을 『추당

92) 신현구, 『유목집』, (주)인쇄향, 2016. p. 342.

잡고』⁹³⁾ 1, 2권에 남겼다. 첫 작품인 「도동작진우우구념(渡銅雀津遇雨口拈)」이라는 시에 소서(小序)를 붙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을해년(乙亥年) 봄에 조정의 명으로 남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적었다. 이 을해년은 고종 연간이므로 1875년(고종 12)에 해당한다. 2권의 끝 부분에 「승소장환송파무민급최위제인제회서별즉경진상원야(承召將還松坡无悶及崔魏諸人齊會舒別即庚辰上元夜)」라는 시가 있다. 이 시에는 경진년(庚辰年)에 명을 받아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데, 경진년은 1880년(고종 17)이므로 해남생활 5년이 이 시문집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2권 2책으로 구성된 이 시문집의 표제 아래 「남정록(南征錄) 상·하라고 표기한 것은 ‘征’ 자가 간다[行也]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송파 이희풍(松坡 李喜豊, 1813~1886)과 가깝게 왕래하면서 많은 시문을 수답했다. 두 사람의 시를 한데 필사본으로 엮은 『양과집(兩坡集)』이 있다.⁹⁴⁾

『추당잡고』에는 백과가 대둔사를 자주 드나들며 그곳 승려들과 교유한 정황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를테면 그가 대둔사의 각 암자와 그 주위를 잘 묘사한 내용, 불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은, 그곳 승려들의 탑명(塔銘), 그리고 화상찬(畫像讚) 등 다양한 산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산문으로는 「호의대사시오화상찬(縞衣大師始悟畫像贊)」·「하의대사지정화상찬(荷衣大師止定畫像贊)」·「성묵대사태원화상찬(性默大師太垣畫像贊)」·「일지암시집발(一枝齋詩集跋)」·「철선소초서(鐵船小艸序)」·「무위화상안인소조찬(無爲和尚安忍小照贊)」·「운파화상익화소조찬(雲坡和尚益華小照贊)」·「호의선탑명병서(縞衣禪塔銘并序)」·「월연화상우정소조찬(月淵和尚禹淨小照贊)」 등이 있다.

그의 산문에는 초연하고 탈속적인 생활을 동경했던 백과의 성향이 잘 드러나 있고, 시의(詩意)가 높고 청아해 그 격식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객지에서 문득 집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움을 읊은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초의(草衣)의 『일지암시고』에 발문을 쓰기도 하였으며, 『동다송』 끝 부분에 제시(題詩)를 남기기도 하였다.⁹⁵⁾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백과의 해남생활 5년은 차와 인연을 맺은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초의의 『동다송』과의 만남은 19세기 차문화사에서 초의차의 특별한 맛과 위상을 뚜렷하게 자리매김해 놓은 중요한 시기였다. 그의 『추당잡고』에는 조선의 차, 즉 초의차라는 자주적 개념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우리 차의 우수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93) 『秋堂襍稿』는 필사본으로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南征錄」 上 : 詩 285수, 贊 7편, 說 2편, 序 3편, 書·文·銘 각 1편 등이 수록. 「南征錄」 下: 詩 185수, 序 5편, 文 1편, 記 4편, 後敍 2편, 銘 2편, 書 5편, 襍著 2편, 上樑文 1편 등이 수록.

94) 신현구·이희풍, 『兩坡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

95) 『東茶頌』, 艸衣曾試綠香煙莫數丹山雲澗月一鍾雷笑可延年.

하였다. 즉, 그는 이처럼 초의차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조선 차의 자주성을 주창하면서 이런 조선 차문화의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차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과 육우의 『다경(茶經)』을 이으려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애석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백과의 『추당잡고』는 문집에 ‘옥침도인’ 저(著)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저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고서목록에도 저자의 이름은 ‘옥침도인’이라고 소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조선 말기의 문인인 기헌(奇獻)이 그 저자라고 서술하고 있다. 기헌은 현재 발행되어 있는 각종 인명사전, 조선왕조실록, 사마방목(司馬榜目) 등 주요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인물이다. ‘조선문과방목(朝鮮文科榜目)’에 의하면, 선조 때 인물인 기홍헌(奇弘獻)을 기헌이라 불렀다고 했는데, 기홍헌은 선조 39년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한 고용후(高用厚)의 처부이므로 활동 시기가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기헌이 어떤 인물인가에 상관없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그런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추당잡고』의 저자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고종(高宗) 연간에 살았던 백과임이 분명하다. 고령 신씨 족보를 확인해 본 결과 신헌구가 “1875년 을해년에 명을 받아 해남으로 갔다가 1880년 경진년(庚辰年)에 부름을 받아 예조참의(禮曹參議)·이조참의(吏曹參議)를 배수(拜受)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나온다.⁹⁶⁾ 이것은 『추당잡고』의 저자가 신헌구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또 책 이름에 ‘추당’이라는 호를 사용하였으며, 저자 표시는 ‘옥침도인’이라고 하였으나 본문 중에 실린 「일지암시집발」에는 ‘백과거사’가 썼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백과’라는 호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족보에 기록된 호와 일치하였다.

『추당잡고』의 표지는 전서(篆書)로 『추당잡고』라고 쓰여 있으며, 표제 아래에는 역시 전서로 제목 글씨보다 작게 1책에는 「태산일록(泰山一錄)」, 2책에는 「태산이록(泰山二錄)」이라고 쓰여 있다. 본문은 달필(達筆)의 해행체(楷行體)로 필사되어 있다.

『추당잡고』는 각 권 1책씩 전체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시를 모아놓은 시집이다. 1권은 「南征錄」 상, 2권은 「南征錄」 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정록」 상에는 166제(題) 285수(首), 「남정록」 하에는 110제 187수가 실려 있어 도합 276제 472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산문도 뒤섞여 있다. 『추당잡고』의 시제(詩題)는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다.

96) 김영봉, 『고서해제』 II, 「秋堂襍稿」,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2004, p. 286.

<표3> 『秋堂禱稿』 卷一 「南征錄」 上의 詩題

번호	詩題		詩題
1	渡銅雀津遇兩口拈	94	無爲和尚安忍小照贊
2	冒雨登南陔嶺	95	冬至日與松坡對酌
3	宿果川邑店	96	復與松坡述懷
4	遲遲臺	97	次韻賀李通政 炳洌門 儲後覃恩加資
5	過華城	98	崔生炳教來謁翰墨歲暮相守爲吟長律
6	店舍述懷二首	99	除夜聽雨
7	振威途中	100	懷題贈一律
8	宿素沙曉起書懷	101	夜與松坡及南泉閔載弘叙懷金益魯來舫同賦
9	發天安	102	雨夜與前人共酌默雲崔炳淑又到
10	錦江舟中	103	宋錦石禧萬以舊日幕賓亦千里委訪因與閔崔兩人元夜賞月
11	宿魯城邑店	104	簡和南響山 廷友
12	礪山途上寄家書	105	和贈宋禧萬錦石
13	拱北樓 在全州西門外	106	新春與松坡錦石偶吟
14	滯雨鹹井	107	寒食登穴望峰
15	任實途中	108	與松坡錦石來舫後園當春
16	行到淳昌南山臺宿族侄泰休家	109	三月十五夜
17	敬次歸來亭十老楔帖詩韻	110	餞春日吟示錦石
18	宿妙法里族叔帽隱敬模宅	111	睡起書懷
19	川無梁	112	偶吟示錦石
20	謠兩欵	113	送錦石北歸口呼以贈
21	宿廣巖族侄鍾休家	114	五月五日與數友偶吟 敬次 竹堂集松?端午詩
22	過雪山館 玉果縣	115	黃昏卽事
23	昌平途中	116	琴陽委訪爲賦二律
24	夜入光州	117	蓮峰遇雨
25	南平途中	118	悶旱
26	宿羅州東倉	119	題畫蘭五首
27	過靈巖月出山	120	枕上苦蚊偶作
28	登黃峙 康津界	121	早秋書懷
29	宿村舍	122	對鏡歎
30	遇雨歇山家	123	早春送崔生炳教入京應舉留與家兒夏課及秋而歸復見於海上爲贈一律
31	登海南東嶺	124	中秋前夜和崔生賞月
32	留大菴寺長律二首	125	漁城浦觀打魚
33	敬次 竹堂先祖記夢詩	126	自松湖還向大菴?上偶吟寄示諸友
34	思家七首	127	有懷趙斗南 并小序
35	遣悶十首	128	花奔雜詩二十首
36	遣閒十二首	129	山梅 山中玉梅千葉盛 開羞晚於桃香時
37	海上雜詠十首	130	海棠 常疑俗所稱海棠色麗而有香南來始辨是玫瑰花眞海棠則色態絕艷果無香

38	宿月湖里朴生以培家	131	竹林 南中處處有竹成林涼?最多
39	美黃寺	132	橘樹 惟近海處有橘而柑與柚出於耽羅
40	田婦詞 美黃歸路有所見演以俚語	133	甘榴 氣候常暖隆冬不勞移封樹顧花繁其實多甘
41	西院秋夜	134	側柏 世稱側柏所在魍 魅狐狸不敢隱形
42	見家書	135	曼陀花 卽冬柏曾 有作歌
43	贈梵海師	136	菩提珠 生於深山佛家 以其實作念珠海中金剛珠爲次自花珠又其次
44	中秋書懷	137	簷菴花 簷菴卽梔子花皆六出見 西陽雜俎洛中只有盆栽
45	烏啄行	138	百日紅 本名紫薇蓋壽木也樹無皮花似 丁香?紅豔盛夏始開淡秋極繁
46	李松坡喜豐來謗共賦 松坡故青連尙書後孫	139	繡毬花 洛中多盆栽繡毬未有叢大者今夏山寺見樹高丈餘花葉甚盛僧謂佛頂花
47	席上題贈松坡二首	140	玉簪花 花似玉釵頭洛中亦有盆栽
48	出山	141	水仙花 水仙皆從中國來近年得於 海上溪石間但着花者節罕
49	訪琴陽尹上舍鍾敏于蓮東琴陽卽孤山後孫	142	錦娘花 花如絳袖綠???色態甚艷四月盛開或云花如??故稱錦囊
50	清神菴	143	碧環香 形如金錢花其色淡碧蒂帝柔常下垂秋後開巖石間
51	新月菴	144	剪秋羅 形與石竹花相似而大五出皆岐如剪色甚紅艷其垂葉遂卽必?????
52	明寂菴	145	靡草 山野間有草若水仙秋則莖抽地底蕪鮮紅花謝而葉乃茁冬茂春萎及夏淨盡 居人不知名指以爲蘭俗之愁也呂覲四月靡草?則秋冬生旺春夏裏歲可推而知非
53	赤蓮菴	146	甘蔗
54	澗寂菴	147	香茶
55	道仙菴	148	簔荷 俗名海陽薑莖葉如薑根如紫茸採以爲蔬
56	眞佛菴	149	吟成花卉更賦一律
57	上院菴	150	自歎
58	挽日菴	151	回文體山中秋懷二首
59	南彌勒	152	玉連環枕上述懷
60	北彌勒	153	八音體吟秋
61	對食偶吟	154	家督自京下來喜賦一律
62	松坡來留翌日琴陽又委訪仍賦二律	155	天何蒼蒼反石州詩意
63	與琴陽松坡及吾宗在彬登北菴	156	鄭節制 周默自青烏鎮來訪終夜叙懷
64	花樹軒八景 并小序	157	與詩巢崔 承秀九日登西峰 崔卽炳淑大人
65	蓮洞路上用花樹軒韻送吾宗在彬東歸	158	家兒與崔生炳教遊北菴還又與崔及金益魯夜吟故次其韻
66	與松坡訪琴陽老人兄弟幽居	159	用前韻寄贈鄭節
67	松湖途中疊前韻示琴陽松坡	160	夜與松坡吟示少輩共和
68	訪松汀李喜晚德汝 ??????	161	松坡與少輩遊諸菴暮歸有詩人金秉憲來訪乘月夜吟

69	松湖亭次夢窩金相公板上韻	162	與諸客出長春洞途上拈韻
70	山齋五物銘	163	入竹川村舍用前韻
71	縞衣大師始悟畫像贊	164	登樂棲菴
72	荷衣大師止定畫像贊	165	疊用前韻贈桐泉金秉憲
73	性默大師太垣畫像贊	166	次杜工部秋與八首
74	龔菴說	167	立冬日大雪次家兒韻
75	性齋詩文跋	168	聞家兒與數友詠懷枕上次韻
76	一枝齋詩集跋	169	海茶說
77	九月之望與松坡登成道菴一宿而還用遠上寒山石徑斜白雲深處有人家停車坐愛楓林晚霜葉紅於二月花逐字成韻賦二十八首	170	詩巢翁詩序 次韻題朴忠貞公審問行錄後
78	別松坡獨坐無聊爲吟一律	171	寄軒遺集序
79	崔生炳教來訪爲贈一律	172	鄭節制 周默書龔金橘銀魚石花又有寺僧便所寄詩故走筆謝之
80	山齋雨夜奉覽 竹堂先祖海槎錄敬次本源寺遠客坐長夜雨聲孤寺秋爲韻絕句十首與松坡同作	173	次韻題朴忠貞公審問行錄後
81	與松坡賦餞秋	174	和贈旡悶李 喜冕服汝
82	九月晦始見菊花	175	貳身將歸吟示戒行程
83	曼陀拖子歌	176	送家兒後諸客又散獨吟二絕
84	題西山大師影閣表忠祠今撤	177	桐泉來訪夜興叙話
85	寄題金生箕文募居次板上韻	178	李德汝以斗米十五緡錢六十相餽貸故戲題
86	寄贈琴陽上舍 與松坡因作	179	簡末二句仍復衍成
87	簡別南尚書 廷順 上价人燕	180	松坡來訪夜與朴彙培崔炳教共賦
88	松坡復來訪留與共賦	181	答李服汝書
89	烟茶聯句?韻	182	冬至夜枕上偶吟
90	松坡在座返華生趙煖自水營來仍與共賦疊韻分屬	183	次韻題朴彙培富春山庄
91	鐵船小草序	184	七休堂旋閣改建文
92	怨菴和尚善機小照贊	185	縞衣禪塔銘 并書
93	月淵和尚禹淨小照贊	186	雲坡和尚益華小照贊

<丑4> 『秋堂禠稿』 卷二 「南征錄」 下의 詩題

번호	詩題		詩題
1	丁丑元日	71	金處士家狀後叙
2	簡和鄭節制周默 二首	72	石梧座右銘
3	贈月如上人	73	小園常雪
4	自歲除彌旬風雪感賦一律	74	歲除用前韻
5	和贈任壻哲鎬上舍	75	寓懷?梅
6	簡和李友日錫	76	戊寅元夜作
7	積雪初消與松坡雨中作	77	元夜海村卽事

8	松坡詩文序	78	答李甥日贊書
9	夜與金秉憲李喜冕崔炳教共賦	79	復與李甥書
10	元宵與諸?山門望月	80	贈魏生啓來序
11	李海蓮鳳基以金吾郎入耽羅?厯路相沓	81	贈鄭金溝匡淵序
12	和贈斗南	82	早春書懷
13	和贈尹應教 祖榮	83	春夢解
14	正月下旬日候始清佳吟示崔金兩人	84	上巳清明日偶吟
15	春朝見雪萬木皆花偶成長律	85	逍遙園??
16	簡和鄭綺霞節制	86	題扇贈金益魯
17	琴陽來訪留與賞春	87	園中雜詠
18	與琴陽雨夜作	88	今春看又過何日是歸年感懷作
19	東渠洪堉與金益魯自縣中來疊前韻相和	89	與來舫金益魯登東山晚望
20	連日雨留與前人共賦	90	悠悠齋詠懷
21	晚晴與諸家尋花到寶蓮閣共吟	91	簡和蘭史李日錫
22	夜清見月呼韻更吟	92	又贈蘭史
23	琴陽未歸朴生彙培崔生炳教適來牽率復吟	93	和贈李甥日贊
24	晚春卽事	94	簡和洪學士 允中
25	記夢	95	後園習?口拈
26	與松坡入內山口拈	96	永兒來觀與松坡及諸少年唱酬次其韻
27	眞佛菴次清陰先生韻	97	偶吟
28	宿無爲禪室	98	本倅許璉來訪夜與永兒呼韻却次
29	過挽日菴次西山韻	99	中秋夜次永兒韻
30	登老星臺	100	圍棋後戲贈尹進士鍾軫
31	崔詩翁問余入內山追到共賦	101	重陽日偶吟
32	贈宋生觀勉	102	又次永兒韻
33	贈金生箕泓 ?丹福人	103	李文清公送事後叙
34	三月海別松坡適有風雨悽然書懷	104	永兒與諸少年遊達摩帶雨暮歸次軸中韻
35	和贈任上舍哲鎬記夢時	105	送永兒歸後書懷
36	和東渠洪堉	106	十月園中玉梅盛開爲題一絕
37	贈尹鐘軫進士	107	芳春亭記
38	和贈東渠	108	答李甥書
39	賀李石梧喜晚回甲	109	贈李服汝喜冕序
40	石梧周甲宴詩序	110	翠春後園作
41	和東渠	111	雨中疊和魏生啓采
42	五月生朝兵使李敏應海南倅金演奎具酒僂携其以來慰余羈懷松坡東渠有詩却和	112	答李服汝書
43	戲贈美仙月桂二?	113	臥雲吳一泳?家南遊旅次談懷時登東麓
44	又和來渠	114	和贈旡悶
45	喜晴書懷	115	吳聖澤崔景胄同來咏懷
46	大菴寺募緣文	116	風雨終夜獨坐
47	贈錦城師	117	簡寄南尙州廷鶴懷德倅廷麟
48	簡寄洪參判 玩謫居 以前嶺伯謫古今島	118	黽芮問答
49	和贈李友 承韻	119	夜雨吟示景胄

50	雨後涼雲松坡來啞呼韻	120	和景胄
51	七夕又與松坡吟懷崔炳教以來	121	登東麓
52	與李君崔生步到新月菴偶吟	122	觀魚偶吟
53	話田家事呼酌仍賦	123	贈旡悶李服汝
54	聞京信寓懷	124	送金益魯之京
55	和崔生蚊帳韻	125	和服汝景胄
56	和李服汝	126	簡和澹齋任參判應準
57	李是人承韻歷路還訪仍相敘別	127	與旡悶携酒東岡
58	李甥日贊寄示玩易吟長篇以一律和贈	128	竹島泛舟
59	雲臺榜舍記	129	海陽潮信
60	戲題月城墨蘭 康營妓也善畫蘭年已三十	130	松湖精舍上樑文
61	和臺渠	131	貝州興學堂記
62	和贈吾宗明俊允斌疊韻兮屬	132	鰲山修楔詩序
63	九日耽津途中	133	金護軍章湖墓碣銘
64	宿東山書室 金?知致奎家	134	卽庚辰上元夜
65	與兵使李敏應虞候鄭允基康津倅尹墉登修仁山城是行李德汝及趙生達秉攢積相伴	135	夜宿石階節酬崔魏兩人
66	南浦泛舟	136	登黃峙
67	僑居海倉村舍與松坡偶吟	137	途中憶松坡
68	和鄭綺霞	138	遇公州
69	與松坡來渠米舫夜吟	139	寄和旡悶
70	逍遙園記		

『추당잡고』는 소재목을 「남정록」이라고 말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백과가 임금의 명으로 남쪽 지방인 전라도 해남에 가면서 여러 고을을 지나가는 과정과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쓴 시와 산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추당잡고』의 시제와 주석을 통해 백과가 전라도 해남 땅으로 내려오는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과는 동작진(銅雀津)을 건너는 곳으로부터→과천(果川)→화성(華城)→천안(天安)→여산(礪山)→전주(全州)→임실(任實)→순창(淳昌)→옥과(玉果)→창평(昌平)→광주(光州)→남평(南平)→나주(羅州)→영암(靈巖)→강진(康津)등을 거쳐 해남(海南)에 이르렀다.

백과는 각 여정마다 시 한수씩을 짓고 그 곳에 대한 풍경을 묘사하였다. 그의 시 몇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그는 여로(旅路) 중 순창에 이르렀을 때 신말주 등 자신의 선조들을 협주(夾註)로 소개하면서 선조들을 추모하는 여러 수의 시를 남겼다. 그의 시 「순창 남산대에 이르러 족질 태휴의 집에 유숙하며(行到淳昌南山臺宿族姪泰休

家)」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⁹⁷⁾

南來淳俗相逢
伊昔先公杖屨從
百世遺風君子竹
四時孤節大夫松
滿室芸香承爾祖
同隣花樹樂吾宗
何年奉謝金華路
白首雲林作老農

남에 와 친척을 기쁘게 상봉하여
저 옛적 선조님의 발자취를 좇도다.⁹⁸⁾
백세에 끼친 풍모 군자의 대나무요
사시 외로운 절개 대부의 솔이로다.
방에 가득한 운향으로 네 조상 받들고
이웃 같은 화수회 우리일가 낙이로다.
언제나 도성 길에 사례를 받들려나
백수가 운림에 늙은 농부 되었고도다.

순창 남산대에는 귀래정이 있는데, 그 이름은 고려 신씨의 조상인 신말주의 호에서 유래하였다. 그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에 상심한 후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와 「귀래정(歸來亭)」을 지었다.

백과는 해남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순창에서 선조의 발자취를 찾았으며, 군자의 풍모를 대나무처럼 절개 있는 우리 조상들의 성품에서 찾았다. 그는 창평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그의 시 「창평 길에(昌平途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⁹⁹⁾

烟雲竹樹浩無邊
日暮荒蹊入逝川
雨後行尋洪水迹
風沙漠漠失平田

운연 속 대숲 넓고 넓어 끝없는데
저물녘 오솔길이 가는 물로 들도다.
비 내린 후에 홍수 자취를 찾아가니
평전 잃은 곳에 모래바람 아득 도다.

백과는 대나무로 유명한 창평에 도달하여 넓은 대숲을 거닐었는데 너무 넓고 끝이 없었다. 그는 이곳에서 대나무의 성품을 선조의 성품과 비유하였다. 또한 그는 홍수 때문에 논밭이 모래로 가득 찼다고 묘사했는데, 이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표현한 것이었다.

백과는 전라도 광주로 입성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의 시 「밤에 광주에 들러(夜入光州)」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⁰⁰⁾

97) 신현구, 『秋堂襍稿』 권1.

98) 남쪽 언덕에 바로 선조 귀래공이 퇴로한 곳으로 옛 정자가 아직도 있다[南涯卽先祖歸來公退老之地古亭尙在].

99) 신현구, 『秋堂襍稿』 권1.

100) 신현구, 『秋堂襍稿』 권1.

長川日落漸曛黃
 行路迢迢意轉忙
 脩竹千家烟鎖綠
 么荷千里露凝香
 層樓畫角青山迥
 古郭疎燈白雨涼
 自笑南荒羈旅客
 誰家借宿一間床

장천에 해지자 황혼이 짙어간데
 갈길 멀어 마음 더더욱 바쁘도다.
 긴대 숲은 천가의 연기에 잠겨 푸르고
 작은 연은 천리에 이슬 맺혀 향기로다.
 층루에 화각소리 푸른 산 아득하고
 옛 성 희미한 등불에 흰 빗발 차갑도다.
 남녘 나그네 신세 자신도 우습거니
 누 집에 한간 평상을 빌려 유숙할고.

위 시는 백과가 순창과 창평을 지나 저녁에 광주에 들어서서 지은 시이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도착하니 갈 길은 멀어 해남으로 가는 마음은 바쁘는데 남녘 나그네가 된 자신의 신세를 희미한 등불과 흰 빗발에 비유하면서 지은 시이다. 그는 오늘 밤은 누 집에서 유숙할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였다.

백과는 순창, 창평, 광주를 지나 영암 월출산에 도착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그의 시 「영암 월출산 지나면서(過靈巖月出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⁰¹⁾

東山月出見丰茸
 眞面金剛第一峰
 古木荒城清夜籟
 夢中猶似正陽鍾

동산에 달 돌아 고운 빨 드러나니
 실로 면면이 금강 제일봉이로다.
 고목 황량한 성에 맑은 밤 피리소리
 꿈결에 정양사¹⁰²⁾ 종소리 들은 것 같도다.

백과는 영암에 도착하여 월출산의 빼어난 봉우리를 감상하였으며, 이를 금강산의 제일봉과 유사하다고 칭송하였다. 그는 마치 금강산의 정양사 종소리를 들은 것처럼 월출산의 정취와 풍경에 심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과는 순창, 창평, 광주, 영암을 거쳐 강진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다음과 같은 시로 묘사하였다. 그의 시 「강진의 경계 황치에 올라(登黃峙康津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¹⁰³⁾

縹緲東南萬仞山

저 멀리 동남쪽에 만길 높은 산

101) 신현구, 『秋堂稵稿』 권1.

102) 정양사는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절이다. 백제의 관록(觀勒)이 창건하였고, 신라 문무왕 때 원효 대사가 중건하였다.

103) 신현구, 『秋堂稵稿』 권1.

夕陽人在白雲間
 幾處槐安酣一夢
 浮生凋盡舊韶顏

석양에 사람이 백운 새에 있도다.
 몇 번이던가 괴안국¹⁰⁴에 단꿈 즐기던 일
 나그네 옛적 고운 얼굴 죄 시들었도다.

위 시는 백파가 영암 월출산의 누릿재¹⁰⁵인 황치를 지나 강진을 향해 가면서 읊은 시이다. 그는 강진 쪽에서 월출산의 산세를 훨씬 자세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그의 눈에 월출산의 모습은 시 한 수를 지을 만한 멋진 풍경이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누릿재를 시제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다. 강진으로 유배를 가던 다산 정약용도 이 고개를 넘으면서 황치라는 시를 지었다. “누릿재 고개 위에 우뚝 솟은 바위들이 / 나그네 뿌린 눈물에 언제나 젖어있네 / 월남 쪽에서 월출산 보지 말게 / 봉우리마다 도봉산을 너무도 닮았으니.” 다산과 마찬가지로 백파도 누릿재 고개의 모습과 월출산 모습에 감탄하였으며, 그 풍경을 자신의 신세에 비유하면서 시를 썼던 것이다.

백파는 강진을 지나 해남에 도착한 후 해창에 소요원을 열고 생활하였다. 그의 시 「해창 촌집에 더부살이하며 송과와 우연히 읊다.(僑居海倉村舍與松坡偶吟)」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¹⁰⁶

門外滄溟屋後山
 小堂幽寂可怡顏
 空階竹石初排置
 古徑荊茅少往還
 回首長瞻星極下
 奉身高臥水雲間
 新園栽植渾蕩事
 祇爲消過數日間

문밖에는 푸른 바다 집 뒤에는 산
 초당 적적한 곳에 기쁜 표정 짓도다.
 빈 섬돌 대와 돌 애초에 놓아두고
 옛 길에 초가집 뜸하게 오가도다.
 고개 돌려 멀리 북극 아래 바라보고
 봉신¹⁰⁷하여 높직이 수운 사이에 눕도다.
 새 동산 가꾸지만 다 부질없는 일
 다만 수일동안 소일할 뿐이로다.

104) 괴안국(槐安國)은 순우분(淳于棼)이란 사람이 괴목(槐木) 아래에서 술 취해 잠깐 누워 잠든 사이에 괴안국(槐安國)의 부마(駙馬)가 되어 남가(南柯)의 태수로 삼십 년 동안 있으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꿈을 깨고 보니 괴안국은 바로 괴목의 남쪽 가지 밑에 있는 개미구멍이었다는 이야기가 당나라 이공좌(李公佐)의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에 나온다.

105) 전라남도 영암군의 영암읍 개신리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월출산국립공원 동쪽의 고개로 월출산 천황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사자봉을 거쳐 노루재로 이어진다. 노루재는 노릿재, 누릿재, 황치(黃峙)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지리지에서 노루재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호남지도』에 월출산과 화치(지금의 불티재) 사이에 황치(黃峙)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 『지승』, 『여지도』, 『광여도』 등에 황치(黃峙) 혹은 황현(黃峴)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2010. 12.

106) 신현구, 『秋堂稜稿』 권2.

107) 봉신은 몸을 받들고 물러난다는 뜻의 봉신이퇴(奉身而退)의 준말이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26년 조에 “신하의 녹봉은 임금이 실로 소유하는 것이다. 의로운 일에는 나아가 녹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몸을 받들고 물러나야 한다. [臣之祿 君實有之 義則進 否則奉身而退]”라는 말이 나온다.

荒村落木撼寒聲
古岸斜陽曳杖行
漁浦晚潮孤棹去
漕倉秋糴衆喧生
蒔花種竹眞癡癖
步月看雲幾旅情
風雨關山書不到
遙天惟有雁南征

시골 앙상한 나무 흔들리는 차가운 소리
옛 언덕 해질녘에 지팡이 짚고 가도다.
포구엔 저녁 물에 조각배 떠나가고
조창엔 환곡으로 온갖 들렘 일도다.
꽃 심고 대 심는 실로 미련한 성벽이오
달 아래 걷고 구름 보는 나그네 신세.
비바람 치는 변방 서찰도 이르지 않아
먼 하늘에 기러기만 남쪽으로 날도다.

문밖의 푸른 바다와 집 뒤의 산을 보며 생활하였고, 새 동산도 가꾸어 보았지만, 다 부질없는 일이었고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달 아래서 구름 보는 나그네 신세로 묘사했는데, 이는 그의 적적한 마음과 외로움, 그리고 신세 한탄을 나타낸 모습이다. 해남으로 내려온 초기 해창의 어느 촌집에 더불어 살아가는 정황이 읽혀지는 작품이다.

『추당잡고』 시집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백파가 해남에서 생활하게 된 후 그 일대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지은 시와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은 시로 대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낯선 남쪽 해남으로 왔기 때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서울의 집안을 생각하는 시도 들어 있다. 그런 시 중의 하나인 「사가칠수(思家七首)」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⁰⁸⁾

攙天海岨碧崔嵬
時有孤雲自去來
若道家人登此見
短筇携到日三廻

하늘을 찌르는 바닷가 산은 푸르게 우뚝 솟았는데,
때때로 외로운 구름만 제 홀로 오고 가네.
만약에 집안사람을 이곳에 올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짧은 지팡이 들고서 하루에도 세 번씩은 올라보리라.<其一>

위 시의 첫 구절은 해남의 두륜산을 가리킨 듯하다. 두륜산은 매우 높아서 날씨가 맑은 날은 제주도의 한라산도 볼 수 있는 산이다. 백파는 시에서 구름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고향을 그리는 매개물로 표현하였다. 이는 제2구의 ‘외로운 구름’이 의미하는 바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는 높은 두륜산이라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그 산에 올라 서울의 집안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하루에 세 번씩이라도 올라가리라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에서 온 편지는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런 편지를 받을 때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의 시 「견가서

108) 김영봉, 『고서해제』, 『秋堂襟稿』,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2004, pp. 288-289.

(見家書)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⁰⁹⁾

欲坼家書意轉忙
 肯教人手替開張
 封頭題得一安字
 餘事何須更備詳

집에서 온 편지 뜯으려 하니 생각만 더욱 바빠
 기꺼이 다른 사람 손으로 대신 열게 하네.
 봉투 머리에 편안하다는 ‘安’ 한 글자를 썼으니
 나머지 일이야 어찌 꼭 자세하게 갖추어 쓸 필요 있으랴.

위 시의 첫 두 구절에서 백과는 오랜만에 접한 집 소식에 마음이 들떠 직접 봉투를 뜯어보기도 어려운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였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그는 집안 소식이 여러 가지로 궁금하였지만 모두들 잘 있다는 의미의 ‘편안할 안(安)’ 한 글자만 보고서 나머지 집안일은 미루어 짐작한다. 굳이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짐작해 볼 때, 그의 해남 생활은 가족의 안부에 대한 일을 제외하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으며, 해남 생활이 조금 무료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크게 힘들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시 「견민십수(遣悶十首)」 2수와 3수는 그의 해남 생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¹¹⁰⁾

人言閒者好
 愁裏不堪閑
 倦步還停坐
 夕陽猶在山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이 좋다고 말하지만
 수심 속에 한가함도 견디기 어려워라.
 게으르게 걷다가 다시금 멈춰 앉으리
 석양이 아직도 산에 걸려 있구나.<其二>

相隨兩僂僕
 形影與同憂
 盡日太無事
 睡餘風上樓

서로 따르느니 두 명의 노복인데
 내 몸과 그림자가 서로 근심해주네.
 하루 종일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고 나니 바람이 누각 위로 불어오네.<其三>

위 시에 의하면, 백과는 해남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무료하고 따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그의 모습에 대해 남들은 한가한 팔자라고 말하겠지만, 객수(客愁)에 젖은 그는 오히려 이런 한가한 생활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 그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리저리 산책도 해 보았지만 한참을 지나도 아직 해가 지지 않고 산허리에 걸려 있는 모습이라고 묘사한 데서 일상의 따분함을 느낄 수 있다.

109) 김영봉, 위의 책, p. 289.

110) 김영봉, 위의 책, p. 289.

두 번째 시에서도 무료한 일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하루 종일 아무런 할 일도 없어 낮잠을 실컷 자고 나니 시원한 바람이 누각에 불어온다고 한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렇듯 해남에서의 무료한 생활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늘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타지인 해남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로서는 임금이 있는 서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심정이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되었다. 그의 시 「구일탐진도중(九日耽津途中)」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¹¹¹⁾

九日行登海上臺
黃花又泛逐臣杯
山川滿目雲無極
何處長安入望來

중양절에 바닷가의 누대에 올라
외지에 쫓겨 나온 신하의 술잔에 국화꽃을 띄우노라.
산천은 눈에 가득하고 구름은 끝이 없는데
바라보는 눈길 어는 곳으로 서울이 들어오라.

위 시는 백과가 중양절(9월9일)을 맞아 인접 현(縣)인 탐진(현, 강진)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이다. 당시의 사대부나 문인들은 중양절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 국화잎을 술잔에 띄워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양절은登高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높은 누대에 올라 멀리 있는 산천을 바라보았으며, 어디쯤엔가 서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모습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에게 서울은 가족이 있는 곳ियो, 임금이 계신 곳이다. 하루 빨리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왕정(王政)을 보좌해야 할 곳이다. 그렇지만 그의 처지가 아직은 그럴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마지막 구절은 이백(李白)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서 노래한 ‘총위부운능폐일(總爲浮雲能蔽日) 장안불견사인수(長安不見使人愁)’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백과는 두보(杜甫) 시의 구절을 따서 제목을 정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이를 통해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시 「금춘간우과하일시귀년감회작(今春看又過何日是歸年感懷作)」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¹¹²⁾

海荒春又去
歸日竟何年
芳草知時緣
大刀看月圓
臣心猶不改

바닷가 거친 땅에 봄이 또 지나가니
돌아갈 날은 마침내 어는 해일까.
고운 풀은 때를 알아 푸르기만 한데
큰 칼은 보니 달처럼 둥글구나.
신하의 마음은 오히려 바뀌지 않았고

111) 김영봉, 위의 책, p. 290.

112) 김영봉, 위의 책, p. 290.

王道本無偏
 回首長安路
 浮雲欲掩天

임금의 도는 치우침이 없다네.
 머리 돌려 서울 길을 바라보자니
 뜬 구름이 하늘을 가리려 하네.

위 시의 제목에 쓰인 「今春看又過何日是歸年感懷作」은 두보가 피난지 성도(成都)에서 지은 ‘절구’의 제 3, 4구로서 매우 유명한 구절이다. 두보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애절한 마음을 읊은 구절을 빌려와서 그 역시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시어(詩語)중 ‘大刀’는 大刀頭의 준말로 ‘고향으로 돌아감’을 뜻하는 은어(隱語)이다. ‘刀頭’는 칼코등이가 있는 부분으로 ‘環(고리, 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還(귀, 환)’과 음이 같아 그 뜻을 전용(轉用)한 것이다. 이런 의미는 한(漢)나라의 이릉(李陵)장군이 흉노에게 억류되었을 때 그를 구하러 간 사신들이 이릉의 눈을 응시하면서 칼코등이(刀頭)를 어루만지고 발을 잡는 동작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암시했다는데서 유래한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백과는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서울로 가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추당잡고』에 실린 백과의 대부분 작품들은 해남에 살면서 교유한 사람들과 주고받은 시가 많다. 특히 조선 중기의 명신(名臣) 청연 이후배(靑蓮 李後白, 1520~1578)의 후손인 송과 이희풍(李喜豊, 1813~1886)과는 절친하여 그와 주고받은 시가 많다. 그는 또 「화훼잡시」 20수 같은 시에서 화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의 시는 대개 회문체(回文體), 옥연환체(玉連環體), 팔음체(八音體) 등 잡체를 구사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가 시적 재능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백과의 『추당잡고』는 일반적인 문집의 편차와는 달리 시와 문이 뒤섞여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초고(草稿)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군데군데 퇴고(推敲)를 한 흔적도 보인다. 산문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해남 대둔사를 비롯한 인근의 승려들과 교유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한다. 「일지암시집발(一枝齋詩集跋)」은 유명한 초의(草衣)의 시집인 『일지암시집』 3권에 대한 발문이다. 그는 이 글의 말미에 ‘백과거사(白坡居士)’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그의 별호(別號)로 이를 통해 그가 이 책의 저자임을 밝히는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옛날부터 스님네들 가운데 세상에 이름을 날린 이들은 주로 청운의 선비들에게 의지해서 비로소 이름을 날린 이들이다. 문창이 한유에 있어서가 그렇고 비연(秘演)이 구양수(歐陽脩)¹¹³⁾에

게 있어서 그러하며, 도잠과 총수가 소식(蘇軾)에게 있어 그러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불가는 적멸(寂滅)로써 도를 삼고 숨어 다스리기를 즐기며 색상(色相)¹¹⁴⁾을 비워두니, 하물며 시로써 이름 내기를 즐기겠는가. 그러나 유가에는 시가 있고, 불가에는 게가 있어, 게를 잘하는 스님 중에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가 없으니, 草衣 長老¹¹⁵⁾의순은 바로 근세에 게를 잘 짓는 이인 것이다. 내가 그가 일지암에서 쓴 작품을 보니 모두 맑고 멀며 그윽하고 담담하며,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성들여 다듬어서, 연천 홍석주가 요란한 수식에서 벗어났고 자하 신위가 승려들의 시티를 떨어 버렸다고 한 말도 진실로 이름을 떠들썩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자랑한 말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가 선비들과 어울려 수장한 것으로, 한유나 구양수·소식 등에 게 즐겨 인정을 받아, 문창·비연·도잠·총수가 절로 그 명성에 도움을 받았으니, 초의 스님에게 있어서도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는가. 그러나 스님들은 계율에 얽매어 때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한 시험 삼아 그의 시를 읽어본다면 어찌 아리따게 꾸미고 과장스럽게 다듬어서 이름난 사대부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혜휴나 보월 같은 무리와 견주겠는가. 참된 이치와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여러 대가들의 시를 두루 섭렵하여 이로써 게를 지으니, 마땅히 그 이름과 명성에 허물이 없을 것이고, 내 이미 그 시를 보고 그 사람됨을 알았으니 저 열은 승려들의 논의에 분개할 따름이다. 그의 행적은 간략하게 모아서 서문 속의 구절에 몇 마디 덧붙인 것으로 적당하니 책으로 인쇄하기를 기다리노라.

을해년(乙亥年, 1875년) 10월에 백파거사(白坡居士) 영천(靈川) 신헌구(申獻求)는 초의 스님의 고제인 월여(月如)의 선실에서 쓰노라.”¹¹⁶⁾

백파가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했듯이 20대 중반이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그는 어엿한 암행어사가 되어 강원도 금강산, 양양, 속초, 인제, 고성 등

- 113) 구양수(歐陽脩, 1007~1071)는 송나라 때의 학자·문인이다. 그의 자는 永叔, 호는 醉翁 또는 육일거사(六一居士)다. 과거에 급제하여 경력(慶曆) 이후 한림원시독학사(翰林院侍讀學士)·추밀부사(樞密府使)·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을 역임했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간신들로부터 무고를 당해 축출되었지만,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시와 문장으로 크게 이름을 날렸고 박학다식해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저서에 『신당서(新唐書)』·『신오대사(新五代史)』·『육일시화(六一詩話)』와 문집이 있다.
- 114) 색상에서 「색(色)」은 변괴(變壞)와 질애(質礙)의 두 뜻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총칭하였다. 최근의 해석으로는 형상과 색채를 합한 것으로, 존재의 한 방면의 물질적 성질을 뜻하였다. 「상(相)」은 외계(外界)에 나타나 마음의 상상이 되는 물질의 모양으로, 곧 모양·꼴·겉매 등을 말한다. 크게 보아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 115) 장로는 아유솔만(阿瑜率滿)으로 음역한다. 존승(尊者)·구수(具壽)라고도 번역하며, 지혜와 덕이 높고 법납(法臘)이 많은 비구를 통칭한다. 또 젊은 비구가 늙은 비구를 높여 부르는 이름으로, 기년장로(耆年長老·法長老·作長老) 3종을 의미하기도 한다.
- 116) 「일지암시집발」, 自古叢林之聞於世者 多附靑雲之士名始著 如文暢之於退之 秘演之於永叔道潛聰殊之於子瞻 是爾 然釋氏以寂滅爲道 樂隱淪而空色相 況以詩名乎 然(雖1)儒之詩 釋之偈也 偈之善者 未始不聞於世 草衣長老意恂 卽近世之善偈者余觀其所爲一枝蠶二弓詩 皆清遠幽澹洵粹煉精 淵泉之絕去粉澤 紫霞之擺落蔬筍 良非過謔 名碩聞人 又皆從與唱酬 不惟一韓一歐一蘇而止 雖欲無聞於世得乎 蓋亦非長老之所自附爲韓歐蘇者 樂得暢演潛殊 自助其名於長老何有哉 而緇衲局束於戒律 猶或非之亦試讀之 曷嘗爲綺麗淫冶 以求合於才子 如惠休寶月之倫乎 職由眞諦正覺歷涉諸家之詩 以爲之偈 宜其名聞之不暇 余既覺其詩知其人 又憤浮屠子之議 其跡略掇 弁序中章句 贅說而足之以嫉胡劉氏 歲旃蒙大淵獻之歲 白坡居士 靈川申獻求 書于艸衣高弟月如禪室. 원문은 신헌구, 『秋堂稊稿』 권1. 번역 임종욱, 『草衣選集』, 東文選, 1993, p. 322.

지를 다니면서 당백전(當百錢)이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검열하게 된다. 이 때 공무의 여가를 틈타 147수를 짓는다. 그 중 그의 시체에 등장하는 사(寺)·암(庵)이 신록사, 낙산사, 건봉사, 신계사, 유점사, 백화암, 장안사, 월정사 등을 비롯하여 스무 곳이 넘는다. 또 그 곳 스님들에게 준 증시(贈詩)도 20여 편이 넘고, 누정(樓亭)의 판상(板上) 시운(詩韻)에 차운한 시도 여러 편이 되는데 이 때 지은 시를 모은 것이 『동정록』이다. 이러한 사실은 백과가 불교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가졌음을 뜻한다.

이 『일지암시집발』에서 그는 초의를 매우 존경하고 칭송하고 있다. 불가(佛家)에 적멸이 있다면 유가(儒家)에는 시가 있다, 유가의 시는 불가의 계(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계로서 이름을 빛낸 스님이 별로 없는데 초의는 예외라고 하였다. 그것은 불가는 적멸(寂滅)로서 도를 삼는 고로 색상(色相)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런 칭송도 잊지 않았다. 예로부터 승려와 선비 간에 치소망년(緇素忘年)¹¹⁷⁾을 통해 몇몇 승려들이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¹¹⁸⁾ 초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 선비들과 시로 어울려 수창(酬唱)할 정도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려질 것이라고 초의의 시재(詩才)를 높이 사고 있다.¹¹⁹⁾

백과의 「차설(茶說)」은 해남의 옥천(玉泉)에서 생산되는 차에 대해 쓴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차의 종류와 용도를 설명하고 채집 시기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그가 쓴 「대둔사모연문(大菴寺募緣文)」은 대둔사를 지으면서 기부금을 모금을 독려하는 글이다. 그는 고사를 인용하여 불사(佛事)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경사가 많다고 하였으며, 선한 일을 하면 보은(報恩)은 그 자손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함으로써 시주를 적극 권유하였다.

백과의 「민예문답(黽芮問答)」은 파리와 구더기의 문답에 비유해 학문을 논한 것으로, 그의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견해를 살필 수 있는 글이다. 그의 글 중 「답이생일찬서(答李甥日贊書)」는 학문에 대해 질의한 자신의 생질(甥姪)에게 답한 것이다. 그는 심성(心性)과 이기(理氣)에 관해 장자(莊子)·열자(列子)·순자(荀子)·양자(楊子)·왕수인(王守仁)·육구연(陸九淵) 등의 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시(是)와 비(非)를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 「패주흥학당기(貝州興學堂記)」는 전라도 보성(寶城)의 흥학당 건립 유래를 설명한 글이다. 여기에서 패주는 보성의 옛 명칭이다.

117) 치소망년은 당대 승려들의 검은색 옷과 사대부들의 흰색을 비유하여 승속간의 오랜 교유관계를 지칭하는 말로 육우(陸羽)와 석 교연(釋皎然)과의 우정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118) 문창과 한유, 비연과 구양수, 도잠과 충수가 소식.

119) 송해경, 「草衣意恂의 茶道觀 研究 『東茶頌』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165.

백과의 족보나 생애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그가 공사간(公私間)에 쓴 기문이 대략 50여권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짐작 کن데 그의 문필 활동은 비교적 왕성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저술은 몇 권을 제외하고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어 그의 문학적 면모를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면 『추당잡고』는 백과의 문학 세계를 살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당잡고』는 백과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문학이 쇠퇴기로 접어들었던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문학 세계를 살피는데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¹²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과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해남에서 보냈던 무료한 생활 모습과 서울을 그리워하며 복귀를 갈망했던 모습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가 대문사를 드나들며 만났던 승려들과 교유한 내용들, 그가 대문사의 각 암자와 그 주위를 묘사한 내용들, 불사의 참여를 독려한 내용들, 불가의 사상과 철학을 흠모한 내용들, 승려들을 위해 탐명을 써준 내용들, 그리고 초의에 대해 극찬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추당잡고』에 수록된 그의 시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지암시집발』에서 승려와 선비 간 교유를 기술하면서 초의차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차설」에서는 해남의 옥천에서 생산되는 차에 대해 현실적으로 설명하면서 차의 종류와 용도와 채집 시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백과는 대략 50여권에 이르는 기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격적으로 문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의 저술은 불과 몇 권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그의 문학적 업적과 위상을 자세하게 고찰할 수 없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추당잡고』는 그의 문학 세계와 사상 그리고 차생활을 고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추당잡고』는 백과 개인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사대부 문학, 승려들과 사대부의 교유문학, 그리고 그와 대문사의 관계와 초의의 차문화 교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된다.

2) 기행 시집: 『백과만고』

『백과만고(白坡漫稿)』는 「동정록(東征錄)」, 「금화록(金華錄)」, 「서정록(西征錄)」, 「성도록(成都錄)」, 「용만록(龍灣錄)」 등의 필사본을 한 책으로 묶은 것<크기: 23.3×15.2 /

120) 김영봉, 앞의 책, pp. 291-292.

線裝, 1책(63장)>으로 원본은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아카이브(archive)로 구축되어 있다. 「동정록」은 1868년 봄에 관동어사(關東御史)가 되어 그 해 겨울에 복명(復命)하였는데, 이 때 강원도 금강산, 양양, 속초, 인제, 고성 등지의 경치를 노래한 시 100여 수를 편집한 것이다. 「금화록」은 궁관(宮官)으로 재직하면서 궁내의 여러 방면에 관해서 쓴 시 55수가 실려 있다. 「금화록」이라 한 것은 “옛적에 금화성(金華省)에 금화문(金華門)이 있었는데, 그의 집 뒤에도 또한 금화강(金華岡, ‘금화’라는 산등성)이 있었기 때문이다.¹²¹⁾ 「서정록」은 병인년(1866) 가을에 왕명으로 선비들이 관서(關西)의 희천군(熙川郡)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이 때 그는 문시관(文試官)으로 그곳을 오가는 사이에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¹²²⁾ 서울, 파주, 임진강, 송도, 묘향산, 평양, 의주 등의 경치를 읊은 시를 수록하였다. 「성도록」은 1871년 6월에 평안도 성천부사(成川府使)에 임명되었다가 다음 해 정월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이배(移拜)되었다. 이 때 사퇴(辭陞)¹²³⁾하면서부터 부임할 때까지 지은 시 18수를 모은 것이다.¹²⁴⁾ 마지막으로 「용만록」은 1872년 의주부윤으로 있다가 1874년 정월에 다시 내정(內政)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 이 때 약 2년간 변방에서 지내면서 읊은 26수를 엮은 것이다.¹²⁵⁾ 내용은 주로 변방을 지키면서 고향을 그리는 시를 노래하고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을 영접하고 송별(送別)하면서 읊은 것들이다.

그런데 2014년 고령신씨 귀래정 안협공파중중회 고문 신춘식이 발행한 『암행어사 신현구 시집 백과만고』에는 위에서 본 순서대로 편차되어 있으나, 편찬 연대순으로 본다면 「서정록」, 「동정록」, 「성도록」, 「용만록」, 「금화록」이아야 맞다. 이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서정록」

1866년 8월, 백과는 평안도 경시관(京試官)에 제수되어 의주(義州)로 떠난다. 집을 떠나 돌아오기까지 꼭 한 달(8월 8일~9월 9일)에 불과했지만 이 때 서울에서 의주까지의 여정을 읊은 것이 『서정록』이다. 이 『서정록』을 보면 그의 치밀한 성격이 잘 드러

121) 古有金華省金華門 余之屋後 亦稱金華岡 故凡赴公時所作 輯成一編名爲金華錄. 신현구, 『백과만고』, p. 93. (주)인쇄향, 2014.

122) 丙寅秋承命試士 于關西之熙川郡 道路往還間 有所得詩若干項編爲西征錄. 위의 책, p. 163.

123) 사퇴: 지방에 수령이 되어 가는 신하, 또는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신하가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124) 辛未六月 除成川府使 翌年正月 移拜灣尹 自辭陞至移赴 凡幾月所得詩 編爲成都錄. 위의 책, p.189.

125) 壬申正月 以成都伯 移拜灣尹 甲戌正月內召 二月交龜巖還莅府 凡二周年 邊務民政 倅德無暇 所吟詠不過若干數 編爲龍灣錄. 위의 책, p. 207.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제나 첫 시는 대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사폐(辭陞)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증별(贈別)할 때의 시가 대부분이다. 이 『서정록』도 그런 형식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서정록」에 수록된 첫 번째 시, 「사폐하고 길을 떠나 구호하다(辭陞就道口號)」¹²⁶⁾를 읽어 본다.

玉陞仙臚拜五雲	대궐 뜰에서 여창(臚唱)하니 오운(五雲)에 절하는데
諄諄天語近臣聞	타이르는 임금의 말씀 근신(近臣)이 듣는다네.
邦家取土安危在	국가의 선비 취함에 안위(安危) 달려 있으니
祇是公私兩界分	단지 공사(公私) 두 경계를 나누어야 한다네.

임지로 떠날 때 사폐를 드리니 임금의 타이르는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정황을 읽을 수 있다. 이로부터 벽제(碧蹄), 임진강, 송양(崧陽), 황주, 평양, 순안, 약산, 희천, 묘향산, 서흥, 개성 선죽교까지 회고와 이별, 그리고 판상(板上)의 시운(詩韻) 등 도합 51수나 된다. 거의 매일 두 수씩을 읊은 셈이다. 특히 「숙보현사(宿普賢寺)」, 「증경담사(贈鏡潭師)」, 「증보운사(贈普運師)」, 「개심사(開心寺)」, 「상원사(上元庵)」 등 사찰과 스님들에게 준 시편이 여럿 된다.

「송양으로 가는 도중에서(崧陽途中 丙寅秋承 命試土關西熙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¹²⁷⁾

吹笛橋邊落日催	다리 가의 피리소리 지는 해 재촉하는데
西風畫角迥流哀	서풍의 호각소리 멀리 들림이 슬프다네.
山如枯佛齊空寂	산은 고불 같아 모두 공적(空寂)인데
水送行人故屈迴	행인 운송하는 물에 옛적 굴원이 돌아오네.
白菜連畦踈葉大	배추 연이은 밭에는 커다란 잎이 성긴데
丹薇登窰細香來	단삼을 부엌에 올리니 가는 향기 흐른다네.
蒼茫五百年前國	창망한 오백 년 전의 나라인데
蔓草荒花繞古臺	취녕쿨과 들꽃은 고대를 감고 올라갔다네.

위 시에서 백과는 파주를 거쳐 임진강을 건너 송도로 가는 도중의 경치를 보면서 쓸쓸한 심회(心懷)를 토로하고 있다.

마지막 시는 「중양일에 명(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읊은 시(重陽日當命還

126) 위 『白坡漫稿』, p. 163.

127) 신현구, 위의 책, p. 165.

家途上口拈」이다. 이 때 그는 44세였으니 출사(出仕)한지 겨우 4년이다. 전구(轉句)에서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인다.

匏花已盡菊花開 八八離家九九廻 鏡裏須將冠冕習 五雲知是近蓬萊	박꽃은 이미 지고 국화가 피었는데 8월 8일에 집을 떠나 9월 9일에 돌아가네. 거울 바라보며 관면(冠冕)을 익히려는데 오색구름은 봉래에 가까워 음을 알겠는가!
--	--

<표5> 「西征錄」 시제

번호	詩題	번호	詩題	번호	詩題
1	辭陞就道口號	18	浮碧樓	35	賓鉢庵
2	碧蹄館	19	送呂使君口號	36	睡起登山樓
3	坡原途中	20	順安客館贈李使君承敬	37	北院贈別
4	渡臨津	21	肅寧館行望闕禮偶作	38	還到平壤坐至喜亭次板韻
5	崧陽途中	22	中秋夜登百祥樓觀項莊舞	39	巡使朴台珪壽命酒相邀夜觀歌舞
6	崧陽客館遇趙斗南夜飲共賦	23	登藥山東臺	40	再宿練光亭次板上韻
7	靑石關	24	熙川試院曉坐偶吟	41	疊前韻贈別
8	金川館	25	早發熙川	42	中和府別從行徒屬歸箕城再疊前韻
9	宿東陽館	26	香山途中	43	過黃州
10	葱秀嶺口拈	27	宿普賢寺	44	登洞仙亭
11	宿龍泉館	28	雨中登萬歲樓	45	洞仙館待鳳軒與主倅元兵使世顯聽歌
12	洞仙嶺	29	贈鏡潭師	46	瑞興途中遇雨
13	暮向黃州	30	贈普運師	47	還到東陽館滯雨停宿
14	平壤途中	31	酬忠祠	48	金川途中偶吟
15	宿練光亭	32	開心寺	49	滿月臺懷古
16	呂江東圭益來見于練光亭留與夜飲	33	上元庵	50	善竹橋
17	與呂使君泛舟向浮碧樓	34	佛影臺	51	重陽日當命還家途上口拈

(2) 「동정록」

무진년(1868) 2월, 백파는 관동어사(關東御史)에 제수되어 10월에 돌아오기까지 8개월간 수 많은 산천(山川)·풍토(風土)·누정(樓亭)·사찰(寺刹)을 둘러보며 147수를 읊어 기록한 것이 이 「동정록」이다. 앞서 본 『서정록』과 마찬가지로 『동정록』에도 사찰이

나 승려들에게 준 시가 눈에 띈다. 「낙산사(洛山寺)」, 「유점사(楡岾寺)」, 「제서래각대운선거(題西來閣大運禪居)」 등의 협주(夾註)에는 친절하게 관련된 역사적 사실까지 적고 있다. 특히 「백화암에서 완성법사에게 제하여 준(白華庵題贈玩惺法師)」 시에는 20여 년 전 어렸을 서울 백련사에서 공부하던 때의 승려인 완성법사를 만난 사실이 적혀있다. 이 시에 나타난 완성법사는 일찍이 서울 서쪽 백련사에서 살았던 승려이다. 백과는 어렸을 적에 그 선방을 빌어서 공부하였다. 헤어진 지 20여년에 여기 백화암에서 상봉한 것이다.(玩師嘗住京城西白蓮寺 余於少時 借其禪房讀書 別後廿餘年 至此相逢 했다) 이 사실은 뒷날 백과가 해남에서 생활할 때 승려들과의 교유가 낯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특이할 만하다.

「경포대에서 관상의 시운을 차운하다.(鏡浦臺鏡浦臺次板上韻)」¹²⁸⁾

驛路逶迤接降仙	구불구불한 역 길 강선루에 접했는데
海樓春色杳如年	해루의 춘색 아득한 해와 같다네.
行餘荻筆題公牒	행한 나머지 갈대 붓으로 공첩(公牒)에 썼고
酒後羅衫悵別筵	술자리 뒤에 나삼(羅衫)에 이별하는 자리 슬퍼했다네.
遠浦歸雲橫似練	먼 포구 돌아가는 구름 옆으로 명주 필 같이 비껴있고,
短林斜日淡於烟	석양의 조그만 숲에 안개 연하게 끼었네.
黃昏鏡水堪邀月	황혼의 경포호수는 달을 맞이하는데
且向中流放畫船	또한 중류 향해 화선 출선한다네.

7언 율시로 경포대의 주변의 빼어난 대자연을 읊은 시로서 하늘의 구름과 경포호에 비치는 달을 묘사해서 지은 시는 묘미가 있다.

<표 6> 「東征錄」 詩題

번호	시제	번호	시제	번호	시제
1	出宿永道寺	50	萬灰庵	99	苦雨
2	三田渡遇雨	51	白雲臺得雲字	100	楊口老妓送百花酒于旅次
3	冒雨發松坡	52	迦葉洞	101	霖雨彌月不霽
4	俗習多硬故作	53	衆香城	102	雨晴書懷
5	神勒寺	54	普德庵	103	宿蘆橋店
6	宿國享寺	55	九潭并小序	104	北寬亭觀習砲在鐵原
7	村店偶作	56	火龍潭	105	金化途中
8	橫城途中	57	船潭	106	披襟亭
9	觀市登泛波樓次板上	58	龜潭	107	聞韶閣

128) 신현구, 위의 책, p. 32.

	韻				
10	春川途中	59	眞珠潭	108	蓬萊閣
11	昭陽亭次板上韻	60	噴雪潭	109	巡使趙尙書龜夏夜邀觀舞
12	合江亭次板上韻	61	碧波潭	110	清虛樓追賡兩聖朝御製樓在 原州酒泉
13	狼交驛途中	62	琵琶潭	111	報德寺
14	延壽坡一名尾始嶺	63	黑龍潭	112	禁夢庵
15	襄陽途中	64	映花潭	113	奉審莊陵
16	洛山寺	65	洗頭盆	114	子規樓
17	遇雨宿茅山崔上舍命 根家席上贈言	66	萬瀑洞	115	碧坡嶺
18	鏡浦臺次板上韻	67	青壺淵	116	桃花流水館次板上韻旌善
19	清澗亭	68	表訓寺	117	白峰嶺
20	乾鳳寺	69	正陽寺	118	山行卽景
21	叢石亭	70	歇惺樓	119	越松亭
22	三日浦	71	天一臺	120	望洋亭
23	向楓嶽	72	白華庵題贈玩惺法師	121	竹西樓
24	入神溪	73	地藏菴	122	平陵驛夜坐廳雨
25	帶雨留神溪寺	74	玉鏡臺	123	九夫墓
26	用前韻贈龍虛師	75	長安寺	124	億曾春二首悼妓桃香
27	戲贈映河上人	76	信宿藏行諸僧爭來求 詩走筆題贈贈大應師	125	大關嶺
28	雨後金剛外山途中作 三首	77	贈止潭師	126	月精寺
29	五仙巖	78	贈春曇師	127	重陽日入內院
30	仰止臺	79	贈松庵師	128	史閣
31	玉龍關	80	贈浦隱師	129	中基
32	玉流洞	81	贈楓溪師	130	金剛淵偶逢詩人趙海史元教 暫坐共吟
33	飛鳳瀑	82	贈永峰師	131	夜行卽事
34	記險	83	贈虎惺師	132	題崔上舍秉潤來雲亭
35	九龍淵	84	贈竺欣上人	133	途中述懷
36	溫泉	85	贈澄虛師	134	寄呈歙谷倅朴丈承顯
37	端午日金剛內山途中 作三首	86	贈靜巖師	135	再入楓岳宿神溪寺
38	途中別萬亨上人	87	贈碧海師	136	維摩庵
39	七寶臺	88	贈奇巖師	137	普雲庵
40	普賢洞二首	89	贈性義上人 弔神溪書 記僧與表訓書記巨門 終始相隨	138	普光庵
41	楡岾寺	90	贈巨門上人	139	萬物草
42	題西來閣大雲禪居	91	自長安寺出洞口號	140	贈襄陽金使君風岳之遊余在 山中而拘於公格不得見
43	般若庵	92	墨浦嶺	141	登叢石亭寄謝通川李使君爽信
44	曉雲洞	93	途中苦熱	142	楸池嶺
45	隱仙臺	94	夜入淮陽府	143	淮陽歸路再宿表訓寺
46	鴈門嶺	95	菩提坂	144	雨後羨長安寺回望衆峰皆雪

47	妙吉祥	96	昌道驛夜作家書	145	斷髮嶺
48	佛地庵	97	宿玉洞倉舍	146	聖住庵
49	摩訶衍	98	行至伊川府避暑于李潤馥精舍	147	東行歸後遇閒謾吟

(3) 「성도록」

신미년(1871) 6월에 성천부사(成川府使)에 제수되었는데 이 때 그는 49세였다. 다음 해 의주부윤(義州府尹)에 이배(移拜)되어서, 사퇴(辭陞)부터 부임까지에 지은 시를 모아 「성도록(成都錄)」이라 하였다. 이 시집에는 18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하사한 시에 대하여 화답한 「대원군 이하응이 하사한 시에 화답하다.(奉和大院君賜詩)」¹²⁹⁾라는 시도 있다.

西行五馬一秋新 十二巫山可訪眞 聖世恩深猶未報 只將三祝效封人 積雨新晴氣爽然 南山滴翠晚陰天 枯苗處處含仁澤 同得人間活年	서행(西行)하는 태수 가을이 새로운데 열두 무산(巫山)의 신비를 찾으리. 성세(聖世)에 깊은 은혜 갚지 못하는데 단지 삼축(三祝) ¹³⁰⁾ 의 봉인(封人)을 받으리. 계속 내리던 비 개어 상쾌한 날인데 늦은 구름에 남산에 푸른 물방울지네. 마른 논 처처에는 물기 머금어 사람도 함께 살만한 해 되었다네.
---	---

이 시는 대원군이 하사한 시에 백과가 화답한 시이다. 성세에 깊은 은혜 갚지 못한 다고 하면서, 경사스러운 일을 ‘화봉삼축(華封三祝)’ 이란 고사를 인용하여 축하 하였다.

<표7> 「成都錄」 詩題

번호	詩題	번호	詩題
1	辭陞日月湖響山耕石來訪叙別	10	仙吏軒宜春帖
2	奉和大院君賜詩	11	澹齋任侍郎應準
3	崧陽懷古	12	除夜
4	留題洞仙館謝鳳山倅鄭學士稷朝傳廚豫待	13	東閣春夜
5	宿留仙觀卽成都別館	14	元夜遊昇仙矯
6	次家兒炳休笑仙亭韻	15	簡和響山南鴻山廷友

129) 신현구, 위의 책, p. 190.

130) 삼축: 화봉삼축(華封三祝)의 준말로, 화(華)라는 땅의 봉인(封人)이 수(壽), 부(富), 다남자(多男子)라고 하는 세 가지로 요(堯) 임금을 축도(祝禱)했던 데서 온 말이다. 『莊子』, 「天地」

7	仲氏自西河任所來臨數日率家兒泛舟于降仙樓下呼韻唱酬	16	自成都移拜灣尹將行敘懷
8	與校院諸儒宴降仙樓	17	湏上別成都諸儒鄉
9	大同江送家兒還京悵望偶作	18	練光亭奉別仲氏率內眷往甌山衙

(4) 「용만록」

임신년(1872) 정월에 성도백(成都伯)으로 있다가 의주부윤에 이배되었고, 갑술년(1874) 2월에 교구(交龜)를 출발하여 돌아와 부서(府署)에 부임하였다. 「용만록」의 ‘용만’은 의주(義州)의 고려시대 이름이다. 약 2년을 변방에서 민정(民政)에 힘쓰느라 지은 시편 26수를 모은 것이다.¹³¹⁾ 변방을 지키면서 고향을 그리는 시와 중국으로 오가는 박규수(朴珪壽, 1807~1877)¹³²⁾등 사신들을 영접하고 송별한 「진하삼사 박상서 규수 성시랑 이호 강학사 문형을 노희정에서 송별하다.(進賀三使朴尙書珪壽成侍郎彝鎬姜學士文馨勞喜亭送進賀三使于勞喜亭)」¹³³⁾을 소개한다.

長亭烟樹雨初收	비 그치니 장정에 안개 꺾는데
八月仙槎海上秋	해상의 가을 8월의 선사들이라네.
鶴野天清遙岀出	맑은 하늘 야학은 먼 산에 나는데
燕雲地接大江流	연경에 인접한 곳 대강이 흐른다네.
行人去國三千里	행인들 삼천리의 나라에서 가는데
遠戍臨城獨一樓	먼 변방 수자리 외로운 누각 있다네.
狼藉餘杯難更進	낭자한 남은 술 다시 올리기 어려우니
滿前羅綺寂如愁	앞에 가득한 미인들 수심에 찬 것 같다네.

위 시에서 백과는 중국 도시의 모습과 풍경을 묘사했는데, 장정(長亭)의 안개가 낀 모습, 멀리 사행을 떠나는 진하삼사(進賀三使)와 헤어지기가 섭섭했던 연경의 강 모습, 그리고 학야(鶴野)의 하늘을 나는 모습 등을 시로 묘사하였다.

131) 壬申正月 以成都伯 移拜灣尹 甲戌正月內召 二月交龜渡還莅府 凡二周年 邊務民政 倅德無暇 所吟詠不過若干數 編爲龍灣錄. 신현구, 『백과만고』, (주)인쇄향, p. 207.
 132) 환재(喚齋) 박규수(朴珪壽, 1807~1877)는 19세기 활약했던 대표적인 관료인 동시에 실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열하일기』의 저자인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손자이며 밖으로 서구열강과의 접촉으로 인해 기존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안으로는 삼정(三政)의 문란과 이로 인한 민란이 계속되고 있던 조선에서 박규수는 아편전쟁 직후의 청나라 문안사(問安使), 진주농민항쟁의 안핵사(按覈使),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의 평안도관찰사 그리고 대원군 정권기의 우의정 등 굵직한 역할을 맡았다.
 133) 신현구, 앞의 책 p. 209.

<표8> 「龍灣錄」 詩題

번호	詩題	번호	詩題	번호	詩題
1	三使閔尙書致庠李侍郎建弼朴學士鳳彬清遠堂	10	重繕城堞後酬幕賓研農崔性學韻	19	贈趙斗南
2	登二宜亭舊名淨沙	11	斗南從使行入燕短句絃別	20	望宸樓次板上韻
3	會諸儒于鎮邊軒	12	夜與三使讌飲斗南在旅次送詩走筆和贈	21	與進賀使李尙書根弼韓侍郎敬源登統軍亭選府妓分隊射的各呼一句聯成短篇書扇贈花魁順娘趙學士字熙以重服不來
4	送進賀三使朴尙書珪壽成侍郎彝鎬姜學士文馨于勞喜亭	13	次家兒炳休清遠堂韻	22	與冬至三使鄭尙書健朝洪侍郎遠植李學士鎬翼宴取勝堂即壬辰駐蹕之所
5	中秋夜與賓佐宴南樓	14	鎮邊軒逢新年寓感	23	詠眞假二梅
6	仲氏自西河試士清北後來臨讌飲統軍亭	15	寒食日清遠堂述懷	24	新春與賓佐登燕超亭小酌
7	邊警捷報後遇閒示賓佐	16	與回還冬至使金尙書壽鉉南侍郎廷益閔學士泳穆登統軍亭次退溪先生板上韻	25	聞恩除內召携客登燕超亭賞月共賦
8	重陽與賓登統軍亭拈杜工部韻	17	百一院闕武後與三使及諸守宰分耦習射	26	宿良策館贈別灣上諸生
9	鄉飲禮成後酬校院諸儒	18	和贈蘭西周少白棠二首		

(5) 「금화록」

「금화록」은 옛적에 금화성(金華省)에 금화문(金華門)이 있었는데, 백과의 집 뒤에도 또한 금화강(金華岡)이 있었다. 그런 연유로 1869년 백과가 부임했을 때 지은 것을 수집하여 「금화록」이라 하였다¹³⁴⁾

「서릉(西陵)에 왕명을 받고 가다가 비를 만나 도중에 읊다.(西陵奉命之行遇雨途中作)¹³⁵⁾라는 시이다.

金門拜命日初升	금문(金門)의 왕명에 해는 처음 떠올라
駟馬城頭路轉登	성두의 역마는 길 바뀌 오르네.
寶座祥雲瞻北關	보좌의 상서로운 구름 북관을 바라보는데
長亭驟雨向西陵	소낙비 내리는 장정에서 서릉으로 향하네.

134) 古有金華省金華門 余之屋後 亦稱金華岡 故凡赴公時所作 輯成一編名爲金華錄. 신현구, 『백과만고』, (주)인쇄향, 2014, p. 93.

135) 신현구, 위의 책 pp. 95-96.

이날 친정(親政)으로 춘당대에서 시사(試士)를 하였고, 나는 명릉(明陵)¹³⁶에서 직간(摘奸)¹³⁷하였다.

荒原古店林烟重	황원의 험 가게에 숲 안개 자욱한데
新漲懸崖后徑層	낭떠러지 뒷길은 새로 불어난 물에 잠겼네.
回首蓬萊多舊侶	봉래에 머리 돌리니 옛 벗이 많은데
幾人今夜宿靑綾	오늘밤 몇 사람이 청릉(靑綾) ¹³⁸ 에서 잘까!

서릉은 서오릉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왕가의 무덤이다. 숙종의 능인 명릉을 비롯하여 경릉, 창릉, 익릉, 홍릉을 말한다. 현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龍頭洞)에 소재한다. 백과는 왕명으로 춘당대에서 시사(試士)일을 맡아 하였고, 명릉(明陵)에서 부정이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옛 친구들은 그리워하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고, 대궐에 봉직하면서 오래도록 머무를 벗들은 과연 몇 명일까 하는 회한을 토로하고 있다.

<표9> 「金華錄」 詩題

번호	詩題	번호	詩題	번호	詩題
1	曉赴待漏院口拈	19	郊館閱武日承命守宮與李戚檢書秉瓚登後苑賞春	37	玉堂宣醞日廣進御製
2	堂后敬次竹堂先祖銀臺柱聯韻	20	祇迎大駕後偶成一律示李檢書	38	又廣東宮睿製
3	西陵奉命之行遇雨途中作	21	大殿端午帖分體各四首	39	太母寶齡望九宴耆社諸臣日廣進睿製代人
4	明陵歸路薇垣吏隸以除敕來迎又聞家親推恩進秩感賦一絕	22	文明君子國重五盛陽詩猶恐一陰在潛機未易知端陽一侍講晚退與鄭僚顯裕邀廚院郎沈戚鍾山英慶共賦于羸館	40	元日朝賀詩示諸僚在銀臺作
5	差太廟冬享大祝出齋于繕工監洪校理必謨南都事鍾友李令沂在鄭都事雲韶洪都事萬變亦差齋祝俱會齋所乘閒共賦	23	翌夜鍾山來話于館中疊前韻相示走次	41	銀臺直中與左令金蓉菴炳始遇閒拈韻當在上
6	大王大妃殿春帖子	24	題扇面贈玉署書記孫永	42	和栗山鄭尙書基會朝

136) 명릉: 서오릉의 하나로 조선 제19대 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 민씨, 그리고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룡이다.

137) 직간: 죄의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캐어 살핌, 부정이 있는지를 캐어 살피다.

138) 청릉: 숙직하는 시종신을 말한다. 漢나라 때 상서랑(尙書郎)이 건례문(建禮門)에서 숙직할 때에는 푸른 비단 잠옷을 지급했다고 한다.

			斗		賀詩
7	王大妃殿延祥詩	25	大殿延祥詩	43	景武臺侍宴謹廣御製
8	大王大妃殿端午帖	26	大殿春帖子	44	又廣睿製
9	禁直夜吟	27	王大妃殿延祥詩	45	神貞王后輓章庚寅排律廿八韻
10	玉署直中和堂后詩韻	28	元日銀臺卽事	46	又代人
11	禁直喜雨	29	上元夜玉署翰院諸僚來登六仙樓賞月席散後無聊偶吟	47	綏陵合封志感
12	哲宗英孝大王挽辭五首	30	次院吏苔錢韻	48	侍宴勤政殿謹廣王世子上壽識喜詩
13	玉署直中寄別嚴學士世永赴燕之行	31	隨駕東陵馬上口拈	49	王世子生辰御製廣韻
14	玉署直中和洪學士萬燮韻	32	洗心臺應制作	50	耆老宴敬廣御製
15	毓祥宮宣禧宮殿拜景福宮歷臨日承命守宮偶成一律	33	大王大妃殿春帖子代人作	51	又廣睿製
16	大殿春帖子十首	34	大王大妃殿延祥詩代人作	52	明聖王后輓詞排律三十韻乙未製未用
17	大殿延祥詩十首	35	中宮殿延祥詩代人作	53	又代人七律
18	與洪學士萬燮併直夜賦	36	試院奉和同座諸公	54	又代人五律
				55	又代人十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과는 『백과만고』에서 1868년부터 1872년까지 암행어사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의 기행을 시로 묘사하였는데, 여기에는 강원도의 금강산, 양양, 속초, 인제, 고성 등지의 경치를 노래한 「동정록」, 궁관으로 재직하면서 궁내의 여러 방면에 관해서 쓴 시를 수록한 「금화록」, 서울, 파주, 임진강, 송도, 묘향산, 평양, 의주 등을 오가면서 경치를 읊은 시를 수록한 「서정록」, 평안도 성천부사에 임명되어서 쓴 시를 수록한 「성도록」, 의주부윤에 임명되어 변방을 지키면서 고향을 그리는 시와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을 영접하고 송별하면서 읊은 시를 모아놓은 「용만록」이 포함되었다. 그의 『백과만고』는 서정적이고 서경적이며 낭만적인 기행의 시들을 담고 있었던 반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시를 담고 있었던 『추당잡고』와는 달리 그의 해남 생활 모습이나 대둔사에서 승려들을 만나 교유한 내용, 불사에 참여했던 내용, 불가의 사상과 철학을 흠모한 내용, 초의차를 극찬한 내용 등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추당잡고』와 『백과만고』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0> 『백파만고』와 『추당잡고』의 특징 비교

구분	『백파만고』	『추당잡고』
저술 시기	관직 시기	유배 시기
형식	기행 시집	시문집
표현 방법	서정적, 서경적, 낭만적	사실적, 현실적
백파의 차생활	없음	있음
사대부와 교류	없음	있음

Ⅲ. 백파 차생활의 특징

조선 후기 차문화는 사대부 계층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들의 문화적 성향을 일상생활 속에 그대로 용해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일상성과 대중성을 지향하는 차생활을 통해 조선 후기의 차문화 중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사회적 현상에 비추어볼 때 당시의 음다 현상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차문화는 제한된 계층과 지역적 조건 때문에 한정된 지역의 사대부들만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의 차문화를 수용하는 세력은 점차 저변을 확대해 나갔으며, 조선 중기에 비해 제한된 사대부 계층 내에서도 차 애호층은 점차 두터워졌다. 이는 차문화가 대중성을 지닌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지식인 계층은 차문화에 대한 자신들의 취향을 점차 확산시켜 나갔으며, 이를 즐기는 사회적 풍조와 인적 교류 확산은 당시 차문화 중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 지식인 계층의 다사(茶事) 향유는 집안에 내려오는 애음다풍(愛飲茶風)과 망형지교(忘形之交)와 같은 역사적 전통과 폭넓은 교유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안으로는 일상적인 차생활의 영위를 도모하였고, 밖으로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교류 확대의 장에서 음다라는 공통된 생활양식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모색하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갔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차를 기호음료나 약용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신성한 음료로 인식하고 향유하였다. 또한 이들은 공통된 취향을 바탕으로 차를 문화적 공간의 매개체로 활용하였으며, 신분의 차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주요 매개체로 인식하였다. 조선 후기에 다사(茶事)와 더불어 공시적(共時的)으로 이루어졌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은 오늘날 종합예술 성격의 차문화가 잉태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¹³⁹⁾

백파의 문집에는 차에 대한 그의 인식과 차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그리고 그의 차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16편이나 등장한다. 본 장에서는 그의 『추당잡고』와 『양파집』을 통해 그의 차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139) 한기정, 「18, 19 조선지식인의 차문화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pp. 1-2. 참조.

1. 『추당잡고』에 나타난 차와 문학의 결합 양상

우리나라에서 차에 대한 전문적 기록은 그리 많지 않지만, 개인 문집에서는 차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라도 출신인 매천 황현(梅泉 黃玿, 1855~1910)¹⁴⁰의 『매천집(梅泉集)』 5권에는 「또 미공의 칠언절구에 차운하다.(又次眉公七絶韻)」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해남차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아스라한 물가엔 거품 꽃이 물에 피고 (迷茫下渚浪生花)/물 너머 푸른 산은 검게 물 들러 하네.(隔水峰靑欲染鴉)/해질 무렵 외로운 배로 돌아가는 승려는(落日孤舟僧客返)/새로 난 해남차가 한 자루 가득일세.(一囊新帶海南茶)…….”¹⁴¹

백파도 그의 문집에서 해남차의 우수성을 언급하였다. 그의 차생활은 문집 『추당잡고』와 송파와의 교유 시집 『양파집』에 잘 나타나 있다. 차에 관련된 시는 『추당잡고』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차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의 『추당잡고』에는 차시가 11수 정도 수록되어 있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추당잡고』에 나타난 백파의 茶詩

번호	詩題	詩語	비고
1	山齋五物銘의 茶鑪	烟火籠, 茶鑪	
2	遣閒十二首	茗泉, 甌瓶, 陸羽經	
3	過挽日菴次西山韻	點茶	
4	登樂棲菴	茗泉, 武火	
5	思家七首	茶苦	
6	烟茶聯句四韻	烟茶, 茗香	
7	與松坡錦石未舫後園賞春	茗戰	
8	立冬日大雪次家兒韻	茶童, 玉屑	
9	和贈牙悶	茗香	
10	花卉雜詩 20首중 香茶	雲澗月, 雷笑	

140) 매천 황현은 전남 구례 만수동에 칩거하며 후학을 가르치고 시작(詩作)과 저술에 힘쓰다 34세(1888년) 때 부모의 권유를 어기지 못해 다시 과거에 응시, 합격하였지만 부정부패로 찌들어 가는 정치 현실에 실망하여 벼슬길을 영영 단념하고 구례 수월리 월곡 마을에서 『매천야록』, 『오하기문』, 『동비기략』 등의 저술에 전념하였다.

141) 황현, 『매천집』 권5.

11	海茶說	玉川茶	
----	-----	-----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차와 차도구와 차용어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그는 차에 관한 다양한 시작(詩作)을 통해 음차다구 등 다양한 차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의 차생활과 차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차시 중 다구인 「다당(茶鑪)」이 등장하는 「山齋五物銘(산재오물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⁴²⁾

相其類烟火籠	그 모습 살펴보면 연화(烟火) 낀 대그릇이요
罩見其心芬郁	그 속을 맡아보면 향기가 자욱하다.
沈深敲之而鏗	속이 깊어 두드리자 쟁그렁 소리 나니
繫爾百鍊之英	아 너는 백번 단련한 꽃다움이로구나.

위 시는 백파가 자신의 거처인 산재(山齋)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다섯 가지 물건들 중 하나인 차 끓이는 솥[茶鑪]을 노래한 글이다. 다섯 가지 중 나머지 넷은 곡궤(曲几), 죽장(竹杖), 동연(銅硯), 목경(木檠)이었다.

백파는 자신이 소유한 사물들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그의 섬세한 감수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다당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연화가 낀 대그릇으로 그 속에는 차향과 대나무향 등 여러 향이 가득하다고 기술하였다. 위 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당을 두드리니 쟁그렁 소리가 났다는 것으로 미루어 다당은 무수히 단련된 철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 시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당이 무쇠로 만든 화로에 대나무로 겉을 감싸 만들었기 때문에 불에 그슬린 대그릇으로 표현했던 것 같다. 이 당시에는 죽로(竹爐)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차와 다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차를 선물로 받아 마시거나 다구를 선물로 받고 감사의 시문을 주고받았다. 백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과정은 유학자들의 차에 대한 관심을 짐증될 수밖에 없었다. 차에 대한 관심은 차도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에는 차 솥인 다정(茶鼎), 다당, 돌솥(石鼎) 등이 꾸준히 언급되었지만, 이보다 크기가 더 작은 다요(茶銚)나 다병(茶餅)은 후에 다관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엔 차를 물에 넣어 끓여 마시던 형태가 오늘날처럼 찻잎을 우려내는 다관의 형태로 변화되어 갔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처음에 다관은 오늘날처럼 차를 우려서 마시는 용도가 아니

142) 정민(a), 앞의 책, p. 553. 원문 『秋堂襍稿』 권1, 참조.

라 차를 물에 넣어 끓여 마시거나 찻물이 식지 않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의 차가 우려마시는 형태보다 삶거나 가루를 내어 마셨다는 의미이다. 찻잔은 완(碗, 碗(盃의 속자))과 잔(盞), 종(鐘), 구(甌), 배(杯) 등의 용어로 표기하였으며 주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특히, 다완(茶碗), 다구(茶甌), 일구(一甌)는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¹⁴³⁾

차인인 목은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집』 「눈(雪)」에도 다당(茶鑪)이 언급되어 있다.¹⁴⁴⁾

小窓清坐思綿綿
雪意方酣欲暮天
頰上雙紅非壯歲
臚前三白是豐年
洒來竹屋聲猶凍
點入茶鑪味更妍
抱膝高吟正牢落
孤舟簑笠轉危然

창 아래 조용히 앉으니 생각은 끝없는데
눈 올 기미 한창 부풀고 날은 저물어가네.
두 뺨이 붉은 건 한창때라서가 아니요
납전의 삼백은 이것이 풍년의 조짐일세.
죽옥에 뿌릴 때는 소리만 들어도 추운데
차 술에 떠 넣으면 차 맛은 더욱 좋구나.
쭈그려 앉아 읊조리긴 정히 쓸쓸하지만
외로운 배에 샷샷 쓴 이가 되레 위태롭네.

이색은 선비다도를 대표한 차인이었다. 성균관 대사성·대제학 등을 지낸 그는 차를 전문적으로 구해오는 ‘가동(家童)’과, 전다(煎茶)하는 전문 노비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차의 명인이었다. 그는 차의 불꽃을 잘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차를 끓이는 법을 공부하며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다종(茶鐘)’, ‘화자’(꽃무늬 오지찻잔), ‘노아’, ‘영아’, ‘다탑’(차 마시는 평상) 등 차용어도 만들어 전파시켰다.

허균의 차생활에서도 다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午窓에 靑州의 운을 쓰다」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¹⁴⁵⁾

.....

濃陰滿庭白日靜
黃鳥一聲幽夢長
茶鑪經卷是生活
藜杖蠟屐惟行裝

질은 그늘 뜰에 깔려 햇별이 고요하고
피꼬리 한번 울자 그윽한 꿈 길다.
다당이라 경권은 이야말로 살림살이
여장과 납극은 출행하는 보따릴세.

143) 이정옥,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 본 차문화」,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p. 90-92. 참조.

144) 이색, 『목은집』 권6.

145) 허균, 『惺所覆瓿藁』 권2, 「和思穎」.

.....

위 시에서 허균은 다당과 경권(經卷)만이 살림살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시기에 그의 생활이 매우 빈곤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는 잦은 유배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차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백과의 음다 생활은 「견한(遣閑) 12수」 중 제9수를 통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¹⁴⁶⁾

碧篆清幽繚竹櫺	푸른 연기 그윽하다 대마루에 서리었고
茗泉新汲甌瓶靑	명천을 새로 길러오니 물병이 푸르도다.
瘴嵐消滌惟渠賴	장기(瘴氣) 남기(嵐氣) 씻어냄은 다만 차에 힘입으니
却悔疎看陸羽經	육우(陸羽) 『다경(茶經)』 대충 읽은 것을 이제와 후회하네.<其九>

백과는 해남 바닷가의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기(毒氣)로부터 영향을 받아 병치레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닷가의 이 나쁜 기운을 이겨내기 위해 차를 음용하였다. 위 시는 이미 육우의 『다경』을 접한 적이 있었던 그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섭렵하여 차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차의 약리적 지식을 알고 있었으며, 점차 차에 몰입해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만일암을 지나다가 유산의 시운을 차운하다(過挽日菴次西山韻)」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¹⁴⁷⁾

春風吹不盡	봄바람 쉽 없이 불어오는데
白日駐禪家	붉은 해는 선가(禪家)에 머물고 있네.
地高千年石	땅에는 천년 바위 우뚝 솟았고
山餘二月花	산에는 2월 꽃이 여태 남았다.
遠帆穿樹見	먼 돛단배 나무 사이 얼핏 보이고
危磴入雲斜	가파른 길 구름 잠겨 기울어졌다.
欲上高峰去	꼭대기에 올라 가보려 하여
催僮午點茶	동자에게 한낮 차를 재촉한다네.

위 시는 백과가 해남 두륜산 대둔사의 암자를 지나면서 쓴 글로서 다산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이 지은 시를 보고 차운한 시이다. 이 암자는 다산이 자주 들렀던 곳으로, 다

146) 정민(a), 위의 책, p. 554. 원문 『秋堂襍稿』 권1, 참조.

147) 정민(a), 위의 책, p. 556. 원문 『秋堂襍稿』 권2, 참조.

산은 이곳에서 만일암기를 비롯하여 만일암사적 등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고려시대 중반기(12~13세기)에 그곳에 5층 석탑이 조성되었는데 현재 만일암은 사라지고 없다. 이곳에서 백파는 정학연의 시에 흥취 하여 시 한 수를 남겼다. 하지만 정학연의 원래 시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만일암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인데, 그는 여기에서 바다 위 멀리 가고 있는 배의 돛을 볼 수 있으며, 정상으로 가는 길이 구름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시 미련(尾聯)에는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그 암자의 사미승에게 차를 한 잔 청하는 내용도 나온다. 이는 백파가 차를 일상적으로 즐겨 마셨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산은 순조 13년에 『만일암지(挽日庵志)』를 편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지도를 받은 아암혜장(兒庵惠藏), 수룡색성(袖龍蹟性), 기어자홍(騎魚慈弘) 등으로 이어지는 만덕사계 사제 승려들과 완호윤우(玩虎倫佑), 초의의순(草衣意恂), 호의시오(縞衣始悟) 등으로 이어지는 대둔사계 연담 문손들이 함께 『대둔사지(大菴寺志)』를 편찬하였다. 또한 그는 이청(李晴), 기어자홍(騎漁慈弘), 철경응언(掣鯨應彦), 백하근학(白下謹學), 오악승천(鰲岳勝粲) 등 승속의 힘을 모아 『만덕사지(萬德寺志)』를 편찬하도록 지도하였다.¹⁴⁸⁾ 이와 같은 사실은 정학연의 시 「억석유 4수(憶昔遊 四首)」¹⁴⁹⁾ 중 제2수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정학연은 「만일암 상량문」이 돌아가신 아버지(다산)에 의해 지어진 것임을 협주로 기록하였다.

丹屋翠壁響寒溪	붉은 집 푸른 절벽 찬 시내를 울리는데
昔日紗籠有扁題	지난 날 사롱(紗籠)에는 편액 글씨 있었지.
○挽日庵上樑文, 先君子所撰	만일암 상량문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지은 것이다.
尙憶山茶殘雪裡	잔설 속 산다(山茶)가 여태도 생각나니
夕陽掛在數峯西	석양은 못되 서편 걸리어 있었다네.
○自加年峯, 午憩挽日菴	가련봉으로부터 와서 대낮에 만일암에서 쉬었다.<其二>

위 시의 제목인 「억석유」에는 지난날의 유람을 회억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정학연은 24세인 1805년 아버지 다산을 뵈러 두 번째로 강진으로 내려가 고성암(高聲庵)의 비좁은 선방(禪房)을 빌려 한겨울을 지낸 적이 있었다. 이때 고성암에 있는 다산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아암이 대둔사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정학연은 그를 따라 대둔사 유람에 나섰다. 이때 정학연은 나흘간 두륜산의 여러 암자를 돌아다녔으며, 이에 대한 기록을 「유두륜산기(遊頭輪山記)」라는 제하의 친필로 남겼다.¹⁵⁰⁾

148) 정병삼,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p. 177.
 149) 정민, 「정학연의 「공후인시첩고」」, 『다산학』 17호, 2010, p. 181.

백과는 직접 물을 길어와 차를 끓여 마셨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의 시 「낙서암에 올라(登樂棲菴)」¹⁵¹⁾에는 그가 직접 차를 끓여 마시며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는 가시나무(迷陽) 같은 삶이 이곳에서는 달다고 여유로운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殘村小麓隱禪堂
 樵牧侵尋少棟樑
 活引茗泉催武火
 澹澹草具甘迷陽
 徑莎幕磴迷平側
 野竹成籬任短長
 山外鳴籃停處久
 坐看紅樹入暝黃

쇠락한 마을 작은 기슭 선당(禪堂)이 숨었는데
 규모도 자그마해 초동목부(樵童牧夫) 찾아올 뿐.
 명천(茗泉)을 길어와 무화(武火)를 재촉하니
 담백한 밥 풀 반찬에 미양(迷陽)의 삶이 달다.
 향초 덮힌 산길은 평지 비탈 어지럽고
 대나무는 울을 이뤄 제멋대로 길고 짧다.
 산 밖의 이름난 절 멈춰 지냄 오래거니
 붉은 나무 석양 비침 앉아서 바라본다.

위 시의 배경인 낙서암은 해남 비봉산에 있는 암자이다. 시의 함련(頷聯)에 기술되어 있는 ‘명천을 길어와’는 활수(活水)를 끌어와서 차를 달이는 물로 쓴다는 의미이다. 명천은 문화(文火·약한 불)와 무화(武火·센 불)의 미묘한 교차로 완성된 순숙(純熟, 차 달이기에 가장 알맞은 물의 상태)의 과정을 거쳐 차의 격조를 한껏 드러낼 수 있는 탕수(湯水)를 의미하였다. 이는 백과가 차를 달이는 불인 문무화에 관해 통달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차문화에서 물을 끓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정몽주는 차를 끓이는 물을 돌솥에 끓는 물과 풍로의 벌건 불빛 색깔으로 대비하였고, 이를 음양의 이치로 표현하였다. 그가 말한 감리(坎離)는 물과 불을 의미하였으며, 음양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주역을 읽으며 차를 달이는 동안 돌솥과 풍로, 물 끓는 소리와 벌건 불빛을 대비시켜 물불의 조화를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그는 이런 형상을 보고 무궁한 천지의 이치를 터득했으니, 이는 조선 후기에 사대부들이 궁리(窮理·사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법)를 터득하는 방법들 중 하나였다.¹⁵²⁾ 초의도 『다신전(茶神傳)』의 차 달이는 일에서 ‘물 끓이기’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탕(湯·끓은 물)은 (물이 끓는) 모양과 소리와 수증기의 형태를 보고 분별한다.”¹⁵³⁾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시의 함련에 나오는 미양(迷陽)은 『장

150) 정민(b), 『다산의 재발견』, (주)휴머니스트, 2011, pp. 573-574. 참조.

151) 정민(a), 위의 책, p. 557. 원문 『秋堂襟稿』 권1, 참조.

152) 박동춘, 「차물 끓는 소리에 정치적 상실감 잊은 포은」, <http://news.joins.com/article>.

153) 초의, 『다신전』, 태평양박물관, 1982, p. 81.

자』의 「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말인데, 거짓으로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백과는 낙서암을 찾았다가 차 대접에 이어 저녁 공양을 받은 뒤, 석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시로 표현하였다. 이 시는 『양과집』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원문은 같으나 「樂栖菴」이란 제하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의 시 「사가칠수(思家七首)」 중 5수와 6수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¹⁵⁴⁾

平日憂渠玉樹單 今年幸得棣華看 兩家俱有雙親在 暫別何如久病難 病兒承長君后是年余以永兒爲系 병이 장군의 양자가 되고, 이 해에 내가 영을 양자로 삼았다.<其五>	평소에 자손 없음을 근심했더니 금년에 다행히 형제가 보았도다. 양가에 모두 양친이 계시거니 잠시 이별이 어이 긴 병 어렵게 하랴.
--	---

平生柔婉所嬌三 病蕙弱蘭捻不堪 公姥在堂兒在抱 也應茶苦似飴甘 三女出嫁俱極清貧	평생 암전하던 아리따운 세 딸들 파리한 혜란처럼 다 이루 못하도다. 늙은 할멈 당에 있고 애는 품에 있으니 씹쌀한 차이건만 달콤한 옛 같도다. 세 딸이 출가하여 모두 극히 가난하였다.<其六>
--	--

위 시에서 백과는 아들 병휴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백과는 병휴를 형 신만구에게 양자로 보냈으며, 자신은 당형(堂兄)인 신정구(申定求, 1820~?)의 아들 신영휴를 양자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는 아리따운 세 딸이 자신의 맘에 맞게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애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쓰디쓴 차이지만 달게 느껴진다는 오묘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백과는 자신의 마음을 차의 덕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그가 진정한 차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송과와 백과가 서로 주고받은 시 「烟茶聯句(烟茶聯句韻)」이다.¹⁵⁵⁾ 이 시에서는 백과가 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게 차는 어떤 의미인가를 유추해볼 수 있다.

.....

백과(白坡) 分甌人相遺 鋪錢市不乏	궤를 나누어 사람에게 서로 보내고 돈을 깔아 저자가 부족치 않도다.
--------------------------	--

154) 신현구, 『秋堂稊稿』 권1.

155) 신현구, 위의 책, 권1.

송파(松坡)
吐脣升鬱氛
暈影散吹雲
백과(白坡)
淡馥燃眉凝
滲津汚指歎
송파(松坡)
茗香凌陸經
麴味笑劉鍾
백과(白坡)
酷熱猶茹辛
嘖滋幾蘸甲
송파(松坡)
.....

토하는 입가에 성한 기운 오르니
뿌연 그림자 잠간에 흩어지도다.
맑은 향기는 눈썹을 비틀며 영키고
스민 진은 손가락 물들여 박히도다.
차향은 육경을 능가하고
누룩 맛은 유삼을 비웃도다.
후끈한 열기는 매운맛 보는 것 같고
뻘는 재미는 거의 술잔에 가깝도다.

위 시는 송파와 백과가 차에 관해 서로 주고받으며 지은 시이다. 백과는 차를 매개체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유의 폭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차를 매개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한 것은 그가 해남생활을 견딜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의 무료한 생활에 여유와 너그러움을 제공해 주었고, 그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의 시 「입동일 대설 집 아이 시에 차운하다. (立冬日大雪次家兒韻)」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¹⁵⁶⁾

霾陰釀雪入玄冬
天水空濛深遠峯
萬斛晶塩埋古石
千莖銀髮臥寒松
瓊花媚日難爲久
鐵幹凌雲不受封
好倩茶童掬玉屑
篆香☒繚玻璃鍾

흠비가 눈 빚으며 겨울로 들어서니
하늘 물 자욱한 곳 아득한 봉우리.
만 섬 수정소금이 옛 바위를 묻고
천 가닥 은발이 찬 솔을 눕히도다.
구슬 꽃 햇살 받아 오래가기 어렵고
쇠 가지 구름 찢러 봉받지 못하도다.
어여쁜 여러 다동 옥가루를 움키는데
굽은 향기 ☒하게 유리잔에 감돌도다.

위 시는 7언 율시로서 함련에 차와 관련된 시어가 등장한다. 위 시에 등장하는 차 관련 용어는 다동(茶童)과 옥설(玉屑)인데, 다동은 옥설인 연고차를 갈아서 말차(抹茶)를 만들어 대접했음을 알 수 있다. 말차를 내는 과정은 점다(點茶)라 부른다. 위 시를 통해 백과는 그 당시 차의 종류였던 말차를 즐겨 마셨으며, 차를 마시는 방법으로 전

156) 신현구, 앞의 책, 권1.

다(煎茶)법 중 하나인 점다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백파의 시 「송파·금석·미방과 후원에서 봄 구경하다(與松坡錦石未舫後園賞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¹⁵⁷⁾

萬樹松間石徑西
 歲々芳綠午陰低
 客來花發三春雨
 僧靜山深九渡溪
 竹色欣迎茗戰笑
 鳥聲閒答樵歌啼
 與君放杖呵呵語
 一醉無妨五性迷

만 그루 솔숲 사이 돌길 서편에
 위이 곱고 푸르게 낮 그늘 드리우도다.
 삼춘 우에 꽃이 피니 나그네 찾아오고
 구도계에 산 깊으니 중이 정좌하도다.
 대 모습 흔쾌히 명전을 맞아 웃어대고
 새소리 한가히 초가에 답해 우짚도다.
 그대들과 막대 짚고 꺾꺾대며 말하니
 한번 취해 오성이 혼미해도 무방하리.

春光冉冉日遲遲
 滿樹繁紅欲醉時
 三月番風三月雨
 五分爲畫五分詩
 山中古寺無花釀
 海上離亭有柳枝
 何事經年羈旅客
 南天夜夜見星移

봄별이 아장아장 해는 느릿느릿
 나무 가득 성한 꽃에 취하려 할 즈음.
 삼월 번풍에 삼월비 내리고
 오 분 그림에 오 분 시 짓도다.
 산골짜 옛 절에는 꽃 주가 없고
 바닷가 이별하는 정자 곁에는
 어인 일로 해 넘겨 부평초 나그네
 남천에 밤마다 별자리를 보는가.

위 시는 백파가 송파, 송금석, 미방 김익로와 함께 후원에서 봄 구경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 시에 나오는 명전(茗戰)은 투차(鬪茶)라고도 부르며, 차 솜씨나 차 종류를 맞추는 겨루기인데 송대에 널리 유행했던 차 시합이었다. 송나라 황실의 음차풍속은 당나라 황실보다 더욱 성행하였다. 이 시대의 새로운 차문화인 투차 또는 명전은 송나라 황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송나라 휘종(徽宗)은 친히 『대관차론(大觀茶論)』을 저술하여 해마다 최상급의 용봉단차를 바치게 하였고, 차잎 생산, 제조 기술, 음차습속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갔다. 역사적으로 투차는 오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북건성 건안(建安) 일대에서 처음 유행하였고, 북송시대에 이르러 성행하였다. 송나라 사람들은 투차 마시기를 즐겼는데 고급 관리로부터 시작하여 문인(文人),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투차에 몰입하였다. 송나라의 문인들은 당나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차 맛보기를 즐겼는데, 차 맛보는 풍습은 문인들 사이에서 아주 보편적인 일상생활이었다.

157) 신현구, 위의 책, 권1.

위 시에 등장하는 ‘대 모습 흔쾌히 명전을 맞아 웃어대고’는 죽로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상들은 죽로차란 이름을 즐겨 사용했으며, 죽로(竹露)란 이름을 붙여 고급차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슬을 머금고 자란 차가 좋다는 것은 육우의 『다경』에도 나와 있는 대목이다. 대나무 발 사이에서 자란 차는 이슬뿐 아니라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어 좋은 차로 간주되었다. 차양 그늘 밑이나 나무 그늘 밑에서 자란 차 싹으로 만든 차가 좋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지만, 이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한 그 좋은 차를 감별해 낼 도리는 없다. 백파는 「아민에게 화답하여 주다(和贈牙悶)」라는 시에서 차의 효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¹⁵⁸⁾

.....

南汜沈沈北斗高
 羈燈夜坐歎離騷
 山川續阻違心目
 歲月頻回感鬢毛
 海國風烟長遠客
 禁城鍾漏幾時豪
 清朝正有升平樂
 樵笑孤衷謾自勞

남녘 물가 침침하고 북두 아득한데
 등불 단 밤 자리에 이소를 탄식 도다.
 산천이 이어 막혀 마음속에 멀어지고
 세월이 자주 흘러 귀밑머리 물들도다.
 바다의 풍경에 먼 곳 나그네 늘어가고
 장안의 시계에는 당대 호걸 뗏이던가.
 맑은 조정엔 실로 승평의 낙 있으려니
 우습다 고층 속에 괜히 홀로 애쓰이여.

樵丁漁子共幽居
 逆旅生涯亦有餘
 滄海月明棹一士
 湘江水濶弔三閭
 茗香入肺能消癖
 竹睡濃眉耐看書
 會得清風林下雨
 時來把酒却欣如

나무꾼 어부와 시골집에 함께하니
 나그네 생애 또한 여유를 지녔도다.
 창해에 달 밝으니 한 선비를 슬퍼하고
 상강에 물 넓으니 삼려¹⁵⁹⁾를 조상하도다.
 차 향기 폐에 들어 능히 괴벽 씻어내고
 죽수에 눈썹 찡그려 능히 책을 보도다.
 알겠거니 청풍불고 숲 아래에 비 내리니
 때 되거든 잔 잡고 돌이켜 즐기리라.

위 시는 백파의 관조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차향이 폐의 괴벽을 씻어내어’라는 시구는 정기가 크게 손상되어 나타나는 음습(陰濕)한 기운을 차가 억제해준다는 의미로서 차의 정기 회복 효능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차에 대한 그의 지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58) 신현구, 위의 책, 권2.

159) 삼려(三閭)는 굴원(屈原 B.C. 343~B.C. 277)인데,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楚) 나라의 대부·시인이었으며, 회왕(懷王)의 좌도(左徒)를 맡아 활약하였으나 정적(政敵)들의 중상모략을 받아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먹라수(汨羅水)에 투신하여 죽었다.

명나라 허차서는 『다소(茶疏)』에서 “차는 일상 마셔서 마땅하니 많이 마심은 마땅치 않다. / 일상으로 마시면 심장과 허파가 청량하며 / 번민과 우울함도 무디고 풀린다. 많이 마시면 비 신장이 조금 상하여 / 혹 설사나 혹 몸이 차갑다. 비장은 근본이 흠이어서 습하고 / 신장은 물의 고장이라 건조가 알맞고 온난이 알맞는데 / 많으면 혹시라도 이롭지 아니한가?”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심장과 허파 기능 강화, 번민과 우울함 해소, 신장 기능 강화, 비장 기능 강화 등 차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대목이다.¹⁶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파는 문집 『추당잡고』와 송파와의 교유 시집 『양파집』에서 해남차의 우수성과 차도구 등을 설명할 정도로 차생활을 즐겼다. 그의 차에 관련된 시는 『양파집』보다 『추당잡고』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차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그의 『추당잡고』에는 차시가 11수정도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다양한 음다생활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차를 단순한 기호음료로 생각하거나 시적 정취를 맛보기 위한 형식적 음료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차와 관련된 용어나 도구 뿐만 아니라 차의 약리적 효능까지 자세히 설명할 정도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차인으로 간주되었다. 『추당잡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차에 대한 인식은 일상의 차생활을 통해 터득되었는데, 여기에는 차의 고유한 성질에 대한 해박한 지식, 차음용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차의 약리적 효능, 그리고 차에 대한 학문적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는데, 이들은 그의 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였으며, 이는 대중들의 일상적 음다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양파집』에 나타난 음다와 차도구의 전문지식

『양파집』은 백파와 송파 두 사람의 시문을 한데 엮은 필사본이다. 이 필사본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두 사람의 교유시를 통해 백파의 차생활과 당시의 차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데, 우선 두 사람의 시를 한데 묶은 340수의 시제(詩題)를 다음 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60) “茶宜常飲.不宜多飲, 常飲則心肺清涼, 煩鬱頓釋.多飲則微傷脾腎, 或泄或寒.蓋脾土原淪, 腎又水鄉.宜操宜溫, 多或非利也.” 金明培 譯著, 『中國의 茶道』, 明文堂, 2007, p. 387.

<丑12> 『兩坡集』 詩題

번호	詩題		詩題
1	西陵奉 命之行遇雨途中作 申判書獻求 號白坡	171	又
2	玉署直中和堂后詩韻	172	又
3	郊館閱武日承 命守宮後苑賞春	173	廳琴 靈山伽倻國嘉悉王伶人于 勒造十二絃琴謂之伽倻琴
4	端陽日侍講晚退與諸僚共賦瀛館	174	聽笛
5	大殿春帖子	175	秋興
6	上元夜玉署翰院諸僚 來登六仙樓賞月席散後偶吟	176	又
7	崧陽途中 丙寅秋承 命試土關西熙川	177	又
8	崧陽客 館遇趙斗南夜飲共賦	178	又
9	青石關	179	梅花
10	洞仙嶺	180	粉蝶
11	宿練光亭	181	玫瑰花 海棠有垂絲貼梗二種皆無香東人多以玫瑰謂之海棠
12	呂江東來見于練光亭留與夜飲	182	暮歸
13	浮碧樓	183	曉起口占
14	中秋夜登百祥樓觀項莊舞	184	申白坡承旨枉大菴寺以遠客坐長夜雨聲 孤寺秋爲韻得絕句十首示余索和
15	登藥山東臺	185	安東龜潭
16	宿普賢寺	186	法龍寺次壁上韻
17	雨中登萬歲樓	187	洛東江
18	與箕伯夜宴至喜亭	188	智異山崔孤雲影堂
19	合江亭次板上韻 亭西有陶庵遺址及手植松	189	七佛菴 駕國首露王子兄第七人從玉寶仙人學道於此皆成佛故名爲七佛菴菴後有大巖爲玉寶臺
20	延壽坡 一名尾始嶺 俗說夸娥集天下奇峯以成金剛而移耒蔚山巖湯飲韻宮因醉而止此	190	白雲山道說國師影堂
21	洛山寺 新羅僧義相創寺修道觀音現化青鳥自東海窟來有雙竹澄果之說龍王贈珠二枚藏于石匣 光廟與中宮世子巡遊臨幸今奉繖扇及儀仗于 願堂	191	長水縣義妓碑
22	鏡浦臺次板上韻	192	全州 甄萱叛據全州遣使朝唐昭宗得拜檢校太尉兼侍中海東四面兵馬都指揮使全州刺史云
23	清澗亭	193	恩津 高麗太祖用道說言南 道建置伽藍五百所云
24	叢石亭	194	板峙 西山大師休靜亦當壬辰之亂與 其門徒倡義討賊并亨表忠寺
25	三日浦 亭名四仙而路逢杆城倅登覽而歸	195	錦江 唐高宗平百濟置熊津都督府使劉仁願 守之即今公州也
26	入神溪	196	素沙
27	九龍淵	197	和文克之白菊韻
28	楡岾寺 寺有玉杯盞勺卽 光廟巡時所御留鎮山門又有 御賜水晶念珠及珠簾僧言五十三佛自西域浮海而來止於大楡樹上故寺以此名	198	送草衣往智異山
29	滯雨留神溪寺	199	過蘆嶺
30	玉流洞	200	錦城

31	摩訶衍	201	又
32	衆香城	202	沃州村舍
33	普德菴	203	又
34	萬瀑洞	204	沃州雙溪寺遇一僧語到春潭和尚爲其老師 云潭嘗與余王考有契誼殊覺悵惘聊贈一詩
35	表訓寺	205	莞島觀音窟
36	歇惺樓	206	題海晏樓
37	長安寺	207	又
38	菩提坂	208	題全鎮弘歌扇
39	北寬亭觀習砲 在鐵原	209	悼妓
40	披襟亭	210	山中紀見
41	行至伊川府避暑于城東精舍	211	池上
42	關伯夜邀觀舞	212	老相
43	清虛樓追賡 兩聖朝御製 樓在原州酒泉	213	老將
44	越松亭 在平海	214	老儒
45	望洋亭 在蔚珍	215	老俠
46	竹西樓 在三陟	216	老醫
47	月精寺	217	老農
48	史閣	218	老僧
49	金剛淵遇詩人趙海史暫坐共吟	219	老妓
50	萬物	220	景福宮重建詞
51	楸池嶺	221	又
52	仲氏自西河任所來臨率家兒泛舟降仙樓下 辛未六月除成川府使時作	222	又
53	與校院諸儒宴降仙樓	223	又
54	東閣春夜	224	又
55	元夜遊昇仙橋	225	又
56	練光亭奉別仲氏率內眷往甌山衙 自成川移拜灣尹時	226	又
57	登二宜亭 舊名淨沙亭在義州	227	又
58	會諸儒于鎮邊軒	228	又
59	送進賀三使于勞喜亭	229	又
60	中秋夜與賓佐宴南樓	230	又
61	仲氏自西河試士清北後來臨燕飲統軍亭	231	又
62	邊警捷報後遇閒示賓佐 時有響馬賊以三舶入東江接戰破之燒其二船	232	許小痴草堂
63	重陽與賓佐登統軍亭拈杜工部韻	233	眞佛菴
64	鄉飲禮成後酬校院諸儒 先集父老子于南樓	234	與白坡宿成道菴
65	次家兒清遠堂韻	235	又
66	鎮邊軒逢新年寓感	236	又
67	寒日食清遠堂述懷	237	又
68	百一院閱武後與三使及諸守宰兮耦習射	238	安處士挽
69	望宸樓次板上韻	239	金護軍挽
70	與冬至三使宴聚勝堂 卽壬辰駐蹕之所	240	又
71	新春與賓佐登燕亭超小酌	241	長安遇趙斗南共賦
72	聞恩除內召携客登燕超亭賞月共賦	242	旅懷
73	過華城 乙未七月承命向海南	243	和宋左溟
74	拱北樓 在全州西門外	244	贈全弘士并序 士弘寶城人也擔簞挾策赴徵選之

			行其伯氏顧語曰視吾背搔其癢粒粟之量漸成潰決至稷山已頽然不進士弘號泣吮其毒繼用鍼藥殫誠集效余久遊洛晚尋鄉路士弘蓬黎面不可辨識呀然笑曰吾兄瘳矣稷人皆嘖嘖稱之
75	夜入光州	245	全州東臺
76	留海南大菴寺	246	與金石泉遊李氏山庄
77	送京中知舊入耽羅	247	石泉草堂
78	美黃寺 靈巖寺名在南海上	248	玉龍寺滯雨呈鄭明府
79	登北菴 卽大菴寺之北菴	249	寄題茂長李處士竹裏館
80	松湖途中口占 松湖卽松汀	250	過李進士舊居
81	簡別南尚書上价入燕	251	芝谷會遊
82	寒食登穴望峯 卽大菴寺後峯	252	金鈍菴正言宅夜飲
83	五月五日與數友偶吟	253	宿澄心寺
84	蓮峰遇雨 卽大菴後迦蓮峰	254	修仁寺遇化月上人
85	家督自京下來喜賦一律	255	與金士衡南大均登石門菴
86	貳身將歸吟示戒行程	256	呈申兵使
87	次杜工部秋興八首	257	陪海玆二宰遊碧波津
88	其二 蛾眉海南山名	258	登西嶺望達摩山
89	其三	259	清海感懷 清海今莞島也新羅張保臯爲清海大使與土人鄭年合謀糾兵討平金明之亂年繼爲大使擊破海寇屢立大功年勇力絕倫潛行水底一噓之間能運五六十步
90	其四	260	送別金海史
91	其五	261	訪徐晚坡承旨謫居
92	其六	262	贈別許小痴
93	其七 白馬城在龍灣 金剛稱蓬萊 成川有巫山	263	和朴德玄
94	其八	264	題大菴寺枕溪樓
95	自歎	265	題鐵船上人禪室
96	鄭節制書餽金橘銀魚石花僧便又寄詩和之	266	過安處士郊居
97	與李松坡崔梅巢消遣 白坡集 續錄	267	奉和尹琴陽
98	與松坡梅巢吟	268	申棠山見過
99	田家卽事	269	金翼之挽
100	賡吟	270	金衛將挽
101	與梅巢雪中吟	271	和李寅瑞
102	聯吟	272	美人八詠 一緣
103	與松坡吟	273	二歡
104	賡吟	274	三情
105	漁城浦觀打魚	275	四悵
106	贈梅巢	276	五思
107	梅友慰寂於山房永夜相守	277	六愁
108	與松梅遊大菴近菴路中作	278	七夢
109	樂栖菴	279	八淚
110	中秋前夜書示梅巢	280	賀尹琴陽登庠
111	中秋夜與詩巢丈敘懷	281	次許小痴墨竹韻
112	與松梅吟	282	次金仁和春日閑居韻
113	聯吟	283	次士衡聽溪韻
114	聯吟	284	題卞生歌扇
115	聯吟	285	和白坡韻

116	和梅巢蚊帳韻	286	其二
117	與東渠洪埤遊吟	287	老妓
118	會話新法堂	288	征婦
119	贈東渠	289	與琴陽白坡登北菴
120	又贈	290	松汀酒席酬白坡
121	聯吟	291	榴花
122	聯吟	292	秋浦漁灯
123	又	293	謾吟
124	又	294	西山大師影堂
125	又	295	金文源山齋
126	又	296	金處士屏澗亭次韻
127	新正無聊而坐梅巢袖示一律和之	297	和白坡
128	松汀主人回甲韻	298	過竹川村
129	柳月湖嘗誦人夢中詩一聯於余曰滄海月明珠百斛瑤臺花發桂千春書于壁上一夕夢隨乘輿入京見花開月明恍惚聞心念此詩仍以二句足之覺後吟首句以成篇云	299	於蘭鎮 和朴文赫
130	眞佛菴次清陰松湖韻	300	謾吟
131	登老星臺	301	南平途中
132	詩巢聞余入內山追到未及歸與共賦	302	內藏寺秋望
133	贈同福宋觀勉	303	加里浦
134	和贈洪東渠	304	過鴻梁浦懷李忠武公
135	又和	305	溪堂贈內弟永之
136	贈康津尹進士	306	瀟灑園
137	與松坡梅巢吟	307	申養石 節度座上聞吹甬
138	與松坡入內山口占	308	陪李明府遊松湖亭
139	過挽日菴次丁酉山詩	309	和宋左溟
140	別松坡後作	310	憶梁石圃
141	宿無爲禪室	311	宿田家
142	贈同福金箕泓	312	九月晦始見菊花
143	和人夢中詩	313	觀雪
144	寄尹侍講	314	寄金桐泉
145	又寄	315	鷄雛
146	和寄趙斗南 寅奎 五首	316	木屐
147	又	317	排悶
148	又	318	古意
149	又	319	大菴寺與白坡吟 松坡集 續錄
150	又	320	梅巢適到鼎坐聯吟
151	戲贈弄月仙桂二妓	321	共賦寄尹琴陽
152	又	322	又與叙懷
153	賜環歸第後東寄梅巢 四律三首七絕一首	323	雪夜共吟
154	又	324	又與吟遣
155	又	325	新秋又會山房
156	又	326	共賦田家卽事
157	康津道中 李喜豐 號松坡	327	又
158	古今島謹次李忠武公韻	328	樂栖菴 共吟
159	宿草衣上人房	329	漁城浦共觀打魚

160	山行 四首	330	山寺雨中又與鼎坐吟遣
161	美黃寺賞秋花 鴈來紅	331	新涼會話
162	碧環香	332	聯吟
163	剪秋羅	333	七夕日會話
164	秋牧丹	334	眞佛菴共次清陰松湖韻
165	寄林德裕	335	共登老星臺
166	寄茶蔡西湖	336	威從叔詩巢聞與白坡入內山追到未及歸與共吟
167	贈萬休上人	337	白坡贈詩宋觀勉余亦步韻並贈
168	江上	338	再從弟松汀主人回甲日
169	移秧	339	與白坡梅巢又會菴寺
170	又	340	共入內山

『양과집』에 수록되어 있는 백과의 차시는 『추당잡고』보다 훨씬 적다. 여기에는 다섯 수 정도의 차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兩坡集』에 나타난 茶詩

번호	詩題	詩語	비고
1	樂栖菴	活引茗泉	
2	聯吟	茶經	
3	寄茶蔡西湖	鷹爪茶	
4	山中紀見	新茶	
5	與金士衡南大均登石門菴	茶來新熟	

백과의 시 「연구로 읊다(聯吟)」는 7언 율시 시인데, 이 시의 수련(首聯)에는 『다경』이 등장한다.¹⁶¹⁾

昨夜梧桐月滿庭
微涼虛閣試茶經
銀泓活水含雲白
玉壘高峰濯雨青
海上三年行遣日
人間七夕臥看星
苦炎了盡沈痂去
蕭颯風來適性靈

지난밤 오동에 뜬 달이 뜰을 비추거니
서늘한 빈 누각에서 『다경』을 시험해 본다.
은빛 구비 흐르는 강 구름 품어 하얗고
옥을 쌓은 높은 봉 비에 씻겨 푸르도다.
바닷가 삼년에 오가며 날 보내고
인간세상 칠석에 누워 별 보도다.
묵은 딱지 지듯 한더위 다하거니
삼상한 바람 불어 성령에 맞도다.

위 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산수(山水)를 문화와 예술이 발현

161) 신현구·이희풍, 『양과집』.

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원과 원림과 산수 공간에서 아회(雅會) 또는 사색과 명상이라는 풍류 활동을 즐겼는데, 풍류를 즐기면서 이들이 읊었던 시나 그렸던 그림에는 차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였다.¹⁶²⁾

위 시는 백파가 해남으로 내려와 소요원을 열고 누각에서 차를 마시며 보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가 『다경』을 시험한다는 구절은 차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정을 대변해 준다. ‘바닷가 삼년’이란 의미는 소요원에서 삼년을 살고 거처를 옮겼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요원에서 삼년 되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백파의 「소요원기」에도 ‘해양 3년(海陽三年)’¹⁶³⁾이란 말이 나온다. 그의 또 다른 시 「채서호에게 차를 부치며(寄茶蔡西湖)」에도 바닷가 생활을 하면서 차생활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¹⁶⁴⁾

海上鷹爪茶
香色兩奇絶
遠寄讀書人
灌心清且冽

바닷가 응조차
향과 색 절묘해.
멀리 독서인에게 보내니
맑고 시원하게 가슴 속 씻으리.

위 시에 등장하는 응조차는 해남의 차를 의미한다. 응조차는 차의 순이 매의 발톱을 닮은 것으로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차의 차향과 색은 매우 절묘하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백파의 차에 대한 조예는 상당한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독서인 채서호¹⁶⁵⁾에게 차를 보내면서 맑고 시원하게 가슴을 씻어 내린다는 차의 효능까지 기술해 놓았다. 응조차는 산천 김명희(山泉 金命喜, 1788~1857)¹⁶⁶⁾의 시에도 언급되어 있다. 1850년 초의차를 받은 산천은 감사의 뜻을 담아 초의에게 「사차(謝茶)」¹⁶⁷⁾ 시를 보냈다. 이 시를 지을 당시 산천은 이미 63세의 노인이었다. 초의의 『일지암시고』에는 「부원운(附原韻)」이라는 시가 있는데, 시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긴 글이 제목 대신 들어 있다.

162) 양유선, 「18-19세기 조선사대부의 다문화(茶文化) 통한 경관 향유방식에 관한 연구-다산 정약용이 차 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5, p. 20.

163) 「逍遙園記」: 余到海陽三年處深山中鬱鬱不堪久導海而西望日星玉梅始, 신헌구, 『秋堂稜稿』 권1.

164) 신헌구·이희풍, 『양파집』.

165) 여기서 채서호는 이름이 채서호인지 서호에 사는 채씨 성을 가진 인물인지 알 수 없다.

166) 추사의 아우이다. 자는 성원(性源)이며 호는 산천도인(山泉道人), 혹은 산천이라 하였다.

167) 病瘡渴甚, 乞靈茗椀. 近日燕肆購來者, 錦囊繡包, 徒向外飾, 麤柯梗葉, 不堪入口. 此時得艸衣寄茶, 鷹爪麥穎, 儘雨前佳品也. 一甌未了, 頓令滌煩解渴. 顯氏之胃, 已退三舍矣. 麗朝令植茶, 土貢內賜, 皆用茶. 五百年來, 不識我東有茶. 採之焙之, 妙入三昧, 始於艸衣得之. 功德眞無量矣. 山泉老人試病腕. 정민(a), 앞의 책, p. 475.

.....

巾衣忽寄雨前來
 籜包鷹爪手自開
 消壅滌煩功莫尙
 如霆如割何雄哉
 老僧選茶如選佛
 一槍一旗嚴持律
 尤工炒焙得圓通
 從香味入波羅蜜

.....

초의 스님 갑자기 우전차(雨前茶)를 부쳐오니
 대껍질 싨 응조차(鷹爪茶)를 손수 직접 끝렀다네.
 막힘 뚫고 번열(煩熱) 씻음 그 공이 대단하여
 우레 같고 칼 같으니 어이 이리 웅장한가.
 노스님의 차 고르기 부처를 고르듯 해
 일창일기(一槍一旗) 여린 싨만 엄히 지켜 가렸다네.
 뒤어 말림 솜씨 좋아 두루 통함 얻으니
 향기와 맛을 따라 바라밀(波羅蜜)로 드는구나.

학질을 앓아 갈증이 심하므로 신령한 차를 청했다. 근래 연경의 시장에서 구입해 온 것은 비단 주머니에 수놓은 천으로 싸서 한갓 걸치장만 힘쓸 뿐 거친 가지와 질긴 잎이 차마 입에 넣을 수가 없다. 이러한 때 초의가 부쳐온 차를 얻으니, **응조(鷹爪)**와 **맥과(麥顆)**가 모두 곡우 이전의 좋은 제품이었다. 한 그릇을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문득 번열을 씻어내고 갈증을 해소시키니, 전씨(顯氏)의 갑옷은 이미 저만치 멀리 물러나고 말았다. 고려 때 차를 심게 하여 토산의 공물과 대궐의 하사품을 모두 차로 썼다. 5백년 이래로 우리나라에 차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를 따고 뒤어 묘함이 삼매에 든 것은 초의에게서 처음으로 얻었다. 공덕이 참으로 무량하다. 산천 노인이 병든 팔뚝으로 쓴다.

산천은 초의가 직접 만든 응조차를 마시고 차의 향기, 맛, 효능을 극찬하면서 차의 생김새가 ‘매의 발톱’을 닮았다고 묘사하였다. 초의의 응조차는 곡우 전에 만들어진 우전차 만큼 어린 찻잎으로 만들어진 대껍질에 싨 차였는데, 그 생김새만 봐도 초의의 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응조차는 일창일기 만으로 만든 차였는데, 이런 이유로 부처님 고르듯 여린 찻잎만 골라서 만들었으며, 체다 솜씨까지 두루 갖춰 최고의 향과 맛을 지닌 차로 알려져 있다.

「산중에서 본 것을 기록하다(山中紀見)」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¹⁶⁸⁾

南陵少婦賣新茶
 古寺尋僧日已斜
 稚子迎門無所贈
 一枝偷折繡毬花

남릉의 젊은 아낙이 새 차를 팔거니
 옛 절에 가서 스님을 찾는데 해가 이미 지도다.
 어린놈이 문에서 맞거늘 줄게 없어
 수국 꽃 한 가지를 몰래 꺾어들도다.

위 시에서 남릉은 그 당시의 해남을 의미한다. ‘젊은 아낙이 새 차를 팔거니’라는 시

168) 신현구·이희풍, 『양과집』.

구에서는 그 당시 해남 두륜산 쪽에서 생산되는 차가 마시고 남아 판매할 정도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시는 그 당시 해남의 차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백과의 시 「김사형, 남대균과 석문암에 올라(與金士衡南大均登石門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⁶⁹⁾

百尺西臺日已斜
 茶來新熟酒來賒
 微微笳鼓遙生郭
 點點漁樵散入家
 自許高人將拜石
 若尋眞不可拈花
 世間亦有閒如我
 白鷺徐飛下水涯

백척 서대에 해가 이윽고 기울거니
 새로 덥은 차 내고 외상 술 내도다.
 미미한 군악소리 아련히 성곽에 일고
 점점이 민초들 흩어져 집으로 가도다.
 고인을 자처하여 돌에다 절하고¹⁷⁰⁾
 진불을 찾거들랑 연꽃을 따리라.
 세상에 또 나처럼 한가한 이 있으니
 백로가 천천히 날다 물가에 내리도다.

위 시에서 백과는 새로 덥은 차를 가지고 석문암에 올라 바쁘게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한가한 모습을 백로에 비유하였다. 위 시의 ‘돌에다 절하고’는 북송(北宋)의 서화가(書畫家) 미불(米芾)이 기이하게 생긴 거석(巨石)을 보고 크게 기뻐한 나머지 의관을 갖춰 절을 하면서 형(兄)이라고 불렀다는 ‘미전배석(米顛拜石)’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위 시의 ‘연꽃을 따리라’는 석가모니가 연꽃을 따서 제자들에게 어떤 뜻을 암시한 일에서 유래한 문구였다.

백과의 『양과집』에 수록된 차시에는 해남에서 차를 판매할 정도로 차가 많이 생산되었다는 내용, 향과 색이 좋은 응조차를 선물로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육우의 『다경』을 시험해 본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위 세 가지 내용을 통해 백과의 차생활은 전문적이고 실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추당잡고』와 『양과집』 두 시집에는 백과의 차생활과 음다 습관, 그리고 차의 용어들이 전문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차 생활, 다구의 종류, 차의 효능, 불 다루기, 차의 종류, 탕수, 차 겨루기 등으로 나누어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차시 속에 나타난 차 관련 시어

번호	詩題	文集名	詩語	分類
----	----	-----	----	----

169) 신헌구·이희풍, 위의 책.

170) 송사(宋史) 『문원전(文苑傳)』 권6, 「米芾」.

1	思家七首」	『추당잡고』	也應茶苦似飴甘	차 생활
2	過挽日菴次西山韻」		催僮午點茶	
3	烟茶聯句四韻」		茗香凌陸經	
4	山中紀見」	『양파집』	南陵少婦賣新茶	
5	聯吟」		微涼虛閣試茶經	
6	與金士衡南大均登石門菴」		茶來新熟酒來賒	
7	山齋五物銘」-茶鑪	『추당잡고』	相其顏烟火籠	다구
8	遣閒12首		瘴嵐消滌惟渠賴	차의 효능
9	和贈牙悶		茗香入肺能消癖	
10	登樂棲菴		活引茗泉催武火	불 다루기
11	立冬日大雪次家兒韻	『추당잡고』	好倩茶童掬玉屑	차의 종류
12	海茶說		海陽之玉川茶	
13	香茶		莫數丹山雲澗月， 一鍾雷笑可延年	
14	寄茶蔡西湖	『양파집』	海上鷹爪茶	
15	遣閒 12首	『추당잡고』	茗泉新汲甌瓶青	탕수
16	登樂棲菴		活引茗泉催武火	
17	與松坡錦石未舫後園賞春	『추당잡고』	竹色欣迎茗戰笑	차 겨루기

(1) 다구

백파가 무쇠로 만든 화로에 대나무로 걸을 감싸 만든 탕관을 사용하였기에 이를 불에 그슬린 대그릇으로 표현하였다. 그 당시에는 죽로(竹爐)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육우 『다경』의 「사지기(四之器)」에서 ‘기(器)’는 바로 지금의 행다 기물 일체, 즉 다구를 의미하였다. 육우 시대에는 차 만드는 기구, 즉 조다 용구를 ‘다구’라 했다. 모두 25종으로 그들의 이름, 모양, 재료, 만드는 법, 쓰임새 등이 설명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역할이 차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깊은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¹⁷¹⁾

『삼국유사』의 「월명사 도솔가(月明師兜率歌)」, 조에 따르면 신라에도 다구 세트[品茶一襲]가 있었다. 가루차[末茶]와 끓인 물을 융합할 때 당나라에서는 무쇠 가마를 썼으나, 신라에서는 최치원(崔致遠)의 「진감국사비문(眞鑑國師碑文)」에 적힌 대로 돌솥[石釜]을 사용하였다. 잎차와 탕수를 융합시키는 그릇으로는 차병(茶瓶:茶壺)·다관(茶罐)·전다기(煎茶器) 등이 사용되었다. 다관에는 은·구리·도자기 등이 사용되었는데, 손잡이

171) 육우 지음, 류건집 역주, 『茶經 註解』, 이른 아침, 2010, p. 130.

는 횡수형(橫手型)이 많았다.¹⁷²⁾

(2) 차의 효능

백과가 해남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차는 해남에서 풍토병을 이길 수 있었던 귀한 품종의 차였다. 해남 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을 정화하며, 마음에 여유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차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육우 『茶經』은 “차의 효능은 매우 차가우므로 행실이 바르고 검소한 덕이 있는 사람(精行儉德之人)이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하고 만약 열이 나고 갈증이 나거나 번민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꺾끄럽거나, 팔다리가 번거롭거나,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을 때, 네땃 잔만 마셔도 제호나 감로(甘露)처럼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¹⁷³⁾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차 맛은 쓰고 차지만 독이 없고 마시면 피부병이 없어지며 소변이 좋아지고 잠이 적어지며 모든 발병을 막는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⁴⁾ 『박물지(博物志)』에는 좋은 차를 마시면 잠이 적고 사람으로 하여금 탐하거나 용렬하지 않게 하며 또한 눈병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의 문관인 이목(李穆)은 『다부(茶賦)』에서 차의 오공(五功)은 갈증을 없애준다, 가슴의 울적한 기운을 풀어준다, 주객의 정을 화락하게 한다, 소화가 잘되게 한다, 술을 깨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차의 육덕(六德)은 오래 살게 한다, 병을 낫게 한다, 기운을 말게 한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 신선 같게 한다, 예의를 갖추게 한다고 한다.¹⁷⁵⁾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고다(苦茶)가 성질은 약간 차고, 일설에서는 냉하다고 했다. 맛은 달고 쓰며, 독이 없는 식물이라고 하였다. 기를 내리게 하고, 오래 뱃속에 쌓인 음식을 소화시킨다. 아울러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여 준다고 하였다. 마실 때 뜨겁게 마시지 않으며 오래 마시면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여 사람을 마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⁷⁶⁾

(3) 차 다루기

172) <http://terms.naver.com/entry>.

173) 茶之爲用 味至寒 爲飲最宜 精行儉德之人 若熱 渴癡悶 腦痛 目澁 四肢煩 百節不舒 聊四五啜 與醍醐甘露抗衡也. 육우 지음, 류건집 주해, 『茶經』, 이른 아침, 2010, p. 67.

174) 內服有 解熱 利尿等作用 外用可以治疥癬等皮膚病. 이시진, 『본초강목』, 초(草)9, 酢漿草.

175) 若斯之味 極長且妙 而論功之不可闕也 靡爾也 誰解其渴 賓主之情誰協 三彭之蠱誰征 宿醉未醒 靡爾也 五夜之醒誰輟. 茶之又有六德也 使人壽修 有帝堯大舜之德焉 使人仙有黃帝老子之德焉 使人禮 有姬公仲尼之德焉. 한재이목 지음, 류건집 주해, 『茶賦 註解』, 이른 아침, 2012, pp. 205-208.

176) <http://home2.ulsan.ac.kr>.

백과는 차 달이는 불인 문무화에 통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시구 ‘명천을 길어와’는 에서 명천은 문화(약한 불)와 무화(센 불)의 미묘한 교차로 완성된 순숙(차 달이기에 가장 알맞은 물의 상태)의 과정을 거쳐 차의 격조를 높일 수 있는 상태의 물이다.

문무화후란 불[火]을 다스리는 치수의 법도를 의미한다. 불기운이 극렬하고 매섭고 뜨거워서 만물을 다 태울 듯이 사나운 것을 무(武)에 이르렀다고 하고, 유약하고 쇠잔하며 체성이 허약하여 탕수(湯水)의 수기(水氣: 물 가운데 들어 있는 탁한 기운)를 전소시킬 능력이 없는 것을 문(文)에 치우쳤다고 한다. 불기운의 다스림은 문에 치우쳐도 안 되고 무에 치우쳐도 안 된다. 만약 불기운이 문에 치우쳐 더디고 게으르다면 탕수가 순숙해지지 않고 물비린내가 나고 수기가 소멸되지 않아 차 맛을 낼 수가 없다.

중화(中和)를 얻는 방법은 첫째 양호한 연료의 선택, 둘째 불기운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관찰, 셋째 부채질이나 연료를 첨가하여 불기운을 살려 중화를 유지시키는 일이다. 좋은 연료를 구하여 불을 일구어 기운을 승회시키되 극렬해도 안 되고 유약해도 안 되며 늘 곁에서 살펴 기운이 격해지면 기운을 죽이고 너무 허약해지면 부채질이나 연료를 더 첨가해서 불기운을 북돋아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탕과 불기운이 함께 잘 어울려서 중화의 덕으로 진수(眞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¹⁷⁷⁾

(4) 차의 종류

백과의 차시에는 다양한 차의 이름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옥설, 옥천차, 뇌소차, 응조차, 운간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옥설은 제다 방법에서 가루로 만든 차이고, 옥천차는 해남의 차로써 초의차를 불리는 다른 이름의 차이다. 응조차는 차의 잎 모양이 매의 손톱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재한람(遯齋閑覽)』에는 건안차(建安茶)가 천하제일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손초(孫樵)가 초단부(焦丹部)에게 차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만감후(晩甘候) 열다섯 사람을 시중하는 재각(齋閣)에 보내니, 이 무리들은 번개를 타고서 잎을 채취하였고 정성껏 물에 절하고서 법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건양(建陽), 단산(丹山) 벽수(碧水)의 월간차(月澗茶), 운감차(雲龕茶) 품질이 천하게 쓰여서는 안 됨을 언급한 것이다. 만감후(晩

177) 석용운, 『韓國茶藝』, 도서출판 초의, 2009, p. 152.

甘候)는 차의 이름이다.¹⁷⁸⁾ 이 당시에는 뇌소(雷笑: 차 이름)와 용향(茸香: 차 이름)이 차례로 등장하였으며, 당나라 각림사(覺林寺)의 승려 지숭(志崇)은 세 가지 종류의 차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경뢰소(驚雷笑: 차 이름)는 자신이 마셨고, 흰초대(萱草帶: 차 이름)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며, 자용향(紫茸香: 차 이름)은 손님을 접대하는데 사용하였다. 백파의 시어에 등장하는 옥설은 약용차로 추측된다. “옥설의 성미(性味)는 감(甘), 평(平), 무독하다. 위(胃) 속의 열을 제거시켜 주고 천식의 고통을 덜어 주며 갈증을 없애 주고 마두와 옥설을 함께 장기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陶弘景의 名醫別錄). 심장과 폐를 원활하게 해주고 성대를 돕고 머리카락의 성장을 도와준다.(大明本草). 오장을 자양해 주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없애주며 금과 은과 맥문동 등과 함께 끓여 복용하면 심히 유익하다.”는 뜻이다.¹⁷⁹⁾

(5) 탕수

차 맛은 물맛이 좌우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초의(草衣)도 “차는 물의 신(神)이요, 물은 차의 체(體)이다. 진수(眞水)가 아니면 신(神)이 나타나지 않고, 정갈한 차[精茶]가 아니면 체(體)를 볼 수가 없다”고 했다.¹⁸⁰⁾

다신전의 천품(泉品)은 “차(茶)는 물의 신(神)이요 물은 차의 체(體)니 진수(眞水)가 아니면 그 신(神)을 나타낼 수 없고 진차(眞茶)가 아니면 그 체(體)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으며,¹⁸¹⁾ 포법(泡法)은 “탕(湯)이 순전히 익음을 탐지하면 바로 취해내어 먼저 차호(茶壺) 안에 조금 남짓 부어 냉기를 가셔 내어 기울여 낸 뒤에 찻잎을 많고 적게 적절히 넣고 적량을 넘어 바름을 잃지 않게 한다. 차가 많으면 맛이 쓰고 미끄럽지 못하며 물이 더하면 맛이 부족하고 색이 맑다. 두 번 차호에 탕수한 뒤에는 또 냉수로 씻어내어 호병이 시원 깨끗하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차의 향을 감한다. 대개 차관이 뜨거우면 차신이 강력하지 않고 호병이 맑으면 물의 성질이 당연히 영묘할 것이다 조금 찻물이 우리어 증화된 뒤에 베풀어 걸러 마시게 한다. 거르는 것은 조금함이 마땅치 않으니 이르면 차신이 발하지 않고 마심에는 더딘 것이 마땅찮으니 더디면 묘한 향이 먼저 사라진다.”고 하였다.¹⁸²⁾

178) 遯齋閑覽, 建安茶 爲天下第一 孫樵送茶焦丹部曰 晚甘候十五人 遣侍齋閣 此徒乘雷而摘 拜水而和 盖建陽丹山 碧水之鄉 月澗雲龕之品 慎勿賤用 晚甘候 茶名, 『동다송』

179) <http://youngseok41.blogspot.kr>.

180) 『茶神傳』 「品泉」, “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 非眞水莫顯其神 非眞茶曷 窺其體.”

181) 김대성 엮음, 『초의선사의 동다송』, 동아일보사, 2009, p. 185.

(6) 차 겨루기

백파의 ‘대 모습 혼쾌히 명전을 맞아 웃어대고’ 라는 시구에는 명전(茗戰)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차계에서는 명전이란 차의 품질을 겨루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나, 위 시어의 명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명전이라고도 부르는 투차는 송나라 차문화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투차에서 가루차와 뜨거운 물을 잘 섞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투차 때는 세 가지 훌륭한 점을 서로 다투게 했는데 하나는 차의 품질, 다른 하나는 물, 또 다른 하나는 찻그릇으로, 서로 우월성을 겨루어 우수한 쪽이 승리한다.¹⁸²⁾ 고 했다. 우열을 가르기 위함으로 오대(五代, 907~960)부터 시작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파의 차시의 주제는 차 생활, 다구의 종류, 차의 효능, 불 다루기, 차의 종류, 탕수, 차 겨루기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백파는 차의 색과 향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경』도 이미 섭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백파가 차에 대해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차인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과집』은 백파와 송파 두 사람의 시문을 한데 엮은 필사본이었는데, 두 사람의 교유시를 통해 백파의 차생활과, 그 당시의 차문화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양과집』에 수록되어 있는 백파의 차시는 『추당잡고』보다 훨씬 적었으며, 다섯 수 정도의 차시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의 『양과집』에 수록된 차시에는 해남에서 차를 판매할 정도로 차가 많이 생산되었다는 내용, 향과 색이 좋은 응조차를 선물로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육우의 『다경』을 시험해 본다는 내용이 등장하였는데, 위 세 가지 내용은 그의 차생활이 전문적이고 실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의 차시의 주제는 차 생활, 다구의 종류, 차의 효능, 불 다루기, 차의 종류, 탕수, 차 겨루기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차의 색과 향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경』도 이미 섭렵하고 있었다. 이는 백파가 차

182) 泡法云 探湯純熟 便取起 先注壺中 少許盪祛冷氣 傾出然後 投茶葉 多寡宜酌 不可過中正 失茶重則味苦香沉 水勝則味寡色清 兩壺後 又冷水 蕩滌 使壺涼潔 否則滅茶香 蓋罐熱則 茶神不健 壺清則水當靈 稍候茶沖水和然後 分釀布飲 釀不宜早 早則茶神不發 飲不宜遲 遲則妙馥先消. 『동다송』, 위의 책.

183) 김대성 엮음, 위의 책, 동아일보사, 2009, p. 170.

에 대해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차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백과의 차생활이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

조선 시대의 승유역불 정책은 불교와 유교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켜 불교와 유교는 조선 후기 대원군 시기까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학자는 승려들과의 교류나 불서의 연구를 거의 금기시 하였으며, 승려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서로의 관계는 소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두 진영 간 활발한 교류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직접적 계기는 급격하게 전개된 시대의 전반적 변화 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승려들과 유학자들의 교류 또는 그들과의 유·불 동이(同異) 논쟁은 대둔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삼국 시대에 차가 도입된 이래 한국의 차문화는 사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사찰에서 다도는 불교문화를 수호하면서도 정신과 화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차를 우려고 마시는 차문화는 득오의 경지에 이르는 정신적 활동으로 간주되었으며, 자기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체험문화로 간주되기도 하였다.¹⁸⁴⁾

조선 후기 명·청 문화의 수용과 영향, 취미생활의 다양화 등 대내외적 사회변화는 기존 학계에서 강세를 보였던 주자학적 세계관을 탈피하고 실사구시와 합리성을 추구하였으며, 특정 사물에 대한 중요성과 매력에 온전히 빠져드는 벽(癖)과 치(癡)의 이론을 열정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흐름에 힘입어 한 분야나 한 곳에 몰두하는 마니아 계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유행했던 것들 중 하나는 정원·원림의 경영과 산수유람 및 와유문화(臥遊文化)의 탄생이었다. 조선 사대부들은 아회 혹은 사색과 명상이라는 풍류적 활동을 즐겼으며, 시와 그림에 몰입하였고, 차를 그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차문화가 등장한 곳은 수려한 경관이 자리한 정원과 원림이 대부분이었다.¹⁸⁵⁾

백과는 해남 시절 소요원을 열었고, 그곳에서 꽃과 대나무를 가꾸면서 지냈다. 이는 그가 해남에서 무료한 생활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그의 무료한 생활을 달래고 견디게 해준 것은 그 지역의 사대부나 승려와의 교류였다. 이들과의 교류에서 차는 중요한 매개체였으며,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체 중 하나가 되었다. 이를 통해 그는 대둔사에서 초의차를 접하게 되었으며, 초의의 차문화를 연구하게 되었고, 우리 차인 해남차나 응조차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84) 해담, 「한국 사찰 차문화의 의미론적 고찰」, 『차문화·산업학』 15집, 국제차문화학회, 2010, p. 207.

185) 송희경, 『조선후기 아회도』, 다할미디어, 2008, p. 56.

조선 시대 사대부의 시문집이나 승려의 저작물에는 사대부와 승려의 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실려 있다. 여기에는 차운시(次韻詩)나 화답시(和答詩) 그리고 불승과 사대부가 서로 주고받은 서신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유학에 대한 학식과 수창(酬唱) 능력이 있었던 승려들과 사대부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우정으로 확대 심화되기도 하였다.¹⁸⁶⁾

1. 사대부 계층과의 교류 확대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위로는 임금을 보좌하였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혜택을 내릴 것을 강요하는 현세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은 고려 왕조가 보여준 불교계의 폐단 등으로 성리학적 이상 실현을 위한 정치 추구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조선 왕조 건국에 참여했던 유학자들은 불교를 이 세상에 형상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없어지고 만다는 허무적멸의 이단으로 보았다. 그런데 양란이라는 국가적 비상시에 승려들이 예기치 못했던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는 사대부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후기의 동요 속에서 불교는 일정 부분 민심에 영합하면서 교세를 신장시켜 나갔다.¹⁸⁷⁾ 불교의 대표적 지식인들은 유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학적 사고의 도입 또는 실학정신의 불교적 수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¹⁸⁸⁾ 특히, 조선 후기 유학자들 중 일부는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고, 이들과 교류했던 승려들도 유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유불사상이 확대되었다.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수단은 시라는 매개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은 시승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시적 능력은 사대부들과 수창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라 그들 간의 교류도 더욱 깊어졌다.¹⁸⁹⁾

사대부와 승려 간 벽을 무너뜨린 매개체는 시뿐만 차도 포함되었다. 우리의 차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친 사상이나 종교가 무엇이나는 논란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차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단지 한 가지 요인이 아

186) 김민영 소장, 『불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스님의 일상』, 동국대학교, 2007. p. 241.

187) 유효선,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188) 이희재, 조윤희, 「19세기 대문사 학승들의 유교경전 이해」, 『범한철학』 28집, 2003, p. 383.

189) 김상일(2002), 앞의 논문, pp. 222-223.

나라 다양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차문화에 영향을 끼친 사상적·종교적 요인은 불교와 유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문화에 관련된 문헌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학자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승려들 중에도 차문화 관련 기록이나 문집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지만, 승려들의 문집은 그 독자층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한정적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차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은 아무래도 유학자들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¹⁹⁰⁾

백과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사대부들과 교유한 내용이 등장한다. 그가 교유한 사대부는 31명이었으며, 교유시는 104수가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5> 『추당잡고』에서 본 사대부와의 교유시

번호	詩題	형식				교유한 사대부	비고	
		5언		7언			추당잡고	양파집
		절구	율시	절구	율시			
1	李松坡喜豐來謗共賦 松坡故青連尙書後孫				○			
2	席上題贈松坡 二首				○			
3	松坡來留翌日琴陽又委訪仍賦二律				○			
4	與琴陽松坡及五宗在彬登北菴				○	○		
5	與松坡訪琴陽老人兄弟幽居				○			
6	松湖途中壘前韻示琴陽松坡				○			
7	九月之望與松坡登成道菴一宿而還用遠上寒山石徑斜白雲深處有人家停車坐愛楓林晚霜業紅於二月花逐字成韻賦二十八首				○			
8	別松坡獨坐無聊爲吟一律				○			
9	山齋雨夜奉覽 竹堂先祖海槎錄敬次本源寺遠客坐長夜雨聲孤寺秋爲韻絕句十首與松坡同作				○			
10	與松坡賦餞秋				○			
11	松坡復來訪留與共賦				○			
12	松坡在座返華生趙煖白水營來仍與共賦壘韻分?				○			
13	冬至日與松坡對酌				○			
14	復與松坡述懷				○			
15	夜與松坡及南泉閔載弘叙懷 金益魯來舫同賦				○			
16	夜與松坡吟示少輩共和				○			

190) 奇敬姬, 「許筠의 茶文化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2010, pp. 3.

17	松坡與少輩遊諸菴暮歸有詩人金秉憲來訪乘月夜吟				○	○			
18	松坡來訪夜與朴彙培崔炳教共賦				○		○		
19	積雪初消與松坡雨中作				○		○		
20	松坡詩文序	산문						○	
21	與松坡入內山口拈		○				○	○	
22	三月海別松坡適有風雨悽然書懷	○					○		
23	五月生朝兵使李敏應海南倅金演奎具酒僎携其以來慰余羈懷松坡東渠有詩却和				○		○		
24	雨後涼雲松坡來啞呼韻				○		○		
25	七夕又與松坡吟懷崔炳教以來				○		○		
26	僑居海倉村舍與松坡偶吟				○		○		
27	與松坡來渠米舫夜吟				○		○		
28	新春與松坡錦石偶吟				○		○		
29	與松坡錦石來舫後園當春				○		○		
30	永兒來觀與松坡及濟少年唱酬次其韻				○		○		
31	途中憶松坡				○		○		
32	夜與松坡及南泉閔載弘叙懷 金益魯來舫同賦				○		김익로	○	
33	家兒與崔生炳教遊北菴還又與崔及金益魯夜吟故次其韻				○			○	
34	東渠洪堦與金益魯自縣中來疊前韻相和				○			○	
35	與松坡來渠米舫夜吟				○			○	
36	題扇贈金益魯				○			○	
37	送金益魯之京			○				○	
38	與來舫金益魯登東山晚望				○				
38	訪琴陽尹上舍 鍾敏于蓮東 琴陽卽孤山後孫				○		윤종민	○	
39	松坡來留翌日琴陽又委訪仍賦二律				○			○	
40	與琴陽松坡及五宗在彬登北菴				○			○	
41	與松坡訪琴陽老人兄弟幽居				○			○	
42	松湖途中疊前韻示琴陽松坡				○			○	
43	寄贈琴陽上舍 與松坡因作		○					○	
44	琴陽委訪爲賦二律				○			○	
45	琴陽來訪留與賞春				○			○	
46	與琴陽雨夜作				○			○	
47	琴陽未歸朴生彙培崔生炳教適來牽率復吟				○	○			
48	崔生炳教來訪爲贈一律				○	최병교	○		
49	崔生炳教來訪翰墨歲暮相守爲吟長律				○		○		
50	宋錦石禧萬以舊日幕賓亦千里委訪因與閔崔兩人元夜賞月				○		○		
51	早春送崔生炳教入京應舉留與家覲夏閔及秋而歸復見於海上爲贈一律		○				○		
52	中秋前夜和崔生賞月				○		○		
53	家兒與崔生炳教遊北菴還又與崔及金益魯				○		○		

	夜吟故次其韻							
54	松坡來訪夜與朴彙培崔炳教共賦					○		○
55	七夕又與松坡吟懷崔炳教以來					○		○
56	與李君崔生步到新月菴偶吟					○		○
57	和崔生蚊帳韻					○		○
58	夜與金秉憲李喜冕崔炳教共賦					○		○
59	贈尹鍾軫進士					○		○
60	圍棋後戲贈尹進士鍾軫				○			○
61	答李服汝書	산문						○
62	和李服汝					○		○
63	贈李服汝喜冕序	산문						○
64	答李服汝書	산문						○
65	贈无悶李服汝				○			○
66	和服汝景胄					○		○
67	賀李石梧喜晚回甲					○		○
68	石梧周甲宴詩序	산문						○
69	石梧座右銘	산문						○
70	雨夜與前人共酌默雲崔炳淑又到					○		○
71	與詩巢崔承秀九日登西峰 崔卽炳淑大人					○		○
72	有懷趙斗南 并小序	산문						○
73	和贈斗南				○			○
74	宋錦石禧萬以舊日幕賓亦千里委訪因與閔崔兩人元夜賞月					○		○
75	和贈宋禧萬錦石					○		○
76	新春與松坡錦石偶吟					○		○
77	與松坡錦石未舫後園賞春					○		○
78	偶吟示錦石			○				○
79	餞春日吟示錦石					○		○
80	送錦石北歸口呼以贈	○						○
81	松坡與少輩遊諸菴暮歸有詩人金秉憲來訪乘月夜吟					○		○
82	疊用前韻贈桐泉金秉憲					○		○
83	夜與金秉憲李喜冕崔炳教共賦					○		○
84	鄭節制 周默 自青烏嶺來訪終夜叙懷					○		○
85	鄭節制 周默 書餽金橘銀魚石花又有寺僧便所寄詩故走筆謝之					○		○
86	簡和鄭節制 周默 二首			○				○
87	松坡來訪夜與朴彙培崔炳教共賦					○		○
88	次韻題朴彙培富春山莊					○		○
89	琴陽未歸朴生彙培崔生炳教適來牽率復吟					○		○
90	夜與松坡及南泉閔載弘叙懷 金益魯來舫同賦							○
91	李甥日贊寄示玩易吟長篇以一律和贈					○		○
92	答李甥日贊書	산문						○

93	復與李甥書	산문					○	
94	和贈李甥日贊				○		○	
95	李甥日贊寄示玩易吟長篇以一律和贈				○			
96	答李甥書	산문					○	
97	五月生朝兵使李 敏應海南倅金 演奎具酒僮携其以來慰余羈懷松坡東渠有詩却和				○	이민응	○	
98	與兵使李 敏應虞候鄭 允基康津倅尹 堉登修仁山城是行李德汝及趙生達秉攢積相伴				○		○	
99	和贈尹應教 祖榮				○	윤응교	○	
100	贈金生箕泓			○		김기홍	○	○
101	眞佛菴次清陰先生韻				○	청음선생	○	○
102	簡寄洪參判玩謫居以前嶺伯謫古今島				○	홍훈	○	
103	簡和洪學士 允中				○		○	
104	簡和澹齋任參判應準				○	임응준	○	

백파가 교유했던 주요 사대부 학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희풍(李喜豐, 1813~1886)

송파는 호,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성부(盛夫)이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실학에 정진하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 이후백(李後白)의 후손이었다. 나이 15세에 이미 경서와 사기에 통달하였고 백가서(百家書)와 육예(六藝)의 문장, 시(詩), 사(詞), 과거의 문장을 관통하였다. 성년이 되어서는 동년배들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삼아서 송파선생(松坡先生)이라고 불렀다. 민영목(閔泳穆), 신현(申櫛), 이도신(李道宰), 정만조(鄭萬朝)등과 교유했으며, 초의선사, 허소치와 매우 가까웠다.

송파는 소치와 시를 주고받으며 꽤 가깝게 지냈다. 송파가 소치에게 보낸 시가 『양파집』에는 「별허소치(別許小癡)」, 「차소치묵죽운(次小癡墨竹韻)」, 「허소치초당(許小癡草堂)」 3수가 있고, 『송파유고(松坡遺稿)』에는 「별허소치(別許小癡)」, 「차소치묵죽운(次小癡墨竹韻)」, 「소치묵연첩가 칠언(小癡默緣帖歌 七言)」 3수가 있다. 두 문집에 수록된 「별허소치(別許小癡)」, 「차소치묵죽운(次小癡墨竹韻)」 2수는 시제가 같다.

또한 송파는 「초의선사탑명」을 지었고, 문집으로 『송파유고』 2권이 전해지고 있다. 『송파유고』는 3권 1책, 목활자본으로 1907년 이희풍의 아들 이근석(李瑾錫)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이도재(李道宰)·정만조(鄭萬朝) 등의 서문, 권말에 이근석의 발문이 있다. 권상·중에 시 217수, 권 하에 서(序) 3편, 기(記) 5편, 문(文)·명(銘) 각 1편, 의(議)

2편, 서(書) 4편, 설(說) 7편, 전(傳)·논(論) 각 1편, 부록으로 행장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영물(詠物)·서경(敍景)이나 술회류가 대부분이었다. 시형은 5언·7언 절구나 율시 등 근체(近體)가 많았으나, 5언·7언 고시도 11수가 들어 있었다.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시도 상당수 있었는데, 「숙초의선사방(宿草衣禪師房)」·「제만휴상인선방(題萬休上人禪房)」·「미황사상추화(美黃寺賞秋花)」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1798~1879)은 송파를 호남제일인자로 손꼽았다.¹⁹¹⁾

의(議) 2편 가운데 「대둔산축성의(大屯山築城議)」는 해남의 대둔산에 산성을 쌓아 해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만설(漫說)」은 서양인의 조선 및 해운 기술을 비롯한 오대주에 관한 지리, 서양인들의 남녀 관계, 천주교의 교리 등에 관한 내용, 불교의 보살이나 고승(高僧)·대덕(大德)에 관한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¹⁹²⁾

송파의 또 다른 문집에는 『양과집(兩坡集)』이 있다. 이 문집은 백과와 송파 두 사람의 시문을 한데 엮은 문집이다. 송파는 그 지역의 유명한 문인이었기 때문에 해남으로 유배 온 백과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 백과도 정확한 죄목이 없이 유배 왔기에 그 지역 사람들과 자유로운 교유가 가능했다. 두 사람은 가깝게 왕래하며 수많은 시를 주고받았다.

다음은 백과가 송파에게 서(敍)를 써준 것이다.

이성부(李盛夫)는 호해(湖海)의 선비이니, 가난해도 더욱 절개가 있고 궁핍해도 더욱 굳세어서 구차하게 세상에서 문달(聞達)에 있었어도 또한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니, 재상(宰相)도 그를 천거하지 않았고, 방백(方伯)과 수장(守長) 주사(主司)의 신하도 조정에 인도하지 않았으나, 담박하고 활달함을 스스로 좋아하여 유유연(由由然)하였고, 시골사람과 같이 처해서는 시골의 장유(長幼)와 존비(尊卑)가 모두 송파선생(松坡先生)이라 호칭하고 그의 성명을 부르지 않았으니, 대개 그 사람은 총명하고 문식(聞識)이 많았으며 더욱이 의리에 밝아서 순비(循蜚)¹⁹³⁾의 시대 이래로 소대(昭代, 태평시대)에 이르기까지 치란(治亂)의 자취와 현사(賢邪)의 구별과 선악(善惡)의 나뉘고 속된 일과 패설(稗說)과 산천초목조수(山川草木鳥獸)의 이름과 형상에 해박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남의 질문에 응대하기를 중을 치는 것 같이 대소(大小)를 따라 문득 응하였으니, 천재(天才)의 절륜(絶倫)으로 무리에서 빼어나지 않고는 어찌 능히 그렇게 하랴!

처음에 그의 시문(詩文)을 읽으니, 평이하고 담박한 것이 대羹(大羹)과 현주(玄酒)같아서 소금

191) 김영호 편역, 『소치실록』, 서문당, 1981, p. 76.

192) 이회풍, 『송파유고(松坡遺稿)』,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3) 순비는 섭제격에 속하는데, 이는 섭제(攝提)와 같은 것으로 십기(十紀)의 하나이다. 십기라는 것은 『광야(廣雅)』 석천(釋天)에, “인황씨(人皇氏)로부터 노(魯) 나라 애공(哀公) 14년까지의 2백 76만 년을 10기로 나누니, 구두(九頭)·오룡(五龍)·섭제(攝提)·합락(合雒)·연통(連通)·서명(序命)·순비(循蜚)·인제(因提)·선통(禪通)·소홀(疏訖)이다.” 했는데 섭제는 지(支)의 인(寅)에 해당되는 것이다.

을 치지 않았는데도 오래될수록 그 빛은 순전하여 윤택함을 보이고 그 맛은 화합했으며, 소리를 발함에는 풍풍(颯颯), 대괴(大塊)의 소리를 빌린 것 같으나,

현악기의 소리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어서 점점 자연의 소리에 가까워서 거의 근속(近俗)에 서는 흉내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또한 탁략(卓犖)한 행실의 나머지가 비록 잠기고 낙척(落拓)해서 애로가 있어도 번민 하지도 않았고 힘이 들어도 원망하지는 않으며 슬퍼도 상심하지도 않았으니, 그의 마음에 간직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아!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속에서 늙도록 그 재주를 펴지 못했으니, 성부(盛夫)같은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이는 진실로 재신(宰臣)처럼 현달한 자보다 나은 것이다. 비록 그러나 소남(邵南)은 가난하되 행의(行誼)를 나타내고 동야(東野)¹⁹⁴는 궁핍했으나 구가의 성대함을 올렸으니, 하늘이 성부(盛夫)가 가난함을 가지고 장차 두 사람으로 더불어 명성을 나란히 견주려는 것인가! 비록 남이 알아주고 남을 자신이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나, 어찌 시골에서는 들린 바가 조정에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일찍이 저술한 것이 심히 많은데 이미 모두 없어졌고, 건연(巾衍) 천을 바른 서상(書箱)에 저장된 약간의 편(篇)은 논사(論事)가 정의(正誼)하고 영언(永言)은 율격에 합해서 큰 장인(匠人)의 집에 승묵(繩墨)과 같아서 의당 후생(後生)에게 바른 법이 되므로, 나는 이에 권함을 인해서 집칠(輯綴)한다.

영천인(靈泉人) 신헌구(申獻求)는 서(敍)한다.¹⁹⁵

백과는 서문에서 송파의 인품과 시평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송파는 가난해도 이름을 널리 알리려 하지 않았으며, 총명하고 문식에 밝았고, 산천초목조수(山川草木鳥獸)의 이름과 형상에 해박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의 시문은 평이하고 담박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성년이 되어서는 동년배들이 모두 그를 스승으로 삼아서 송파선생(松坡先生)이라고 불렀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60세에 이르기까지 새벽과 저녁까지 부모님 옆을 떠나지 않았다. 백과는 송파가 지은 것을 읽으며 날마다 보배처럼 완상(玩賞)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송파는 글을 많이 지었는데 모두 없어져 후대들에게 법이 되

194) 동야는 당(唐)나라 때 시인 맹교(孟郊)의 자인데, 여기서는 저자 자신을 맹교에 비유한 것이다. 소식(蘇軾)의 제유자옥문(祭由子玉文)에 당 나라 시인들의 시격을 평하여 “맹교의 시격은 한산(寒酸)하고, 가도(賈島)의 시격은 수척하며, 원진(元稹)의 시격은 경조하고, 백거이(白居易)의 시격은 비속하다. 「郊寒島瘦 元輕白俗」” 라고 하였다.

195) 李盛夫 湖海士也 貧逾介 窮益堅 不苟聞達於世 爲文詞 亦不求名 宰相不之薦 方伯守長主司之臣 不汲引於朝 恬曠自好 由自然與鄉人處 鄉之長幼卑尊 皆呼爲松坡先生 不道 其名姓焉 蓋其人聰明多聞識 尤明於理義 自循蜚以來 迄于昭代 治亂之迹 賢邪之別 善惡之分 與夫俚事 稗說山川草木鳥獸之名狀 靡不搏諸侍人問如撞鐘 隨大小輒應 非天才之絕倫逸群 烏能然 始讀其詩文 平淡若大羹玄酒 不加鹽麩 久而見其色 淳沃 其味和致 發於聲也 颯颯乎大塊之所假而非絲非竹 漸近自然殆近俗之所難 然且卓犖行餘 雖沈湮落拓 隘而不悶 勞而不怨 哀而不傷 其所存於中 尤可見矣 嗟夫士生斯世 老于林樊 不得展其才 如盛夫者 幾人 此固宰臣達者之過也 雖然 邵南貧而以著行誼 東野窮而以鳴國家之盛 天以盛夫貧窮之 將與二子齊名歟 雖不要人知人自知之 盍以所聞於鄉聞於朝也 嘗所述甚多 既而盡棄之 巾衍所儲餘若于篇 論事正誼 永言合律 有大匠家繩墨 而宜爲後生模楷 余是以動而緝之 靈川申求 敍. 신헌구, 『유묵집』, 인쇄향, 2016.

므로 백과가 집철해서 남겨둔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다. ‘남을 자신이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나, 어찌 시골에서는 들린 바가 조정에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와 「차설」에 ‘다만 초의의 차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가만히 남쪽 땅의 인사들이 훌륭한 것을 지녔으면서도 흔히 세상과 만나지 못한 탄식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이다.’¹⁹⁶⁾라는 구절을 고려해볼 때 조정이 송과를 비롯한 해남 문인들의 훌륭함을 알아주지 못함을 매우 아쉬워했다.

백과의 시 「송과를 작별하고 홀로 앉아 무료하여 한 수 읊다.(別松坡獨坐無聊爲吟一律)」에는 그가 송과와의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⁹⁷⁾

歸雲流水共悠悠
塵世浮蹤自去留
新月虛宮依落日
長春幽壑坐深秋
閒宜忘櫺閒尤惱
酒爲消愁酒復愁
夜看樓上弧星近
何事南來地盡頭

가는 구름 흐르는 물 함께 유유하니
속세 덧없는 발길 제가고 머물도다.
신월 텅 빈 암자 지는 해에 의지하고
장춘 깊은 골짜기 깊은 가을 맞았도다.
틈에 번뇌 잊으려만 틈에 더욱 번뇌하고
술로 근심 삭히려만 술로 다시 근심이라.
밤에 보니 누대위로 호성¹⁹⁸⁾이 가깝거니
어인일로 땅 끝 머리 남녘으로 왔고.

백과는 위 시에서 구름이 유유자적하다고 표현했다. 이는 덧없는 속세를 떠나 암자에 머물던 그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의 처지와 지는 해를 비유하며 자연에 자신을 내면화시킨 표현이다. 또한 그는 품은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고 번뇌로만 쌓여가니 술로도 그 근심을 풀지 못한다고 자신을 묘사하였다. 장춘동은 대둔사 골짜기 계곡이다. 그는 술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고백하고, 해남 남녘으로 내려온 마음 속 울분을 씻어내었다.

반대로 송과가 백과와 교유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시는 「백과와 성도암에 유숙하며(與白坡宿成道菴)」이다.¹⁹⁹⁾

秋水逍遙誦古文

가을 물가에 노닐며 옛 글 외웠거니

196) 嗟夫! 余之爲此說, 不獨爲草衣茶, 竊恨南土人士, 含英蘊華, 多有不遇之歎也. 신현구, 『秋堂襟稿』 권1.

197) 신현구, 『秋堂襟稿』 권1.

198) 호성(弧星)에서 호(弧)는 별자리 이름을 뜻한다. 28수(宿)의 정수(井宿)에 속하는 것으로 후에는 호시(弧矢)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현재의 큰개자리와 고물자리의 일부에 걸쳐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고전용어사전』.

199) 신현구·이희풍, 『양과집』.

黃花時節正逢君
 那知石竇風高處
 一枕相聯臥白雲
 又
 斑藓層臺醬甌傍
 石槽寒溜滴聲長
 一株三尺山茶樹
 生得貞堅不怕霜

국화꽃 시절에 바로 그대를 만났도다.
 어이 알았노 바위굴 풍치 고상한 곳
 한 베게로 나란히 흰 구름에 눕도다.
 又
 얼룩 이끼 층대 장독대 곁
 돌구유 찬 낙숫물 소리 멀도다.
 삼척 산다화 한그루
 꽃꽂이 자라 풍상에 의젓하도다.

위 시는 송파와 백파가 대둔사의 암자인 성도암으로 같이 올라가 하룻밤을 묵었던 이야기다. 송파는 백파와 국화시절에 만났다고 말했는데, 이는 1875년 봄 해남에 내려 온 백파가 몇 개월 후에 송파와 첫 만남을 가졌던 것을 의미하였다. 위 시는 고즈넉한 밤에 돌구유에 떨어지는 낙수물 소리와 아득히 들려오고 삼척이나 되는 동백나무가 의젓하게 서있는 성도암의 풍경을 잘 묘사하였다.

송파의 시 「초의대사탑명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²⁰⁰⁾

.....

을축년(乙丑年) 대사 나이 80세에 대둔사에 계시다가 병이 나셨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시자에게 일으켜 앉으라고 시키시더니, 서쪽을 향해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조용히 입적하시니, 따뜻한 피부의 향기가 오래도록 가지지 않았다. 그때가 8월 초 이틀이었다.

대사는 타고나신 기품이 높고 밝아 사물에 접촉하면 바로 이치를 깨치셨다. 범자(梵字)를 쓰시다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의 법칙을 터득했고, 불상(佛像)을 그리다가 서화의 기술을 통달하였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는 없었지만 오직 옥주(沃州)의 허소치(許小痴)만이 대사에게서 배워 마침내 글씨와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다.

문하에 법을 전수(傳法)한 제자가 두 사람이 있으니, 선기(善機)와 범인(梵寅)이었다. 또 수은(受恩)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으니 내일(乃一)이며, 대승계(大乘戒)를 받은 자는 상훈(尙熏)과 자흔(自欣), 심여(心如)등 20여 명에 이르렀다.

대사가 입적한 지 6년이 되던 해에 선기 등이 대사의 유치(遺齒)를 모셔 탑을 세워 간직하겠다며 나에게 글을 청했다. 내가 땡기머리 어린 시절(總卹)부터 대사를 따라다니며 시를 배웠으니 정의가 원래 두터웠으나, 지혜로운 안목이 없어 그의 현묘하고 뛰어난 공부와 널리 통달한 진리를 넘볼 수가 없었다.

신미(辛未) 계춘(季春)에 송파(松坡) 거사 이희풍(李喜豊)이 쓰다.

200) 『艸衣大師塔銘并序』, 乙丑師年八十在大菴寺示疾 忽一夕命侍者扶起 西向跏趺 冉冉入寂 體膚溫香 經久不滅 卽八月二日也 師天品高明 觸類悟妙 寫梵字而得篆隸之法 繪佛像而通渲染之藝 人無知者 惟沃州許小痴學 而終以書畫著名 門徒有傳法者二人 曰善機梵寅 受恩者一人 曰乃一 受大乘戒者曰 尙熏自欣心如 至爲二十餘人師既歿六年 善機等 奉其遺齒 將治窰塔而藏之 請文於余 余自總卹時從師學詩 契誼素厚 特以智眼未具其玄悟超詣之工 圓通廣達之道 不能窺測 今舉其皮膜而摹索之 辛未季春 松坡居士 李喜豊撰. 이종찬의 옮김, 『일지암문집』, 동국역경원, 2010년, pp. 143-146.

송파는 ‘초의대사탑명(草衣大師塔銘)’에서 “초의가 열반한 지 6년이 되던 해에 선기(초의의 제자) 등이 그 유치(遺齒)를 모실 탑을 세우고 나에게 탑명을 부탁했다. 내가 충각 때부터 대사를 따라 시를 배웠으니 정의가 두터웠다.(師既歿於六年 善機等奉其遺齒 將治塔而藏之 請文於余 余自總角時 從師學詩 契誼素厚)”라고 말했는데, 이를 통해 송파와 초의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음을 알 수 있다.

송파의 시 「지리산에 가는 초의선사를 전송하며(送草衣往智異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²⁰¹⁾

海風吹拂遠征衣	바닷바람 불어 길손 옷자락 필력임이어
白首求師古亦稀	늙어 스승 찾는 이 옛적에도 드물었지.
靑鶴洞中涼露夕	청학동 골짜기에 찬이슬 내리는 저녁
倘思江浦雁南飛	강 기러기 남으로 날거든 생각하려나.

위 시는 송파가 지리산으로 가는 초의를 전송하며 써준 시이다. 그는 초의에게 청학동에서 기러기가 남으로 날거든 자신을 생각하라고 했다. 이때는 초의가 1828년 지리산 칠불암으로 『다신전』을 등초하러 가는 날이었다. 송파는 이때 15살이었는데, 충각 때부터 초의 밑에서 시를 배워 이미 학문에 통달했던 때였다.

초의는 『다신전』 발문에 “무자년(1828) 장마 때에 스승을 따라 방장산 칠불암 아자방[七佛啞院]에 갔을 때에 글을 베껴 적어 내려왔던 것인데, 다시 정서(正書)하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⁰²⁾고 적었다.

(2) 윤중민(尹鍾敏, 1798~1878)

윤중민의 자는 포숙(蒲叔), 호는 금양(琴陽)이다. 그는 공재 윤두서(恭齋 尹斗緒, 1668-1715)의 후손이었다. 금양은 소치가 『공재화첩(恭齋畫帖)』, 『고개지화보(顧愷之畫譜)』 등 보물들을 빌려 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빌려주었다. 소치는 그 집(연동 녹우당)을 지날 때마다 반드시 인사를 드렸다고 전한다. 소치는 금양과 그림을 시작한 최초의 인연이었으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고 했다.²⁰³⁾ 백과가 해남에 내려와 금양을 만났을 때

201) 신현구·이희풍, 『양과집』.

202) 고월용운외 옮김, 『동다송·다신전』, 동국역경원, 2010, p. 129.

203) 김영호편역, 『소치실록』, 서문당, 1981, p. 84.

금양의 나이는 칠순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다음 시는 백과가 금양, 송과와 더불어 대둔사 암자의 하나인 북암에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백과는 「금양, 송과와 더불어 우리 일가 재빈과 북쪽 암자에 올라(與琴陽松坡及吾宗在彬登北菴)」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²⁰⁴⁾

絶頂超觀萬里秋	꼭대기서 너머로 만리 가을 바라보니
眼前平俯幾岑樓	눈앞에 굽어보는 높은 누각 몇이던고.
烟雲上積高峰老	운연을 위로 쌓아 고봉은 늙어가고
天地西傾大海流	천지를 서로 기울여 대해는 흐르도다.
過劫眞形千丈石	지나간 영겁의 참모습 천길 바위요
有石佛	석불이 있었다.
浮生全界一虛舟	덧없는 인생 세계 하나의 빈 배로다.
閒筇催起鍾聲暮	저녁 종소리에 지팡이 재촉하여
還助行人不盡愁	되레 행인을 도우나 근심 한없도다.

위 시에서 백과는 북암에 있는 미륵본존불상 석불을 본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는 빈 배를 자신의 신세에 비유하면서 덧없는 인생을 한탄하였다. 그는 북암의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에 바쁜 걸음으로 내려왔다.

다산이 윤종문(尹鍾文), 윤종직(尹鍾直), 윤종민(尹鍾敏) 3형제에게 준 글도 문집에 실려 있다. 그는 「윤종문(尹鍾文)·종직(鍾直)·종민(鍾敏)에게 주는 말 자는 혜관(惠冠)·회중(檜仲)·포숙(蒲叔)이다. 종족(宗族)을 부지(扶持)하라는 뜻을 밝혔다.(爲尹鍾文, 鍾直, 鍾敏贈言。字曰惠冠, 檜仲, 蒲叔。明扶宗之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²⁰⁵⁾

.....

내가 그대들에게 명백히 말하노니, 단지 연곡(蓮谷)의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전지를 잃지 않게만 한다면, 비록 과거보지 않고 벼슬하지 않는다 해도 일생 동안 체모는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연곡을 보전시키지 못한다면, 자네들은 다 숲을 잃은 사슴이요 마른 수레바퀴 자국의 붕어가 될 것이다. 부디 명심하여 잠시도 잊지 말고, 돕고 보호하여 주(周)의 공화(共和)처럼 하면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뽕나무 8백 그루를 심어서 규방(閨房)의 수용(需用)을 넉넉하게 하고, 모란 3백본을 심어 지묵(紙墨)의 비용에 충당하라. 그리고 난 다음 시(詩)를 배우고 예(禮)를 배워 가슴속에 두터이 쌓여지면 아름다운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때가 오고 운수가 통하면 밝은 조정에 나아가

204) 신현구, 『秋堂稜稿』 권2.

205) 我明語子。但使蓮谷之家。屋梁不壞。田疇不損。雖不科不宦。且得百年體貌。若使蓮谷不保。賢輩皆失蔭之鹿。涸轍之鮒也。念念勿緩。翊之護之。如周之共和。豈不善哉。種桑八百株。以贍閨房之用。植壯丹三百本。以補紙墨之費。於是學詩焉學禮焉。蓄積既厚。英華發外。當時至命通。羽儀明廷。臧氏之子。焉能使余不遇哉。嘉慶甲戌竹醉之翼日。『다산시문집』 제17권, 「증언(贈言)」.

벼슬하게 될 것이다. 장씨(臧氏)가 어떻게 불우(不遇)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가경(嘉慶) 갑술년 죽취일(竹醉日) 다음날 쓰다.

다산의 제자 윤종영 등을 포함해 해남 지역의 유생들과 대둔사에 있던 다산의 승려 제자들이 함께 엮은 시집 「가련유사(迦蓮遺詞)」에도 금양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금양은 자가 포숙, 호는 행남(杏南)으로 1798년생이었다. 그는 다산이 굴동 초당 시절에 써준 만필 몇 장을 어릴 때부터 하도 읽어 아예 줄줄 암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산이 세상을 뜨고 나서도 32년이 지난 시점인 1868년에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기억한 다산의 증언을 옮겨 적었다. 이 글에 이어, 필사자인 윤재찬 옹이 이 글을 다시 옮겨 적으면서 쓴 메모가 소서(小序)란 제목으로 남아 있다.

1866년 금양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닳도록 읽고 또 읽어 마침내 암기하게 된 다산의 글을 작성하고 옮겨 적어두었다.

다산 정공은 자호가 탁수(籀叟)인데, 또 당호를 ‘초상조수지가(苕上釣叟之家)’라고도 했다. 그 문장과 글씨는 근고에 드물게 보는 것이다. 일찍이 굴동에서 지내실 적에 만필 몇 장이 있었다. 자획이 아름답고 글에 담긴 이치가 훌륭해서 내가 어렸을 적에 암기해서 외웠다. 지금 이를 적는다.

동치 무진년(1868) 단옷날 빗속에 금양 늙은이가 붓을 끼적여 써둔다.²⁰⁶⁾

위 글은 다산이 세상을 뜨고 나서 32년이 지난 시점인 1868년에 금양이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다산의 증언을 옮겨 적어 놓은 것이다. 윤재찬 옹이 이 글을 다시 옮겨 적으면서 쓴 메모가 소서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남아 있다.

소서 : 집안 중에 종민(鍾敏)이란 분이 계신데 호가 금양공(琴陽公)이시다. 다산 선생께서 남기신 몇 가지 글을 이 종이에 모아 기록하였다. 신해년(1851) 간에 우리 완당(阮堂) 석우공(石愚公)께서 당악(棠岳)의 백포(白浦)에서 집안의 탁사(濯斯)란 호를 쓰시는 승지공의 포상의숙(浦上義塾)에서 스승이 되셨을 때, 여가에 <유서최근(儒胥最近)>을 엮으시고 한 부를 베껴 써두었다. 상사(上舍) 금양공께서 남긴 글씨여서 끌어다 적어둔다.²⁰⁷⁾

위 글에서 완당 석우공과 탁사공 등은 불명(不名)이며, 당악과 백포도 그 위치가 분명치 않다. 윤재찬 옹은 집안의 선대인 윤종민이 필사한 원본을 보고 거기에 적힌 이

206) 茶山丁公，自號籀叟。又扁堂曰苕上釣叟之家。其文章筆翰，近古罕有。曾在橋洞袂舍時，有漫筆數紙。字畫嫩婉，詞理膽搏。余韶齡記誦，今題之。同治戊辰端陽日雨中，琴陽老眼漫筆塗雅爾。

207) 小序：族宗有諱鍾敏，號琴陽公。輯錄先生之遺題數文於那紙者也。辛亥間，惟我阮堂石愚公爲師於棠岳之白浦族承旨號濯斯之浦上義塾，暇輯儒胥最近，一部謄在，上舍琴陽公之遺題，故引以入錄。

글을 「굴림문원」에 베껴두었다.

낙천(樂泉) 윤재찬(尹在瓚, 1902~1998)은 굴동 다산초당 아래 살면서 다산학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는 스스로 다산의 마지막 제자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근 20책에 달하는 『낙천총서(樂泉叢書)』를 남겼고, 그 밖에 여러 책의 초서집인 『낙천부진(樂泉裒珍)』 시리즈도 남겼다. 그 중 그의 정성을 들여 쓴 책이 바로 『낙천총서』 제1집인 「굴림문원(橘林文苑)」이었다. 굴동 윤씨 집안에 전해온 각종 필첩을 하나하나 옮겨 적었다. 이 속에 지금은 사라진 다산의 글 여러 편이 담겨 있다.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과 ‘윤씨삼대충효록(尹氏三代忠孝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대표적인 글이다.²⁰⁸⁾

(3) 송희만(宋禧萬, ?~?)

송희만은 호가 금석으로 행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백파와 나눈 시를 보면 두터운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백파는 「우연히 읊어 금석에게 보이다.(偶吟示錦石)」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²⁰⁹⁾

山桃愁雨柳愁烟
摠是殊方不盡緣
滿目思家如滿月
芳春離病憶芳年
人間何處非過客
天上元來有謫仙
明日送君君去後
禪房獨閉白雲邊

산도는 비 걱정 버들은 안개 걱정
모두 타향의 한없는 인연 아니라.
둥근 눈에 고향 생각 보름달 같고
꽃 봄에 병들어 젊은 날 추억 도다.
인간 세상 어디인들过客 아니라
천상에도 원래 적선²¹⁰⁾이 있었거늘.
내일 그대 보내고 그대 떠나가면
선방은 홀로 구름 가에 닫히리라.

위 시에서 ‘산도(山桃)는 비 걱정, 버들은 안개 걱정’은 모든 것이 걱정이라는 의미였으며, 이는 백파의 마음을 대변한 표현이었다. 그는 타향에서 금석과 만난 것은 한없는 인연이라 했으며, 인간 세상 어디인들 나그네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은 만나고 헤어지지만 그대 떠나보내는 쓸쓸한 마음을 홀로 구름 가에 닫히리라고 표현했다.

208) 정민, 「방안에서 혼자 하는 생각」.

209) 신현구, 『秋堂稜稿』 권1.

210) 적선(謫仙)은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 701-762)을 이른다. 적선은 원래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신선이란 뜻인데, 이백이 처음 촉(蜀) 지방에서 도성인 장안에 이르자, 하지장(賀知章)이 그가 지은 「촉도난(蜀道難)」의 시를 보고 감탄하며 적선이라 칭한 데서 유래하였다.

(4) 김익로(金益魯, 1844~1915)

김익로의 호는 미방, 본관은 김해(金海), 1845년(갑진년) 10월 12일, 조선 후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추증 받았던 부친 영석공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미방은 유년기부터 글 읽는 것과 서화에 뛰어나 해남의 화맥을 이어 받았으며, 대문사 일지암에 독거하던 초의를 찾아가 학문을 배우고 초의와 교류했던 추사 김정희를 만나 그들의 학문도 사사받았다. 이때 진도 출신 소치 허련(1809~1893)도 미방과 함께 이들로부터 수업을 받아 동문이 되었다. 백과는 「부채에 써서 김익로에게 주다(題扇贈金益魯)」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²¹¹⁾

溪藤湘竹剪裁均
 鳥翼初長月上輪
 屏退炎官除酷熱
 宣揚風伯尊清新
 吹噓在手藏無盡
 闔捩從心捷有神
 秋後不須終棄置
 也能磨却汚人塵

계등²¹²⁾ 상죽²¹³⁾ 갈겨 고르게 하거니
 새 날개 막자라 달 위 수레로다.
 엄관을 싹 물리쳐 혹열을 제거하고
 풍백을 선양하여 청신을 높이도다.
 내뿜기 손에 달려 한량없이 감추고
 여닫기 맘 따라 신묘하게 빠르도다.
 가을 후에 끝내 버려두지 말지라
 더럽히는 먼지 물리칠 수 있다오.

위 시는 백과가 미방에게 부채를 선물하면서 관직 있는 사람의 도리를 일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최고의 대나무와 종이로 만든 부채에 새날개가 달까지 닿을 정도로 많이 자란 새를 그렸는데, 그 모습이 수레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그는 부채를 부쳐 나라의 해가 되는 존재나 악폐를 제거하고, 깨끗함으로 나라에 공을 세워 청신을 높이라고 했다. 백과는 미방에게 겸손한 자세로 임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5) 최병교(崔炳敎, ?~?)

211) 신헌구, 『秋堂稜稿』 권2.

212) 계등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섬계(剡溪)의 등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다. 예로부터 최고의 품질로 각광을 받았다.

213) 상죽은 상수(湘水)의 대나무로,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뜻한다. 중국 고대 순(舜) 임금의 창오(蒼梧)에서 죽었을 때 두 비(妃)인 아황과 여영이 상수에서 흘린 눈물이 대줄기를 얼룩지게 하였다 해서 남편을 따라 죽은 두 비의 절개를 상징하였다.

백파의 시 「집 아이가 최생-병교와 북쪽 암자에 노닐다 돌아와, 또 최와 김익로와 밤에 읊기에 그 시에 차운함(家兒與崔生病教遊北菴還又與崔及金益魯夜吟故次其韻)」에 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²¹⁴⁾

九月繁霜赤葉濃 遊人歸帶暮林鍾 窓前月色爲誰好 榻外詩聲起我慵 南極星高行盡海 西風木落臥看峰 羈愁夜夜侵晨坐 午睡醒時已下春	구월 된 서리에 단풍잎 질어가거니 놀던 이 저녁 숲 종소리에 돌아가도다. 창 앞의 달빛은 누구 좋으라 비치시고. 자리 밖 시 가락은 내 용렬함 깨우도다. 남극에 별 높은데 발길 바다에 다하고 서풍에 낙엽 지니 누워 봉우리 보도다. 객수가 밤이면 새벽자리 침노하니 낮잠에 깬 적엔 이윽고 하용이라.
--	--

위 시의 수련에는 서리 내리는 구월에 단풍잎 질어가니 고즈넉한 저녁 숲 종소리에 벗들과 함께 시를 읊다 돌아가는 내용이 등장한다. 위 시의 함련에는 자리 밖 시 가락은 나의 게으름을 깨우니 남극에 별은 높은데 서풍이 불어 낙엽은 지고 타향에서 나그네 시름이 문뜩문뜩 찾아올 때면 애간장이 탄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백파가 자신의 심경을 최병교에게 표현한 것이다.

(6) 김병헌(金秉憲, ?~?)

백파는 「송파가 젊은 축들과 여러 암자를 유람하다 늦게 돌아오고, 시인 김병헌이 찾아와 달밤에 읊다(松坡與少輩遊諸菴暮歸有詩人金秉憲來訪乘月夜吟)」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²¹⁵⁾

秋岫連蠅客路遲 黃昏獨拄一筇枝 蒼藤古壑雲生處 翠竹深園月到時 吳會極望心欲斷	가을 산굽이에 나그네길 더딘데 황혼에 홀로 지팡이에 기대도다. 등덩굴 옛 골짜기는 구름 이는 곳이요 대숲 깊은 동산에 달뜨는 때로다. 오회 ²¹⁶⁾ 를 바라보면 애간장이 끊어질듯
---	--

214) 신현구, 『秋堂稊稿』 권1.

215) 신현구, 『秋堂稊稿』 권1.

216) 오회는 중국 회계군(會稽郡)의 오현(吳縣)과 회현(會縣)의 병칭이다. 진(晉) 나라 장한(張翰)이 낙양

楚聲相對淚先滋 초성²¹⁷을 마주하면 눈물이 울컥 하도다.
 昔年詞賦忘筌久 지난날 읊조리다 명전²¹⁸ 잊은 지 오래
 皓首殘燈字字疑 백발 희미한 등에 글자마다 가물가물.
 金老多誦 少時詩賦 ○김노(金老)는 어릴 적부터 시부(詩賦)를 많이 암송하였다.

위 시는 백파가 자신의 생애를 회상해 보고 그리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사부(詞賦)를 읊조리다 얽맨 세상을 잊고 산지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쇠하여 글자가 가물가물하다는 북받치는 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백파는 김병헌이 시부를 많이 암송할 정도로 남다른 감각이 있었다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였다. 이런 내용은 김병헌을 모르면 이끌어내기 어려운 말이었다. 이를 통해 백파와 김병헌이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양파집』에 나타난 백파와 사대부들과의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사대부는 17명이었으며, 교유시는 32수가 있었다. 표는 다음과 같다.

<표16> 『양파집』에서 본 사대부와의 교유시

번호	詩題	형식				교유한 사대부	비고	
		5언		7언			추당 잡고	양파 집
		절 구	율 시	절 구	율 시			
1	與李松坡崔梅巢消遣 白坡集續錄				○	이희풍	○	
2	與松坡梅巢吟				○		○	
3	與松坡吟				○		○	
4	與松坡梅巢吟		○					
5	與松坡入內山口占		○				○	
6	別松坡後作	○					○	
7	康津道中 李喜豐號松坡	○					○	
8	奉和尹琴陽				○	윤종민	○	
9	賀尹琴陽登庠				○		○	
10	與琴陽白坡登北菴				○		○	
11	共賦寄尹琴陽				○		○	

(洛陽)에 들어가서 동조연(東曹掾) 벼슬을 하다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인 오중(吳中)의 순채국과 농어회[鱸魚膾] 생각이 나서 곧장 사직하고 돌아간 고사가 있다. 『晉書』 권92.

217) 초성(楚聲)은 초사(楚辭)와 같은 말인데, 전국 시대 말년에 초(楚) 나라 지방에서 일어난 문학은 비애(悲哀)와 정신(清新)한 것을 주로 하였다. 그것은 그때까지 있지 아니하던 새로운 문학이었다.

218) 명전은 물고기 잡는 통발을 말하는데, 이는 곧 사람이 속세(俗世)에 얽매인 것을 비유한 것으로, 이 백(李白)의 중요양장사호수(贈饒陽張司戶燧) 시에 “아침에는 창오의 샘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벽해의 연기에 깃들여라. ……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손잡고, 서로 더불어 명전을 벗어나볼꼬. [朝飲蒼梧泉 夕棲碧海煙 …… 何當共携手 相與排冥筌]”라고 한데서 온 말이다.

12	崧陽客館遇趙斗南夜飲共賦			○			○
13	和寄趙斗南 寅奎 五首			○		조두남	○ ○
14	長安遇趙斗南共賦			○			○
15	與李松坡崔梅巢消遣 白坡集 續錄			○			○
16	梅巢適到鼎坐聯吟			○		최매소	○
17	和梅巢蚊帳韻			○			○
18	再從弟松汀主人回甲日			○			○
19	松汀主人回甲韻			○		송정주인	○
20	眞佛菴共次淸陰松湖韻			○			○
21	眞佛菴次淸陰松湖韻			○		청음선생	○ ○
22	與金石泉遊李氏山庄			○		김석천	○
23	寄茶蔡西湖	○				채서호	○
24	與金士衡南大均登石門菴			○		남대균	○
25	寄金桐泉		○			김동천	○
26	於蘭鎮和朴文赫			○		박문혁	○
27	次金仁和春日閑居韻			○		김인화	○
28	和李寅瑞			○		이인서	○
29	和朴德玄			○		박덕현	○
30	贈同福金箕泓			○		김기홍	○
31	金剛淵偶逢詩人趙海士暫坐共吟			○		조해사	○
32	呂 江東來見于練光亭留與夜飲			○		여규익	○

(7) 조두남(趙斗南, 1814~?)

조두남은 본명이 인규(寅奎)이고 19세기에 활동한 문인으로 자는 백삼(伯三), 호는 두남(斗南),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그는 젊어서 과거에 뜻을 두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평생을 은거하면서 지냈다. 그의 생활은 궁하였으며, 희노애락(喜怒哀樂)에 의탁하며 살았다. 그의 시문집으로는 『두남시선(斗南詩選)』이 있다. 『두남시선』은 목활자본(木活字本)으로 2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책은 두 권이었으며, 권지일(卷之一)은 119수, 권지이(卷之二)는 151수였고, 2책도 두 권이었는데 권지삼(卷之三)에 166수, 권지사(卷之四)에 141수가 수록되어 있다. 유중교(柳重敎)의 『성재집』에 「조두남 어른이 정사에 화답하신 작품에 감사하며(謝趙斗南丈人見和精舍之作)」란 작품으로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

조두남은 백과에 관한 시 1책에 「화신승지백과(和申承旨白坡)」, 「화백과(和白坡)」 2수, 2책에 「증만윤신백과(贈灣尹申白坡)」 2수, 「증백과(贈白坡)」, 「화백과(和白坡)」, 「백과자해남?후공부(白坡自海南?後共賦)」, 「방백과(訪白坡)」 등 총 9수를 수록하였다.

조두남은 「신승지 백파에게 화답하다.(和申承旨白坡)」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²¹⁹⁾

霜落青山似我癯
 可憐秋色倩誰模
 江湖遠夢空倚枕
 天地悲歌不滿壺
 衰草連阡人獨去
 斜陽在樹鳥相呼
 坡翁韻事皆堪畫
 經卷傍邊有藥爐

서리 맞은 청산 나처럼 파리하니
 가련한 추색을 닮 시켜 그럴거나.
 강호에 아련한 꿈 그냥 목침에 기대고
 천지에 슬픈 노래 술잔에 차지 않도다.
 시든 풀 이어진 언덕에 사람 홀로 가고
 지는 해 걸린 숲에 새들 서로 부르도다.
 백파의 시 모두 그림보다 나은데
 경서 곁에 약화로 있도다.

위 시에서 조두남은 병중에 있었는지 경서 곁에 약 화로를 두고 있었고 자신의 파리하고 가련한 모습을 시어로 표현하였다. 그는 자신의 슬픈 마음이 술로도 극복되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조두남은 백파의 시가 그림보다 낫다고 칭송하였다. 백파의 시의 힘은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두남은 「백파가 해남에서 돌아온 후에 함께 읊다.(白坡自海南歸後共賦)」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²²⁰⁾

主人招客客如期
 笠屐忙忙恐或遲
 遠別陽山凡幾歲
 相逢書屋似當時
 均添細雨明花瓣
 恰受輕風變柳絲
 從此西園芳草路
 老夫自許有親知

주인이 손 부르자 손은 기약한 듯
 샷갓에 나막신 늦을세라 서둘도다.
 양산에 먼 이별 그 몇 해이던가
 서재에 서로 만남 당시 같도다.
 가랑비 더하여 꽃잎파리 환하고
 사랑바람 불어 실버들 변하도다.
 이제부터 서편 동산 방초길 따라
 늙은이가 친지 둠을 자부하도다.

위 시는 백파가 유배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 조두남을 만나서 읊은 시이다. 시의 수련에는 백파가 조두남과 만나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는 만남이 얼마나 기뻐하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바빠 서둔다고 표현하였다. 시의 함련에는 양산에서 이별했던 기억을 표현하였다. 그는 몇 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헤어지기 전 서재에서 만났

219) 조두남, 『두남시선(斗南詩選)』, 한국학중앙연구원.

220) 조두남, 위의 책.

던 그때와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의 경련과 미련에서 자연풍광에 빚대어 기쁨을 표현했고, 백과를 자신의 지기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조두남의 시 「백과를 방문하다.(訪白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²²¹⁾

落花流水夕陽山	낙화유수 해 저무는 산골에
一皺吟眉一解顏	쨍그리고 읊다 얼굴 펴도다.
有限人生塵世裏	인생은 진세 속에 한정이 있고
無多春事雨風間	봄 일은 풍우 간에 많지 않던가.
居因地僻常如隱	거처 외져 늘 은거한 것 같고
身是家貧剩得閑	몸은 빈한하여 죽히 한가하도다.
已識西園非別界	서편 동산 별천지 아님을 알았건만
每來竟日却忘還	오면 종일토록 돌아갈 줄 모르도다.

위 시는 조두남이 백과를 방문하고 읊은 시이다. 그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말하면서 백과의 거처가 외져 은거하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만나면 종일토록 이야기 하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백과는 두남에 관한 시 「장안우조두남공부(長安遇趙斗南共賦)」, 「화기조두남 인규 오수(和寄趙斗南 寅奎 五首)」, 「장안우조두남공부(長安遇趙斗南共賦)」, 「유회조두남 병소서(有懷趙斗南 并小序)」, 「송양객관우조두남야음공부(崧陽客館遇趙斗南夜飲共賦)」, 「화중두남(和贈斗南)」 등 총 6수를 수록하였다. 또 다른 문집인 『백과만고』에는 「두남종사행입연단구서별(斗南從使行入燕短句敘別)」, 「야여삼사연음 두남재려차 송시주필화중(夜與三使讌飲 斗南在旅次 送詩走筆和贈)」, 「증조두남(贈趙斗南)」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두남종사행입연단구서별(斗南從使行入燕短句敘別)이 사행(使行)을 따라 연경에 들어가므로 단구(短句)로 이별함을 서술하다.»²²²⁾는 다음과 같다.

西塞相逢趙男兒	서쪽 변방에서 조남아와 상봉했는데
布袍羸馬欲遠之	삼베 도포에 파리한 말 타고 멀리 가려한다네.
詩酒痛哭今人世	시주(詩酒)로 금세를 통곡하는데
鴈雪紛飛亦暮時	기러기와 눈 어지럽게 내리는 석양이라네.
聞斗南自京來時 見月湖別詩	酒後痛哭 두남이 연경에서 올 때 월호(月湖)의 이별하는 시를 보고 술을 마신 뒤
	에 통곡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위 시는 조두남이 연경에 들어가기 전에 백과와 상봉한 이야기다. 두 사람은 서로가

221) 조두남, 위의 책.

222) 신현구, 『백과만고』, (주)인쇄향, 2014, p. 213.

살가운 사이였던 것 같다. 두 사람은 진솔함으로 고단한 삶의 흔적을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 하였으며, 백과도 두남이 했던 말을 인용하여 그와의 이별을 시와 술로 통곡했다. 백과의 시 「조두남에게 주다(贈趙斗南)」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²²³⁾

塞上逢故人	변방에서 고인(故人:벗) 만났는데
故人秋鬢禿	벗은 흰 귀밑머리마저도 빠졌네.
歸來燕薊路	돌아오는 연계(燕薊)의 길에서
醉把吾詩讀	취하여 나의 시를 읊는다네.

위 시는 백과가 두남이 연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만나 시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신의 시를 읊었던 내용이다. 백과는 두남의 늙은 모습을 귀밑머리마저도 빠졌다고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8) 여규익(呂圭益, 1825-1894)

여규익은 조선 말기 문신으로 자는 치능(稚能)이며,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증조는 여춘영(呂春永)이고, 조부는 여동근(呂東根)이다. 그는 부친 여민섭(呂民燮)과 모친 이화우(李和愚)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864년(고종 1년) 증광시에서 병과 23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그는 1865년(고종 2년)에 권옹선(權膺善)·이승고(李承皐)·임효직(任孝直)·조강하(趙康夏) 등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었다. 그는 1872(고종 9년)에는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어진(御眞)을 옮길 때 대축(大祝)으로 참여하여 품계를 올려 받았다. 또한 그는 1874(고종 11년)에 전라좌도암행어사(全羅左道暗行御史)로 재직 중, 각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적발하고, 선정(善政)을 보고하였다. 1883년(고종 20)에는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임명되었다. 이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1885년(고종 22년)에 시골에 있다는 핑계로 임금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 유배되었다.

백과는 「강동 여규익이 연광정에 와서 만나 그와 같이 머무르면서 밤을 음주하다(呂江東來見于練光亭留與夜飲)」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²²⁴⁾

碧欄秋夜月妍妍	가을 밤 푸른 난간 달은 어여쁘네
學士金章壓錦筵	학사의 금장은 성대한 잔치 압도하네.

223) 신현구, 위의 책, p. 218.

224) 신현구, 이희풍, 『兩坡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萬戶樓臺箕子國
四時歌吹太平年
榴裙軟步芙蓉劍
蠟炬熏籠翡翠烟
塵世奇緣難再得
與君沈醉不須眼

만호의 누대는 기자의 나라인데
사시 노래하는 태평한 해라네.
붉은 치마 어여쁜 걸음은 부용검(芙蓉劍)²²⁵⁾
촛불 비치는 훈롱에 비취의 연기 서렸다네.
세상의 기연을 다시 얻기 어려워
그대와 같이 숙취하여 앞이 보이지도 않는다네.

백파와 여규익은 고종 때 성균관 대사성으로 같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연광정(練光亭)은 조선 시대의 정자로 그 당시는 신하가 모여 잔치를 하거나 외국에서 오는 사신을 대접하도록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위 시는 칠언율시로 연광정에 올라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희미하게 보이는 달 아래서 그곳 사계절의 뛰어난 조망과 감회를 읊은 시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백파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사대부 31명과 교유한 내용과 교유시 104수가 적혀있다. 『양파집』에는 그가 사대부 17명과 교유하였으며, 교유시는 32수에 달한다고 적혀있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며, 이들과 교유했던 승려들은 유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이는 조선 후기에 유불사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학자와 승려 간 소통과 대화를 이끈 대표적 수단은 시와 차였다. 사대부와 승려 간 시적 교류는 문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이들 간 교유도 매우 깊었다. 백파는 시와 차 교류를 통해 조선 후기 사대부 유학자들과 다양하게 주제로 교유하였다. 여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 자신의 암울한 처지, 유불사상과 철학, 그리고 차문화 및 차도구 등이었으며, 이런 사실은 『추당잡고』와 『양파집』에 잘 나타나 있다.

2. 승려와의 교유 확대

225) 부용검(芙蓉劍)은 뛰어난 재능에 비유하여 사용된다. 부용검은 춘추 시대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가졌던 보검인데 검을 잘 감정하는 설촉(薛燭)이 이 검을 손가락으로 튕겨 보고 “부용이 막 호수에서 피어나는 것 같다.”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검은 물속에서는 교룡을 베고 육지에서는 물소와 코뿔소르 벨 수 있을 만큼 칼날이 예리하다 한다. 두보의 「팔애시(八哀詩)」 중 여섯째 수인 「고비서소감무공소공원명(故秘書少監武功蘇公源明)」에 “빛나는 부용검이 물소와 코뿔소를 벨뿐이랴오. 「청형부용검서시기독전(靑瑩芙蓉劍 犀兕豈獨剗)」하였다.

조선 시대는 불교의 배척으로 승려들의 지위가 낮아졌으며 유학자와 승려사이에 대등한 교유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학자들의 문집에는 승려와의 교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많은 글들이 있었다. 유학자와 교유했던 승려들은 유학서인 시권이나 시축을 들고 다니면서 저명한 유학자와 매우 적극적으로 구시(求詩)했는데, 이는 당시 유학자와 승려의 대표적 풍속으로 자리를 잡았다.²²⁶⁾

유학자와 승려의 교유는 주로 현직 유학자들과 이루어졌지만, 유배중이거나 정치권에서 벗어난 유학자들과도 교유가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승려와 지식을 갖추었지만 정치적 탄압을 받아 유배 중이었던 유학자의 교유는 어쩌면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었는지도 모른다.²²⁷⁾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승려와 대화도 하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교유도 맺게 되었다. 물론 유배 온 개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에 따라서 교유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었다. 사대부들과 불가의 교유시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경향은 승려들의 적극적 자세,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입장, 그리고 풍부한 학식이었다. 반면에 유배 온 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승려들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벼슬길에 올라 지나치게 공명을 지향했던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²²⁸⁾

백과가 해남 유배기간 동안 불승들과 교유한 기간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교유 폭은 매우 넓었다. 그는 불교의 사상과 철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탐명, 서, 찬 등을 써주었다. 그는 대둔사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참선으로 도를 깨친 승려들과 차를 마시며 교유하였고, 이런 대둔사 방문과 차생활은 자신의 처지에 많은 위안이 되었다.

백과는 승려들이 차를 달이던 모습과 풍습을 시로 표현하였으며, 때로는 대둔사 차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적적함과 무거운 심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유학자들은 조선 후기 사회적 변혁의 시기에 산사를 찾아 승려들과 교유하고 차를 매개체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찾곤 하였다.

226) 김상일, 「조선중기 사대부의 승려와의 교유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39집, 2002, p. 221.

227) 송해경, 「草衣意恂의 茶道觀 研究 『東茶頌』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 45.

228) 김상일, 「조선전기 훈구사대부의 유불 교유론과 승려와의 교유시」, 『우리어문연구』 제25집, 2005, p. 417. 참조.

백과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승려들에 대해 다양한 글을 써준 정황들이 나타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입적한 승려들에 대한 글이었다. 이 문집에 수록된 글은 총 472수였다. 이 가운데 불교가 소재나 주제로 된 작품은 대략 40여수였다. 그는 대둔사의 승려들과 해남의 사대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의 사상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으며, 정신적 안정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찾기도 하였다. 특히 유학자였던 그는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는 해남으로 내려오기 전 이미 20대 중반에 서울 백련사의 선방을 빌려서 공부한 적 있다. 그러므로 백과는 승려들과의 교류가 낮설지 않았다. 『백과만고』에서도 여러 사찰을 유람하면서 기행 시집을 발간하였지만, 해남으로 내려와 대둔사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시축에 발문을 써주었으며 승려들에게 증여한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그가 대둔사의 여러 암자들을 유람한 것으로 미루어 그는 불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 사회에서 유학자들과 승려들이 격의 없이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은 시였다. 시는 유가와 불가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중요한 도구였다. 백과는 시를 통해 유가와 불가의 벽을 허물었던 대표적 학자였다. 실제로 그의 한시에는 알게 모르게 불가의 용어나 표현, 사교가 저변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백과가 승려들과 교류시를 교환한 것은 조선 후기 문학과 차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백과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대둔사 승려들에게 써준 찬(贊)·병서(并書)·시(詩) 13수가 있는데, 이를 시제별로 작성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7> 백과와 승려와의 교류

번호	제 목	비고
1	縞衣大師始悟畫像贊	호의시오
2	縞衣禪塔銘并書	"
3	荷衣大師止定畫像贊	하의정지
4	鐵船小草序	철선혜죽
5	無爲和尚安忍小照贊	무위안인
6	宿無爲禪室	"
7	恕菴和尚善機小照贊	서암선기
8	雲坡和尚益華小照贊	운파익화
9	贈梵海師	범해각안
10	贈月如上人	월여범인
11	月淵和尚寓淨小照贊	월연우정

12	性默大師太垣畫像贊	성목대원
13	一枝齋詩集跋	초의의순

백과가 교유한 주요 승려들은 다음과 같다.

1) 호의시오(縞衣始悟, 1778~1868)

호의의 법명은 시오이고, 법호는 호의이다. 어릴 때 이름은 계방(桂芳)이었으며, 속성은 정씨(丁氏)였다. 그는 전라남도 화순 출신이었으며, 아버지는 삼달(三達)이었고 어머니는 정씨(鄭氏)였다. 그는 16세에 화순 만연사(萬淵寺)에 들어가 1796년(정조 20년)에 경관(慶冠)을 은사로 하여 득도하였고, 도연(禱演)에게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 초의(草衣)·하의(荷衣)와 더불어 삼의(三衣)라 불렸다.

호의의 문하(門下)에서는 많은 다승(茶僧)들이 배출되었다. 호의와 다산은 한 집안이였다. 다산은 호의를 매우 아꼈다. 다산이 호의에게 호계(號偈)를 지어 주었고²²⁹⁾ 백과가 그의 비명을 찬(撰)하였다. 저술로는 직접 지은 「행장」 1편과 『견문록(見聞錄)』 1권이 있다.

호의는 차를 잘 만들었다. 차를 범제하는데 일가견(一家見)을 가지고 있었던 호의가 만든 차는 초의가 제다한 차가 진가(眞價)를 드러내기 전부터 서울의 사대부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시문이나 간찰(簡札)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호의가 범제한 차는 장춘차(長春茶), 두륜진품(頭輪眞品), 수제진품(手製珍品), 진차(珍茶)로 부를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²³⁰⁾

백과는 범해의 요청으로 그의 은사인 호의의 화상에 찬한 글과 탐명을 써주었다. 이런 사실은 「호의 탐명 병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먼저 「호의대사시오화상찬(縞衣大師始悟畫像贊)」²³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9) 『매옥서취』, 昨遊山寺 不論沙彌頭陀 皆誦縞衣, 始知君以縞衣行 旣行矣 不可無偈語 茲有拙語 試拋箱匣中 不具言. 茶樵謝.

230) 윤순희, 「19세기 대흥사 다풍에 관한 연구-범해각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p. 16.

231) 「縞衣大師始悟畫像贊」 衣之縞見心素, 名以悟, 思義 顯形癯骨清, 宜爾是菩提樹. 眉秀瞳朗, 宛爾是彌陀塑, 桂華之鞠夢兮, 幻丁威於表柱¹⁾. [師姓丁而有門閥 母夢桂而孕] 蓮潭之賢文兮, 繩法戒於玩虎. [蓮虎卽其法師] 望期瀕(而)以歸眞¹⁾兮, 垂八九而法臘度. [師壽九十一 僧臘七十二] 慧月秋空, 曇花夜雨, 眞乎影耶? 吾不知爾. 自身之所寓, 惟有曉磬寒風燈一炷. 『秋堂襍稿』 권1.

흰옷을 입으면 마음의 바탕을 볼 수 있으니 오(悟)라고 이름 하였다. 생각하는 것과 의리가 형체의 야됨과 뼈의 깨끗함을 보면 마땅히 보리수나무 같고, 눈썹의 빼어남과 눈동자의 맑음은 완전히 아미타불을 새겨 놓은 것 같네. 계수나무 꽃을 꿈속에서 기름이여! 화표주(華表柱)에서 정위(丁威)를 보는 듯하네. [대사의 성(姓)은 정(丁)씨요 문벌(門閥)있었다. 어머니께서 계수나무 꿈을 꾸고 잉태하였다.] 연담(蓮潭)의 현문(賢文)이여! 완호(玩虎)스님께 법계(法戒)를 받았네. [연담스님과 완호스님은 곧 그의 법사(法師)이다.] 100세를 바라보다가 입적함이여! 89세를 사셨으니 법랍(法臘)은 헤아리건대 [대사의 수(壽)는 91세요, 승랍(僧臘)은 72세이다.] 가을하늘 맑은 달과 밤비에 우담바라 꽃과 같으니 참된 초상화인가? 나는 알지 못할 따름이라. 자신(自身)이 머무는 곳에는 오직 새벽 경소리와 차가운 바람에 등불 한 심지만이 있을 뿐이네.

위 글에서 호의시오는 오(悟)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그는 연담과 완호에게 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백과가 해남에 내려왔을 때는 이미 호의가 입적한 뒤였기 때문에 백과는 호의를 만나지는 못했으며, 맑은 달과 우담바라 꽃과 같다고 표현한 초상화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호의선사의 탑에 새긴 글과 서문을 함께(縞衣禪塔銘 并序)」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탑명병서-1> 호의선사(縞衣禪師)의 법명(法名)은 시오(始悟)이니 속성(俗姓)은 丁이요, 관향(貫鄉)은 창원(昌原)이다. 조상 대대로 벼슬로 현달하였다. 아버지는 삼달(三達)이요, 어머니는 정씨(鄭氏)이니 정종(正宗) 무술(1778년)에 동복현(同福縣)의 적벽촌(赤壁村)에서 태어났다. 19세에 출가하여 고종 무진(1868년)에 입적하니 나이 91세요, 법랍(法臘)은 72세였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였고 점점 자람에 매우 효성스러웠으며, 10세에 이르러 혹독한 질병과 재앙에 시달렸으며,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니 한 가문이 망하고 12세에 오직 자기와 어린 동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염장(殮葬)을 이미 마치니 집안에 조금의 재산도 없어 통곡하며 어린 동생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만동사(萬洞寺, 지금의 화순에 있는 만연사)에 들어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몸을 기탁(寄託)하였다.²³²⁾

위 글은 호의가 출가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그는 정씨 집안으로 벼슬로 현달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질병과 재앙으로 부모를 잃고 오갈 때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었으며, 어린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였고, 자신은 지금의 만연사에 몸을 기탁하면서 19세에 출가의 길을 걸었다.

<탑명병서-2> 갑인년(1794)에 해남의 대둔사에서 경관(慶冠)스님을 따랐다. 병진년(1796)에

232) 「縞衣禪塔銘 并序」, 縞衣禪師 法名始悟 俗姓丁 貫昌原 先世以官顯 父三達 母鄭氏 以正宗戊戌生于同福縣 赤壁村 年十九剃度 戊辰入寂 壽九十一 法臘七十二 其生也 幼而穎悟 稍長克孝 至十歲 酷罹凶禍 父母俱歿 一門之喪 十二稚已稚弟在 殮葬已畢 家無寸費 托弟於人 慟哭入萬洞寺 零丁孤寄.

머리를 깎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마침내 연담(蓮潭), 완호(玩虎), 백련(白蓮), 연파(蓮坡), 낭암(朗巖) 다섯 종사(宗師)에게 참법(參法)하고 웃으며 승려가 되어 종단(宗團)을 전하였다. 기사년(1809)에 태백산에 들어가 남장(南藏)에 잠시 머물렀고, 경오년(1810)에 일지선사(一指禪師)에게 참법(參法)하고 희방사(喜方寺)에서 계율을 받고 바닷길 천리를 따라서 관동지방의 명승지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금강산의 마하연(摩訶衍)에 이르러 얼음 계곡에서 마가(摩柯)를 발견하고 마음 속으로 기뻐하여 마가를 깎아 고약(膏藥) 만들어 주머니에 담았다. 돌아오는 길에 남래(南來)스님을 만나 은사(恩師)께서 제주도에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달려 바닷길로 들어가 모슬포에서 만나니 흰머리가 정수리를 덮었고 모습은 완전히 마르고 몸은 구부정하여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희비가 교차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지 못하였다.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내가 높은 언덕에서 상수리나무를 쪼개려다 잘못하여 깎아지른 절벽에 떨어졌는데 비록 깨어나서 대나무 자리에 누워있으나 다시 굶주리고 목말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침내 미음으로써 봉양하고 또 마가로 고약(膏藥)을 조제하여 드리니 더욱 좋아져 비로소 일어나 함께 돌아왔다.²³³⁾

위 글은 호의가 출가한 이후의 이야기이다. 그는 경관을 따라 1796년에 출가하여 다섯 종사에게 법을 배웠다. 위 글에는 그가 참법하고 계율을 따르고 명승지를 두루 두루 돌아다니면서 마가로 만든 고약으로 은사에 병을 낫게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담명병서-3> 하늘이 정공등(丁公藤 마가목, 마아목)으로 옛날 정계방(丁桂芳)에게 내려주어 불문(佛門)의 효자 해숙검으로 하여금 다만 옛날 보다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간절할 뿐이라고 말할겠는가? 신미년(1811)에 화재가 크게 일어나 큰 가람(伽藍) 아홉 채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타버렸다. 선사께서는 그때 서기(書記)로서 보현전(普賢殿) 잘 지켜서 의연히 구하여 보존하였다. 정축년(1817) 동경(경주)의 기림사에 완호(玩虎) 스님을 수행하여 천불상(千佛像)을 빚었고, 물길을 따라 가다가 부산의 동래 해상에서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일본의 축전주에 이르렀다가 해를 넘기고서야 비로소 불상을 받들고 돌아왔다.²³⁴⁾

위 글에는 가허루 아래에서 일어난 화재로 가허루, 천불전, 대장전, 용화당, 팔해당, 적조당, 지장전, 약사전, 향로전 등 아홉 동의 요사채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다음해 완호는 불탄 천불전 재건을 위해 손수 권선문을

233) 甲寅 從慶冠和尚于海南之大菴寺丙辰 祝髮受戒 遂參法於蓮潭玩虎白蓮 蓮坡朗巖五宗師 莞爲沙門傳宗 已入太白山 卓錫于南藏 庚午 參一指禪 戒于喜方 遵海千里 歷覽關東名勝 至金剛之摩訶衍 見摩柯於水欄 中心忻然 斲以爲膏藥鉢 而歸路逢南來僧 聞恩師歿于耽羅 疾走入海 遇諸羣瑟鎮 霜髮覆頂 形槁枯 身偃僕 殆不能辨 悲喜交集 涕淚不成語 久而乃曰 我斲柞于崔嵬 誤墜懸崖絕 而雖甦成此籛條 仍復飢渴死無日矣 遂糜粥以養之 又以所儲膏調劑得愈 始與俱歸 計摩訶煉藥 卽羣瑟賈谷日也

234) 天以丁公藤 賜舊日丁桂芳 俾雁門孝子 不獨專美於古 豈曰偲爾 辛未 鬱攸大作 九寮 一夜燒蕩 師時以書記 住持普賢殿 得巋然救存 丁丑 隨玩虎于東京祇林寺 塑千佛像 由水道行 遇風于東萊海上 漂到日本之筑前州 逾年始奉佛還.

지였으며, 호의와 인봉 덕준(仁峰 德俊), 그리고 풍계 현정(楓溪 賢正) 등은 11월 16일 경주에서 천불을 배에 싣고 대둔사로 향하다가 동래 오류도 인근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11일 동안 표류하다가 일본 장기도(長崎島) 축전주(筑前州)에 표착했다. 이 배는 이듬해 6월 17일에 일본을 떠나 7월 14일 대둔사로 돌아왔다. 천불 중 일본에 표류되었던 석불은 모두 밑바닥에 ‘일(日)’ 자를 표시하였다.²³⁵⁾

<담명병서-4> 신축년(1841)에 초의장로(草衣長老)께서 광명전(光明殿)을 창건하고 또 보련각(寶蓮閣)을 세워 조사(祖師)의 사진을 안치하니 선사는 진실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대저 불이 난 재앙을 힘써 구제하여 홀로 금불상을 흠을 빚어 만들었고 표환(영암)에 절을 짓는 일에 시주를 받아 공사를 감독하였는데 모두 정성과 부지런함을 말미암아 이르는 곳마다 법계(法界)에 힘을 베푸는 바가 매우 컸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매우 궁하게 떠돌다가 석가(釋家)에 효도하였으며 널리 선교(禪敎 선종과 교종)를 수집하고, 유서(儒書)를 섭렵(涉獵)하여 그 기술한 바가 간략하고 요체를 갖추었으며 붓글씨는 늙을수록 더욱 굳세졌으며, 제례(祭禮)에 매우 밝아서 본받는 자들이 많았고, 공물(公物)을 잘 살펴서 공경하는 자들이 많았다.²³⁶⁾

위 글에는 초의가 광명전을 창건하고 보련각을 세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호의는 화주 소임을 맡아 불사를 감독하면서도 정성스럽고 부지런하였으며, 제례에 밝았고, 공물 관리도 잘 보살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다. 그는 불교에 귀의했지만, 불교 서적뿐만 아니라 유학 서적도 섭렵했으며, 서체 실력도 출중했다.

<담명병서-5> 자비(慈悲)를 빌어 천수를 누리기를 기원하니 텅 비어있는 듯 고요함으로써 박연(泊然)이 화(化)하듯 하니 또 마음을 보고 도를 깨달은 힘이 아니겠는가? 계수나무 꽃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쌓여 이러한 편안한 향기를 발하니 마땅히 그 이름을 방보(芳譜)에 새길 것이로되, 애석하도다! 짐승에게 씹히는 바가 되어 비로소 꺾여 마침내 사라졌으니 육몽(六夢)의 상서로움이 진실로 증험함이 있도다. 그 제자들의 전성(傳成)한 자들이 20여명이요, 전법(傳法)한 자들이 3-4명 있었으며, 무위(無爲)스님과 범해(梵海)스님은 더욱 뛰어났는데 **큰 종을 가지고 와서 그 행적을 나에게 새겨주기를 청하니**, 명(銘)에 말하기를 “적벽(赤壁)의 깊은 밤 흰 옷 입고 외로이 노닐다 묘문(墓門)에 돌아오니 누가 옛날 정계방을 알리요. 색(色)과 상(相)은 마침내 공허한 것 어렴풋한 그 모습이 마치 흘러가는 구름과 붉은 노을에 옷자락 날리는 듯하네. 소박한 생활로 삼천대계 팔만진경 터득하였는데 장춘동 옛 골짜기엔 나무만이 변하지 않고 푸르네.”²³⁷⁾

235) 풍계현정, 김상현 옮김, 『일본표해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236) 辛丑草衣長老 朞光明殿 又建寶蓮閣 以安諸祖師眞影 師實籌畫焉 蓋回祿之力救 獨金佛像之塑成 漂還梵宇之募緣董匠 皆由誠勤 所到而施力於法界者大 幼失怙恃窮流離 移孝於釋家 而蒐羅禪敎 涉獵儒書 其所述簡而要 筆翰老益逾健 明於祭禮 效之者衆 察於公物 揮之者多發願

237) 慈悲 躋壽期瀕 澹若以靜 泊然而化 又非觀心悟道之力耶 桂華鞠靈 生此寧馨 宜其影名芳譜 而惜乎 爲畜物所囓 始而摧折 終焉寂滅 六躰之祥 眞有驗歟 其徒弟之傳成者廿餘 傳法者三四 無爲梵海 尤其秀 將鐫

위 글은 백파가 찬과 탐명을 써준 계기를 확인해 주었다. 위 글의 중간쯤에 무위와 범해가 큰 종을 가지고와 호의의 행적을 새겨주기를 청하니 백파가 명(銘)을 써줬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백파가 불교에 조예가 깊었으며, 승려들과 교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의는 학문교류와 차 교유를 통해 다산 일가와 관계를 이어 나갔다. 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차를 매우 잘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산의 큰아들인 유산 정학연이 호의에게 보낸 「정학연의 차 청하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초의가 이곳에 있는 덕분에 연달아 글을 받자오니, 매번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다만 서쪽 가득 서로 그리며 연면히 애뜻한 정의 말씀이 넘쳐흘러, 저로 하여금 더더욱 아득히 마음이 녹아들게 합니다. 초가을에 선정(禪定)이 맞나고, 지체도 청건(淸健)하심을 알게 되어 몹시 기쁩니다. 저는 양친의 병환이 봄,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이어지고, 제 목은 병도 또 이와 같은 지라, 눈썹을 펴고 입을 열 날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스스로 연민할 따름이지요. 글씨 첩은 만약 제가 한가로이 지내며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으면, 팔꿈치를 시험해 글씨를 쓰는 것이 어찌 이 정도에 그쳤겠습니까? 다만 이처럼 근심으로 골몰하여 잠깐의 틈조차 탈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단지 한 폭의 식귀와 몇 조각의 벽에 붙일 글씨를 받들어 부칩니다. 이로써 천리의 면목을 대신할 뿐이니 글씨라고야 하겠습니까? 연적 하나를 함께 보냅니다. 한번 따를 때마다 저를 한 차례 생각해 주십시오. 부쳐주신 차는 참으로 기이한 선물이니, 사양하지 않으렵니다. 뒷 인편에 또한 이 같은 갈망을 생각하셔서 더 낮게 보내주시면 몹시 다행이겠습니다. 언거푸 보내 주실 수 없다면 만에 하나라도 남겨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신미년(1831) 8월 6일, 학연 삼가.²³⁸⁾

위 글은 1831년 8월 6일에 유산(西山)이 호의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때 초의는 스승 완호의 탐명을 받는 일로 해를 넘겨 정학연의 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장안의 명류들과 시회를 여는 등 명성을 얻고 있었다. 초의의 체류가 예상 외로 길어지자, 호의가 언거푸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매우 정겨웠다. 호의는 정학연에게 글씨를 요청했고, 정학연은 넉넉히 써 보내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편지에는 기이한 차를 선물로 보내주어 고맙다는 말과 다음번에는 훨씬 더 많이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는

其蹟踵 余請銘 銘曰 赤壁之夜 衣縞伶仃 遊歸華表 誰識舊丁 色相遂空 闐然其形 雲蹤霞袂 一鉢一瓶 三千大界 八萬眞經 長春古洞 祇樹留青. 신헌구, 『秋堂稜稿』 권1.

238) 賴有草衣在, 絡續承字, 每令人襟懷爽亮. 第滄幅相憶纏綿有情之辭, 尤使我黯然銷魂. 審新涼禪定多味, 肢體淸健, 深符所懷. 拙者親癢, 春夏至秋, 身痾又若此, 殆無展眉開口之日, 自憐自憐. 書帖若使我閒居多棕, 則試掩奚止是也. 奈此憂愁滾汨, 無片隙可乘何哉. 只以一幅詩句, 數片貼壁奉付, 以代千里面目而已, 書云乎哉, 硯滴一坐伴去, 每一滴時輒思我一回也. 惠茶儘是奇貺, 不欲辭矣. 後便亦念此渴望, 優惠甚幸耳. 襞積不能, 万一都留. 不宣. 辛卯八月六日, 學淵頓首. 정민, (a) pp. 492-493.

부탁이 담겨 있었다. 호의는 그 후로도 줄곧 정학연에게 차를 만들어 보내고 있었다.²³⁹⁾

탐명에서 알 수 있듯이 호의의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났던 인물은 무위와 범해였으며, 이 두 승려는 백파에게 명을 써주길 청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범해는 백파와 친밀히 교류하면서 시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하의정지(荷衣正持, 1779~1852)

하의의 법명은 정지(正持)이고, 성씨는 임(林)씨로서 전남 영암 사람이다. 그는 16세에 집을 떠나 당대 선지식의 수행 요람인 대둔사로 들어갔으며, 백련(白蓮) 선사의 문하에서 승려가 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 정조 18년(1794) 무렵이었다. 그는 출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였으며, 당대의 고승 완호(玩虎) 법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조선 중기 이후 대둔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찬란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의는 불교문화의 꽃이 원만하게 필 무렵인 정조 3년(1779)에 태어나 철종 3년(1852) 6월 11일 대둔사 도반암에서 입적했다. 이때 하의 나이는 74세였고, 법랍은 58년이었다.²⁴⁰⁾

「하의대사 지정의 화상에 대한 찬(荷衣大師正定畫像贊)」이라는 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²⁴¹⁾

子之衣兮. 荷製尙錦袈以長曳宛其容裔

선생의 옷이여 연꽃으로 지어 금란가사 걸치고
길게 끄니 완전한 용모로다.

子之心兮. 止定證貝葉於三乘老而慧應

선생의 마음이여 지정은 삼승 노로부터 불
법을 인증 받아 지혜로 응하였도다.

虎留皮兮. 蓮_문芳列眞影而相傍七分有光

범이 가죽을 남김이여 연 _문향 속에 진영에 배
열하여 서로 도와 칠분 영광을 지녔도다.

師之法師玩虎 蓮潭皆有畫幀

대사의 법사 완호·연담이 모두 화정을 두었다.

위 글에 의하면, 백파는 하의대사의 영정을 보고 선생이란 호칭으로 찬을 시작하였다. 그는 수려한 용모를 찬양하였고, ‘범이 가죽을 남김이여’라고 말했는데, 이는 하의가 완호의 제자였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239) 정민(a), 위의 책, pp. 492-494.

240) 범해 撰, 김윤세 譯, 『동사열전』, 광재원, 1991, pp. 308-309.

241) 신현구, 『秋堂稵稿』 권1.

완호의 제자 중 삼의(三衣)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호의, 하의, 초의였다. 범해는 이들 세 사람을 대상으로 「삼의가(三衣歌)」²⁴²⁾라는 장편 고시를 지었다. 세 사람의 이름을 풀이한 중간 대목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赤壁秋夜向南飛
翔彼千?覽德輝
雖處衆縑自不縑
示其不變常白衣
一生所好與世違
脫然逾城投佛依
駕風一葦任性去
披烟採荷?身?
開花錦城三鄉曲
結實塞琴九曲春
欲避名聲架三椽
石田編草遮一身

적벽이라 가을밤에 남쪽 향해 날아가니
저 천길 위 날아올라 덕의 광휘 살폈다네.
중들 틈에 처해서도 절로 중과 같지 않아
변치 않음 보이려고 늘 흰 옷을 입었다오.[호의]
일생에 좋아한 일 세상과는 어긋나니
툭툭 털고 성을 넘어 불문에 귀의 했지.
갈대 잎 배 바람 타고 천성대로 떠나며
안개 헤쳐 연잎 따서 온 몸에 걸쳤다지.[하의]
금성(錦城)의 삼향곡(三鄉曲)에 꽃이 활짝 피어나고
새금(塞琴)의 구곡(九曲) 봄에 열매가 맺었구나.
명성을 피하고자 초가 삼간 엮어 두고
돌밭에서 풀을 엮어 한 몸을 가리셨네.[초의]

위 시는 세 사람을 4구절씩 차례대로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는 불변의 뜻을 보여 흰 옷만을 입었다는 호의(縑衣),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몸을 숨겼다는 하의(荷衣), 그리고 명성을 피해 돌밭에 띠집 지었다는 초의(草衣)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철선도 하의의 시에 차운하여 「차운하여 하의스님에게 드리다(次韻贈荷衣)」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²⁴³⁾

掃地焚香點發微
繩床茶碗漫相依
雲誰送汝來簷宿
鶴領忘機拂頂飛
何恨閻浮隨別轉
維期兜率會同歸
道交澹泊貧非病
捫虱談玄對夕暉

땅 쓸고 향을 피워서 그윽한 뜻 점검하고
승상(繩床)에서 찻 사발 들고 느긋하게 기대었네.
구름아 누가 너를 보내서 처마 밑에 와서 자나
학은 때를 잊었다가 정수리 스치고 날아간다.
어이 한탄 하리 작별하고 염부(閻浮)로 돌아감을
다만 기약 하네 도솔천에 함께 가길
가난은 병 아니라 도(道)의 사킴 담박하니
이 잡으며 현담(玄談)하다 저녁 햇빛과 마주하네.

위 시는 땅을 쓸고 향을 피우며 상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흐르다 머문 구름과 학이 정수리를 스치고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 다음으로 시는 죽음을 이야기하였다.

242) 각안, 「범해선사시집」 2권, 『한글대장경 초의집 외』, 동국역경원, 1997, p. 572.

243) 『六老山居詠』, 김민영소장본.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돌아감이었고, 돌아가는 그곳은 도솔천이라 믿었다. 위 시의 이런 종교적 확신은 ‘도의 사귀는 담박하고 가난은 병이 아니다.’라는 사소한 일상의 발견에서 비롯되었다. 위 시는 아침 일을 마치고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처마에 걸린 구름을 보다가 문득 정수리를 스치고 날아가는 학을 보면서 걸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승려들을 생각하게 하였다. 위 시는 평상에서 느긋하게 기대어 마시는 차 한 잔 속에 구름처럼 물처럼 흐르는 운수납자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²⁴⁴⁾

3) 철선혜즙(鐵船惠楫, 1791~1858)

법명은 혜즙(惠楫)이고 철선(鐵船)은 법호이며, 성씨는 김(金)씨이다. 그는 조선 정조 15년(1791) 당시 전남 영암 땅에서 태어났다. 그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위고 14살 되던 해인 순조 4년(1804) 해남 대둔사로 출가하여 성일(性一) 문하에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다. 19세 때 당대 선지식으로 법풍을 드날리던 완호(玩虎)께 『치문(緇門)』을 배우고 연암(蓮庵) 조사에게서 사집(四集)을 공부하였으며 철경(掣鯨)·대운(大雲) 으로부터 오교(五教)를 익혔다. 오교는 열반(涅槃)·계율(戒律)·법성(法性)·화엄(華嚴)·법상(法相)의 교학(敎學)을 뜻한다. 철선은 여러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선교(禪敎)를 아울러 공부한 끝에 수룡색성(袖龍曠性)의 조실(祖室)에서 향을 사르고 전법(傳法) 제자가 되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수룡의 법통을 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철선의 뛰어난 문장력과 특출한 필법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글로써 격려하였다.

“『大菴寺志』를 보건대 철선 스님의 글은 속되고 촌스런 티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아울러 스님의 문장에서는 스님의 마음자리가 고요하고 확 트였다는 것도 엿보인다. 나는 후배 중에 출중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세월은 실같이 흐르노니 결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불교 경전과 기타 전적들에 대한 공부에 더욱 힘쓸지어다. 철선 스님은 어릴 적부터 꽃다운 이름을 드날려 선대의 뛰어난 스님인 아암(兒庵) 대사의 영광을 계승한 인물이라 하겠다. 따라서 철선 스님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을 것이다. 수년 뒤 귀족과 고관, 학자들이 반드시 철선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어떻게 찾아오는 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것인가.”²⁴⁵⁾

244) 김성숙, 「백련사의 차문화 연구」, 동국대학교 다도생활예절 전공, 석사논문, 2013, p. 51. 참조.

245) 觀寺志 筆力藻麗 脫畧蔬荀之氣 兼見心地靜廓 深以後塵 有人爲喜 光陰如駛 幸勿 忤悞 劬心內外之典 早歲蜚英 以紹兒庵之光 深冀 深冀 數年之後 肯遊薦紳先生 必尋鐵船之聲赤 當此時 何以塞之. 범해 撰

철선은 필법이 정묘하고 힘이 있어 다산이 진두지휘해서 편찬한 대둔사지 글씨를 정서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 편지는 다산이 그의 글씨를 보고 감탄하여 보낸 편지이다. 편지에서 다산은 내외 경전을 두루 익혀 스승 아암 혜장의 광채를 이어줄 것을 당부했다. 다산은 1834년 철선 혜즙이 금강산 유람 차 상경했다가 뜻을 못 이루고 돌아갈 때 「잡언송철선환(雜言送鐵船還)」이란 증언첩을 써준 바 있었는데, 모두 11칙으로 구성된 글이었다.²⁴⁶⁾

철선은 조선 철종 9년(1858) 1월 25일 대둔사 상원암에서 선화(禪和)와 학인들을 지도하는 『대둔사지』 편찬에 참여하는 등 저술과 교육에 매진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는 67세, 법랍은 55년이었다.²⁴⁷⁾ 철선은 초의, 호의, 철경, 수룡, 자굉, 법훈, 풍계, 근은 등과 함께 다산과 사제의 연을 맺은 진등제자였다.

『철선소초(鐵船小艸)』는 철선의 문집이다. 『철선소초』는 1권 1책으로, 74편의 시(詩)로 구성되었으며, 1875년에 서문이 쓰였다. 이 책의 서문은 백과 신헌구가 썼다. 「철선소초서(鐵船小艸序)」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²⁴⁸⁾

옛날 황씨(曠氏)가 명주를 누일 적에 낮에는 태양에 쬐이고 밤이면 우물에 발기를 7일 밤낮으로 한다. 보기에 그 색이 차 빛깔처럼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록(朱綠)으로 현황(玄黃)으로 물들어 보불문장(翻馱文章)²⁴⁹⁾을 만들거나, 꼬아서 비파 줄을 만들며, 가늘게 하여 패옥에 하여 교묘(郊廟)나 조정(朝廷)에서 사용한다. 혹 불우하여 허리띠 재봉이나 버선 재봉 선을 따라 파문혀 때가 끼어 화려하지 아니하니, 어찌 그 본바탕이 그러하겠는가?

서문이 성률(聲律)에 드러남도 역시 이와 같다. 마치 찬조(纂組)²⁵⁰⁾·수직(綬織)·운금(雲錦)이

김운세 譯, 『동사열전』, 광재원, 1991, pp. 315-316.

246) 정민, 「다산 逸文을 통해 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한국한문학연구』 제50집, 2012, p. 123.

247) 범해 찬, 김운세 역, 『동사열전』, 광재원, 1991, pp. 315-316.

248) 古者曠氏涑絲 晝暴諸日 夜涑諸井 七日七夜 眠其色如茶 以之朱綠之 玄黃之 爲翻馱文章 絙之爲琴瑟 細之爲瑣瑠 用諸郊廟朝廷 厥或不遇則埋跟於襖縫襪線 黠而不華 豈其素質然乎 詞藻之發於聲律 亦猶是也 有如纂組·綬織·雲錦 被管絃雜鳳笙·瓊瑤·玉佩 大放厥聲 此皆影纓·縮紱 蜚英於當世者之所爲下 此而韋布寒土猶有錦心繡肚 紕花絡月 以能藻繪成章 鏗(王+將)發音 而至若空門緇衲 雖有美質無所施 其文素而不綯 黯然靡章最其不遇之甚者 今見鐵船小艸 工於涑涑 未始不茶 然以白而惜乎 浸入黤淡之中 遂不得彰也 雖然若英之華采衣 薛荔之陸離佩 宛其容裔於海山之墟 冷冷如七絃古調 此所謂布帛之質 而有金石聲者 尤深於禪戒 得夫空玄之妙 余故愛之 重歎其淪寂隱於浮屠也 怨菴和尚善機少照贊. 신헌구, 『秋堂稊稿』 권1.

249) 보불 문장(翻馱文章)은 임금이 예복으로 입는 곤룡포에 놓은 여러 가지 모양의 수를 의미한다. 보는 흰 빛깔과 검은 빛깔로 자루 없는 도끼 모양을, 붉은 검은 빛깔과 푸른 빛깔로 아(亞) 자 모양을, 문은 푸른 빛깔과 붉은 빛깔로, 장은 붉은 빛깔과 흰 빛깔로 수놓은 것이다.

250) 찬조에 대해 하씨(何氏)가 말하기를, “찬(纂)은 조(組)와 비슷한데 붉다.”라 하였다. 『한서(漢書)』 경제기(景帝紀)에 이르기를, “비단에다 수를 놓고 아름답게 베를 짜는 것은 여공(女紅)을 해치는 것이

관현(管絃)을 입고, 봉笙(鳳笙)²⁵¹·경거(瓊瑠)·옥패(玉佩)와 어울려 크게 그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당세에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찬 고귀한 자들이

하찮게 여겼는데, 이에 위포(韋布)의 한미한 선비가 오히려 비단 같은 재주를 지녀 꽃을 장식하며 달을 엮어 화려하게 문장을 이루어 쟁그랑거렸다. <공문(空門)·<치납(緇衲)>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아름다운 바탕을 지녔으나 베풀 곳이 없고, 그 문체가 소박하여 현란치 아니하며, 압연히 아름다운 문장은 불우함의 심함을 극명히 한 것이다.

오늘 철선 소초(鐵船小艸)를 보건대, 누이고 말기에 공교히하기를 애초엔 차색으로 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그리하여 회계 하였거늘 애석하다, 어둠 속에 젖어 들어 끝내 현창하지 못하였음 이여! 비록 그리하나 약영(若英)²⁵²의 화채를 입고, 벽협(薛荔)의 옥리를 차고, 완연히 해산(海山)의 언덕에 옷자락 끌며, 마치 칠현(七絃)의 옛 음조처럼 소리를 냈었다. 이는 이른바 포백(布帛)의 바탕에 금석(金石)의 소리를 지닌 자로 더욱 선계(禪戒)에 깊어 저 텅 비어 현묘함을 득하였으니, 내 그대 사랑하여 거듭 그가 적막한 곳에 빠져 부도에 숨은 것을 탄식하노라.

연과의 손제자였던 철선은 초의보다 5세 아래였으며, 3편이 차시를 지었다. 그가 쓴 차시들 중 한편인 「또 초의화상에게 드리다(又贈艸衣和尚)」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²⁵³

一肩壤色坐芳林	한쪽어깨에 괴색 가사를 걸치고 향기로운 숲에 앉아
時見張華註外禽	때때로 꽃을 보며 바깥 새에도 관심을 주네.
溫鉢焦茶供客飲	따뜻하게 차 달여 손님에게 공양하고
鑿池貯月印禪心	연못을 파고 달 비추게 하여 선심(禪心)을 밝히네.

어려서 대둔사로 출가한 철선은 5세 연상인 초의 선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위시는 두 스님은 대둔사에서 함께 승려 생활을 하면서 격의 없는 우의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대둔사에서 생활한 철선은 일찍부터 차를 접하고 대둔사의 음다풍을 익혔으며, 초의와도 자주 차를 마셨다. 철선은 초의 선사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초의가 유생이나 일반인과 교류하는 것을 ‘바깥 새에 관심을 갖네.’ 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초의 선사가 평소 따뜻하게 차를 달여 손님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사실도 이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철선은 초의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대둔사가 조선 후기 차문화를 융성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²⁵⁴

다.”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찬(纂)은 붉은 실이다. ‘紅’은 음과 뜻이 공(工)과 같다.” 하였다.

251) 봉笙은 봉(鳳)의 울음소리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생황(笙簧)의 미칭(美稱)이다.

252) 약영은 약목(若木)의 꽃인데, 약목은 서쪽의 곤륜산 끝 해가 지는 곳에 있는 나무이다. 『이소경(離騷經)』에 “내 말을 부상에 고삐 매어 두고 약목을 꺾어 해가 지지 못하게 하노라. [總余轡乎扶桑 折若木以拂日兮]”라고 하였다.

253) 『철선소초』, 『한국불교전서』, 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4) 무위안인(無爲安忍, 1816~1886)

무위는 이름이 안인(安忍)이며, 자(字)는 진여(眞如)이고, 성은 김(金)씨이다. 무위는 그의 호이다. 그는 전남 완도군 청해진(淸海鎭) 세포(細浦) 고을 출신이다. 그는 11세 되던 해(1826) 보타산(補陀山)으로 출가하였다가 16세(1831)에 두륜산으로 옮겨가 호의(縞衣)선사 조실에서 승려가 되었다. 그는 완해(玩海)대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고 신월(信月), 철선, 문암(聞庵), 용연(龍淵), 화담(華潭), 초의, 인암(忍庵), 성담(性潭), 호의 등 9대 법사에게 교학을 배웠다. 그는 은사인 호의로부터 법인을 전수받았고, 초의에게 대승보살계를 받았다. 그는 범해가 이질로 사경(死境)을 헤맬 때 차로서 병증(病症)을 다스리게 하여 낮게 한 장본인이었다. 범해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와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 범해보다 4살 위였던 무위는 범해에게 항상 든든한 법형(法兄)이었다. 그는 범해로부터 차의 약리적 효과와 효능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외롭고 고단한 인생생활에서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그는 1880년 성도 암에서, 1882년에 해림령(海臨嶺)에서 범해와 노인성(老人星)[南極星]을 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도 하였다.²⁵⁵⁾

무위는 신승지(신현구)가 보내 준 역서(曆書)를 범해에게 보여 주었으며, 이에 대해 범해는 신승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²⁵⁶⁾ 이는 무위와 범해와 백과가 시와 차를 통해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위는 「무위화상 안인 소조에 찬함(無爲和尚安忍小照贊)」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²⁵⁷⁾

無生之初本無爲	무생의 초엔 본래 할 일 없거니와
有生之後謾有爲	유생 후엔 부질없이 할 일 있도다.
衣緇師縞	검은 옷 입고 호의를 사사하여
惟善是爲	오직 선을 행하도다.
一鉢一磬	바리 하나 경쇠 하나
餘事何爲	여사를 무엇 하랴.
托眞三昧	참 삼매에 의지하여
返乎無爲	되레 할 일 없도다.

254) 임혜봉, 『茶聖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맥』, 상지사, 2001, p. 129.

255) 각안, 『범해선사문집』 권1, 「老人星記」, 『한국불교전서』 10책, pp. 1077-1078.

256) 윤순희, 「19세기 대흥사 다풍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11. p.19. 참조.

257) 신현구, 『秋堂稊稿』 권1.

무위는 백파가 해남으로 내려와서 서울로 상경할 때까지 교유를 유지한 승려였다. 그가 은사인 호의에게 사사 받고 승려로서 오직 선 수행에만 힘을 썼으며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하기 위한 삼매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런 그의 모습은 백파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참다운 승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백파는 「무위선실에 유숙하며(宿無爲禪室)」라는 시에서 무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²⁵⁸⁾

芋眠芳草綠雲堆 一徑斜陽客上來 問說山人經濟久 幽花奇石自成臺	우거진 방초 푸른 구름 쌓인 곳에 해질녘 오솔길 객이 올라오도다. 산인과 경제제민 문답 오래거니 유희와 기석 절로 대를 이뤘도다.
--	---

무위는 호남 총섭(摠攝)에 임명되어 표충사(表忠祠)를 수호하다가 입적하였다. 백파는 표충사에 대한 시를 무위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산대사 영각에 쓰다. 표충사로 지금은 철거되었다. (題西山大師影閣 表忠祠今撤)」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²⁵⁹⁾

六龍西御仰乾文 讀罷傳燈曉點軍 坐擁山門巖虎士 長驅海島犬羊群 丹峰星月垂窮宙 香岵雲烟斂碩勳 金欄白拂如平昔 祝髮英姿古未聞	상감이 서행함에 천문을 우러르다 전등록 읽다 말고 군을 점고 하도다. 앉아 산문의 비호같은 용사를 품고 멀리 섬나라의 건양무리 내쫓도다. 모란봉 달빛은 우주에 드리우고 묘향산 운연에 큰 공을 감추도다. 금란가사와 백불 평소와 같았으니 고래에 듣지 못한 스님의 영결풍모.
--	---

위 시는 서산대사의 영각에 쓴 시로서 서산의 업적을 묘사하고 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그의 문도 유정 등을 이끌고 순간에서 대가를 맞이하여 승군을 규합하여 큰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서산대사의신술기도제유정등영대가우순안규합승군입위공(壬辰倭亂西山大師義信率其徒弟惟政等迎大駕于順安糾合僧軍立偉功)] 위 시에는 대사가 명나라 군사와 협력하여 모란봉 아래 야전에서 대첩을 거두어 극복한 후 나이가 많아 사직하고 묘향산에서 참선 수행하였다[여천병협격우목단봉야전대첩극복후사노수선우묘향산

258) 신현구, 『秋堂雜稿』 권2.

259) 신현구, 위의 책, 권1.

(與天兵協擊于牧丹峰下夜戰大捷克復後謝老修禪于妙香山)]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서암선기(恕庵善機, 1817~1876)

서암은 성은 조씨(曹氏)이고, 법호는 서암(恕庵)이며, 전라남도 나주 출신이다. 그는 15세에 집을 나와 명산대찰의 여러 고승들을 만난 후 나주 운흥사(雲興寺)에서 대운(大雲)을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였다. 그 뒤 그는 불경을 공부하다가 나주 불회사(佛護寺, 현 불회사)의 인곡(仁谷)과 영파(永坡), 해남 대둔사의 화담(華潭)과 문암(聞庵), 장흥 보림사(寶林寺)의 인암(忍庵), 순천 선암사(仙巖寺)의 침명(沈溟), 해남 미황사(美黃寺)의 봉명(鵬溟) 등을 찾아가서 선과 교학의 요지를 문답하여 심법(心法)을 터득하였다. 『소치실록』에는 “초의선사는 새로운 불전의 공사를 끝내고 일로향실(一爐香室)로 옮겨서, 노년을 보내시다가 입적 하였습니다. 선사의 의발은 수제자 서암 선기가 받았는데 지금은 진불암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²⁶⁰⁾ 이를 통해 서암은 초의의 고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암은 1876년 가을에 해남 비봉산 낙서암(樂棲庵)에서 입적하였다. 그의 부도와 비는 대둔사에 세워져 있으며, 제자로는 상운(祥雲), 응혜(應惠), 쌍수(雙修) 등이 있다. 백파는 대둔사에 들러 누구의 부탁으로 써 줬는지는 모르지만 서암의 소조에 찬을 지어 주었다. 백파가 쓴 「서암화상 선기소조에 찬함(恕菴和尚善機小照贊)」에는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²⁶¹⁾

毗藍有人	름비니에 사람 있으니
錦袈其頎	금란가사 헌걸차도다.
恕物爲善	너그럽게 선행하며
遂息塵機	속된 마음 그쳤도다.
洗心九曲水	구곡 물가에 마음 씻고
拈香一枝菴	일지암에 향 올리도다.
爐篆清繚迦葉徑	화로 연기 맑게 가섭 ²⁶²⁾ 의 길에 서리니
碧山幽幽雲淡淡	청산은 유유히 구름 담담하도다.

260) 김영호 편역, 『소치실록』, 서문당, 2000, p. 76.

261) 신현구, 『秋堂稜稿』 권1.

262) 가섭(迦葉)은 석가모니의 십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욕심이 적고 죽한 줄을 알아 항상 엄격한 계율로 두타(頭陀)를 행하였으며, 교단의 우두머리로서 존경을 받았다. 산스크리트 어 ‘카시아파(Kasyapa)’의 음역어이다.

華巔星眸眉長
 依係是真面瞿曇

화산 이마 별 눈동자에 흰 눈썹 길거니
 구담²⁶³의 진면목과 거의 방불하도다.

위 글에서 백파는 서암이 거처하고 있는 일지암을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 비유하였다. 여기에는 선행을 배푸는 서암의 인품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모습은 석가모니와 거의 흡사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백파는 서암이 초의의 수제자였기에 일지암에 향을 올리는 의식을 행했던 것 같다. 이는 백파가 초의를 매우 존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운파익화(雲坡益華, 1818~1875)

익화는 법명이고 운파는 법호이다. 운파는 성이 문(文)씨였으며, 청해(淸海) 장자리(長者里) 출신이었다. 그는 14세(1831)에 해남 두륜산으로 들어가 속세를 떠날 뜻을 굳혔고, 16세(1833)에 영철(永哲)장로 문하에서 승려가 되었으며, 뒷날 지허(知虛) 선사에 게서 계를 받았다. 그는 철선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접어들었다. 철선은 수룡의 법맥을 계승한 당대의 명강백으로 대흥사 진불암에 주석하고 있었다. 운파는 진불암으로 철선을 찾아가 사집(四集) 공부를 통해 선교(禪敎)의 연원을 깊이 탐구하였다.

운파의 성품은 엄격하고 냉정하며 고담(枯淡)하고 사곡(邪曲)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범음(梵音)에 능하여 그의 방에는 배우려는 사람들이 항상 가득 차있었다. 그는 조선 순조 18년(1818)에 태어나 고종 12년(1875) 12월 20일에 입적하였는데, 그의 나이 58세, 법랍 41년이었다.

운파의 영정은 화승인 용완(龍玩)이 그렸고, 석치(石痴)가 칠을 고쳤으며, 백파가 찬미의 글을 짓고 썼다.²⁶⁴ 여기서 석치는 소치 허련을 말한다. 허련은 소치, 노치(老痴), 치옹(痴翁), 석치(石痴), 옥주산인(玉州山人) 등의 호를 사용하였다. 그는 이름으로 련과 유(維)를 함께 썼다. 백파는 「운파화상 익화 소조에 찬함(雲坡和尚益華小照贊)」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²⁶⁵

263) 구담 화상(瞿曇和尚): 석가모니(釋迦牟尼)를 지칭한 말이다. 구담은 범어 Gautama의 음역으로 석가모니의 성씨이다.

264) 범해 撰, 김윤세 譯, 『동사열전』, 광재원, 1991, pp. 433-435.

265) 신현구, 『秋堂稵稿』 권2.

菩樹秋坡
 白雲相隨
 雲自常淡
 白亦不縑
 寄心蘊廬
 托形牟尼
 問何消瘦
 摠緣慈悲
 美痂侵髓
 淸愁滿眉
 七分依係
 子真是誰

보리수 숲 가을 언덕에
 흰 구름 서로 따르도다.
 구름 스스로 늘 깨끗하고
 희고 또 검어지지 않도다.
 마음은 주막에 붙이고
 몸은 부처에게 기댔도다.
 묻노니 어이 수척하고
 다 자비에 인연함이라.
 고질이 골수에 침노하여
 시름이 미간에 가득 도다.
 칠분 어렵פות하거니
 그대 진정 그 님신고.

위 시에서 보리수를 말한 것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가 도를 깨달았던 것과 같이 구름은 스스로가 희거나 검어지지 않고 늘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백과가 운파에게 선사가 의지하는 부처님의 화현(化現)이자 진리를 부여했다는 의미이다. 백과는 운파를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하여 맑고 고아한 구도의 모습을 지녔다고 표현하였다.

7)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

범해의 속성은 최씨이고, 속명은 어언(魚堰) 또는 초언(超堰)이다. 그의 이름은 각안, 자는 환여(幻如), 호는 범해(梵海)이다. 그의 저서인 『동사열전』의 「자서전」²⁶⁶⁾에 의하면, 그는 14세에 대둔사 한산전에서 출가하였고, 16세에 호의에게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으며, 초의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그는 하의 정지(荷衣 正持)를 설계사(說戒師), 묵화 준훤(默和 俊暄)을 수계사(授戒師), 화담 영원(華潭 永源)을 증계사(證戒師), 초의를 비구 및 보살계사(菩薩戒師), 호의를 전법사로 삼았다.

범해는 두륜산과 대둔사의 배경을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두륜산십경(頭輪山十景)」·「두륜산월가(頭輪山月歌)」·「산수가(山水歌)」·「인물가(人物歌)」·「십일마호(十一魔號)」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는 사찰 제영(題詠) 시를 60여 수 남겼는데, 절반 이상이 자신의 삶터였던 두륜산 대둔사와 인근 암자에 대한 제영 시였

266) 범해 撰, 김윤세 譯, 『동사열전』, pp. 13-14, 「자서전」에 의하면, “『동사열전』은 3권으로 모두 198인의 행적을 써서 곁에 두고 책 속의 스승으로 삼았다. (所集東師列傳三卷 凡一百九十八人行蹟書 置左右爲作書中先師)”고 하였다. 현재 『韓國佛教全書』에는 6권으로 수록 되어 있다.

다. 그는 제주의 대정산방굴사(大靜山房窟寺), 금강산 마사연(摩訶衍), 은진 관촉사(觀燭寺), 하동 칠불암(七佛庵), 직산 홍경사(弘慶寺) 등 다른 지역의 사찰 제영 시를 쓰기도 했지만, 해남 은도사(隱跳寺), 순천 송광사(松廣寺), 강진 백련사(白蓮社) 등 두륜산 인근의 사찰 제영 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의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두륜산과 대둔사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는 이곳에서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곳의 공간을 삶의 기본 터전으로 삼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²⁶⁷⁾

범해의 선시를 살펴보면, 많은 유학자들과 교유한 정황이 드러난다. 유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백과도 범해의 선시에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방외(方外)적 존재였으며, 이들의 시적 교유는 방외의 지취(志趣) 그 자체였다. 유학자와 승려의 교유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의 교유는 승속의 차원을 넘어 불교와 유학이 만나고 소통하고 승화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 하다.

백과는 범해가 불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외전도 두루 섭렵하였고,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말했다. 백과가 범해에게 써 준 시 「범해선사에게 드림(贈梵海師)」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²⁶⁸⁾

慈海宗風見梵輝
錦袈明月絕塵機
雲烟寶蹟傳秋史
松石眞容拜縞衣
師從秋史藏其筆帖
奉法師縞衣眞影
古寺百年飛錫老
大瀛千里短帆歸
師遊耽羅而歸
定知揮灑同懷素
綠展新蕉雨後肥

자해의 종풍 범해에 드러나 빛나니
금란가사 명월은 속세 인연 끊었도다.
운연 사이 보적에 추사를 전하고
송석 간의 진용에 호의를 빚도다.
선사가 추사(秋史)를 중유하여 그의 필첩(筆帖)을 소장하고
법사(法師)인 호의(縞衣)의 진영(眞影)을 받들었다.
옛 절간에 백년 세월 증은 늙어가고
넓은 바다 천리 길에 돛단배 가도다.
선사가 탐라(耽羅)를 유람하고 돌아왔다.
정녕 붓 갈기면 회소²⁶⁹⁾같음 알겠거니
푸름 펼친 새 파초 비온 후 살찌도다.

267) 김석태, 「梵海覺岸의 頭輪山 漢詩」, 『韓國言語文學第』 第73輯, 2010, p. 116.

268) 신현구, 『秋堂襟稿』 권1.

269) 회소(懷素)는 중국 당나라의 승려(725-785)로서, 속성(俗姓)은 전(錢)이며, 자는 장진(藏眞)이다. 현장의 제자로, 연면체의 초서에 뛰어났다. 일찍이 고향 마을에 파초(芭蕉) 만여 그루를 심어 파초 앞으로 종이를 대신해 글씨를 연습했는데, 이로 인해 그 거처를 녹천암(綠天庵)이라 부르게 되었다. 술을 좋아해 흥이 돋으면 붓을 놀렸는데, 날듯이 빙빙 돌면서 변화무쌍했지만 법도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만년에는 서체에서 평담(平淡)을 추구했다. 쓰다 버린 붓이 쌓이자 이를 산 아래 묻고는 필총(筆塚)이라 불렀다. 저서에 『초서천자문(草書千字文)』, 『자서첩(自敍帖)』이 전한다.

師有翰詞而 種芭蕉于庭 선사는 문장[翰詞]으로 뜰에 파초를 심었다.

위 시에서 백파는 범해의 맑은 품성을 고승적 면모로 형상화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승속 관계였지만, 교유의 정이 물씬 느껴지는 시였다. 위 시에서 ‘선사가 추사(秋史)를 중유하여 그의 필첩(筆帖)을 소장하고’는 범해가 추사와 교유하면서 추사의 필첩을 소장하고 백파에게도 보여줬다는 의미였다. 추사의 어떤 필첩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범해는 자흔만휴(自欣萬休)와 함께 초의를 모시고 추사가 유배되어 있는 제주도에 갔다 온 인물이었다.

위 시의 ‘선사가 탐라(耽羅)를 유람하고 돌아왔다.’에 대해, 범해의 「자서전(自序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범해는 54세였던 계유년(1873년) 여름에 남쪽으로 영해를 건너 제주도의 한라산 명승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는 금정보헌(錦城普憲, 1825~1893)과 함께 꿈에 그리던 제주도를 탐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범해는 계유년(고종10, 1873, 각안 54세)에 보헌(普憲)과 이현(梨峴)에서 자고 조천진(朝天鎭)의 선철(善哲)의 신선(信船:연락선)을 타고 소완도(小莞島)의 비자동(樞子洞)의 앞바다에 이르렀고 자시에 배를 띄워 석양에 조천진(현재 제주도 조천읍) 선창에 닿았다. 그는 영좌(領座) 강과총(姜把摠:孫)의 집에 들어가 세 밤을 자고 안산(安山) 임달삼(林達三:奇參判의 제자이다)을 만났다. 그는 제주성 동문(東門) 안 칠성동(七星洞) 육인도사(陸人都司) 나중경(羅仲卿: 나랑 동갑이다)의 가숙(家塾)에 들어가 장방(長房: 營廳 소속이다)을 만났으며, 이 목사를 배알하였다.

범해는 삼성혈(三姓穴: 고을 남쪽 3리 평지에 있다)을 보고 애월(涯月)과 명월(明月)과 차구(遮鷗)를 지나 대정(大靜)에 이르러 이호장(李戶長:命伯)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으며, 장군수(張郡守:德五)를 배알하였다. 그는 김참판(金參判: 秋史)과 초의와 만휴와 영호의 정헌서지(正軒棲遲) 방이 편하여 그곳을 서재로 삼았다. 그는 모슬진(募瑟鎭)으로 향했는데, 여기에는 조은(祖恩)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남쪽으로 30리 바다에 있는 가파도(加波島: 너울섬)에 들어가 세 밤을 잤고, 대정으로 나와 산방굴사(山房窟寺) 옛터에 올라 절구 시 1수를 읊었다.²⁷⁰⁾

범해가 제주도 순방의 벽찬 마음을 담은 시 「영해(제주해협)를 건너며(越瀛海)」²⁷¹⁾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0) 범해 撰, 김윤세 譯, 『東師列傳』, 「自序傳」, (주)광제원, pp. 16-17.

271) 각안, 『범해선사시집』 권1, 『한글대장경 초의집 외』, p. 497.

子夜乘舟放大洋
 流觀四面浩茫茫
 鳥飛碧落何年下
 魚躍洪波百尺長
 餘鼠看看亭午失
 瀛洲指指夕陽當
 鷓鴣始得鵬溟路
 死不恨兮生不恙

한밤중에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아가
 사면을 바라보니 넓고도 아득하네.
 하늘에 나는 새는 어느 해에 내려올까.
 붉은 물결에 뛰는 물고기 백 길이나 되겠네.
 여서도 바라보니 정오도 지났고
 영주를 가리키니 석양이 되었구나.
 뱀새가 봉명 길 처음 얻으니
 죽어도 한이 없고 살아서도 못 잊겠네.

위 시는 범해가 제주도에 대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이상향(理想鄉)을 읊은 시였다. 제주도는 그의 스승 초의가 김정희를 만나기 위해 떠났던 곳이었으며, 허소치가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 번 그의 스승 김정희를 뵈러 갔던 섬이었다. 그는 죽어도 한이 없고 살아서도 잊지 못하는 제주도를 피안(彼岸)의 세계로 간주하였다.²⁷²⁾

다음 시는 범해가 백파의 「범해선사에게 드림(贈梵海師)」에 차운한 시 「삼가 신 백파선생이 보내온 운에 차운하다.(謹次申白坡先生贈韻)」²⁷³⁾이다.

海陽千里驚車輝
 南土蒼生見峻機
 奉命關心行驛路
 偷閑消日對緇衣
 詩歌會客聞鐘散
 杖屨巡庵觀佛歸
 恩雨均沾遐邇潤
 秣林秋葉倍春肥

해양 천리에 노거²⁷⁴⁾가 빛나거니
 남토 중생이 높은 기연을 보도다.
 명 받들고 맘 기울여 역참 길을 가고
 짬 즐겨 날 보내며 승려를 대하도다.
 시가로 객을 모아 종 들으며 흠어지고
 장구로 암자 돌다 부처 뵈고 떠나도다.
 단비에 고루 젖어 원근이 윤택하니
 기림²⁷⁵⁾의 단풍잎 봄보다 더 낫도다.

위 시에서 범해는 백파가 명을 받아 역참업무로 바쁜 생활 중에서도 짬을 내어 자신을 만나러 온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범해는 백파를 노거에 비유하였고 자신을 남토중생에 비유하였다. 이는 그가 높은 기연인 백파를 보게 되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위 시의 5구에는 백파가 시가를 노래하면 객들이 모

272) 윤순희, 「19세기 대흥사 다풍에 관한 연구-범해각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pp. 38-39.

273) 각안, 『범해선사시집』 권1.

274) 노거(驚車)는 수레의 이름이다. 수레 기둥 맨 꼭대기에다 나무로 백로를 새기고, 수레의 휘장에 날아가는 백로를 수놓았기 때문에 노거라고 한 것이다. 수(隋)나라 시대에 만든 것인데, 수레 기둥 맨 꼭대기에다 나무로 백로를 새기고, 수레의 휘장에 날아가는 백로를 수놓았기 때문에 노거라고 한 것이다.

275) 기림(祇林)은 본래 중인도(中印度) 사위성(舍衛城)의 남쪽에 있던 기타태자(祇陀太子)의 동산을 이르는 말인데, 후대에 절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여들 정도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백파가 해남에서 이미 많은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시는 시가회가 끝나 대둔사 암자를 돌다 부처께 인사하고 떠나는 백파의 모습을 잘 묘사하였다. 이는 백파가 불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승려들과 깊은 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다음 시는 백파와 범해 두 사람이 북암에 올라 지은 「신 백파선생과 북대에 올라 올 해년(共申白坡先生登北臺)(乙亥年)」이다.²⁷⁶⁾

巖路欹斜欵欵行
 登臨俯仰萬峰晴
 松風爭奏無絃曲
 遙引仙輶向赤城

바위길 비뚝비뚝 험뻑이며 가다가
 올라서 둘러보니 만봉이 푸르도다.
 솔바람 다투어 현 없는 곡 아뢰거니
 멀리 신선수레 끌고 적성으로 가리라.

위 시는 1875년 백파와 범해가 같이 북암에 오른 내용의 담은 시이다. 두 사람은 올라가는 힘든 과정과 북대에 올라 만봉의 푸르름을 잘 묘사하였다. 위 시에서 두 사람은 솔바람 소리가 현 없는 곡처럼 불어 그 수레를 타고 신선계로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여기에도 유학자 백파와 승려 범해의 인간적 관계가 잘 녹아 있었다.

다음 시는 백파, 송파, 범해 세 사람이 북암에 올라 지은 「백파와 송파 두 늙은이와 함께 북암에 올라 시를 짓다.(白坡松坡兩老共上北庵拈韻)」²⁷⁷⁾라는 시다. 먼저 범해가 시구를 읊었으며, 뒤 이어 송파와 범해가 백파의 시에 운을 따서 한 수씩 지었다.

一壑烟光屬暮秋
 北臺今日是仙樓
 居僧仰祝君臣壽
 古佛坐看歲月流
 玉宇清虛成鴈陣
 金波浩淼點漁舟
 寒鐘亂落行盃席
 天一方兮渺渺愁
 右白坡

은 골짜기 연기 빛 늦가을에 이어지니
 북대는 지금 그 신선의 누대로다.
 거승은 우리러 군신의 수복을 빌고
 고불은 앉아 세월의 흐름을 보도다.
 옥빛 월궁 텅 빈 곳에 기러기 무리 짓고
 금빛 파도 넓은 곳에 고깃배 가물가물
 술자리에 차가운 종소리 들리니
 하늘 한 칸에 그리움 아련하도다.

위 시는 북암에 주석한 고승은 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의 명을 빌고 마에불²⁷⁸⁾은 세월

276) 각안, 『梵海遺集補遺』.

277) 각안, 『범해선사시집』 권1.

278) 북미륵암 마에여래좌상은 노승봉 아래에 있는 북미륵암의 거대한 암벽에 양각된 고려시대 마에불이

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북암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을 잘 묘사하였으며, 자연의 서경을 앞에 묘사하고 지금의 사실을 뒤에 살짝 묘사하면서 자연과 주인공의 마음을 살며시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絶頂超觀萬里秋
 眼前平俯幾岑樓
 烟雲上積高峯老
 天地西傾大海流
 遊子重尋棲鶴樹
 浮生全界一虛舟
 閒節催起鐘聲暮
 還助行人不盡愁
 右松坡

정상에서 멀리 만리 추색 바라보니
 눈앞에 조아리는 높은 누대 맞이던고,
 연운 위로 솟아 고봉이 늙어가고
 천지 서편 기울어 대해로 흐르도다.
 나그네 거듭 찾아 학수²⁷⁹)에 깃드니
 떠돌이 한세상 하나의 허주²⁸⁰)로다.
 지팡이 재촉하는 저녁 종소리
 길손의 한없는 향수 자아내도다.

위 시에서 송파는 북암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높은 누대에서 고봉은 늙어가고 천지는 서편으로 기울는데 떠돌이 한세상 저녁 종소리에 삶의 허무함을 하나의 허주로 빗대어 표현했다.

玉洞疎涼滿眼秋
 北臺移席勝南樓
 孤雲巖壁晴猶濕
 落日滄波澹不流
 遊子重尋棲鶴樹
 老僧遙指釣魚舟
 座中偏有長安客
 天一方兮渺渺愁
 右梵海

옥동 골 쓸쓸하게 눈길마다 가을인데
 북대에 자리 옮기니 남대보다 낫도다.
 조각구름 암벽 개어도 축축하고
 석양의 창파 맑아 고요하도다.
 나그네는 거듭 학이 깃든 숲 찾아오고
 늙은 중은 멀리 낚시배를 가리키도다.
 좌중에 특히 장안손님 있어
 하늘 한 켠 멀리 그리워하도다.

위 시에서 범해는 남대에 있다가 북대로 옮기면서 풍경을 묘사했다. 북대 석양의 풍광이 더 고요하며 좋다고 하였다. 그는 구름이 개어도 북벽이 축축하다고 하며 나그네는 학이 깃든 숲을 찾아오고 늙은 중은 낚시 배를 가리키고 장안 손님 함께 있지만 마음속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다. 높이가 420cm에 달하는 거대한 여래좌상으로 현재 보물 제48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각 양식상 통일신라 불상에서 고려불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79) 학수(鶴樹)는 석가(釋迦)가 입멸할 때 흰색으로 변했다는 사라쌍수(沙羅雙樹)를 가리키는데, 곡수(鶴樹)라고도 한다.

280) 허주(虛舟)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지 않은 빈 배를 말한다.

범해는 해남생활을 마치고 한 참 지난 후에 백파에게 「신 승지께 올리는 편지(上申承旨書)」라는 글을 썼다.²⁸¹⁾

삼가 그간의 기체후(氣體候)를 살피지 못하였습니다만, ‘나라를 태평케 하고, 백성에게 선망이 되시라’고 아침구름 저녁중소리에 한 없이 끝없이 정례(頂禮)²⁸²⁾를 올립니다.

저는 옷 한 벌과 바리 하나로 가는 곳마다 이같이 하며, 연운(烟雲)이 부르는 바에 앉아 거절하지 못하여 명을 들으면 가고, 명을 들으면 물러나 주착(主着)없이 회향(回向)²⁸³⁾함을 본분의 도리로 여기거늘, 나머지가 어찌 말씀드리겠습니까?

접때 남창적소(南倉謫所)에 사람의 견제(牽制)가 되셨다가 분주하게 바로 돌아갈 즈음, 저물 녘에 왔다가 새벽녘에 나서느라 미처 하직 인사도 못한 채 산문을 떠나시니, 황공한 마음 가슴에 가득하여 밖으로 넘칩니다.

머무신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날로 마음 편치 않으면서도 어여빠 여기셨던 은혜 갈수록 더욱 사무칩니다. 때로 북풍 따라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줄입니다.

위 글에서 범해는 백파가 해남생활을 접고 서울로 간 이후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범해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먼저 말했고, 백파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불전에 기도를 올린다고도 했다. ‘접때 남창적소(南倉謫所)에 사람의 견제(牽制)가 되셨다가’라는 구절에는 백파가 해남 해창 소요원 시절 때 자제(自制)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암행어사로 온 것이 아니라 유배를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백파의 은혜를 받은 범해는 그리움이 사무친다는 말과 소식을 주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또 다른 서간문 「신 승지께 올립니다.(上申承旨書)」의 전문에는 다음 같이 기술되어 있다.²⁸⁴⁾

한해 농사가 흉황(凶荒)하고 인편(人便)이 끊겨 새해 인사와 신춘(新春) 하례를 지금껏 지체하니, 두려운 마음 조석으로 절실하였습니다. 삼가 살피지 못하였습니다만, 고약(膏藥) 같은 단

281) 伏未審此間氣體候 爲國太平 爲民健羨 朝雲暮鐘 頂禮無量無邊 某一衣一鉢 到處皆如 而烟雲所召 不可坐拒 聞命卽往 聞命卽退 以無主着回向爲本分樞柄 餘何奉聞 向於爲人牽制 南倉謫所奔走卽回 乘昏而歸來 乘曉而發行 未能奉謝而出山 惶恐之心 彌中溢外 棲止以來 至於今日 日無安心 而見愛之恩 愈久愈深 時因北風 以惠德音焉 謹不備. 각안, 『범해선사시집』 권1.

282) 정례는 불전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가장 공경하는 뜻으로 하는 절이다.

283) 회향은 불사(佛事)를 베풀어 죽은 사람의 명복(冥福)을 비는 것을 말한다.

284) 年事凶荒 人便隔絕 獻歲之禮 發春之賀 尙稽至今 惶恐之心 朝暮之切 伏未審 甘澍如膏 氣體候清淨圓滿 燒香頂祝 某師佐二人 株守古寺 無諸障礙 特荷盛念所及 然而借聽之叟 乞飯之兒 填門塞路 小佛其性 則困說無所不至 恐其火賊 濫言待之 自分推之 空過之時居多 氣若泥絮 形同鍾馗 但魂不散而已 年前下送曆書 自無爲兄處寄來 感賀之極 僕僕其拜也 麥飯飽食之時 進拜於堂下 未前伏祝起居多福 謹不備告. 각안, 『범해선사문집』 권2.

비에 기체후(氣體候) 청정하시고 원만하신지요. 향을 사르며 조아려 축원합니다.

저희 선생과 상좌(上佐) 두 사람은 옛 절에 수주(守株)하며 거칠 것이 없으니, 특별히 염려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그러나 하소하는 늙은이와 밤을 비는 아이들이 문을 메우고 길을 막아 그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곤혹스런 말로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으며, 그 화적(火賊)이 두려워 온화한 말로 대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보건대, 속절없이 보내는 세월이 많아 기(氣)는 이서(泥絮)²⁸⁵와 같고, 형상은 종규(鍾馗)²⁸⁶와 한가지입니다만, 정신은 흐트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연전(年前)에 보내주신 역서(曆書)는 아무 일 없이 형에게서 보내왔습니다. 매우 감사하며 조아려 인사 올립니다. 보리밥을 배불리 먹을 즈음 당하(堂下)에 나아가 뵈겠습니다만, 우선 기거(起居)에 다복(多福)하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위 글은 가뭄이 들고 농사가 흉황 해져 인편을 구할 수 없어 안부가 늦었는데 단비가 내려 다행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의 서문이었다. 백파는 범해가 자신과 상좌의 안부를 물어주심에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위 글에서 범해는 선생과 상좌의 안부를 물어주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역서를 보낸 백파에게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었다.

범해는 「초의차무인년(草衣茶戊寅年)」²⁸⁷에서 초의가 만든 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초의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穀雨初晴日
 黃芽葉未開
 空鑪精妙世
 密室好乾來
 栢斗方圓印
 竹皮苞裹裁
 嚴藏防外氣
 一椀滿香回

곡우 날 맑은 날
 노란 싹은 아직 잎이 피지 않았는데.
 솥에서 잘 볶아내어
 밀실에서 잘 말리네.
 방원모양의 잣나무그릇으로 차 찍어 내고
 죽순 껍질로 안을 말아서 포장하네.
 단단히 봉하여 바깥바람 막으니
 한 사발에 향기 가득하다네.

285) 이서(泥絮)는 진흙에 붙은 버들개지로, 마음이 안정되어서 외물(外物)에 동요되지 않는 선승(禪僧)의 경지를 비유한 말인데, 송(宋)나라 시승(詩僧) 삼료(參寥)가 기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고맙구려 술잔 앞의 요조한 여인이여, 초 양왕 들뜨게 한 그윽한 꿈을 선사하니. 하지만 선승의 마음은 진흙에 붙은 버들개지라서, 봄바람 따라 위아래로 훑날리지 않는다오. [多謝尊前窈窕娘 好將幽夢惱襄王 禪心已作沾泥絮 不逐東風上下狂]”라고 지은 시가 송나라 조영치(趙昱時)의 『후청록(侯鯖錄)』 권3에 나온다.

286) 종규(鍾馗)는 표범 머리에 부리부리한 눈, 철면(鐵面)에 고슴도치 같은 털 등의 무서운 형상을 지닌 귀신으로, 민간신앙에서 악귀를 쫓기 위해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 붙였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종규는 당(唐)나라 고조(高祖) 때 문무를 겸비하고 강직했던 인물로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자 분격하여 전각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죽었는데, 훗날 현종(玄宗)이 병이 났을 때 꿈에 나타나 귀신을 때려잡아 그 병을 낫게 해 주었으므로 현종이 화가인 오도자(吳道子)를 시켜 그 광경을 그리게 하였다고 한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권6, 「夢鍾馗」.

287) 각안, 『범해유집보유』, 「草衣茶戊寅年」.

위 시는 1878년에 지은 작품인데, 초의가 세상을 뜬지 12년이 지난 시점에 지은 것이었다. 범해는 곡우날 맑은 날에 미처 잎이 퍼지지 않은 찻잎만을 가려 따서 돌솥에서 세심하게 잘 볶아낸다고 하며 차 따는 시기를 말하였고, 찻잎을 밀실에서 잘 건조하여 네모난 둥근 잣나무 틀에 넣어 찍어낸다[餅茶]고 하며 제조법을 말하기도 하였다. 또 그는 틀에서 찍어낸 차는 죽순 껍질로 포장하여 보관한다고 하며 저장법까지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꺼내 끓여 마실 때 맑은 향기가 가득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단지 아취만 노래했던 여타의 차시와 구분되고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매우 자세한 차시이다.

8) 월여범인(月如梵寅, 1824~1894)

월여는 범명이 범인(梵寅)이고, 월여(月如)는 범호이며, 성은 김(金)씨였다. 그는 수로왕의 후예로 김해 김씨였다. 그는 조선 순조 24년(道光4 甲申, 1824) 10월 17일, 전라남도 해남군 녹산방(鹿山坊)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출가하여 인근 두륜산으로 들어가 양악(羊岳) 선사 문하에서 삭발한 후 스님이 되었다. 이어 그는 선교(禪敎)의 대종장이라 일컬어지던 초의에게서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았다.²⁸⁸⁾

월여는 화담·영유·용연·유한 등의 강사들에게 경학을 배웠고, 일지산방의 범맥을 이어 받았다. 그 뒤 그는 칠불사·선암사·송광사 등지에서 수행하였으며, 총섭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의 전계(傳戒) 제자로는 기운(奇雲)·기은(奇隱)·성학(聖學) 등 22명이 있었고, 전법(傳法) 제자로는 운담(雲潭)·성환(性煥) 등이 있었다.

월여는 대둔사 조사전에서 무량회(無量會)를 열었고, 미황사·첨찰산(尖察山)·일성산(日城山)·서동사(瑞桐寺)·은적사(隱跡寺)·비봉사(飛鳳山)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그는 총섭 승직을 역임한 바 있었고, 화주가 되어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융성을 축원하기도 하였다. 그는 인자한 성품에 부드러운 마음씨를 지닌 승려로 알려져 있으며, ‘도인(道人) 가운데서도 사자왕(獅子王)’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초의의 사승 관계는 그의 유품 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이 목록에는 초의가 은제자인 내일(乃一)과 범제자인 월여에게 자신의 가사와 생활용품들을 전했다는 내용과 증여한 구체적인 물품과 수량과 종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288) 師名梵寅 號月如 姓金氏 首露王旨裔海南鹿山坊人 道光四年甲申十月十七日生 幼投頭輪山剃染於羊岳禪師之室 受具戒於菩薩戒草衣法師之壇. 범해 撰, 김윤세 譯, 『동사열전』, pp. 13-14.

있다.

초의의 가사는 총 여섯 벌이었는데 월여에게 두 벌, 내일에게 한 벌이 전해졌고, 나머지 세 벌은 진불암에 보관되었다. 그의 증여 품목은 전폐궤(前閉櫃), 저미대궤(貯米大櫃), 주상(舟床), 소반(小盤), 필상(筆床), 병풍(屏風), 장옹(醬瓮), 죽룡(竹籠), 상자(箱子), 옥연갑(玉研匣), 가사(袈裟) 등 총 36종에 달했다. 초의의 생활용품은 월여에게 6종이 증여되었고, 내일에게는 15종이 증여되었다. 월여에게는 대알 7립 중 유구개 1립과 대접 1립, 접시 3립, 죽알 1립, 시자 1립, 전폐궤 1개, 병풍 1벌(육바라밀 6폭), 장옹 1개, 죽룡 1개, 상자 1개 등이 증여되었다. 당연갑 1개를 월여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사실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 이 유품 목록에는 초의의 제위답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의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초의의 제위토가 서암과 월여, 내일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은제자인 내일과 법제자인 월여, 서암이 직전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초의의 법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²⁸⁹⁾

초의의 유품 목록과 관련하여 허련은 『소치실록』에 “나는 7월에 이송과공과 함께 초의선사의 종상(終祥)의 재(齋)를 올리는 곳에 가서 곡(哭) 하였습니다.” 라고 적었다.²⁹⁰⁾

초의는 당시 사대부들로부터 특출한 문재(文才)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시를 엮어 만든 시집으로는 『일지암시고』, 『초의시고』, 『일지암문집』 등이 있다. 특히 『일지암시고』에 당시 최고의 문격을 지닌 인사들이 서문을 썼었는데, 이는 이 시집이 그의 문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지암문집』은 광서16년(1890)에 월여가 편집하고 원응계정(圓應戒定)이 정서해서 펴냈다. 『일지암시고』는 초의 친필본 시집으로, 1807(정묘)년 8월15일에 쌍봉사에서 지은 「효좌(曉坐)」를 시작으로 1850(경술년)에 지은 「봉화산천도인사다(奉和山泉道人謝茶)」까지 그동안 지은 시를 모아 1책 4권으로 묶은 것이었다. 이 시집에는 1831(신묘)년에 홍석주가 쓴 서문과 신위가 북선원 ‘다반향초실’에서 쓴 서문, 윤치영(尹致英)과 백과의 서문, 그리고 1851(신해)년 신관호(申觀浩)가 쓴 발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초의와 교류했던 사대부들의 그에 대한 신뢰와 흠모가 어는 정도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이 시집은 초의가 오랫동안 구상해 만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사실을 그가 이미 1831에 홍석주에게 발문을 받았던 일이나 1851년에 신관호가 발

289)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 연구』, 일지사, 2010, pp. 50-51.

290) 昨年七月 余與李松坡往哭其終祥齋所焉. 김영호 편역, 『소치실록』, 서문당, 2000, p. 76.

문을 썼던 일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초의의 이 시집이 완성된 것은 그의 열반 후 10여년이 지난 1875년이었는데, 이는 그의 제자 월여가 백과에게 발문을 부탁하였으며 이 부탁을 받은 백과가 월여의 선방에서 발문을 썼다는²⁹¹⁾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시는 백과가 월여와 차를 마시며 교유를 가진 정황이 드러나 있는 「월여상인에게 드림(贈月如上人)」이다.²⁹²⁾

高僧居處竹爲林	고승의 거처라 대나무로 숲을 삼고
夜宿經齋月滿襟	밤에 자며 재 지내니 달빛 옷에 가득하다.
流水深山留我久	흐르는 물 깊은 산은 나를 오래 붙들고
淡雲疎雨共君尋	얽은 구름 성근 비에 그대 함께 찾는 도다.
草衣古鉢傳神偈	초의의 옛 바릿대는 전신(傳神)의 계송이요
蓮閣寒鍾發省心	보련각(寶蓮閣)의 찬 종소리 성심(省心)을 일깨운다.
煮茗取香消碧痞	좋은 차 끓여내어 막힌 체증 해소하니
六根不教世塵侵	육근(六根)에 세상 티끌 침입하지 않게 하리.
師卽草衣高足。住寶蓮閣	스님은 초의의 고족으로 보련각에서 지낸다.
善煮茗供客	차를 끓여 손님 접대를 잘한다.

위 시는 백과가 월여한테 보련각에서 차를 대접받은 내용이다. 보련각은 초의가 조사 스님들을 모시기 위해 직접 대광명전과 보련각을 짓고 손수 단청을 한 곳이다. 육근(六根)은 육식(六識)이 경계(六境)를 인식하는 경우 그 소의(所依)가 되는 여섯 개의 뿌리. 곧 심신에 작용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말하며, 여기에는 눈(眼根)·귀(耳根)·코(鼻根)·입(舌根)·몸(身根)·뜻(意根)이 포함되었다. 위 시에 차는 이 여섯 가지 기관에 세상의 티끌이 침입하지 않을 정도로 막힌 체증을 해소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월여는 서동사(瑞洞寺)에서 「다라니경」을 조성 간행한 글을 지었다. 대흥사 말사인 서동사는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운거산에 위치하고 있다. 서동사의 자세한 연혁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절에 보관되었던 범자다라니경(梵字陀羅尼經) 및 1980년대 초 현 대웅전의 지붕 보수 때 발견된 ‘서동사중수상량문’(1870)과 ‘서동사중수서’(1870) 현판 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연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 기록에 의하면, 서동사의 창건은 확신할 수는 없으나 통일신라 진성여왕(887~896)때 최치원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291) “歲旃蒙大淵獻之鶴 白坡居士 靈川申獻求 書于艸衣高弟月如禪室” 신현구, 「일지암시고발」, 『초의시고』 (한불전 10, 870. 下)

292) 정민(a), 앞의 책, p. 556. 『秋堂襍稿』 권1, 원문 참조

있으며, 이후 조선 시대 정유재란 때 병화(兵禍)로 모두 소실된 것을 1779년에 복구하였다가 다시 약 90년 후인 1780년 의윤(宜胤) 승려가 주축이 돼 정기(正己), 진일(賑一) 등 3인의 승려가 발원하고 중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라니경판은 철종 9년(1858)에 만들어졌는데 끝부분에 보면 월여가 1858년 9월 화원목장(花源牧場)의 서동사에서 수명과 복덕을 기원하는 ‘다라니경’을 조성, 간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⁹³⁾

또한 월여는 19세기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대둔사의 각종 불사를 돕던 사찰계를 주창하였으며, 이를 결성한 만일암 선등계(禪燈契)는 등축계의 일종으로서 속인 신도들이 참여 하지 않은 승려들만의 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는 승유역불로 유학을 숭상하는 사대부들과 불교와의 교류는 단절되어 있는 듯 했지만 해남 대둔사는 조선 후기 유학자들과 승려들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던 중요한 유불 사상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승려와 대화도 하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교류도 맺었다. 유배 온 유학자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교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사대부들과 불가의 교류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던 경향은 승려들의 적극적 자세,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입장, 그리고 풍부한 학식이었다. 반면에 유배 온 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세태를 한탄하거나 자신들의 처지를 승려들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백과가 해남 유배기간 동안 불승들과 교류한 기간은 5년이었지만 그의 교류 폭은 매우 넓었다. 그는 불교의 사상과 철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대둔사를 자주 드나들었고, 참선으로 도를 깨친 승려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였다. 그는 대둔사 방문과 승려들과의 차생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많은 위안을 느꼈다. 백과는 승려들이 차를 달이던 모습과 풍습을 시로 표현했으며, 대둔사 차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백과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승려들에 대해 다양한 글을 써 준 정황들이 나타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입적한 승려들에 대한 글이었다. 이 문집에 수록된 글은 총 472수였다. 이 가운데 불교가 소재나 주제로 된 작품은 대략 40여수였다. 이는 그가 대둔사의 승려들과 교류를 통해 불교의 사상과 철학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 안정과 자기 성찰의 계기를 찾았다는 의미이다. 유학자였던 그는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293) <http://blog.naver.com/ijangzip?Redirect>. 「다시 보는 해남 땅 구석구석20」.

도움을 받았으며, 해남으로 내려와 대둔사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시축에 발문을 써주었고, 승려들에게 증여한 시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대둔사의 여러 암자들을 유람하였다. 이는 그가 대둔사에서 불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두륜산과 대둔사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삶의 특별한 의미를 찾았고, 이곳을 삶의 기본 터전으로 삼았다. 그는 승려들과의 이념적·사상적 차이를 인간적 교류로 승화시켰으며, 차와 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음의 소통을 이어주는 초월적 인간관계를 교류하였다. 그에게 대둔사 선방은 승려와 유불의 교류를 달성했던 마음의 고향이었으며, 이들의 고담을 통해 주고 받았던 차향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다.

3. 대둔사 차문화의 새로운 정립과 발전

우리나라의 전통다례는 대둔사 차 전통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다례의 복원과 발전의 출발점도 대둔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²⁹⁴⁾ 대둔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대둔사지(大菴寺志)』이다. 『대둔사지』는 4권 2책(1권, 2권은 상, 3권, 4권은 하)으로 구성되었으며, 4권 모두 감정(鑑定)은 완호윤우, 류수(留授)는 연파해장, 편집(編輯)은 수룡색성과 초의의순, 교정(校正)은 기어자홍과 호의시오(縞衣始悟, 1778~1868)로 되어있었다. 그 이전의 대둔사 관계 사료들인 『죽미기(竹迷記)』·『만일암고기(挽日庵古記)』·『북암기(北庵記)』는 일서(逸書)들을 종합해서 편집한 것으로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사지(寺誌)이다. 한편으로 17세기 전반 중관 해안(中觀 海眼, 1567~1646)이 찬술한 대둔사사적기 『죽미기』가 있다. 『죽미기』가 지닌 한계성은 180여년 후에 찬술된 『대둔사지』 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연파와 초의 등 『대둔사지』 찬자들은 『죽미기』에 수록된 대둔사의 창건²⁹⁵⁾과 그 시기 삼국의 영토문제부터 연대 표기의 오류와 창건주에 관한 내용, 의상이나 원효 등 승전에 이르기까지 사적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망라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수정했다.²⁹⁶⁾

19세기 대둔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불교와 차문화의 증흥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294) 南貞淑, 「朝鮮時代 佛教 茶文化 研究-禪僧 茶詩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0, p. 23.

295) 梁天監 13年(514) “甲午年 즉 신라 법흥왕 때 아도화상이 처음 창건한 도량이다.”

296) 吳京厚, 「朝鮮後期 僧傳과 寺誌의 編纂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p. 52.

불교와 차의 흥망성쇠가 공동운명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세기는 불교계의 위축으로 사원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승려들의 질(質)도 저하(低下)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창건 시기 및 창건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거의 전무한 시기였으며, 17세기 이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대둔사가 한편으로 불교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시기였다.²⁹⁷⁾ 조선 후기에 이르러 대둔사가 새로운 불교적 위상을 갖게 된 계기는 청허 휴정의 ‘서산유의(西山遺意)’에서 비롯되었다. 다산과 추사를 비롯한 당대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대둔사를 거점으로 하여 승려들과 지적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었다. 이는 아마도 대둔사의 지정학적·정치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대둔사가 위치한 해남은 지정학적으로는 변방에 속했지만,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바람은 이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상품의 생산증대와 교역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구이동은 점차 활발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해남을 비롯한 변방지역에도 급속하게 파급되었다. 포구 상업의 발달에 따라 해남, 강진, 나주 등 전라도의 포구도 시로 성장하였으며, 인구는 3~4천 명에 이르게 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제도와 질서가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둔사는 당시 사회 전반에 걸친 격변의 현실을 수용해야 했고, 이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위기의식을 극복해야만 했다.²⁹⁸⁾

조선 후기의 시대성과 차문화사의 흐름 속에서 대둔사의 차문화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백파의 『추당잡고』를 통해 대둔사의 차문화를 조명하고, 그의 차생활이 당시의 차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작업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다.

19세기 대둔사에서는 선과 교학(敎學)은 물론 염불(念佛)도 함께 닦는 삼문(三門) 수업의 가풍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외전(外典) 즉 불경 외의 여러 전적들까지도 두루 섭렵한 대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조선 후기의 불교계는 선종이 중심이었으며, 특히 서산 이후로 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이 시기 불교계는 서산계의 편양파와 소요파, 부휴계의 벽암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전라도 지방, 특히 대둔사는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그것은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맥이 대둔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대둔사에서 12 대종사(大宗師)와 12 대강사(大講師)가 배출되었으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의와 범해는 각각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로서 대둔사의 맥을 잇고 있었다.

297) 윤순희, 「19세기 대흥사 다풍에 관한 연구-범해각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p. 5.

298) 이희재, 조윤희, 「19세기 대둔사 학승들의 유교경전의 이해」, 『범한철학』 제28집, pp. 371-372.

백파의 문집인 『추당잡고』에는 그가 해남의 두륜산을 유람하며 승려들과 주고받은 시와 암자들에 관한 시 등 대둔사와 관련된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백파의 「대둔사 모연문(大菴寺募緣文)」은 대둔사를 지으면서 모연하는 글로 불사(佛事)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경사가 많다는 고사를 인용하였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자손들도 보은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

백파가 대둔사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해 주는 시 「대둔사에 머물며 장률을 짓다. (留大菴寺長律 二首)」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²⁹⁹⁾

頭崙特秀見雄豪
十里伽藍接海濤
地紀南窮星極遠
天冠東戴日輪高
荒磳樹草交蹄迹
萬壑風陰颯鬢毛
夜夜羈聽吟病客
佛燈明滅不勝挑

두륜산 드높이 옹호함 드러낸 곳
십리 가람이 바다 물결을 만났도다.
지기³⁰⁰⁾는 남으로 성극에 멈춰 아득하고
천관산은 동으로 태양 받들어 높도다.
거친 내 풀숲으로 발자국 교차하고
만 골짜기 바람에 귀밑머리 날리도다.
밤마다 객창에 읊조리는 병객이여
불등은 가물가물 이루 돌울 수 없도다.<其一>

위 시는 대둔사에서 바라본 두륜산의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데, 두륜산은 땅 끝에 위치하고 있어 보통의 산과 달리 바다와 어우러지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한편으로는 백파는 두륜산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암자에 묵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山門鬱鬱似園扉
四望高岑積翠微
古木荒藤迷日月
散雲湧霧作陰霏
天涯極處行初盡
人事由來計易違
劇念病妻驚歲晚
蕭蕭秋雨送征衣

산문이 울울하여 흡사 옥문인양
사방 높은 봉에 푸르름 쌓였도다.
고목과 등 넝쿨에 해와 달 흐릿하고
널린 구름 비긴 안개 보슬비 되도다.
천애의 극처라 길 비로소 다하고
인사에 유래해 계책 수이 어긋나.
병든 처 생각하다 해 저물어 놀라며
쓸쓸한 가을비에 길손 옷 보내도다.<其二>

위 시에서 백파는 산사가 울울하여 감옥과 흡사하다고 표현했으며, 고목과 등 넝쿨

299) 신현구, 『秋堂稜稿』 권1.

300) 지기(地紀)는 대지(大地)를 엮어 받들고 있는 동아줄을 의미한다. 옛 전설에 천주(天柱, 하늘을 괴고 있다는 기둥)와 지기가 있어 천지가 보전된다고 하였다.

이 해와 달에 걸친 듯하다고 묘사했다. 그는 병든 처를 생각하며 해가는 줄 모르고 대둔사에 머물고 있는데 가을비가 내려 쟁의를 챙겨 입었다고 대둔사 생활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백과의 『추당잡고』에 등장하는 대둔사의 말사와 암자는 미황사(美黃寺), 청신암(淸神菴), 신월암(新月菴), 명적암(明寂菴), 적련암(赤蓮菴), 멸적암(滅寂菴), 도선암(道仙菴), 진불암(眞佛菴), 상원암(上院菴), 만일암(挽日菴), 남미륵(南彌勒), 북미륵(北彌勒) 등이 었다.

백과는 대둔사의 말사와 암자를 방문했고 그곳의 풍경을 시로 읊었다. 다음은 백과가 대둔사의 사찰과 암자를 묘사한 시이다. 그는 「미황사(美黃寺)」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³⁰¹⁾

松市西頭訪釋迦
 美黃閑寺夕陽多
 三韓故國窮瀛海
 千佛本身示達磨
 星斗北沉迷閣道
 天雲南盡見耽羅
 携筇欲上烽臺望
 日下長安杳在何

솔 시장 서편으로 석가를 찾아가니
 미황사 한가한 절 석양이 좋도다.
 삼한 고국은 큰 바다
 천불 본신은 달마산에 보이도다.
 북두칠성 북에 잠겨 각도³⁰²⁾를 미혹하고
 하늘구름 남에 다해 탐라를 보이도다.
 작대 짚고 봉대에 올라 바라보려니
 날 저문데 장안은 어디쯤에 있는고.

○ 寺在達摩山下 衆峰羅列如佛 절이 달마산 아래에 있는데, 못 봉우리가 불상을 나열한 것 같다.
 ○ 山上有 峰臺산 위에 봉화대가 있다.

위 시에서 백과는 달마산을 끼고 있는 미황사의 모습을 잘 묘사하였다. 그는 미황사에서 바라보니 탐라(현 제주도)가 보인다고 했다. 또한 그는 달마산에 올라 전경을 바라보며 산봉우리와 생김새와 장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달마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의 미황사는 우리나라 육지 가장 남쪽에 있는 절이다. 미황사 사적비에 따르면 통일신라 경덕왕 8년(749)에 처음 지었다고 한다. 기암괴석이 수려한 달마산은 백두대간의 맥이 마지막으로 솟아올랐다는 두륜산의 끝자락으로 이어진 산으로서 지맥을 통해 한라산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달마에 위치한 상수암은 미황사의 부속암자로 연담유일(蓮潭有一: 1720~1799)의 법손인 청연(淸淵) 강백이

301) 신헌구, 『秋堂稊稿』 권1.

302) 각도는 28수 중 서방 백호(白虎) 7수의 하나인 규수(奎宿)에 속하는 별자리 이름으로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미원(紫微垣) 북문 밖에 한 줄기 기다란 각도 6개의 별이 곧장 남쪽으로 가서 북극 부근의 은하수를 통과해 규수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그 서쪽이 천제(天帝)의 이궁(離宮)인 영실(營室)이다.

경론을 강의하고 참선한 곳이라고도 한다. 초의는 ‘이 암자는 동쪽으로 산이 우뚝하게 솟아 뒤를 에워싸고 서쪽으로는 넓은 바다가 까마득히 일렁이며 앞에 펼쳐져 있다. 정토의 보배로운 궁전이 늘 눈에 들어오고 옥지(玉池) 연꽃에 몸을 의탁 할만하다.’고 말했다.³⁰³⁾

백파는 「심적암(深寂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³⁰⁴⁾

深菴寂寂隱林梢
 濃翠疎紅雨後交
 老釋雙來如瘦鶴
 法門昆弟是同胞

○ 有二僧年皆八十餘以
 ○ 俗家兄弟同師法門

심적암 적적하게 숲속에 숨었는데
 질푸른 색 성긴 꽃 비 오자 섞였도다.
 늙은 부처 둘 오는데 흡사 파리한 학
 법문의 형제이자 한 어머니 소생이라.

두 스님이 있는데, 나이가 모두 80남짓이었으며
 속가(俗家)의 형제로서 함께 법문(法門)에 사사하였다.

위 시에는 심적암이 깊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위 시에는 80세 남짓해 보이는 파리한 늙은 승려 두 명이 있는데 속가의 형제이며 법문을 같이 사사받았다고 했는데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둔사의 부속 암자인 심적암은 한말 의병투쟁의 최후 격전지이자 의병 대학살의 현장이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대둔사 일원은 한말의병투쟁의 격전지였으며, 1907년 한국 군대 해산을 기점으로 호남지방 의병활동의 중심지였고, 민중의 의식 성장과 함께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던 장소였다. 1909년 남한대토벌작전 등 일본군 무력 앞에 강진과 해남 등 남해안 일대의 의병들은 대둔사를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심적암이 언제 없어졌는지 그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백파는 「도선암(道仙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³⁰⁵⁾

仙菴迎佛晚燒香
 萬樹斜陽磬語長
 活水眞源明似鏡
 巖間幽籟自清涼

○ 新迎三佛 上有湧泉

도선암에 부처 맞아 늦도록 향 사르니
 만 그루 숲 지는 해에 풍경 소리 길도다.
 팔팔 솟는 참 샘물 거울처럼 맑은데
 바위 틈 그윽한 소리 절로 시원하도다.

새로 삼불(三佛)을 맞이하였는데, 위편에 차가운 샘이 있다.

위 시에서 백파는 도선암의 샘물을 극찬하였다. 위쪽에 샘이 있는데 바위틈으로 흐

303) 김석태, 「梵海覺岸의 頭輪山 漢詩」, 『韓國言語文學第』 第73輯, 2010, p. 129.
 304) 신현구, 『秋堂稊稿』 권1.
 305) 신현구, 위의 책, 권1.

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함을 느낀다고 했다. 도선암은 도솔봉(兜率峰) 아래에 있는데 암자 아래에 바위가 있고 그 모퉁이 배(船)와 같아서 도선암이라 했다.³⁰⁶⁾ 『대둔사지』에는 초의보다 2백여 년 전 이미 도솔봉 아래 도선암의 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연이 밝혀져 있다.

고산천(孤山泉)은 도선암의 우물이다.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1587~1671)가 도선암의 샘물만을 고집했던 이유는 그 물이 건령(健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고산은 항상 이 샘물을 길어다 차와 약을 달였기 때문에 고산천이라 불렀다. 금담새권(錦潭璽卷) 승려는 “고산천은 1년에 한 번 자시(子時) 무렵에 용출(湧出)하여 소용돌이치다가 그치는데, 탄헌(坦軒) 승려는 그 물을 떠다먹고 고질(痼疾)을 치료하였다”고 말하였다.³⁰⁷⁾ 이를 통해 도선암의 신이한 샘물이 왜 고산천이라 불렀는지에 대한 까닭을 알 수 있다.

백과는 「진불암(眞佛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³⁰⁸⁾

繡綃金範摠非眞	비단과 금불상 다 허망한 것이거니
何處瞿曇托入神	어느 곳 구담 ³⁰⁹⁾ 에게 입신을 의탁할고.
色相元來空不見	색상 ³¹⁰⁾ 이란 원래 비어 볼 수 없다지만
洞天花木自然春	산골짜 꽃나무엔 자연의 봄이로다.

위 시에서 백과는 부귀영화를 비단과 금불상에 비유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고 하였다. 그는 어떤 부처님께 입신을 의탁할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위 시는 물질은 비어있어 볼 수 없지만 봄이 오면 산골짜엔 꽃이 핀다고 하였다. 진불암은 두륜산 만일암 근처에 있던 암자로 544년(진흥왕 5년)에 아도(阿道)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설에는 508년(무열왕 8년)에 이름이 전하지 않는 비구승이 중창하였다는 등 여러 설이 있다. 진불암은 두륜봉(頭輪峰) 아래에 있으나 언제 창건(創建)했는지 알 수가 없다. 승정 3년 경오(崇禎三年庚午, 1630)에 수월극현 대사(水月克玄大師)와 화사덕호(化士德浩)가 중건하였고, 강희 22년 계유(康熙二十二年 癸酉, 1683)에 다시 중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채미대사(採薇大師)의

306) 『大菴寺志』, 大菴寺志刊行委員會, 康津文獻硏究會, p. 224.

307) 錦潭璽卷云孤山泉 一年一潮必於子夜半 通出旋茶 寺僧坦軒乘時 斟飲治其病疾. 위의 책, 卷二, 亞細亞文化史, 1983, p. 105.

308) 신현구, 『秋堂稜稿』 권1.

309) 구담은 부처를 가리킨다. 구담은 범어 Gautama의 음역으로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성씨이다.

310) 色相은 [불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질의 형상을 의미한다.

기문(記文)이 있고, 영곡(靈谷), 영파(影波), 만화(萬化), 운담(雲潭), 애암(兒菴)이 거쳐 하였다.³¹¹⁾

다산은 승려 은봉에게 보낸 「은봉경귀(隱峰經几)」³¹²⁾에서 진불암에서의 역석유(憶昔遊)를 다음과 같이 술회 하고 있다.

헤어진 뒤로 줄곧 바빠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지 못했으니 미안하기 그지없네. 문득 다시 여름이 왔는데 잘 지내고 있는가? 진불암(眞佛菴)의 꽃과 나무, 부들방석에 앉아 조용히 참선 하던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잊을 수가 없네.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얼굴을 보고 회포를 풀고 싶네. 또한 계절마다 건강관리 잘하길 바라네. 나머지는 바빠서 글로 다 하지 못하네. 4월 14일, 동호의 나그네가.

1811년 4월 14일의 편지로 다산은 조만간 석방 소식이 당도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정작 다산의 해배는 그로부터 7년 뒤인 1818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위 글을 통해 다산이 진불암에 머물고 있던 연파를 찾아갔던 것과 이 자리에 은봉도 합석하여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암(挽日菴)」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³¹³⁾

日近崦嵫勢不留
慈悲寒佛坐深秋
思將戰士揮戈手
挽得羲和九火輞

엄자산³¹⁴⁾에 지는 해를 붙들지 못하고서
자비의 쓸쓸한 부처 가을 속에 앉았도다.
장차 전사 중에 창 휘두를 이 생각하며
회화³¹⁵⁾의 아홉 수레 끌어다 놓으리라.

『다산시문집 13권』의 「중수만일암기(重修挽日菴記)」³¹⁶⁾에도 만일암에 대해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311) 『大菴寺志』, 앞의 책, p. 222.

312) 別後一向忙冗, 有疎書問, 豈勝愧恨. 忽復初夏, 法履輕安否. 眞佛花木, 宴坐蒲團, 如在眼底, 不可忘也. 唯望北歸前面紋, 更乞以時自護. 餘匆匆書. 不宣意. 四月十四日. 東湖旅人. 박철상,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 간찰집』,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p. 133.

313) 신헌구, 『秋堂雜稿』 권1.

314) 엄자산은 고대에 해가 지는 산을 이르던 말이다.

315) 회화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해를 몰고 다니는 신으로 천제(天帝) 제준(帝俊)의 아내이다. 동해 밖 회화국(羲和國)에서 새벽마다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에 태양을 싣고 용을 몰아 허공을 달려 서쪽의 우연(虞淵)에까지 이르러 멈춘다고 한다. 『山海經』 권10, 「大荒南經」.

316) 浮屠斗雲. 新其室而大之. 既竣. 過余于茶山之館而語之曰. 蘭若之在域中者. 如棋布楸. 鍾鼓之聲相聞. 無適而非吾室也. 而吾之髮已種種. 吾雖愚. 豈爲是哉. 聊繕之以遺後人. 余善其言而識之. 詢其室. 曰頭輪山之挽日菴也. 山在海南縣. 菴建其菴者. 百濟僧淨觀.

.....

중 두운(斗雲)이 그의 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크게 확장하였는데 이미 준공이 되자, 다산(茶山)에 있는 나의 초당(草堂)으로 찾아와

“이 지방에 있는 절만 해도 바둑판에 바둑알 벌려 놓은 것과 같아 종과 북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니, 가는 곳마다 내 집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도 이미 다 빠져 늙은이가 되었는데, 내가 비록 어리석으나 어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잘 보수하여 후인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착하게 여겨 글을 짓고 그 집 이름을 물어 보니, ‘두륜산(頭輪山)의 만일암(挽日菴)’이라고 하였다. 산은 해남현(海南縣)에 있고, 그 암자를 창건한 사람은 백제(百濟)의 중 정관(淨觀)이라고 전해진다.

위 글에서 다산도 만일암의 뛰어난 경치를 잘 설명해 놓았다. 다산은 『다산시문집』의 「만일암(挽日菴) 중수 상량문(重修上梁文)」³¹⁷⁾에서 “만일암(挽日菴)은 해남현(海南縣) 두륜산(頭輪山) 대둔사(大菴寺)의 수원(修院)인데, 땅은 탐라(耽羅)의 바다와 접하였고, 산은 도솔(兜率)의 하늘과 연하였다. 수성(壽星)이 창살에 비치니 옥순(玉筍)에 가년(加年)의 호칭을 게양(揭揚)하였고, 자비로운 구름이 난간을 덮으니 민화(珉華) 조각한 꽃에 입정(入定)의 형상을 아로 새겼다. 동혈(洞穴)을 뚫고 구름을 끌고 오는 것은 추룡(湫龍) 깊은 소의 용이 새벽에 나오이요, 석교(石橋)를 건너질러 구렁 위로 오는 것은 요학(遼鶴)이 때로 날아오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3백여 척(尺)에 불과하고, 이 만일(挽日) 해를 잡아당김)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파는 「북미륵암(北彌勒)」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³¹⁸⁾

眞面觀音現劫多	진면목의 관음 현겁에 많거니
雲臺千古鬱嵯峨	운대는 천고에 울연히 높도다.
人生世世慈航渡	인생을 세세로 자비의 배로 건너 주며
閱盡西瀛萬里波	서해 만리 파도를 아련히 바라보도다.

위 시에서 북암은 두륜산 노승봉아래 대둔사를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였다. 시의 2구에서는 험하고 높은 곳에 암자가 있다고 전형적인 산사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4구에서는 시선을 먼 바다로 돌려 서해를 바라보았다고 언급하였다. 북미륵암(北彌勒庵)은 만일암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317) 挽日菴者. 海南縣頭輪山大菴寺之修院也. 地接耽羅之海. 山連兜率之天. 壽曜窺檻. 玉筍揭加年之號. 慈雲覆檻. 珉華鏤入定之形. 鑿洞穴而洩雲. 湫龍曉出. 橫石橋而架壑. 遼鶴時歸. 而去天之路. 不過三百尺有餘. 斯挽日之名. 今至數千年不敗. 『다산시문집』 권 22.

318) 신현구, 『秋堂稊稿』 권1.

북암이라 하였으며, 남쪽에는 남미륵암인 만일암이 있었다. 이 두 암자는 창건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대둔사지』에는 ‘건륭갑술에 온곡 영탁(溫谷永鐸) 대사가 북암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54년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세에 연담유일(蓮潭有一), 벽담행인(碧潭幸仁), 아암혜장(兒庵惠藏) 같은 고승들이 바로 이곳에서 강학을 열었다.³¹⁹⁾ 북암은 용화전, 요사 등의 건물과 ‘해남 대둔사 북미륵암 삼층석탑’과 ‘해남 대둔사 북미륵암동삼층석탑’ 등 2기의 3층 석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화전은 마애여래좌상을 봉안하기 위한 건물로 1985년 4월에 중수하였으며, 이곳에는 1995년 4월에 중수한 승려들이 거주하는 ‘ㄴ’자형 요사채가 있다. 그 밖에 여기에는 신중산신탕화와 1987년에 조성한 동종(銅鐘)이 있다.

다음 표는 백과의 대둔사 암자에 대한 시에 운을 따서 금명보정(錦溟寶鼎, 1861~1930)³²⁰⁾이 자신의 문집인 『백열록(栢悅錄)』에 「유장춘동차백과거사운십절(遊長春洞次白坡居士韻十絶)」이란 제하로 실은 내용이다.

<표18> 『추당잡고』와 『栢悅錄』의 十絶

十絶	『秋堂雜稿』	『栢悅錄』	비고
1	清神庵 滿山蒼翠入秋闌 久客心神鬱未寬 短屐行尋蘭若去 松風溪雨自清寒	清神庵 丙戌春與諸益南遊叅梵海禪師讀 書受禪而還 十里清溪九曲闌 神藏鬼秘一庵寬 歸次圖中看萬物 忽聞鍾響洞天寒	
2	新月庵 十里松林一徑開 清溪白石自縈迴 西峰先得初生月 遍照釋王明鏡臺	新月庵 蕭蕭新宇月邊開 錦繡青山影裡回 磬聲乍歇溪聲奏 知是居僧上佛垵	
3	明寂庵 秋樹陰濃石氣清 百年孤佛一燈明 群山萬壑齊空寂 惟有寒溪鳥自聲	明寂庵 歸來靜照六塵清 寂寂心光自欲明 一念纔消千念淨 雲扃不到是非聲	
4	赤蓮庵 金粟觀心是赤蓮 銀塘花發露珠圓 萬松秋雨孤庵夜 惟見寒香散似烟	赤蓮庵 淨地幾看白敷蓮 愁雲自散半輪圓 曼陀樹裡營何大 長蕪眞香五分烟	
5	道說庵 仙菴迎佛晚燒香 萬樹斜陽磬語長 活水眞源明似鏡 巖間幽籟自清涼	道說庵 百花呈色繞籬香 玉磬叅差一道長 長風吹起千林靜 月珮星冠自廓涼	

319) 『大菴寺志』, 大菴寺志刊行委員會, 康津文獻研究會, p. 222.

320) 금명보정은 1월 19일 전남 곡성 운운리에서 태어났다. 김해 김씨 수로왕 70세손, 범명은 ‘보정’ 호는 ‘금명’ 자가 다송이다. 자호(自號)를 ‘다송자(茶松子)’라 할 정도로茶的 즐거웠다. 1000여 편의 시(詩)가 운대는 80여 편의 차시(茶詩)가 있다. 『백열록』에는 초의의 『동다송』을 비롯하여 『초의선사시집서(草衣禪師詩集序)』 『초의선사찬(草衣禪師讚)』 『초의진신찬(草衣眞身讚)』 등의 글과 범해 스님의 『다약설(茶藥說)』 그리고 백과 신현구가 쓴 시에 운을 붙여 쓴 「유장춘동차백과거사운십절(遊長春洞次白坡居士韻十絶)」 등이 있다. 김대성, 『東茶頌』, 동아일보사, 2009, pp. 5-9. 참조.

6	眞佛庵 繡納金範摠非眞 何處瞿曇托入神 色相元來空不見 洞天花木自然春	眞佛庵 以眞稱佛本非眞 將道爲常亦不神 試看畫裏羣峰色 面面奇觀各得春	
7	上院庵 石棧登登向碧霄 海門斜日望寒潮 長風吹倒千年樹 玉殿參差露半腰	上院庵 花樓突兀聳雲霄 大海西傾鏡裏湖 華嶽降靈曾說教 濟濟開土踏山腰	
8	挽日庵 日近崦嵫勢不留 慈悲寒佛坐深秋 思將戰士揮戈手 挽得羲和九火輶	挽日庵 天送神人強挽留 欲令一日作三秋 祥光匝地長虹亘 赤彩雲衢繫白駒	
9	南彌勒 蒼巖老石欲揚靈 風雨年深繡薜青 過劫先天留影子 不教雕刻露眞形	南彌勒 斜倚蒼巖幾度靈 不須綉面寫丹青 徑來塵劫猶無恙 畫墁依稀石室形	
10	北彌勒 眞面觀音劫多 雲臺千古鬱嵯峨 人生世世慈航渡 閱盡西瀛萬里波	北彌勒 紺殿慈容慶福多 碧巖十丈鬱嵯峨 時緣必待龍華日 不識于今幾劫波	

금명이 편찬한 『백열록(栢悅錄)』에는 위 <표18>의 「遊長春洞次白坡居士韻十絶」, 뿐만 아니라 초의의 『동다송(東茶頌)』과 범해의 「다약설(茶藥說)」 등이 직접 수사(手寫)되었다. 이 『백열록』에 수사(手寫)된 『동다송』은 가장 정확한 사본(寫本)으로 알려져 있다.

금명이 대둔사와 인연을 가지게 된 시기는 26세인 병술(1886)년이였다. 그는 해남 대둔사로 가서 범해(梵海)에게 고문박의(古文博義)와 사산비명(四山碑銘) 등을 배웠으며, 구족계를 받고 범망경과 사분율 등을 배웠다. 이때 금명은 범해에게 백과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진(1916)년에 금명은 대둔사 강원의 요청에 의해 강석을 열었으며, 범해의 차시(茶詩)들이 실려 있는 시문집도 편찬하였고, 초의의 『동다송』과 『다신전』 등을 읽고 대둔사의 다풍(茶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다송시고(茶松詩稿)』에 실린 그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³²¹⁾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 후기의 시대성과 차문화의 흐름 속에서 대둔사의 차문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대둔사의 차문화는 백과의 『추당잡고』를 통해 자세하게 조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차생활이 당시의 차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작업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본 논문이 『추당잡고』 속 백과의 차생활이 조선 후기 차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고찰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백과가 해남에 기거했던 19세기 대둔사는 선과 교학(敎學), 그리고 삼문 수업의 가풍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승려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대둔사는 불교

321) 현봉(玄鋒), 「금명 보경(錦溟寶鼎)의 종통(宗統)과 다풍(茶風)」, 松廣寺 다맥(茶脈)의 재발견 학술대회, 2015. pp. 32-37. 참조.

와 유교가 교합하는 중심지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둔사는 12 대종사(大宗師)와 12 대강사(大講師)를 배출하였다. 백파의 문집인 『추당잡고』에는 그가 해남의 두륜산을 유람하며 승려들과 주고받은 시와 암자들에 관한 시 등 대둔사와 관련된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유학자였던 그는 「대둔사모연문」에서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경사가 많을 것이라는 내용과 선한 일을 하면 그 자손들도 보은을 받는다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가 대둔사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시는 소실된 암자를 안타까워했던 후대의 승려나 지식인들에게 당시 암자의 주변풍경과 모습 등 실체를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대둔사에서 승려나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초의를 알게 되었으며 『동다송』과 『다신전』 등을 읽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대둔사의 다풍(茶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4. 초의차의 새로운 위상 정립

백파는 「차설(茶說)」에서 초의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해차설(海茶說)」이었는데, 『추당잡고』 원문에는 ‘해(海)’자를 지워 「차설」로 수정해 놓았다. 「차설」은 백파가 초의의 제자 월여의 선실에서 초의차를 맛보고 초의차의 우수성을 적어놓은 기록으로서 그 당시 차문화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내가 사물이 나는 것을 살펴보니, 먼데 것은 버려지고, 때와 만나지 못하면 감춰진다. 도리(桃李)의 문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종남산 가는 길목에 들지 않으면 재목이 팔리지 않는다. 슬프다. 해양(海陽)의 옥천차(玉川茶)는 기운과 맛이 꽃답고 질어서, 설화(雪花)와 운유(雲腴)도 이보다 더 낫지는 않다. 그러나 먼 시골의 풍속이 어리석어 차 보기를 돌피처럼 본다. 서울의 사대부는 토산을 보기만 하면 낫고 우습게 여겨, 건양(建陽)의 단산(丹山)과 벽수(碧水)가 아니라면 화로연기조차 경시한다. 저것이 실로 황량하고 궁벽한 곳에서 성장하여, 요행히 나무꾼의 낫을 면한다 해도, 마침내 뒤섞여 썩은 풀이나 마른 그루가 되고 마니, 어찌 능히 백수탕(百壽湯)을 시험하겠는가?

근래 대둔사의 산방에서 처음으로 마셔 보았는데, 일찍이 초의 스님이 만든 제품이었다. 옛날 부대사(傅大士)는 몽정(蒙頂)에 암자를 엮고, 성양화(聖楊花)와 길상예(吉祥蕊)를 나눠 심었다. 각림사(覺林寺) 승려 지숭(志崇)은 삼품(三品)의 향을 구별하여, 경뢰소(驚雷笑)는 자신이 마시고, 흰초대(萱草帶)는 부처님께 바치며, 자용향(紫茸香)은 손님에게 접대해서 마침내 천하에 이름이 났다. 초의는 바로 이러한 부류이다. 신령한 마음과 지혜의 눈으로 풀 나물 가운데서 가려

캐어 오래 가는 훌륭한 맛을 얻었으니, 물건도 만남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몽정과 각림은 당대의 명사들에게 많이 들어가, 제품이 이를 통해 드러났다. 초의의 차는 홀로 절집에서만 이름났을 뿐, 세상에서는 일컫지 않는다. 이는 사대부들이 대단히 훌륭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니, 누가 자료를 수집하고 망라하여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을 이으려 하겠는가? 아! 내가 이 설을 짓는 것은 다만 초의의 차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가만히 남쪽 땅의 인사들이 훌륭한 것을 지녔으면서도 흔히 세상과 만나지 못한 탄식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이다.³²²⁾

위 글의 원래 제목 속에 등장하는 ‘해차(海茶)’는 초의가 만든 해남차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해양은 해남을 말하고, 옥천차는 초의차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는 노동(盧仝)의 「옥천차가(玉川茶歌)」에서 따온 것이다. 백과는 세상 사람들이 명성만을 쫓아 건양(建陽)의 단산벽수(丹山碧水)만 찾을 뿐, 해남 옥천차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을 통탄했다. 그는 정작 해남 사람들도 차에 대해 무지하여 차보기를 돌피 보듯 잡초 취급하였고, 특히 초의의 차가 서울의 사대부들에게 토산(土産)이라 하여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였다.

위 글에 인용된 부대사(傅大士)는 제나라 동양군(東陽郡) 사람 부옹(傅翁)을 가리킨다. 그는 몽산(蒙山) 꼭대기에 암자를 짓고 차를 심어 삼년 만에 성양화와 길상예라는 좋은 차 다섯 근을 얻어 황제에게 바쳤다. 이 대목은 초의의 『동다송』 제29구에서 32구까지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를 통해 백과는 『동다송』을 섭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과는 설화차나 운유차도 뛰어나지만 초의차도 이에 못지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각림사 승려 지숭(志崇)의 경뢰소(驚雷笑)·흰초대(萱草帶)·자용향(紫茸香)의 삼품향차(三品香茶) 고사를 인용하여 말했다. 경뢰소는 차를 스스로 마시고, 흰초대는 차를 부처님께 올리며, 자용향은 차를 손님께 대접한다고 말했다. 이는 초의가 바로 부대사나 지숭에 해당하는 인물임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백과는 초의가 뛰어난 안목으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풀 더미 속에서 귀한 차잎을 찾아내 훌륭한 차를 얻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는 초의차가 여전히 절집에만 알려져 있고, 세상에서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초의의

322) 「海茶說」 余觀物之生，遐則遺，不遇則晦。不在桃李之門，人不知，不入終南之徑，材不市。悲夫！海陽之玉川茶，氣味芳烈，雪花雲腴，未之或勝。而遐俗恂愁，視之若稊稗。洛中士大夫見土產，則卑夷之，非從建陽之丹山碧水，不齒爐篆。彼固生長荒僻，倖免樵丁之鎌，則終混爲腐草槁槩，安能試百壽湯乎？近始得啜於大菴山房，曾是上人草衣所品製也。昔傅大士結菴蒙頂，分種聖楊花吉祥蕊，覺林僧志崇辨三品香，以驚雷笑自奉，萱草帶供佛，紫茸香待客，遂名於天下。草衣卽其流。靈心慧眼，采擇於草葉中，得其芳味之雋永，亦物之有遭歟？然蒙頂覺林，多入於當世之名士，題品以之著。草衣之茶，獨擅空門，而世未之稱。此由於士大夫遺視太高，誰肯蒐羅以續陸羽經乎？嗟夫！余之爲此說，不獨爲草衣茶，竊恨南土人士，含英蘊華，多有不遇之歎也。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pp. 548-551. 원문 신헌구, 『秋堂禊稿』 권1.

차생활을 육우의 『다경』과 같이 체계적으로 집대성을 할 사대부가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당시 차의 애호가들은 대부분 북학에 관심을 가졌던 인사들이었으며, 대부분 초의와 교류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김정희(1786~1856), 정학연(1783~1859), 신위(1769~1845), 홍현주(1793~1865), 이만용(1792~1863), 권돈인(1783~1859), 박영보(1808~1872), 신헌(1769~1845), 허련(1809~1893)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차를 지인들에게 전파했고, 결과적으로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한 세대를 넘지 못했다.³²³⁾

19세기 초 연파해장과 정다산의 만남은 차문화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고, 초의와 다산, 초의와 추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류는 서울 사대부들의 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들은 중국차와 비견할 수 없는 우리 차 고유의 색, 향, 미에 빠져들었으며, 대문사 다승들이 법제한 차는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선승들이 만든 차에 매혹된 유학자들은 시문에 차 이름을 명명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차문화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³²⁴⁾

초의차는 황상의 「걸명시」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당시 사대부들이 초의가 만든 차를 이렇게 거명(擧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대부들의 차의 취향이 서로 다르듯 초의 차를 부르는 이름도 다양했다. 사대부들은 시에서 초의차를 다르게 칭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9> 초의차의 이칭(異稱)

著者	詩語	異稱	出典
백과 신헌구	海陽之玉川茶 氣味芳烈 雪花雲腴 未之或勝 ³²⁵⁾	玉川茶	『추당잡고』
금령 박영보	南茶湖嶺間産也草衣雲遊其地 ³²⁶⁾	南茶	『雅經堂集』권4 「南茶并序」
	天上月擲小龍鳳 法樣雖麤味則然 ³²⁷⁾	小龍鳳	
	頭綱美製玉團圓 ³²⁸⁾	頭綱美製	
자하 신위	風味分嘗自製茶 ³²⁹⁾	自製茶	『警修堂全稿』 「北禪院續稿」
	乞序文於余 而遺以四茶餅 卽其手製 所謂寶林白茅也 ³³⁰⁾	寶林白茅	
	茗土得之寄江屋芽 白甌封題綠雪芽 ³³¹⁾	綠雪芽	
추사 김정희	灌頂甘露何以多乎 ³³²⁾	甘露	『완당전집』
	六茶可以霑此渴肺 ³³³⁾	六茶	
산친 김명희	籜包鷹爪手自開 ³³⁴⁾	鷹爪茶	『일지암시고』 「사차」

323) 박동춘, 「초의선사의 초의차완성과 그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86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p. 234.

324) 윤순희, 앞의 논문, p. 14.

유산 정학연	必經草衣與師手製者 ³²⁵⁾	手製茶	『유산일문첩』
운포 정학유	所賴惠手製珍品 猶不乏絕 ³³⁶⁾	手製珍品	『다암서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대부들인 경화사족들은 초의차를 통해 율화를 식히고 번뇌를 씻었을 뿐 아니라 심신을 정화시켰다. 김명희의 「부원운(附原韻)」에서 이들은 초의차를 “막힘을 뚫고 번뇌를 씻는 공 더 할 것이 없는” 차라 하였고, 이 차의 특징은 “향미를 따라 바라밀에 드는”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추사는 제주 유배 시절에 자신의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초의차로 달랬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초의차가 “병든 위를 말끔히 닦게 했다”고 말했고, “갑작스런 설사병에 걸려 (몸의) 진기가 몽땅 탈진되었으니 세상살이의 고통이 마침내 이런 것인가 하오. 다행히 차의 힘으로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으니”라고도 말했다. 이를 통해 초의가 만든 차는 향미가 좋았을 뿐만 아

325) 신현구, 『秋堂稜稿』 권1.

326) 박동춘, 『초의선사 차문화연구』, 일지사, 2010, p. 182.

327) 박동춘, 위의 책, p. 195.

328) 박동춘, 위의 책, p. 196.

329) 신위, 『警修堂全藁』 冊27 「代書答草衣師 并序」 往在庚寅冬. 大菴僧草衣訪余紫霞山中. 以其師玩扁三如塔銘. 乞余序并書. 序則成而書未成. 旋余湖海竄逐. 文字散亡. 序稿亦失. 甚恨之. 今年辛丑春. 草衣書來. 幸有其副本之在鉢囊中而搜出者. 十二年之久而重讀之. 如得汲冢古書. 始可以成書上石. 庶畢草衣之願也. 先以一詩賀之. 且謝佳茗之充信也. 海鎮山郵遷謫日. 恹惶文稿在亡多. 塔銘一失嗟無及. 禪墨重翻字不訛. 歲事終資千佛力. 勞心好作十年魔. 書來宛對繡經室. 風味分嘗自製茶. 유홍준, 송재소, 정해림, 『한국의 차 문화 천년』 1, 돌베개, 2009, p. 111.

330) 신위, 『警修堂全藁』 「北禪院續稿」 권1 草衣次余贈錦舫詩韻甚佳. 故更用原韻賦示. 時草衣爲其師玩扁大師. 建三如塔. 乞銘詩於海居都尉. 乞序文於余. 而遺以四茶餅. 卽其手製. 所謂寶林白茅也. 詩中并及之. 유홍준, 송재소, 정해림, 위의 책, p. 100.

331) 茗土得之寄江屋芽 白甄封題綠雪芽 大勝薑柱老. 박동춘, 위의 책, p. 215.

332) 病枕連見禪槭. 是一續慧命之神符. 灌頂甘露. 何以多乎. 茶惠夫醒病胃. 感切入髓. 況際此沈頓之中耶. 自欣向熏之各有遠貽. 其意良厚. 爲我代致款謝也. 熏衲之另贈. 朴生之葉茶. 恐不下於坡公麤茶芽. 香味絕佳. 幸更爲我再乞一包如何. 김정희, 『완당전집』 권5, 「여초의」 29.

333) 卽從邑便. 得接梵槭. 山中江上. 亦非他世. 一天所覆. 並在於鍼芥相引之際矣. 何過境之落落也. 臘下一寒. 可以冰硯水酒. 南陸似無此. 又況艸庵中耶. 邇況梵社. 團蒲香燈. 隨喜輕安. 念念. 此連在江干. 過臘春後. 似可重理湖屐矣. 六茶可以霑此渴肺. 但太畧. 又與熏衲. 曾有茶約丁寧. 不以一搶一旂相及. 可歎. 須轉致此意. 搜其茶篋. 以送於春襪. 爲好爲好. 艱草便忙. 不式. 김정희, 『완당전집』 권5, 「여초의」 32.

334) 정민(a), 앞의 책, p. 476.

335) 凡茶則是爲遼東豕也. 必經草衣與師手製者. 乃佳. 幸以一大包. 寄送於牧軒徐雅士如何. 徐雅亦當入長春洞. 必訪師矣. 付茶之託. 似不難耳. 臨便慮慮. 不万一緇. 惟禪鑿. 辛丑八月廿日, 宗末學淵頓首. 정민(a), 위의 책, p. 495.

336) 自檢病狀. 如奔車下阪. 到今年不能移步於房戶. 唯線息尚存. 所賴惠手製珍品. 猶不乏絕. 以此爲沃焦之甘露. 艸衣情貺. 今又繼至. 非兩師愛我之心. 如何及此. 臨書殊益惘惘. 臂弱不宜. 庚戌三月廿四日, 宗末學游頓首. 정민(a), 위의 책, p. 513.

나라, 맑고 시원한 품격을 지녔다고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삼매(茶三昧)’ 또는 ‘전다삼매(煎茶三昧)’ 등의 표현은 이러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 표현들은 차와 물이 어우러진 최고의 경지를 말한 것으로써, 조선 후기 사대부들이 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³³⁷⁾

백과는 『동다송』의 발문을 써주며 초의차의 우수성을 피력했다. 그의 발문은 일반적으로 『동다송』의 발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발문에서 조선 후기 대문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송유역불 정책으로 사찰의 차문화가 쇠퇴하였고, 의례는 사찰 내 각 전과 부도에서 행해졌으며, 차를 구할 수 없어 의례에 정화수를 올리기도 하였다. 조선의 사찰은 소박한 차생활을 통한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얻고자 하였으며, 이런 우리의 소중한 차문화를 초의는 『동다송(東茶頌)』의 저술로 그 맥을 이어가고자 하였다.³³⁸⁾

『동다송』은 대문사 승려인 초의가 스스로 “고인소전지의근술(古人所傳之意謹述)”이라고 말했듯이 당시 유행했던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저술된 것이었다. 이 책의 각 송(頌)에는 고인(故人)들의 여러 문헌과 사구(四句)가 적혀 있었는데, 초의가 술(述)한 송은 총 17송이었고, 여기에 백과의 제(題)를 합하면 『동다송』은 총 18송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⁹⁾

『동다송』은 우리나라 다서로서 매우 중요한 저술이었으며, 초의 나이 52세(1837년)에 차에 대해 물어 온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1793~1865)³⁴⁰⁾의 부탁을 받고 저술하였다. 초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고 누구나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차인이었다. 『동다송』을 저술하기 전에 이미 초의는 2년여에 걸친 숙고 끝에 『다신전』을 등초한 일이 있었고, 자하 신위로부터 전다박사(煎茶博士)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다.³⁴¹⁾

『동다송』에서 초의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차의 우수성을 말하였고, 당시의 차문화를 잘 설명해 주었으며, 차생활의 잘못된 실상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초의의 다도정신은 자주정신과 불교적 선사상이 자연합일된 정신으로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선 정신과 풍류도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특히 『동다송』의 핵심 단어인 중정

337) 박동춘, 앞의 책, pp. 233-234.

338) 해담, 「한국 사찰 차문화의 의미론적 고찰」, 『차문화·산업학』 15집, 국제차문화학회, 2010, p. 5.

339) 장성윤, 「韓國佛敎의 茶文化에 대한 考察-僧家の 茶生活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 87.

340) 호(號)는 해거도인. 정조(正祖)의 따님 숙선옹주(淑善翁主) 부마. 영명위(永明尉) 영의정 낙성(樂性)의 손자. 우부승지(右副承旨) 인모(仁模)의 아들. 어머니는 서(徐)씨. 좌의정(左議政) 숙주(奭周)의 아우.

341) 송해경, 「초의의순의 다도관 연구-『동다송』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p. 32-33.

(中正)은 초의만의 독특한 정신이 흐르고 있는 부분이다.³⁴²⁾

백과는 초의가 열반한 후 10여년이 지난 후에 『동다송』 발문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그 발문이 그의 문집인 『추당잡고』에 수록된 「화훼잡시」 20수 중 한 부분이었음이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추당잡고』 「화훼잡시」 20수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20> 『추당잡고』의 「화훼잡시(花卉雜詩)」 20수

번호	詩題	비고
1	山梅 山中玉梅千葉盛開羞晚於桃香時	玉梅
2	海棠 常疑俗全種海棠色?而有香南來始辨是玫瑰花眞海棠則色態絕艷果無香	海棠
3	竹林 南中處處有竹 盛林涼蘊最多	竹林
4	橘樹 惟近海處有橘而柑與柚出於耽羅	海處有橘
5	甘榴 氣候常暖隆冬不勞移封樹顧花繁其實多甘	甘榴
6	側柏 世稱側柏所在麴 魅狐湮不敢隱形	側柏
7	曼陀花 卽冬栢曾 有作歌	曼陀花
8	菩提珠 生於深山佛家 以其實作念珠海 中金剛珠爲次 自花珠又其次	自花珠
9	詹菴花 詹菴卽梔子花皆六出見 西陽雜組洛中只有盆栽	詹菴花
10	百日紅 本名紫薇益壽木也樹無皮花似 丁香而紅?成夏始開?秋檜繁	百日紅
11	彌毬花洛中多盆栽彌毬未有叢大者今夏山寺見樹高丈餘花葉甚盛僧謂佛頂花	佛頂花
12	玉簪花 花似玉	玉簪花
13	水仙花 水仙皆從中國來近年得於 海上溪谷間但着花者節罕	水仙花
14	錦娘花	錦娘花
15	碧瑰香 形如金錢花其色洗碧帝柔常下垂秋後開巖石間	金錢花
16	前秋羅形與石竹花相似而大五出皆枝如剪色甚紅艷其莖葉遂卽必????	前秋羅
17	靡草	靡草
18	甘蔗	甘蔗
19	香茶	香茶
20	囊荷	囊荷

백과의 『추당잡고』 권1에는 「화훼잡시」 20수 연작이 실려 있다. 그는 남쪽 땅에서 나는 초목화과(草木花果) 중 이름도 우아하고 서울서 보기 드문 것만을 골라 한 수 씩 노래했다. 「화훼잡시」 20수는 성정(性情)을 통한 자기표현을 중시하여 백과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의탁하여 표현한 시였다. 여기에서 영물이란 시인이 자신의 정서(情緒)를

342) 김경희, 『동다송』 과 『남방록』 에 나타난 다도정신 비교연구, 『한국민족사상학회-민족사상7』, 2013, p. 39. 참조.

사물에 의탁하여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사물을 음영(吟詠)하는 시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경우 물(物)은 평자(評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산수(山水), 풍경(風景), 초목(草木), 화훼(花卉), 오충(烏蟲)을 주된 것으로 삼았고, 나아가서는 천상(天象), 지리(地理), 기물(器物), 건축(建築) 등 자연만물(自然萬物)을 여기에 포함시켰다.³⁴³⁾

백과 「화훼잡시」의 제19수는 「향차(香茶)」였다. 이 작품이 바로 초의의 『동다송』 끝에 적힌 백과의 제시였다. 『동다송』은 따로 제목을 기록하지 않고 시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전후 경과를 알기 어려웠지만, 『추당잡고』의 원문 확인을 통해 이 시의 원제목이 「향차」³⁴⁴⁾임을 알게 되었다.

艸衣曾試綠香煙	초의가 일찍이 녹차향연 시험하니
禽舌初織縠雨前	새 혀처럼 처음 가는 곡우 전이로다.
莫數丹山雲澗月	단산의 운감월은 아예 꼽지 말지니
一鍾雷笑可延年	한 사발 뇌소차는 수명을 늘리리라.

위 시에 등장하는 ‘증시(曾試)’는 ‘신시(新試)’라고도 하였으며, ‘일종(一鍾)은 ’만종(滿鍾)이라고도 하였다.(草衣新試綠香煙, 一鍾一作滿鍾.)³⁴⁵⁾ 위 시는 초의가 찻잎 고르기를 부처 대하듯 하였고, 곡우 전에 한 잎 한 잎 정성을 들여 따고 뒤어서 만든 햇차를 달이는 모습을 묘사한 글이었다. 초의가 달이는 차는 천둥 벽력도 웃는다는 뇌소차(雷笑茶)였다. 백과는 이 차를 중국이 최고의 명품이라고 자랑하는 건양이나 단산의 월간, 운감차와는 비교도 하지 말라고 했다.³⁴⁶⁾

백과는 운감차와 월간월을 품제특존 운간월(品題特尊雲澗月)라 말했다. 하지만 『동다송』 역주에는 운간월이 월간(月澗) 운감(雲龕)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운간월은 운감과 월간 등 2개의 차가 아니라 하나의 차였다는 의미였다. 또한 이 차들은 물 이름으로 풀기도 했지만, 운감차와 월간차로 푸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였다.³⁴⁷⁾

백과는 『추당잡고』에 수록된 「향차」³⁴⁸⁾에서 초의의 차에 대해 자세히 평가하였다.

343) 卓孝榮, 「자하신위의 한시연구-禪思想과 茶文化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 135.

344) 신현구, 『秋堂襟稿』 권1.

345) 정민(a), 앞의 책, p. 553.

346) 김대성, 『東茶頌』, 동아일보사, 2009, pp. 209-210.

347) 김대성, 위의 책, p. 127.

348) 茶木成叢, 如瓜蘆, 葉如梔子. 經冬不凋. 秋始花, 如白薔薇. 心黃如金. 穀雨前後, 采新葉如雀舌, 爲茶品第一, 功效甚多. 僧草衣博識有雅致, 深得炒煎之法, 作茶頌頗詳, 比諸覺林之驚雷笑紫茸香, 蒙頂之聖楊花吉

차나무는 떨기를 이루어 과로(瓜蘆) 같고, 잎은 치자(梔子) 같아 겨울을 지나도 시들지 않는다. 가을에 비로소 꽃이 피는데, 백장미 같으며, 꽃술은 황금처럼 샛노랗다. 곡우(穀雨) 전후로 참새 혀처럼 생긴 어린잎을 채취한 것을 차 품질의 제일로 치며, 효능이 매우 다양하다. 스님 중에 초의(草衣)가 박식하여 아치(雅致)가 있으며, 뒤고 달이는 법을 깊이 터득하여 다송(茶頌)을 지었는데, 자못 자상하여 각림(覺林)의 경뢰소(驚雷笑) 자용향(紫茸香)과 몽정(蒙頂)의 성양화(聖楊花) 길상예(吉祥蕊)에 비길만하고, 동파(東坡)와 황산곡의 설화(雪花) 운수(雲腹)나 단산(丹山)과 벽수(碧水)의 운간(雲間) 월감(月龕)은 다 이에 미치지 못한다.

위 글의 첫 문장에 언급된 ‘과로(瓜蘆) 같고, 잎은 치자(梔子)’는 육우의 『다경』 「일지구」의 “차나무는 과로같이 생겼는데 / 잎은 치자와 같고”³⁴⁹⁾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한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뇌성벽력에 놀라 싹을 띄우는 차나무, 경칩(우수 다음인 양력 3월 5일 전후) 무렵에 딴 찻잎으로 만든 차 등 어린 싹을 의미하는 경뇌협(驚雷莢)을 초의는 경뇌소(驚雷笑)로 바꾸었던 것이다. 백과는 천둥벼락을 웃음으로 살짝 바꾸어 표현하였다. 딱딱하게 들리는 뇌협(雷莢)이라는 차 이름보다 천둥을 웃음소리로 생각한 것은 초의의 한 차원 높은 문학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뇌소나 뇌소는 「돌샘물로 차달이기(石泉煎茶)」에 ‘소매 속에 아직도 남은 경뇌소(袖裏尙餘驚雷笑)’ 및 ‘잔에 가득한 뇌소차(滿鍾雷笑)’로 쓰였던 것으로 보아 다른 글에서도 뇌소(雷笑)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³⁵⁰⁾

聞我巖居靜
披雲到松軒
掬泉烹雷笑
焚香演道言
英姿鶴毛古
清淡玉露繁

나의 암자가 조용하다는 말을 듣고
구름을 헤치고 예까지 찾아 주었지.
샘물을 길러 雷笑茶를 끓이고
향 피우고서 청담을 나누었네.
영령한 자태 학인 양 고아하고
맑고 담담한 성품 이슬 같구나.

위 시는 「道村 金仁恒의 집을 지나며」라는 시의 일부이다. 도촌 김인항(1749~1828)은 자연 속에 은거하며 심성을 도야했던 선비였다. 도촌은 초의의 인품을 듣고 멀리서 찾아와 지속된 만남을 유지하였는데, 초의로 하여금 그의 암자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수 읊게 하였다. 도촌의 은자적(隱者的) 기질이 초의 선사에게는 무척이나 친근하게 느껴

祥蕊, 以爲東坡山谷之雪花雲腴, 丹山碧水之雲澗月龕, 皆不及此. 신헌구, 『秋堂稊稿』 권1, 「향차」.
349) 茶樹如瓜蘆 葉如梔子. 육우지음, 류건집 주해, 『다경주해』, 도서출판 이른아침, 2010, p. 45.
350) 김대성, 앞의 책 p. 100.

졌을 것이며, 그들이 지닌 고아하고 청담한 품성은 두릉시회(杜陵詩會)의 문사들과 또 다른 인연을 맺게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³⁵¹⁾

다음 글은 향차를 통해 조선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래 글은 서반(序班)의 독점적 횡포를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무역품으로서 향차가 등장하였다.

11일 서종현이 종을 시켜 무늬 놓인 자기 찻잔한 쌍과 주란차(珠蘭茶) 두 병을 선물로 보내 왔는데, (중략) 서반(序班)이라는 것은 서리다. 사행이 연경에 도착하면, 예부에서 서반 10인을 뽑아 번(番)을 돌려 가며 아문을 직숙(直宿)하여 관아의 역사(役使)에 충당한다. 이들은 모두 지방의 성(省)으로부터 뽑혀 온 자들로 봉급이 매우 낮았다. 그리하여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연경의 화물(貨物) 중 좀 고상한 것은 모두 서반을 시키어 무역(貿易)을 주관하고 그 이윤을 먹도록 하였다. 때문에 서적·서화·붓·먹·향차 등은, 다른 상인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물가가 해마다 올라가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등쌀에 시달리게 되어 혹 그들 몰래 사고팔다가, 그들로부터 온갖 곤욕을 받기도 한다.³⁵²⁾

위 글에서 주란차는 화차(花茶)로서 모리화차, 금은화차, 민귀이화차, 백란화차, 계화차 등과 더불어 중국 주요 화차의 종류에 속하는 차였다. 당시의 사회적 현실로 보아, 서반들은 봉급이 낮았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남는 이윤을 챙기는 식으로 독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취급한 무역 품목에 향차가 있었으며, 서반들의 차 독점은 결국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었고, 이는 조선 사회의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⁵³⁾

이규보(李奎報, 1168~1241)도 자신의 「보광사에서 자다 (宿普光寺…)」³⁵⁴⁾라는 차사에서 향차를 언급하였다. 이 차는 고려 왕실의 어용차였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어용차가 아니면 원나라에 공물로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향차는 고려를 대표하는 중요한 차였음을 알 수 있다.

夢斷山窓落月光

꿈길 끊긴 산창에 달빛조차 가셨는데

351) 배규범, 「草衣意恂의 茶詩 연구 - 茶禪一如의 시문학적 해명」, 청주대학교.

352) 十一日徐宗顯 使其奴持畫磁茶椀一雙 珠蘭茶兩壺(중략) 序班者胥吏也 使行入京 禮部調序班十人 更番直宿 于衙門以備諸官役使 皆從外省選上俸食清貧 數十年以來 凡燕貨之稍雅者 皆令胥班主 其貿易而食其剩餘如書籍書畫筆墨香茶之屬 他商儉不敢與焉 以此物價逐年增高 東人苦其刁躄或有潛買詈辱, 『湛軒書外集』 권7, 「燕記」.

353) 노향미, 「조선후기 실학파의 차문화연구-이용후생학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8, pp. 34-35. 참조.

354) 송재소, 유흥준, 정해림, 조창록, 이규필 옮김, 『한국의 차문화 천년 3』, 돌베개, 2011, p. 103.

聳肩吟到日蒼涼
地溫尙有林衣綠
園古偏多木耳黃
七椀香茶風鼓腋
一盤寒菓雪侵腸
若將釋老融臆乙
莫斥吾家祖伯陽

어깨 곧추 세우고 해 저물 때까지 읊었구나.
따뜻한 따듯하니 아직 푸른 숲이 남았고
정원이 오래되어 유달리 누른 버섯 많다.
일곱 잔의 향차 겨드랑에 바람이 일고
한 쟁반 써늘한 과일은 창자에 눈이 스미는 듯.
만약 석가와 노자를 부을 같다고 본다면
우리 이씨에서 백양을 숭상하는 것 탓하지 마라.

위 시는 경련에서 ‘일곱 잔의 향차는 겨드랑이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기술했는데, 이는 이 차를 진하지 않게 끓여 다탕으로 마셨으며 차의 분량이 적게 들고 순한 맛으로 당시 선비들이 이 차를 널리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향차는 ‘향기로운 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명사로서의 향차를 의미하였다. 이에 승려 석용운도 향차는 향기로운 차가 아니라 향차라는 차의 이름이라고 말했으며, 『동국이상국전집』의 「다시화답하다」에 나오는 ‘타오른 불에 향기로운 차는 참으로 도의 맛있고 흰 구름과 밝은 달은 곧 가풍이었네.’³⁵⁵⁾에서의 향차는 차 이름으로 보아도 되고 향기로운 차로 해석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초의차의 위상을 밝힌 백파의 발문이 실린 『동다송』은 현재 여러 종류의 필사본과 인쇄본이 존재한다. 백파의 발문이 모든 판본에 다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판본의 종류로는 석오본, 석경각본, 다예관본, 경암본, 한국다문화연구소본, 다송자본, 불교전서본, 금명본, 송광사본, 범진본 등이 있다. 하지만 판본의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차이가 있다.³⁵⁶⁾ 판본에 따른 백파의 제시 유무는 다음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21> 『동다송』 판본에 따른 백파의 제시유무(題詩有無) 비교

판본종류	소장처	제시여부	비고
------	-----	------	----

355) “活火香茶眞道味 白雲明月是家風”, 『東國李相國集 全集』 권7, 「古律詩·復和」.

356) 석용운은 현존하는 판본은 다예관본, 석오본으로 나누고 있다. (석용운, 「동다송에 대한 고찰」, 「초의 선사 탄생문화제 학술세미나」, 무안군, 2004. pp. 35-36.) 김명배는 다예관본, 석오본, 범진본(守眞스님 소장), 금명본(송광사 도서관 소장), 연구소본(한국다문화연구소)을 들고 있다. (김명배, 「초의선사 다도 연구」, 『다도학논고』, 1999, p. 299.) 정영선은 석경각본, 한국불교전서본, 경암본 기타본으로 나누고, (정영선 편역, 『동다송』, 너럭바위, 2002, pp. 162-163.) 김대성은 다예관본, 석오본, 경암본, 다송자본으로 나눈다. (김대성, 『초의선사의 동다송』, 동아일보사, 2004, pp. 44-45.)

茶藝館本(鏡菴本)	태평양화학 다예관 소장	○	*1975년3월 『문학사상』 통권30호에 소개 *그해 11월 崔凡述의 『한국다도』 부록으로 실음 *1977년 김봉호가 『초의선집』에 수록 *1979년 2월 朴種漢의 『다도』로 간행 *1980년 12월 『한국다도자료총서』 제1집에 수록 *應松 英熙 소장 → 박종한 → 태평양 다예관 가로14cm, 세로17cm, 20장, 본문35면
石梧本	이일우 소장	×	*石梧 尹致英이 筆寫 *「초의시고」 跋文 및 「大光明殿 新建記」를 지음 *表紙에 石經閣藏이라 하였음 가로9cm, 세로24cm, 1면에 5행 16자
石經閣本	개인소장	×	*表紙에 石經閣藏이라 하였음
韓國 佛敎 全書本(錦 冥本, 寶 鼎本, 茶 松子 本, 松 廣寺 本)	10책	×	10책에는 책 서두에 「초의의순작」 되어 있다.
	12책	○	12책에는 오탈자 많은 편이다.

위 표의 석오본(石梧本) 앞표지에는 윤치영³⁵⁷⁾의 글씨와는 다른 필체로 원 제목 아래 「해거도인수힐제다지후수근술동다송일편이대(海居道人垂詰製茶之候遂謹述東茶頌一篇以對)」라고 작게 쓰여 있으며, 본문은 열 줄로 정확하게 줄을 그어서 한 줄당 16자의 글자를 정자로 또박또박 정서되어 있다. 『동다송』을 필구(筆舊)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초의시집 발문의 내용에서 “『동다송』 한편이 육우의 『다경』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1851년 발문을 쓰기 이전에 필사하여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 석오본은 화첩식으로 길게 묶어져 22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다송』의 본문은 한 줄로 크게 쓰여 있고, 주해는 두 줄로 작게 쓰여 있어 보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말미에는 백과가 제(題)한 칠언절구 부분이 없다.

다예관본(茶藝館本)은 경암본이라고 불리 우며 태평양 다예관이 소장하고 있는 본으로 오자와 탈자가 많지만, 백과의 제시가 있다. 한국다문화연구소 소장본은 맨 뒤에

357) 석오 윤치영(石梧 尹致英 ?~?)은 현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관여(觀汝), 호는(石梧)이고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辛亥年(1851)에 『초의시고』의 발문을 쓰고, 6월에는 「大光明殿新建記」를 지었을 정도로 초의의순(1786~1866)과는 친교를 가졌던 사람이다.

“동치갑술 중추 경암등초[國治甲戌 中秋 鏡菴騰抄]”라 쓰여 있는데, 이는 1874년 음력 8월 15일 추석에 승려로 짐작되는 경암이 필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때는 초의가 별세한 지 이미 8년이 지난 후였다. 경암본에는 오자와 탈자가 제법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표지 제목이 『동다송 권1』이라 쓰여 있다.³⁵⁸⁾ 석경각본(石經閣本)은 몇 군데 오자나 이자가 보일 뿐 석오본과 거의 같았다. 여기에는 백파 제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한국불교전서본(韓國佛教全書本)에는 10책과 12책 두 가지 판본이 실려 있었다. 10책은 책 서두에 「초의순작(艸衣意恂作)」이라고 되어 있었고, 백파의 제시가 없다. 그러나 12책은 백파의 제시가 있는 반면 내용에 있어서는 오자와 탈자가 많은 편이었다. 필사자인 금명보정은 송광사에서 출가하여 활동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³⁵⁹⁾

『동다송』의 판본 중 다예판본, 『한국불교전서본』 12책에 수록 되어 있는 백파의 제시를 통해 초의차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고, 백파는 사원차를 복원과 동시에 대둔사의 차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일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백파는 초의가 세상사에 대해 뛰어난 안목을 지닌 승려였으며, 훌륭한 차를 만들어낸 승려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초의차가 사찰에서만 알려져 있고, 세상에서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는 초의의 차생활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그의 책이 육우의 『다경』과 같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당시 차를 애호했던 사대부들은 대부분 북학파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초의와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백파는 『동다송』의 발문을 통해 초의차의 우수성을 피력했다. 그의 발문은 일반적으로 『동다송』의 발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 발문에서 조선 후기 대둔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백파 「추당잡고」의 「화훼잡시」의 제19수는 「향차(香茶)」였다. 이 작품이 바로 초의의 『동다송』 끝에 적힌 백파의 제시였는데, 여기에는 초의차의 우수성이 기록되어 있다.

358) 송해경,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지영사, 2009, pp. 178-179.

359) 송해경, 위의 논문, pp. 40-41.

V. 결론

본 논문은 백과 신헌구의 차생활이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의 학문적 성과와 차생활과 차문화를 문헌을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차문화 형성에 끼친 사회적·문화적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백과의 차생활을 고찰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 저술 활동, 차생활, 차문화에 끼친 영향 등을 고찰했다. 그의 문집인 『추당잡고』와 『백과만고』와 『양과집』은 그의 생애와 저술활동과 차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추당잡고』는 그의 차생활과 차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추당잡고』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한국 차문화 연구사에서 최초의 연구였다.

지금까지의 백과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과는 청렴한 관료였고 주변 사람들을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알려주는 인자한 성품의 인격자였다. 그는 오랜 관직생활 동안 청렴한 관리로 명성을 얻었으며, 시작을 게을리 하지 않아 문학에서도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의 학문적 능력과 청렴성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이런 그의 성품은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둘째, 백과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해남에서 보냈던 무료한 생활 모습과 복귀를 갈망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대문사를 드나들며 만났던 승려들과 교유한 내용, 대문사의 각 암자와 그 주위를 묘사한 내용, 불사의 참여를 독려한 내용, 불가의 사상과 철학을 흠모한 내용, 승려들을 위해 탐명을 써준 내용, 그리고 초의에 대해 극찬한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추당잡고』에 수록된 그의 시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지암시집발문』에서 승려와 사대부간 교유를 기술하면서 초의의 문학적 우수성과 탁월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차설」에서는 해남의 옥천에서 생산되는 차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하면서 차의 종류와 용도와 채집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의 저술은 불과 몇 권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그의 문학적 업적과 위상을 자세하게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 본 논문이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은 『추당잡고』에서 그의 문학 세계와 사상 그리고 차생활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셋째, 『백과만고』는 백파가 1868년부터 1872년까지 암행어사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의 기행을 시로 묘사하였다. 그의 『백과만고』는 서정적이고 서경적이며 낭만적인 시들을 담고 있다.

넷째, 『추당잡고』와 『양과집』에서 해남차의 우수성과 차도구 등을 설명할 정도로 차생활을 즐겼다. 그가 해남차의 우수성을 알렸던 수단은 시였으며, 이를 통해 차와 시의 문학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그의 차에 관련된 시는 『양과집』보다 『추당잡고』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차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도 등장한다. 그의 『추당잡고』에는 차시가 11수정도 수록되어 있다. 그는 차를 단순한 기호음료로 생각하거나 시적 정취를 맛보기 위한 형식적 음료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차와 관련된 용어나 다구뿐만 아니라 차의 약리적 효능까지 자세히 설명할 정도로 조선 후기의 중요한 차인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꾸준한 차생활을 통해 터득되었는데, 여기에는 차의 고유한 성질에 대한 해박한 지식, 차음용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차의 약리적 효능, 그리고 차에 대한 학문적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으며,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고, 대중들의 일상적 음다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양과집』은 백파와 송파 두 사람의 시문을 한데 엮은 필사본이었으며, 이 문집의 두 사람의 교유시를 통해 백파의 차생활과 당시의 차문화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양과집』에 수록되어 있는 백파의 차시는 『추당잡고』보다 훨씬 적었으며, 다섯 수 정도의 차시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의 『양과집』에 수록된 차시에는 해남에서 차를 판매할 정도로 차가 많이 생산되었다는 내용, 향과 색이 좋은 응조차를 선물로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육우의 『다경』을 시험해 본다는 내용이 등장했는데, 이는 그의 차생활이 매우 전문적이고 실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차의 색과 향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경』도 섭렵하고 있었다. 이는 백파가 차에 대해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차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섯째, 백파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사대부 31명과 교유한 내용과 교유시 104수가 적혀있다. 『양과집』에는 그가 사대부 17명과 교유했으며, 교유시는 32수에 달한다고 적혀있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며, 이들과 교유했던 승려들은 유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이는 조선 후기에 유불사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학자와 승려 간 소통과 대화를 이끈 대표적 수단은 시와 차였다. 여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 자신의 암울한 처지, 유불사상과 철학, 그리고 차문화 및 차도구 등이었으며, 이런 사실은 『추당잡고』와 『양과집』에 잘 나타

나 있다.

일곱째,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승려와 자연스러운 교유를 맺었다. 백파가 해남 유배 기간 동안 불승들과 교유한 기간은 5년이었지만, 그의 교유 폭은 매우 넓었다. 그는 불교의 사상과 철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대둔사를 자주 드나들었고, 참선으로 도를 깨친 승려들과 차를 마시며 교유하였다. 그는 대둔사 방문과 승려들과의 차생활 교유를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많은 위안을 느꼈다. 백파는 승려들이 차를 달이던 모습과 풍습을 시로 표현했으며, 대둔사 차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백파의 『추당잡고』에는 그가 승려들에 대해 다양한 글을 써준 정황들이 나타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입적한 승려들에 대한 글이다. 이 문집에 수록된 글은 총 472수이다. 이 가운데 불교를 소재나 주제로 한 작품은 대략 40여수이다. 이는 그가 대둔사의 승려들과 교유를 통해 불교의 사상과 철학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 안정과 자기 성찰의 계기를 찾았다는 의미였다. 그는 대둔사에서 불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긍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승려들과의 이념적 차이를 인간적 교류로 승화시켰으며, 차와 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음의 소통을 이어주는 초월적 인간관계를 맺었다.

여덟째, 조선 후기 대둔사의 차문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둔사의 차문화는 백파의 『추당잡고』를 통해 자세하게 조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차생활이 당시의 차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작업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는 『추당잡고』 속 백파의 차생활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본 논문이 조선 후기 차문화에 백파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고찰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둔사는 불교와 유교가 교합하는 중심지였으며, 유불사상의 중심지였고, 사대부와 승려 간 교유의 중심지였다. 그의 문집 『추당잡고』에는 그가 해남의 두륜산을 유람하며 승려들과 주고받은 시와 암자들에 관한 시 등 대둔사와 관련된 많은 시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는 대둔사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둔사에서 승려나 유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초의를 알게 되었으며 『동다송』과 『다신전』 등을 읽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대둔사의 다풍(茶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대둔사의 차문화를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백파는 초의가 세상사에 대해 뛰어난 안목을 지닌 승려였으며, 훌륭한 차를 만들어낸 승려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초의의 차생활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그의 책이 육우의 『다경』과 같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당시 차 애호가였던 사대부들은 대부분 북학파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초의와 긴밀하게 교유

하고 있었다. 백파는 『동다송』의 발문을 통해 초의차의 우수성을 피력했다. 그의 발문은 일반적으로 『동다송』의 발문이라고만 알려져 왔었는데, 이는 『추당잡고』의 「화혜잡시」의 제19수 「향차」이다. 이 발문에서 초의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백파 신헌구의 차생활과 조선 후기 차문화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면서 『추당잡고』에 대해 최초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백파의 차생활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차문화의 발전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추당잡고」를 학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이전의 논문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기 위함과 향후 한국 차문화의 학문적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1. 원전

- 謝靈運, 『文苑傳』 卷6
 覺岸, 『梵海禪師詩集』,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李時珍, 『本草綱目』 卷9
 惠楫, 『철선소초』,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意恂, 『東茶頌』,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_____, 『茶神傳』,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_____, 『艸衣詩藁』,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李穡, 『牧隱集』 卷6
 黃玹, 『梅泉集』 卷5
 『古今事文類聚 前集』 卷6
 『湛軒書』 外集 卷7
 『東國李相國集』 卷7
 『斗南詩選』, 한국학중앙연구원
 『梅屋書甌』, 한국교회사 연구소
 『山海經』 卷10
 許筠, 『惺所覆瓿藁』
 『兩坡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六老山居詠』, 김민영 소장
 『晉書』
 『秋堂襍稿』 卷1, 2, 연세대학교 소장

2. 단행본

- 고령신씨 귀래정 안협공파 도사공파종중회, 『영친세승』, 2013.

- 고령신씨 안협공파 종중회, 『조선왕조실록·승정원실기에 기록된 백과 신현구 선생의 행적』, 2013.
- 고월용운의 율김, 『동다송.다신전』, 동국역경원, 2010.
- 金明培 譯著, 『中國의 茶道』, 明文堂, 2007.
- 김대성, 『초의선사의 동다송』, 동아일보사, 2009.
- 김민영 소장, 『불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스님의 일상』, 동국대학교, 2007.
- 김영봉, 『秋堂程稿』 고서해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2004.
- 김영호편역, 『소치실록』, 서문당, 2000.
- 김정희, 『완당전집』, 민족문화추진회, 1986.
- 류건집, 『동다송 주해』, 이른아침, 2009.
-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 연구』, 일지사, 2010.
- 박인호, 『한국사학사대요』, 이희문화사, 1996.
- 박철상,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 간찰집』,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 범해, 『동사열전』, 김윤세, 광재원, 1991.
- 석용운, 『韓國茶藝』, 도서출판 초의, 2009.
- 송해경,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지영사, 2009.
- 송희경, 『조선후기 아회도』, 다할미디어, 2008
- 신현구 저, 전규호 역, 『白坡漫稿』, (주)인쇄향, 2014.
- 신현구, 『백파집』, 고령신씨안협공파종중회, 2013.
- _____, 『유목집』, 고령신씨안협공파종중회, 2016.
- 유홍준, 송재소, 정해림, 『한국의 차 문화 천년』 권1-3, 돌베개, 2009.
- 육우 지음, 류건집 역주, 『茶經 註解』, 이른 아침, 2010.
- 이목 지음, 류건집 주해, 『茶賦 註解』, 이른 아침, 2012.
- 이세영, 「19세기 전기 사회경제의 변동」,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이종찬외 율김, 『일지암문집』, 동국역경원, 2010.
- 임종욱, 『草衣選集』, 東文選, 1993.
- 임혜봉, 『茶聖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맥』, 상지사, 2001.
- 정 민, 『다산의 재발견』, (주)휴머니스트, 2011.
- _____,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 정병삼, 「19세기의 불교사상과 문화」,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 풍계현정, 김상현 율김, 『일본표해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황현, 임형택의 읍감, 채호기 펴냄, 『매천야록·원문 교주본』, (주)문학과 지성사, 2005.
 『고령신씨세보(高靈申氏世譜)』 卷3.
 『大菴寺志』, 大菴寺志刊行委員會, 康津文獻硏究會.

3. 학위논문

奇敬姬, 「許筠의 茶文化 硏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성숙, 「백련사의 차문화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南貞淑, 「朝鮮時代 佛敎 茶文化 硏究-禪僧 茶詩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노향미, 「조선후기 실학파의 차문화연구-이용후생학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배규범, 「草衣意恂의 茶詩 연구 - 茶禪一如의 시문학적 해명」, 청주대학교.
 송해경, 「초의의순의 다도관 연구-『동다송』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양유선, 「18-19세기 조선사대부의 다문화(茶文化) 통한 경관 향유방식에 관한 연구-다산 정약용이 차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吳京厚, 「朝鮮後期 僧傳과 寺誌의 編纂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吳洪國, 「大院君 國防力 強化 政策 硏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윤순희, 「19세기 대흥사 다풍에 관한 연구-범해각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정옥,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 본 차문화」,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장성운, 「韓國佛敎의 茶文化에 對한 考察-僧家의 茶生活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卓孝榮, 「자하신위의 한시연구-禪思想과 茶文化를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韓基貞, 「18, 19 조선지식인의 차문화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4. 일반논문

- 김경희, 「『동다송』과 『남방록』에 나타난 다도정신 비교연구」, 『한국민족사상학회-민족사상7』, 2013.
- 김상일, 「조선 중기 사대부와 승려와의 교유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39집, 2002.
- _____, 「조선전기 훈구사대부의 유불 교유론과 승려와의 교유시」, 『우리어문연구』 제25집, 2005.
- 김석태, 「梵海覺岸의 頭輪山 漢詩」, 『韓國言語文學第』 第73輯, 2010.
- 김효정, 「조선후기의 차문화연구-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차문화·산업학』 제18집, 2011.
- 박동춘, 「초의선사의 초의차완성과 그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86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 박해당,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승려문집의 서문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28집, 2012.
- 신미경, 「조선후기 차문화」, 『한국전통문화연구』 제 10호, 2012.
-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 이정주, 「홍선대원군 李晞應(1820-1898)의 불교 후원과 그 정치적 의미」, 『역사와담론』, 호서사학회, 2015.
- 이희재, 조윤희, 「19세기 대문사 학승들의 유교경전 이해」, 『범한철학』 28집, 2003.
- 정 민, 정학연의 「공후인시첩고」, 『다산학』 17호, 2010.
- _____, 「다산 逸文을 통해 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한국한문학연구』 제50집, 2012.
- 조인숙, 「조선전기 사대부의 다시로 고찰해 본 차문화의 성격」, 『차문화·산업학』 제19집, 2011.
- 현봉(玄鋒), 「금명 보정(錦溟寶鼎)의 종통(宗統)과 다풍(茶風)」, 松廣寺 다맥(茶脈)의 재발견 학술대회, 2015.

5. 한국고전 DB

- 김정희, 『완당전집』 권5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권20

조영치, 『후청록(侯鯖錄)』 권3
『승정원일기』

6. 인터넷

<http://blog.naver.com/ijangzip?Redirect>, 「다시 보는 해남 땅 구석구석20」.

<http://home2.ulsan.ac.kr>.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 정민, 「방안에서 혼자 하는 생각」.

<http://news.join.com/article>, 박동춘, 「찾물 끊는 소리에 정치적 상실감 잇은 포은」.

<http://terms.naver.com/entry>.

<http://www.goshin.or.kr>, 고령신씨대종회 종회자료실.

<http://www.itkc.or.kr>.

<http://www.sejongkorea.org>, 『한국고전용어사전』.